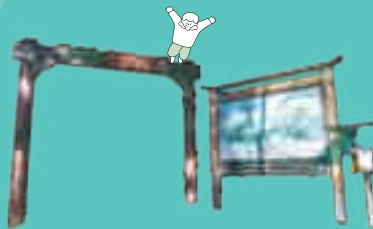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71-3830000-100020-14

관양동

관양동은 관악산과 학의천을 따라 형성된 농경·주거지였으나 산업화 이후 공업지역이 혼재하고 있다. 관악산과 평촌신도시 경계에 있어 자연과 도시 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관양지구 개발로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조성되며 현대적 주거지로 재편되었다.



제15권
관양동



기획 방향과 구성

○ 안양시사는 총 20권으로 제작되었다.

권	제목	권	제목	권	제목	권	제목
01	지리와 환경	06	산업구조와 산업생태계	11	안양동	16	호계동
02	역사와 지역사회	07	시장과 지역상권	12	박달동	17	평촌동 & 평촌신도시
03	지방자치	08	교육과 문화	13	석수동	18	안양역 & 안양1번가
04	도시의 형성과 성장	09	노동세계와 노동문화	14	비산동	19	안양유원지 & 안양예술공원
05	건축과 주거의 변화	10	시민사회와 생활세계	15	관양동	20	금천지

- 제01~10권은 안양시의 지리, 역사, 지방자치, 산업, 상권, 교육과 문화, 노동, 시민사회 등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구성하였다.
- 제11-19권은 안양시의 공간을 단일한 생활 공간과 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공간으로 구분하여 권을 구성하였다. 단일한 생활 공간은 법정동을 단위로 하였고, 다양한 문헌자료와 구술자료를 활용하여 자연 및 인문환경, 지역의 변화, 주민들의 생활 모습 등을 서술하였다. 상징적 공간은 안양의 전통적 도심이었던 안양역과 안양1번가, 국민관광지로 이름을 날린 안양유원지와 이후의 안양예술공원, 수도권 1기 신도시인 평촌을 대상으로 하여 각 공간의 역사 및 경관 변화와 사람들의 이야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제20권은 1950년, 시흥군에서 발간된 『금천지(衿川誌)』를 완역하여 수록하였다. 『금천지』는 당시 중심 지역인 안양읍을 포함한 시흥군의 사회·교육·행정·문화 등을 소개한 군지(郡誌)이다.

서술의 범위와 원칙

-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상 안양시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 간 비교나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 시간적 범위 : 권별 주제와 특성에 맞게 서술 내용의 범위를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 내용적 범위 : 각 권의 기획 취지와 해당 주제에 맞게 목차와 항목을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전체적인 체제와 내용의 충실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문과 첨삭을 하였다.

저작권과 출처

- 이 책의 저작권은 안양시에 있다. 이 책에서 사용한 도표와 사진 등에는 출처와 저작권자를 표기하였다. 출처와 저작권자 표기가 없는 경우는 안양시 제작·소장 또는 집필자 제공 자료임을 밝혀둔다.
- 집필자가 제공한 자료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및 관련 문제의 책임은 해당 집필자에게 있다.
- 이 책에서 사용한 지도와 항공촬영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한 것이며, 필요에 따라 구글 지도·네이버 지도·카카오맵을 사용하였다.
- 이 책에 수록한 내용과 도표 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별도의 저작권자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contents

1 관양동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변천 / 006

제1장 관양동의 지리와 생활터전 / 008

제2장 관양동의 도시공간과 도시개발 / 048

2 전통과 공동체가 살아 있는 관양동 이야기 / 082

제1장 관양동의 자연마을과 자연마을연합회 / 084

제2장 마을의 안녕을 비는 관양동 수촌마을 도당제 / 112

제3장 부림교회에서 동은교회까지, 100년의 역사를 넘어서다 / 136

제4장 관양초등학교의 시간을 꺼내 보다 158

3 산업에서 상권까지, 관양동 경제의 흐름 / 182

제1장 인덕원동 공업지역의 자동차 산업 184

제2장 이웃과 정이 머무는 곳, 관양시장 / 202

제3장 교통중심지에서 도심 상권으로 변화하는 인덕원 / 226

4 주민들이 채워가는 관양동의 삶터 / 252

제1장 관양동의 주거 명당, 관양현대아파트 / 254

제2장 인덕원동의 '올래마을' 만들기 / 282

제3장 인덕원동 '새마을'의 시작과 의미 / 302

제4장 안양의 명소, 관양동 동편마을 카페거리 / 318

5 관양동에서 이어지는 삶의 기억과 공동체의 미래 / 340

제1장 대한전선 안양공장 사택촌의 기억 / 342

제2장 안양의 정서와 풍경을 빚어낸 포도 이야기 / 360

제3장 아이들의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여는 관양동 해밀지역아동센터 / 380

01

관양동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변천

제1장 관양동의 지리와 생활터전
제2장 관양동의 도시공간과 도시개발



제1장

관양동의 지리와 생활터전

손승호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



1. 관악산 남사면의 양지바른 곳에 자리한 시가지

1) 안양시의 동쪽에서 교통이 편리한 마을

관양동(冠陽洞)은 안양시의 동부에 자리한 법정동의 명칭이며, 이곳에는 법정동 명칭과 동일한 관양동을 비롯해 인덕원동, 부림동 등 3개의 행정동이 있다. 관양동이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으로 모두 사용되므로, 이 글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법정동으로 간주한다. 관양동의 동쪽은 과천시와 맞닿아 있으며, 남쪽은 평촌동과 경계를 형성하고 서쪽에는 비산동이 자리한다. 관양동의 행정 경계가 북쪽이 좁고 남쪽이 넓은 삼각형 모양이기에, 서북쪽이 비산동과 닿아 있고 동북쪽이 과천시와 닿아 있는 형상이다. 북쪽 끝 지점이 관악산 정상과 직접 닿아 있는 것은 아니다. 관악산 정상부는 관양동의 북쪽 끝 지점에서 산 능선을 따라 이동하며, 이 능선은 비산동과 과천시의 경계를 이룬다.

안양시의 가장 동쪽에 자리한 관양동은 과천시와 경계를 이루는 지역인 동시에 북쪽으로 관악산줄기가 뻗어 내려오기 때문에, 시가지의 동쪽과 북쪽은 도시화의 물결이 닿지 않아 자연환경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근래 들어 관양동의 동쪽 산자락에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일부 산지가 도시공간으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관양동과 과천시 사이에는 임야나 농경지와 같은 자연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남쪽은 평촌신도시 개발에 따라 형성된 신시가지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며 서쪽에는 도시화가 진전된 비산동이 마주한다. 학의천 남쪽은 1992년 건설된 평촌신도시의 고밀 시가지로 구성된다.

관양동의 북쪽에 자리한 관악산줄기는 남쪽으로 뻗어 내리며 경사가 점진적으로 완만해지다가 학의천 일대에서 거의 평지로 전환된다. 이 산줄기는 관양동의 북쪽에 있



안양시의 동쪽 경계에 자리한 관양동

는 팔각정 부근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며, 동쪽으로 뻗은 산줄기는 관양동과 과천시의 경계를 형성하고, 서쪽으로 뻗은 산줄기는 관양동과 비산동의 경계를 형성한다. 이 두 개의 산줄기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산줄기 사이에 골짜기를 형성하였다. 골짜기에는 마분산천과 하천 주변의 풍부한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어, 일찍부터 관양동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마분산천은 남쪽으로 흘러 학의천에 합류하는 소하천이다. 관양동의 초기 주거지는 학의천 북쪽의 골짜기와 완사면에서부터 발달하였다.

학의천 남쪽은 오래전부터 농경지로 사용되었고 사람은 거의 살지 않았다. 관양동의 자연마을은 산사면과 골짜기 등지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농경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로를 따라 주변으로 퍼져나갔다. 안양역에서 과천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개설되고, 이 도로가 1980년대 들어 포장도로로 개수되면서 관양동에서는 도로변과 마분산천이 흐르는 골짜기를 중심으로 수촌·마분·중촌·간촌·부림말·동편말·인덕원 등의 마을이 성장하였다. 평촌신도시 개발이 완료된 후 과거 농경지로 활용되었던 달안이들에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관양동의 시가화 구역이 더욱 확대되었다.

시가지를 통과하는 주간선도로는 경부선 철도의 안양역 개설 이후 안양역과 과천을

있는 신작도로 최초 개설된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이다. 관양동을 동서 방향으로 관통하는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관악대로)은 오래전에 개설되어, 안양역에서 관양동을 지나 과천 방향으로 향하며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으로 연결되는 도로이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은 국도 1호선에 비해 교통량이 적었고, 관양동 구간은 비포장이어서 통행량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 도로는 확대 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안양에서 서울의 동남부로 진입하는 차량의 통행이 증가하면서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정부에서는 관양동 구간이 포함되는 이 도로를 대전광역시 서구와 안양시 비산동의 비산사거리를 잇는 대전~안양 선 국도 57호선으로 지정하고자 했지만, 국가의 재정 부족으로 국도 지정을 포기하였다. 이 도로는 1996년 7월에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으로 지정되었으며, 안양시 비산사거리에서부터 관양동과 인덕원사거리를 지나 의왕시-성남시-광주시-용인시-안성시 등의 경기도 구간을 통과한다. 관양동의 동쪽으로 국도 47호선이 남북 방향으로 통과하는데, 이 도로에서는 인덕원사거리부터 학의천에 이르는 구간만 관양동에 포함된다. 따라서 주간선도로만 따지면, 관양동에서 중요성이 큰 도로는 시가지 전체를 동서로 관통하는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이다.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과 국도 47호선은 인덕원사거리에서 교차한다.

관양동 시가지를 통과하는 도로망은 신시가지인 학의천 남쪽과 오래된 시가지가 많은 학의천 북쪽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신시가지는 몇 개의 간선도로가 시가지를 통과하지만, 학의천 북쪽의 시가지는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관악대로)에서 파생된 소로들이 시가지를 통과한다. 학의천 남쪽을 통과하는 도로에는, 비산동과 경계를 형성하는 평촌대로를 비롯해 관평로·부림로·별말로·흥안대로·시민대로·달안로·학의로 등과 이들 도로에서 파생된 도로가 있다. 학의천 북쪽을 통과하는 도로에는, 주도로인 관악대로를 비롯해 관양로·관평로·동편로·흥안대로·삼현로·안양판교로 등과 이로부터 파생된 도로가 있다. 이 가운데 관평로와 흥안대로(국도 47호선)는 관양동을 남북으로 통과하는 도로이다. 안양판교로는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의 인덕원 동쪽 구간이고, 삼현로는 안양과 과천시에 걸친 도로이다.

수도권 1기 신도시로 개발된 평촌신도시가 1992년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함에 따라, 주민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전철 4호선이 과천을 지나 평촌신도시로 연장되었다. 관양동에는 수도권 전철 4호선의 인덕원역과 평촌역이 설치되어 있어 주변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게다가 안양성남고속도로에 설치된 북의왕IC는 인덕원사거리에서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다.



관악로를 보수하는 관양동 주민들(1973년, 안양시청 제공)



1977년 관악로 도로포장 공사 완공(안양시청 제공)

2) 관악산을 등지고 남쪽을 향한 시가지

관양동은 북쪽의 산지와 남쪽의 농경지를 기반으로 형성된 마을이었다. 관양동의 북쪽에는 조선시대 한양에 도움을 정할 때 풍수지리상 한양의 바깥쪽 울타리에 해당하는 외사산(外四山)의 하나인 관악산이 있다. 관악산은 애니미즘(animism)에서 유래된 사방 수호신 가운데 남쪽에서 불의 기운을 나타내며, 공작으로 표현되는朱雀(朱雀)에 해당한다.¹ 관악산에서 남쪽으로 뻗은 산줄기는 곳곳에 골짜기를 형성해 놓았고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하천과 주변의 평지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었다.

산의 정상부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속하는 관악산(冠岳山, 632m)은 안양시·과천시와 서울시 관악구와 금천구에 걸쳐 있는 산으로, 정상부가 큰 바위기둥과 같은 모양이라는 데에서 ‘갓처럼 생긴 산’이라는 의미의 ‘갓 뵈(간 뵈)’ 또는 ‘관악(冠岳)’이라 불렸다. 관악산은 송악산·운악산·화악산·감악산과 함께 경기도의 오악(五岳)으로 꼽힌다. 봉우리와 바위가 많고 오래된 식생을 품고 수려한 산세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 마치 금강산과 비슷하다는 데에서 ‘소금강(小金剛)’ 또는 서쪽의 금강산이라는 의미에서 ‘서금강(西金剛)’으로도 불렸다.² 관악산은 1968년 1월 15일 도시자연공원(건설부 고시 제34호)으로 지정되었다. 여러 도시가 둘러싸고 있는 산이어서 많은 등산객이 찾는 휴식처이자 수도권 명산으로 등극하였다.

정상부로 향할수록 석산(石山)의 성격을 드러내는 관악산은, 중생대 대보화강암이 관입함에 따라 동서와 남북 방향의 길이가 각각 약 8km에 달하는 원형의 산지이며, 안성시 칠장산에서 수원시 광교산을 거쳐 한강 남쪽으로 향하는 산줄기에 자리한다. 관악산은 곳곳에 기반암인 화강암이 노출되어 있어 해발고도에 비해 험준한 산세를 형성하기에, 관악산을 대표하는 지형경관은 지표 위로 솟아오른 화강암 지형이다.³ 관악산의 대규모 돌출 지형은 화강암의 수직절리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정상부는 기반암인 화강암이 그대로 노출된 석산 성격이 강하다. 산의 정상부에는 노출된 기반암이 많아, 바위로 이루어진 명소가 형성되어 있다. 관악산은 해발고도가 낮아질수록 기반암의 노출 정도가 완화된다는 특이 현상도 있다. 특히 해발고도 200m 이하의 구간은 노출된 기반암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토산(土山)의 성격이 강하다. 장시간에 걸친 풍화와 침식으로 관양동의 산사면은 부드러운 흙이 많아졌으며, 이는 관양동 골짜기에서 농경 활동을 하기에 유리한 토양조건을 제공해 주었다. 산의 정상부에서부터 관양동의 동편마을 아파트에 이르는 구간의 산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관악대로가 지나는 관양동(행정동)





학의천을 끼고 있는 인덕원동



관악산은 조선의 도읍지 선정에 영향을 미친 풍수지리 사상에서 조산(朝山)으로 인식되는 상징적 가치를 지니는 동시에, 현대로 진입하는 시기에는 생태적 가치가 강화되고 여가 및 휴양이라는 요소가 첨가되면서 수도권 남부에서 생태계의 거점기능을 하는 근교 지역의 산으로서 기능한다. 도시민들이 관악산을 자주 방문하는 이유는, 산을 이용하기 유리한 시설, 관광자산, 생태 요소, 편의성, 환경 등의 여러 요인이 양호하기 때문이다.⁴

관악산 정상에서 말단부인 관양동으로 뻗은 산줄기가 만들어 놓은 골짜기와 농경지를 배경으로, 골짜기 산사면에는 오래전부터 사람이 거주하였다. 이곳에 들어선 마을로 동편(東便)과 간촌(間村, 산말)이 대표적이다. 산줄기의 끝자락에서 학의천 변의 농경지와 접촉하는 지점에는 마분(馬墳, 말무덤이), 부림말(富林里, 부림촌), 중촌(中村, 가운데말) 등의 마을이 자리하였다. 간촌과 동편마을 사이의 조그마한 골짜기에는 5가구 정도가 거주하였는데, 골짜기의 이름을 따 소능골(小能谷)로 불렸다. 산말 북쪽에는 보성 오씨 오익서(吳益瑞)의 후손들이 모여 살면서 형성한 집성촌 오촌말도 있었다. 이들 마을은 토목골과 완쟁이골을 배경으로 자리 잡았다.

3) 문전옥답을 관통하는 학의천을 바라보던 마을

1970년대까지만 해도 관악산의 남쪽 끝사면에 들어선 자연마을을 제외한 학의천 주변의 땅은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학의천은 의왕시 학의동의 백운산 북쪽에서 발원하여 백운저수지를 지나 관양동을 관통하고 안양천에 합류하는 하천이다. 학의천은 유로연장 11.6km에 유역면적 41.2km²에 달하는 지방하천이다.⁵ 발원지의 이름을 따 ‘학고개천(鶴古介川)’으로 불리기도 했고 인덕원 근처를 통과하는 하천이라는 데에서 ‘인덕원천(仁德院川)’으로도 불렸다. ‘학의’라는 지명은 광주군 의곡면 학현동(鶴峴洞)과 의일의 동(儀逸外洞)으로 존재하던 마을이 1914년 통합되면서 각각 한 글자씩 따서 생겨났다. 학고개천은 학현(鶴峴)의 순우리말 지명에서 파생된 것이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여지도서』에는 인덕원천이 안양천의 지류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어 있는데, 그 위치를 추정하면 지금의 학의천이다.⁶

학의천의 지류에는 마분산천·갈현천·청계천 등이 있지만, 청계천은 안양시 구간을 통과하지 않는다. 관양동에서 유로가 나뉘는 하천은 마분산천이다. 마분산천(馬墳山川)은 관양고등학교의 동쪽을 흐르는 하천으로, 완쟁이골의 해발 180m 지점에서 발원하여 관양동의 시가지지를 통과한 후 학의천에 합류한다. 과거에는 유로가 노출되어 있었지만,



도시화 이전 관양동의 농경지를 동서로 지나는 학의천(1964년)

지금은 농경지 사이를 흐르는 관양고등학교 부근까지의 유로만 남아 있고 그 아래의 주택 밀집 지역은 복개되어 유로를 확인할 수 없다. 하천의 이름은 마분의 뒷산을 마분산이라 부르면서 마분산천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골짜기의 이름을 따 ‘완쟁이개울’로 불렀다.

갈현천(葛峯川)은 유로연장 2.8km, 유역면적 3.8km²의 지방하천으로, 과천시 갈현동에서 발원하여 국도 47호선의 서쪽에 접해 평행하게 남쪽으로 흐르다가 관양동에서 학의천에 합류한다. 이 하천의 물길 역시 인덕원사거리부터 학의천 구간은 복개되었다. 하천의 이름은 발원지인 갈현동에서 유래하였다. 갈현의 지명유래에 대해서는, ‘물을 가르는데 고개’라는 뜻인 ‘가루개’의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가루개 또는 갈현이라고 불렀다는 설, ‘굽이 많은 고개’라고 하여 ‘갈현’이라고도 불렀다는 설이 있다.⁷ 갈현천이 흐르던 구간은 본래 관악산과 청계산의 산줄기가 끝나는 부분이어서 해발고도가 낮았고, 학의천 북쪽에 펼쳐진 농경지가 지금의 과천 시내까지 연속적으로 분포하던 구간이다. 과천에 정부종합청사가 건설되고 농경지에 시가지와 도로 등이 건설됨에 따라 갈현천의 물길은



1974년 학의천 제방 공사(안양시청 제공)

소규모로 축소되어 버렸고, 농경지는 인덕원사거리 서북쪽에 일부 남아 있다.

학의천은 1980년대 들어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와 공업화로 인해 수질이 지극히 불량한 상태가 되었고 죽음의 하천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하였다. 1990년 학의천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93ppm에 달해 농업용수의 오염 기준치(8ppm)를 10배 이상 초과하기도 했다.⁸ 학의천은 평촌신도시 및 관양동 개발사업이 진행됨과 동시에 하천 상류부의 백운저수지 유량이 부족해지면서 수량이 줄어들고 마르는 건천화(乾川化) 현상을 겪기도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양시에서는, 1996년부터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철 용출수 및 하수처리수를 학의천 상류에서 흘려보냈다. 그 결과, 학의천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자연 하천으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게 되었고 안양천 수계에서 수질이 가장 좋은 하천으로 재탄생하였다. 학의천 변은 주민들의 산책로 및 운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보행자가 건널 수 있도록 징검다리도 설치되어 있다.

곡류하던 학의천 주변은 물이 많이 나는 곳이기도 하고 여름철 범람의 위험도 있었기

에 농경 활동은 벼농사 위주로 이루어졌다.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다. 과거에는 학의천의 물길에 지금보다 훨씬 구불구불하게 흘렀으며, 제방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하천과 농경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기도 했다. 여름철에는 하천이 자주 범람해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일이 잦았으므로, 1970년대 중반 학의천의 제방을 축조하는 공사가 진행되었다. 안양천에 합류하는 쌍개울에 이르는 구간까지 하천 변의 제방을 높게 쌓아 하천 범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도였다.

학의천은 현재 하천 양옆에 제방이 축조되어 있다. 학의천을 따라 건설된 자동차 도로(남쪽의 학의로, 북쪽의 관양로)와 제방 사이에는 수목을 심어놓은 산책로, 축구장·농구장 등의 체육시설, 학운공원 등의 수변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다. 하천의 유로는 서북쪽으로 향하다가 인덕원동행정복지센터가 있는 관양교 부근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튼다.

4) 학의천 남쪽에 자리했던 달안이들

학의천과 안양천 사이에는 ‘달안평야(達安平野)’라 불린 넓은 충적평야가 있었다. 두 하천의 합류부에서 동남쪽으로 넓게 펼쳐진 달안평야는 안양시 남쪽, 군포시의 동북부까지 이어지는 타원형의 분지 지형이다. ‘달안이들’ 또는 ‘달안들’로 잘 알려진 달안평야는 학의천 남쪽의 인덕원동이나 부림동에만 국한된 들판이 아니라, 부흥동·범계동·평안동 일대까지 펼쳐진 대규모의 들판이었다. 달안이들은 화강편마암의 사질토양이 쌓여서 만들어진 들판으로 비옥한 농경지가 조성되었던 곳이다.

달안이들은 바람을 막아줄 언덕이 없었기 때문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 델 뿐만 아니라 들판이 넓다고 하여 ‘만주별판’이라 불리기도 했고, 기름진 농토에서 쌀이 많이 생산된다고 ‘만마지기들’로 불리기도 했을 정도로 광활한 들판이었다. 달안이들은 언제 비가 내릴지 몰라 일하던 농부들이 늘 샷갓을 쓰고 다녔다고 해서 ‘샷갓들’이라 불리기도 했으며, 비가 내리면 재빠르게 달아나야 하는 곳이라고 해서 ‘다라니들’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달안이들은 겨울이 되면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기에 농경지 외에 민가가 자리하지 않았지만, 1940년대 초반부터 외지인들이 이곳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생겨났고, 마을 이름은 들판 이름에서 유래한 ‘달안(達安)’이 되었다.

달안이들은 별판이 넓고 서울과 가까운 장소였기에 일제강점기에 박흥식이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했으나 광복이 되면서 계획을 포기했던 곳이기도 하다.⁹ 1970년대 들어 달안이들의 하천 변과 도로변으로 골장이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1975



평촌신도시 개발 이전의 달안이들(1975년)



평촌신도시 개발 이전 학의천과 달안이들(1980년대, 안양시청 제공)

년부터 대한전선이 5개년계획으로 안양에 대단위 공장을 건설하는 등 달안이들의 동쪽은 공장부지와 주택이 들어선 시가지로 전환되었다. 달안평야는 1980년대 말부터 학의천 주변의 넓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수도권 제1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평촌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시가지로 바뀌었으며 학의천 유역의 농경지 역시 모두 사라졌다.

2. 행정구역 변천과 지명 유래

1) 행정구역의 변천과 행정동 구성

법정동 관양동은 『호구총수』에 따르면 1789년 과천현(果川縣) 상서면(上西面) 삼현일리(三峴一里)와 삼현이리(三峴二里)로 편제되었던 곳이며, 1895년에는 과천군 상서면 일동(一洞)과 이동(二洞)으로 편제되었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해동지도』 「과천현」 도엽에는 삼현리(三峴里)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과천군이 시흥군(始興郡)으로 편제되면서 과천군 상서면 일동과 이동을 통합해 시흥군 서이면(西二面) 일동리(一洞里)로 변경되었다. 1941년에는 시흥군 안양면 일동리로 개칭되었다.

1949년 시흥군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함에 따라, 일동리는 시흥군 안양읍 일동리로 편제되었고, 1973년 7월 1일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하면서 일동리의 이름을 지금의 관양동으로 변경하였다. 안양시 승격 당시에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했지만, 인구 증가에 따라 1990년 5월에는 행정동이 관양1동(현 관양동)과 관양2동(현 인덕원동)으로 분동되었다. 관양동은 안양의 중심지인 안양역과 과천을 연결하는 도로가 통과하던 구간이었고, 1970년대 들어서 공업단지가 개발됨에 따라 1980년대에 급격한 인구 증가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평촌신도시의 주민 입주와 무관하게 이미 1990년에 2개의 행정동이 설치되었을 정도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평촌신도시 개발이 완료되고 주민 입주가 본격화함에 따라 1993년 1월에는 신시가지에 포함된 일부 구역을 관양2동에서 분리해 행정동 부림동(富林洞)을 설치하였다. 2023년 10월 11일 행정동 명칭 변경 조례안이 통과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관양1동과 관양2동은 각각 관양동과 인덕원동으로 행정동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편, 1992년 10월 1일부터 안양시에 구제(區制)가 실시되어, 관양동은 안양시 동안구에 편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73년 안양시 승격 당시 관양동사무소(안양시청 제공)

행정동 관양동은 과거 관양동의 발상지이자 중심지 역할을 했던 관악산 남사면에서 학의천 사이에 자리한 지역이다. 인덕원동은 인덕원사거리를 중심으로 학의천의 남쪽과 북쪽에 시가지가 나뉘어 있다. 학의천의 북쪽에서는 관악대로와 관악대로374번길을 경계로 관양동과 나뉘며, 인덕원동의 동쪽에서는 인덕원초등학교의 동쪽에 접한 소로가 의왕시 포일동과 경계를 이룬다. 학의천 북쪽의 시가지는 대체로 관양동(행정동)과 유사하게 연립주택 중심의 노후주택이 많은 편이다.

학의천 남쪽의 인덕원동은 과거 공업단지가 자리했던 곳으로 여전히 일부 제조업 설비 또는 유통설비가 남아 있고, 공장이 있던 구역 일부는 공동주택으로 재탄생하기도 하였다. 인덕원동의 서쪽에 자리한 부림동은 평촌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과거의 달안이들에 속한 농경지가 시가지로 변모한 지역이다. 계획적으로 조성된 시가지에 설치된 행정동이므로 행정 경계는 주요 대로를 따라 설정되어 있다. 부림동은 부림로(동)-평촌대로(서)-평촌대로212번길(남)-학의천(북)에 의해 인접 지역과 경계가 구분된다. 부림로는 인덕원동과 경계이고 평촌대로는 달안동과 경계를 이루며, 평촌대로212번길은 평안동과의 경계이다.

2) 지명의 유래

관양동이라는 지명이 등장한 시기는 안양이 시로 승격된 1973년이다. 행정구역 변경 관련 내용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1973년 이전에는 관양이라는 이름 대신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지금의 관양동 일대가 별판이어서 별말 또는 평촌이라 불리다가 마을이 따로 생겨나면서 ‘한 별말’ 또는 ‘한평촌’으로 불렸던 것이 일동으로 변형되었다고 한다.¹⁰ 또 하나의 마을은 이평촌으로 불렸으며, 이는 지금의 평촌동이다. 안양시 승격과 법정동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양동이라는 지명이 생겨났는데, 이는 관양초등학교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관양초등학교는 마분산천 일대의 일동리에 1948년 문을 열었으며, 관악산 남쪽의 양지바른 곳이라는 데에서 ‘관양(冠陽)’이라는 학교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관양초등학교 교가의 도입부는 “관악 영봉 즐기즐기 뻗어 내려서…”로 시작해, 이 학교가 관악산 즐기에 자리했음을 알려준다. 관양이라는 이름은 관악산의 남쪽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행정동 부림동은 본래 관양동의 ‘관’자와 관악산의 ‘악’자를 따서 관악동(冠岳洞)이라 하였다가 의견 수렴을 거쳐 지금의 이름으로 개칭하였다고 한다.¹¹ 부림동은 과거 ‘부림말’ 또는 ‘부림촌(富林村)’으로 불리던 마을이다.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조선지형도』 「군포장」 도엽에는 부림촌이 한자로 표기되어 있고 일본어 ‘부림말(プリムマル)’이 병기되어 있다. 부림말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유래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산림이 울창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마을에 비해 부자가 많이 산다는 데에서 ‘부림말(富林洞)’이라 불렀다는 설이 있고, 남쪽에 위치한 마을이어서 ‘밝은 마을’이라 불렀던 것이 구전되어 오면서 부림말로 변형되었다는 설도 있다.¹² 과거 부림말이 있던 곳은 학의천 북쪽이었지만, 지금의 행정동 부림동은 옛 부림말에서 멀리 떨어진 학의천의 남쪽이라는 점에서 위치 관계가 정확하지는 않으며, 부림동 지명의 유래 역시 분명하지 않다.

새롭게 행정동명으로 이용되는 인덕원(仁德院)은 유서 깊은 곳이다. 인덕원은 글자에서 알 수 있듯 숙박시설이 있던 곳인데, 이는 조선시대에 지방으로 파견되는 관인들이 이동 중에 숙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건설한 숙소이다. 조선시대에 한양과 지방을 연결하는 6대로가 있었으며, 그 가운데 한양에서 남태령을 지나 과천을 거쳐 수원으로 향하던 길이 호남로(삼남로)였으며, 이 대로의 중간 경유지가 인덕원이었다.

본래는 조선시대에 나이가 들어 은퇴한 사람들이 노후를 보내면서 동네 주민들에게 덕을 베풀어 주었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은퇴한 사람들을 칭송하고자 마을 이름을 ‘인



관악산 아래 자리 잡은 관양동(2021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덕'이라 부르다가, 이 마을에 숙박시설인 원(院)이 들어서면서 마을 이름도 인덕원으로 바뀌게 되었다. 숙박 기능을 담당하던 원은 조선 후기에 사라졌지만, 인덕원이라는 이름은 지명으로 남아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다. 평촌신도시 건설 이후 수도권 전철 4호선이 과천에서 안양으로 통과하게 되면서 인덕원에 역이 설치되었고 역의 이름은 인덕원역이 되었다. 인덕원은 안양에서 서울의 강남으로 진입하기 위해 자동차를 이용하든 철도를 이용하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통의 결절점이 되었다.

관양동과 과천시의 경계가 되는 산줄기의 서쪽에는 2012년에 건설된 아파트단지 동편(東便)마을이 있다. 동편마을은 간촌의 동쪽 산기슭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에서 생겨난 이름이다. 이 마을은 안양관악초등학교의 북쪽에서 저산성 산지로 둘러싸인 곳으로, 중앙부의 농경지와 산자락의 주거지로 이루어졌던 곳이다. 간촌(間村)은 관양동 골짜기에서 동편마을과 부림말 사이에 있다는 데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주민들은 셋말 또는 샌말로 부르고 있으며, 한자화해 간촌이 되었다. 원래는 사이를 의미하는 셋말이지만, 주민들 사이에 구전되는 과정에서 변형되어 샌말로 불린 것으로 보인다.

관양고등학교 옆을 흐르는 하천의 이름으로도 사용되는 마분(馬墳)은 관양동과 비산동의 경계부에서 간촌(샌말)과 수촌(뽕말) 사이에 있던 마을의 이름이다. 지금의 관양초등학교와 관양중학교의 근처이다. 이 마을은 말무덤이 또는 마분골이라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조선시대 마장골(비산동의 매곡마을)에서 기르던 말이 죽으면 매장한 장소라는 데에서 생겨난 명칭이다. 1960년대 관양중학교 근처에서 말에게 사용했던 쇠조각 등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3. 관악산을 등진 배산임수의 농촌 마을에서 도시로 발달

1) 안양과 과천을 연결하는 도로변의 시가지

관양동에는 일찍이 관악산 자락에서 앞으로 넓게 펼쳐진 달안이들의 농경지와 산지의 골짜기 사이사이에 형성된 농경지를 기반으로 하는 농촌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안양시 승격 당시인 1973년 관양동의 농가는 전체(644가구)의 32.8%에 달하는 211가구에 달하였다. 이 마을 앞으로는 서쪽의 안양역에서 북쪽의 과천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되었으며, 이 도로를 따라 안양과 과천 사이의 이동이 이루어졌다. 도로는 안양역에서 지금의 비산동을 지나 수촌교 근처에서 두 갈래로 나뉘었으며, 한 갈래는 학의천을 따라 인덕원 방향으로 이어졌고 다른 한 갈래는 간촌이 자리한 마분산천의 골짜기를 넘어 과천으로 향하였다. 이에 따라 삼거리 역할을 했던 마분과 인덕원 방향으로 향하던 부림말은 도로변에서 노변취락(路邊聚落)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관악산 자락에는 동편마을이 분지 지형에 있었다.

학의촌 북쪽의 여러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경작하던 농경지는 마을 주변에도 있었지만, 학의천 남쪽의 달안이들에게도 있었다. 1920~30년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에 따르면, 지금의 관양동에서 학의천을 건너 달안이들로 향하는 소로가 여러 개 발달했지만, 달안이들의 남쪽에서 접근하는 논길은 호계동 쪽에서만 발달해 있다. 부림말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았다는 것은, 마을 주변뿐만 아니라 달안이들의 넓은 농경지를 보유한 부농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림말에서 과천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본래 인덕원 근처까지 갔다가 북쪽으로 향했지만, 지금의 삼현로에 해당하는 도로가 부림말에서 바로 과천 쪽으로 향함에 따라 인덕원

사거리보다 부림말 일대가 더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 이유는 안양에서 과천으로 이동할 때 굳이 인덕원까지 가지 않고 부림말에서 과천의 갈현동으로 향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더 빨랐기 때문이다. 1960년대를 지나면서 자동차 도로를 따라 도로변에 취락이 발달하면서 지금의 수촌교 일대에 자리했던 마분과 부림말 주변의 농경지와 산비탈이 점진적으로 농촌의 성격을 잃어가게 되었다. 1973년 안양시로 승격한 후 도시화와 산업화가 촉진됨에 따라 안양과 과천 사이의 통행량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때에는 부림말에서 인덕원을 거치지 않고 과천으로 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80년대 초반 안양천 서쪽에 자리한 안양동을 비롯해 박달동과 석수동은 공장의 입지 및 인구 증가로 비교적 빠른 도시화를 경험했지만, 안양천 동쪽에 자리한 지역은 농촌적 성격이 훨씬 강하였다. 즉, 같은 안양시였지만 1980년대 초반만 해도 지금의 만안구와 동안구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특히 안양시 중심부에 가장 멀리 떨어진 관양동은 지금도 농촌적 성격이 강한 지역이었다. 심지어 안양역에서 관양동을 지나 과천으로 향하는 도로가 과천에서 인덕원을 지나 금정으로 향하는 남북 방향의 도로보다 중요성이 컸지만, 1970년 말에 과천에서 금정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포장이 되었고 관양동을 가로지르는 도로는 포장 안 된 상태였다.

관양동에 도시화의 물결이 유입된 시기는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설 때이다. 안양역 배후 시가지의 성격을 가진 비산동에서 시가지 개발이 먼저 진행되었고, 도시개발은 지

관양동의 도시화가 시작된 안양 제7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1972~1982년) 현황중합도(안양시청 제공)





관양현대아파트와 주변 지역 주택이 건축되는 모습(1984년, 안양시청 제공)

금의 관악대로를 따라 동쪽으로 향하면서 관양동에서도 1986년 전후로 부림말 일대를 비롯해 도로변을 따라 시가지가 들어섰다. 관악대로의 북쪽과 남쪽이 시가지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과 상가들이 학의천 북쪽에 건설되었으며, 1990년대에 이르면서 인덕원사거리 일대로까지 시가지는 평면적인 확장을 계속하였다. 관악산 정상에서 관양고등학교 앞을 통과하는 일동로에 이르는 구역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동로 남쪽 구역에 제한되어 시가지 개발이 가능하였다.

학의천 북쪽에서 1980년대 말에 본격적으로 개발된 관양동의 시가지의 형태는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달리 말하면, 학의천 북쪽에서 관양동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은 건축물의 연령이 35년을 넘어서는 것이 대부분이며, 관악대로 주변의 건축물은 대체로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이거나 5층의 아파트 단지가 주를 이룬다. 학의천 북쪽에 자리한 일부 건물은 최근 들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하였지만, 여전히 노후 시가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관양고등학교 남쪽에 있는 관양현대아파트 12개 동은 1985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건물 노후화에 따라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다. 학의천 북쪽에서 운동장 사거리를 지나는 평촌대로의 동쪽은 같은 시기에 시가지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

산동과 관양동에 걸친 시가지의 경관은 대체로 비슷한 모양을 취한다. 비산동과 관양동은 서로 맞닿아 있지만, 학의천 북쪽에서 두 동의 경계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1980년대 중반 시가지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연립주택 중심의 주택가를 형성해 놓았는데, 두 동의 경계가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설정되지 않고 좁은 골목길을 기준으로 설정된 구간이 있기 때문이다.

동편마을은 2005년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관양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4,000세대 가까이 입주할 수 있는 지금의 동편마을 아파트단지로 재탄생하였다. 이 마을의 동편문화공원에는 옛날 이곳에 간촌·동편·부림말 등의 자연마을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동편마을을 원주민들이 택지개발 사업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살던 마을의 얼과 주민 간의 정을 되새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자 마을 유래비를 설치하였다.

2) 제조업 중심지에서 첨단 벤처산업 중심지로 변화

관양동의 공장 입지는 1970년대에 본격화하였다. 경부선 철도 연변에서 공업화가 시작된 안양시는 1960년대까지 안양천 서쪽에서 공업이 발달했지만, 달안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안양천 동쪽에서는 공업입지가 활발하지 않았다. 이는 동안구에 개발이 가능한 부지가 많이 보존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1960년대 말부터 서울의 영등포와 구로공단에 있던 공장들이 서울을 벗어나면서, 서울 주변 지역 가운데 서울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관양동 일대는 제조업체가 위치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1972년 오투기식품이 인덕원동에 공장을 준공하였다. 오투기식품 안양공장은 현재 행정구역상 평촌동에 속하지만, 안양시에 공장이 들어설 당시에는 관양동에 속하였다. 1973년에는 인천에 본사를 둔 동일방직의 계열사인 동양섬유가 인덕원동의 대룡공원 서편에 세워졌다. 1975년부터 대한전선이 5개년계획으로 안양에 공장을 건설하면서 달안이들 동편에 전선공장이 준공되었고,¹³ 안양공장에서는 통신케이블을 생산하였다. 대한전선은 1980년 안양에 SCR 공장을 준공하고 생산을 개시하였다. 1983년에는 초고압 케이블 공장이, 1984년에는 광통신 케이블 공장이 관양동에 준공되었다. 대한전선 안양공장은 평촌신도시 개발과 함께 공장 주변 지역이 새로운 상업 공간으로 재편되면서 제조업 대신 다른 용도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됐다. 2011년부터 충남 당진에 신공장을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이전하였고, 대한전선 공장부지는 새로운 용도로 재탄생하였



인덕원동 공업 지역의 대한전선과 주변의 제조업체들(2007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다. 대한전선의 사무실 안양 본점은 아직도 인덕원동에 남아 있다. 1983년 6월에는 대한전선의 동쪽에 크라운제과 안양공장이 준공되었다. 크라운제과는 서울시 목동에만 공장이 있었지만 1982년 1월부터 지금의 인덕원동에 공장 건립을 시작해 이듬해인 1983년 8월부터 비스킷과 스낵 제품의 생산을 본격화하였다. 크라운제과의 안양공장 부지는 2007년 8월 매각되었다.

1984년에 수립된 수도권정비계획은 서울에서 공장 신설을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이로 인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경기 남부지역은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제조업의 입지 장소로 변화하였다. 1986년 4월에는 뉴욕제과 신사옥이 인덕원동에 건립되었고, 본사와 공장이 확장 이전해 왔다. 이 시기에 인덕원동에서는 공장부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으며, 이는 지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대한전선·오뚜기식품 등의 대형공장이 밀집해 있던 인덕원동 일대의 지가는 1987년 3.3㎡당 60만~70만 원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0만~20만 원이 상승한 가격이었다.¹⁴ 공장부지의 매매가 또는 임대료는 국가 전체의 경기 상황에 따라 등락을 거듭해 가격이 대폭 하락하기도 하였다.

인덕원동의 공업기능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서서히 약해졌다. 그 이유는 인덕원동을 비롯한 안양시에 입지한 공장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업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인덕원동에 있던 일부 공장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이전할 계



인덕원동 대한전선 이전부지에 조성된 도시첨단산업단지 스마트스퀘어

획을 수립함에 따라, 안양시에서는 1994년 관양동 일대 43만 867㎡의 부지를 준공업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¹⁵ 이에 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의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용도지역인 일반공업지역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계획대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해 보다 다양한 도시기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였다. 1995년 민선 1기 자치정부가 시작하면서 준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 계획은 무산되었다.

제조업체가 많았던 인덕원동은 2000년대 들어 굴뚝산업이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IT와 정보통신 등을 주축으로 하는 아파트형 공장지대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아파트형 공장지대로의 전환은 일찍이 제조업체가 들어섰던 학의천 남쪽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뉴욕제과가 있던 자리에는 안양메가벨리가 들어섰고, 오투기식품 자리에는 성지스타워드가 들어섰으며, 동양섬유 자리에는 대륜테크노타운이 입주했고, 크라운제과 부지는 금강팬테리움IT타워로 재탄생하였다. 이외에 관양두산벤처다임, 동일테크노타운7차, 디지털엠피아, 에이스하이엔드타워, 1~3차 동일테크노타운 등이 건립되었다. 이는 안양시를 첨단산업의 요람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고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공장 중심의 회색 이미지를 변화시키고자 한 시

도에서 시작되었다. 안양시에서는 2000년 11월 인덕원동의 기존 제조업 밀집지에서부터 범계역에 이르는 구간을 안양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안양벤처밸리’로 지정하였다.

3) 신도시로 개발된 학의천 남쪽의 부림동

학의천 북쪽에 자리한 관양동(행정동) 및 인덕원동의 일부 지역은 1986년을 전후해 도시화가 진행되었지만, 학의천 남쪽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입주한 공장부지 및 농경지(달안이들)로 남아 있었다. 학의천 남쪽의 달안이들은 1980년대 초반 경지정리가 진행된 농경지였으며, 특히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절대농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1988년 비산동·호계동·관양동·평촌동 일대에 걸친 달안이들(평촌별)에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도시를 개발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신도시가 개발될 부지는 북쪽의 관악산, 동쪽의 모락산, 서쪽의 수리산이 감싸는 타원형 분지의 중심부였다. 이 별판은 주민들이 벼농사를 비롯해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채소 재배 및 양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곳으로 도시적 성격을 찾아보기 힘든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다. 달안이들 일대는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인 평촌신도시 개발지로 지정되었고, 이곳에 주택 6만 4,000여 가구를 건설해 인구 25만 6,000명을 수용하는 공동주택지역으로 건설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평촌신도시 개발 예정지는 서울·과천·수원·인천 등 사방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곳으로, 도시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미개발지의 형태로 존재하던 곳이어서 이미 1980년대 초반부터 택지개발이 가능한 지구로 평가된 곳이다. 평촌신도시는 서울 중심부에서 약 25km 지점에 건설된 신도시로 수도권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계획되었다. 평촌신도시의 개발은 안양시의 기성시가지인 안양동·박달동·석수동 등지와 연계됨으로써 안양시 전체의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는 효과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었다.

1989년에 평촌신도시의 개발 규모가 인구 17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4만 2,500가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되었다.¹⁶ 신도시가 완공되면 안양시청을 비롯해 안양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안양동에서 신시가지로 이전하고, 교육기관 28개를 설치하는 계획도 수립되었다. 신도시의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의 사당역까지만 운행하던 서울지하철 4호선을 평촌신도시를 경유하고 경부선 철도의 수



1993년 평촌신도시 건설 당시의 부림동 지역(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도권 전철 1호선 금정역과 교차하게 하였다. 서울지하철 4호선은 관양동 인덕원역이 설치되면서 수도권 전철로 거듭났고, 인덕원에서 사방으로 연결되는 자동차 도로도 확장되었다. 인덕원사거리는 평촌신도시 개발 이후 지하철역과 도로망이 확장됨에 따라, 안양시 동북부의 교통 요충지로 성장하였다. 학의천의 남쪽에 한정해 평촌신도시 개발 구역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1980년대에 이미 시가지 개발이 마무리되었던 학의천 북쪽의 관양동(행정동) 시가지는 신도시 개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

평촌신도시에 포함된 법정동 관양동의 면적은 넓지 않으며, 행정동으로는 부림동이 신도시에 포함된 유일한 지역이다. 그러나 평촌신도시에 접한 인덕원동의 관할구역이 과거 공업지대에서 벤처산업 집적지로 변화하면서 인덕원동은 자연스럽게 평촌신도시에 연속된 신시가지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인덕원동은 학의천을 중간에 두고 북쪽의 기성시가지와 남쪽의 평촌 신시가지로 구분되므로, 여기에서는 평촌신도시에 접한 학의천 남쪽 구역에 주안점을 두기로 한다. 부림로가 평촌신도시 개발 구역의 동쪽 경계였으므로 부림로의 동쪽에 자리한 인덕원동은 신시가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래전부터 가동되던 제조업 설비와 중소규모의 공장 또는 농경지가 있던 관양동 공업화의 발상지



관양동은 서울지하철 4호선이 통과하며, 인덕원동과 부림동에 각각 인덕원역과 평촌역이 위치한다.
(2010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라 할 수 있다.

과거 달안이들의 학의천 변에 설치된 부림동은 평촌신도시의 동쪽 경계이기도 하다. 신도시가 개발된 후 수도권 전철 4호선의 평촌역이 부림동에 설치되었다. 학의천이 자리한 부림동의 북쪽 구역은 공동주택단지가 건설되었지만, 수도권 전철 4호선의 평촌역에서 반경 700m 이내에 해당하는 역세권에는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이 많이 자리 잡았다. 대표적으로 안양시청이 시민대로와 평촌대로의 교차점에 자리하고 있으며, 안양우편집중국, 안양산업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중부지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소방서, 동안양세무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등 그 수가 매우 많다.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의 입지는 자연스럽게 연관 업체의 입지를 유발하므로, 부림동에는 이들로부터 파생된 많은 사업체가 들어서 있다. 부림동에 있던 국토연구원은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분산 정책에 의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였고, 그 자리에는 안양금융센터를 비롯해 오피스텔이 건설되었다.

4) 임야가 줄고 대지가 증가한 시가지

2020년 기준 관양동의 면적은 5.84km²로 안양시(58.47km²)의 10.0%를 차지하였다. 3개의 행정동 가운데 관악산 자락의 말단부에 자리한 관양동의 면적이 3.20km²로 가장 넓고 인덕원동(1.79km²)과 부림동(0.86km²)의 면적은 상대적으로 넓지 않다. 평촌신도시로 개발된 부림동의 면적이 특히 좁다. 1973년 안양시로 승격할 당시, 관양동의 면적은 4.98km²로 당시 안양시 면적(58.16km²)의 8.6%를 차지하였다. 관양동의 면적은 안양시의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행정 경계의 조정을 통해 시 승격 당시보다 확대되었으며, 1977년에 6.11km²로 증가하였다가 1992년 평촌신도시 개발과 함께 반듯한 도로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의 경계가 재설정되면서 5.83km²로 축소되었다. 이후 1995년 12월 평촌동의 일부를 관양동에 편입시켜 지금과 같은 5.84km²가 되었다.

법정동별 지목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1997년 이후 2020년에 이르기까지, 법정동 관양동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지목은 임야에서 대지로 바뀌었다. 임야의 비중은 1997년 31.5%에서 2020년 27.9%로 감소했지만, 그 사이 대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3.4%에서 29.2%로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관양동의 북쪽에 들어선 동편마을 아파트단지 때문이다. 아파트가 들어선 자리는 과거 자연마을과 함께 임야 및 농경지가 있던 곳이었는데, 아파트 건설로 인해 농경지와 임야가 줄어들었다.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임야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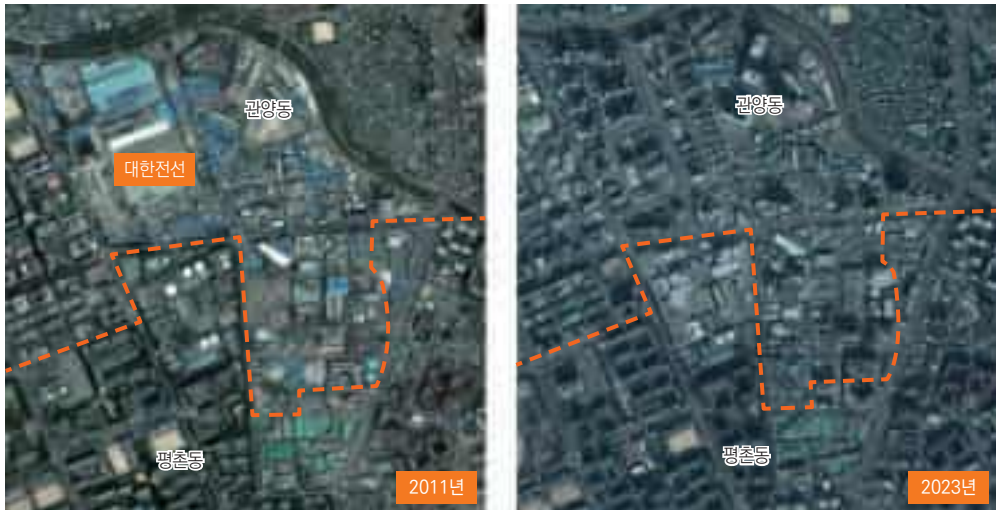
관양동은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농경지가 많은 곳이었다. 농경지는 현재 학의천 북쪽의 마분산천 주변과 골짜기에 분포하며, 인덕원사거리 일대에도 일부 남아 있다. 2010년 이전에는 학의천 남쪽의 인덕원동에도 많은 농경지가 있었다.

〈표 1〉 관양동의 주요 지목 구성 변화

(단위 : m²)

연도	계	전	답	임야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1997년	5,841,635	370,418	320,162	1,838,945	1,366,224	542,012	165,055	746,063
2000년	5,846,487	354,956	285,377	1,835,705	1,402,684	546,318	136,163	772,606
2005년	5,843,342	368,714	220,906	1,808,643	1,404,040	562,410	162,589	786,299
2010년	5,843,494	353,306	212,014	1,784,766	1,388,828	570,413	175,857	785,533
2015년	5,846,678	123,815	85,151	1,634,968	1,633,705	504,937	189,800	947,889
2020년	5,847,558	117,687	79,945	1,630,079	1,709,208	425,680	187,500	958,605

자료 : 안양시, 「안양시 통계연보」, 해당 연도.



학의천 남쪽 인덕원동의 토지이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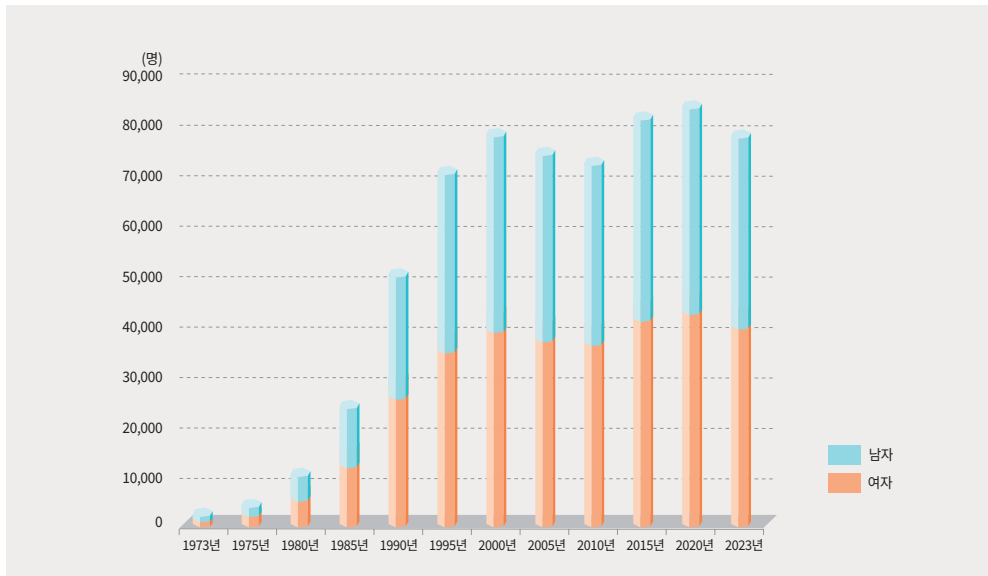
인덕원동은 평촌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은 곳이어서 도시화가 다소 느리게 진행된 곳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덕원동은 2000년대 들어 안양벤처밸리 계획이 구체화하면서 기존의 제조업 부지와 농경지들이 지금과 같은 벤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아파트형 공장 또는 사무실 기능을 갖춘 오피스텔 등으로 전환되었다. 이 계획이 구체화함에 따라 2010년대 들어 인덕원동에 소규모 제조업체가 있던 공장용지나 농경지가 다른 토지이용으로 대체된 것이다. 평촌역하이필드 오피스텔이 들어선 자리는 과거 넓은 밭이 있던 곳이다. 기존 농경지가 신규의 시가지로 재탄생함에 따라 시설물 사이에 도로가 개설되었고, 이는 2010년대 들어 관양동의 도로 면적이 증가한 요인이 되었다.

학의천 북쪽의 마분산천 주변으로는 오래전부터 논과 밭이 혼재하던 곳이다. 하천 주변은 대체로 논으로 이용되었고 산비탈이나 골짜기 깊숙한 곳은 밭으로 이용되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농경지가 밭으로 이용된다. 지목은 논이지만 밭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우리나라 농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토지이용이다. 밭은 비닐하우스를 짓고 시설재배 용도로 활용되는데, 이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농업의 형태이다. 이들 농경지 사이에는 건축 연대가 오래된 전통가옥도 일부 자리하고 있다.

4. 관양동의 사람과 경제활동

1) 1980~1990년대에 급증한 인구

관양동의 인구 규모는 안양시 승격 이후인 1973년부터 1999년까지 증가하다가 2001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인 후 2012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인구 규모는 2019년 정점을 찍은 이후 다시 감소 경향으로 돌아섰다. 안양시의 기성시가지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인구감소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과 달리, 관양동에서 1990년대 후반까지 인구가 증가한 요인은 평촌신도시의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학의천 북쪽에 자리한 관양동(행정동)과 인덕원동에서 시작된 시가지 개발과 택지조성은 인구 증가를 견인하는 요소로 작용했으며, 1992년부터 시작한 평촌신도시 입주는 다시 한번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2000년대 들어 완만하게 감소하던 인구 규모가 다시 증가한 것은 동편마을 택지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2012년) 및 대한전선 공장부지를 대상으로 한 공동주택 건설(2016년) 등의 영향이다. 향후 현대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고 비산동과 인접한 연립주택지구에 대한 재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인구 규모는 다시 한번 증가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980~1990년대에 빠르게 증가한 관양동의 인구

시 승격 당시인 1973년 3,403명(남자 1,710명, 여자 1,693명)에 불과했던 관양동의 인구는 1979년(1만 287명)에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을 정도로 도시화는 다른 지역에 비해 늦었다. 그러나 학의천 북쪽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1989년 4만 5,860명이었던 인구는 이듬해인 1990년(5만 1,432명) 5만 명을 넘어섰다. 당시만 해도 관양동은 전출인구에 비해 전입인구의 규모가 훨씬 큰 전입 초과 지역으로, 인구의 자연적 증가 및 사회적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평촌신도시 개발에 따라 부림동이 공동주택지역으로 변모하면서 관양동의 인구는 1995년(7만 1,564명) 7만 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2010년대의 인구 증가는 2012년에 가장 두드러졌으며, 2011년 7만 2,416명이었던 인구는 2012년 8만 1,043명으로 늘어났다. 관양동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컸던 해는 8만 5,271명을 기록했던 2017년이고, 이후 인구가 감소하면서 2022년(7만 9,406명)에 8만 명 선이 무너졌다. 2023년 6월 기준, 관양동의 전체 인구는 7만 8,916명이며, 관양동(행정동)에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관양동은 안양시 승격 이후 1999년에 이르기까지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를 초과함에 따라 인구의 사회적 증가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대도시권에서 중심지 역할을 하는 서울은 1980년대 들어 비약적인 인구 증가를 경험하였다. 서울로의 인구집중은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를 심화시켰으며, 서울에 직장을 둔 사람들 일부는 서울 밖의 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안양시는 수도권 전철 1호선이 개통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의 강남으로 연결되는 교통편도 양호한 편이어서, 서울을 벗어난 사람들의 주거지로 주목받았다. 특히, 관양동은 과천을 통해 서울 강남으로 바로 연결되는 교통이 장점인 곳이어서, 안양 7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택지를 확보하고 1980년대 중반부터 주택건설 붐이 일어났다. 당시 자연마을 3개가 자리한 산사면과 구릉지 등을 포함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인구 3만여 명을 입주시킬 수 있는 택지를 개발하였다. 또한 관양동과 그 주변에 자리했던 공장은 주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줌에 따라 자족 기능도 강화할 수 있었다.

관양동의 인구는 1973년 안양시 전체의 3.1%에 불과했지만, 2000년 10.7%까지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15.2%까지 상승하였다.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는 14.5%를 기록하였다. 2023년 6월 말 기준 관양동의 행정동별 인구는, 행정동 관양동(3만 4,281명)이 가장 많고, 뒤를 이어 평촌신도시로 개발된 부림동(2만 6,029명), 인덕원동(1만 8,606명)의 순이다. 인덕원동은 과거 공장이 많았던 곳으로 공동주택은 적은 편이었으나, 2010년대 들어 공동주택이 여러 곳에 들어서면서 인구 규모가 확대되었다.

인구 규모가 7만 2,670명이었던 2000년과 비교하면, 2023년 관양동의 전체 인구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다른 법정동과 비교하면 큰 폭의 인구 증가라 할 수 있다. 행정동별 인구변화에서는 신도시에 자리한 부림동의 인구가 2000년 2만 7,253명에서 2023년 들어 감소한 반면, 관양동과 인덕원동에서는 크게 증가하였다. 2000년 관양동(행정동)과 인덕원동의 인구는 각각 2만 8,497명과 1만 6,920명이었다. 부림동은 시가지 개발의 시기가 30년을 넘어서면서 서서히 주거 여건이 더 좋은 곳을 찾아 떠나는 인구가 많아진 지역이다. 반면, 관양동과 인덕원동은 기존 노후주택에 대한 재구조화를 통해 신규주택이 들어서면서 인구흡인력이 상대적으로 강해졌다. 따라서 관양동(행정동)과 인덕원동은 앞으로 인구 증가를 견인할 만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면, 부림동에서는 당분간 인구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관양동의 행정동별 인구

(단위: 세대, 명)

구분	세대	인구			세대당 인구	
		계	남	여		
행정동	관양동	15,571	34,281	16,733	17,548	2.20
	인덕원동	8,781	18,606	9,488	9,118	2.12
	부림동	12,174	26,029	12,577	13,452	2.14
관양동(계)	36,526	78,916	38,798	40,118	2.16	

자료 : 안양시청(<https://www.anyang.go.kr/>). 2023년 6월 말 기준.

신시가지 개발 및 택지개발에 따른 주택의 증가가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면, 출산율의 감소는 인구 증가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출산율의 감소는 세대당 인구의 변화를 통해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다. 세대당 인구는 1973년에 5.28명에 달했지만, 1988년(3.82명)에 4.0명 이하로 줄었으며, 2002년(2.95명)에는 3.0명 아래로 감소하였다. 2002년 세대당 인구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부림동이었었는데, 부림동의 세대당 인구는 3.04명으로 3개의 행정동 가운데 유일하게 3.0명을 넘었다. 2023년 기준 세대당 인구는 2.16명을 기록해 안양시 평균(2.4명)에 비해 낮았다. 행정동별 세대당 인구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행정동 관양동(2.2명)이 가장 높았고 인덕원동(2.12명)이 가장 낮았다. 법정동 관양동의 세대당 인구는 기성시가지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안양동(2.18명)과 비슷한 수준이며, 신시가지로 구성된 평촌동(2.96명)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2) 젊은 인구의 감소에 따른 고령사회 진입

1973년 안양시 승격 당시 관양동에는 남자(1,719명)가 여자(1,693명)보다 많았지만, 이후 성별 인구구성은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여초현상을 보였다. 1975년에는 남녀 간 인구구성을 보여주는 성비가 84.7(남자 2,501명, 여자 2,953명)에 불과해 여초현상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기도 하였다.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상회하는 현상은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는데, 이는 관양동의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다. 1970~80년대 주로 여성 노동력이 필요한 경공업이 많이 입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별 인구구성은 1990년대 초반까지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특징을 보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는 남녀 간 인구구성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많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이후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양상을 보였다. 2010년 이후 성비가 감소하여, 2010년 99.2(남자 3만 6,626명, 여자 3만 6,938명)를 기록했던 성비는 2023년 96.7(남자 3만 8,798명, 여자 4만 118명)로 감소하였다.

인구구성은 전체적으로 여자가 조금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다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인구 규모가 3,403명에 불과했던 1973년에는 14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많았지만, 15~24세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다. 그러나 성별 구성에서 격차가 크게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2000년에는 15~19세와 35~39세에서 남자의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고 60세 이상에서는 여자 인구의 규모가 남자를 압도하였다. 2022년에는 45세 이상의 모든 연령층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많지만, 45세 미만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특징을 보였다. 즉 연령층이 상승할수록 여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관양동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고령화 현상이 확인된다. 1973년 37.3%를 기록했던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2000년 16.2%로 낮아졌으며 2022년에는 9.4%에 머물렀다. 반면 65세 이상 노년 인구의 비율은 1973년 4.0%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15.3%로 상승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이와 동시에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15~64세 청장년 인구의 비율은 1973년의 58.7%에서 2022년 75.3%로 상승하였다.

1973년에는 10대 미만(23.7%)의 인가와 10대(26.0%)의 인구가 월등하게 많았지만, 2000년에는 30대(19.7%)와 40대(18.1%)의 인구 규모가 컸다. 2022년에는 50대(17.8%)와 30대(16.3%)의 인구 비중이 높게 형성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양동의 주류를 이루는 인구집단에 변화가 생겼다.

〈표 3〉 관양동의 연령층별 인구구성 변화

(단위 : 명, %)

연령층	성별	1973년		2000년		2022년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유소년 (0-14세)	남자	679	20.0	6,089	8.4	3,778	4.8
	여자	592	17.4	5,694	7.8	3,684	4.6
	계	1,271	37.3	11,783	16.2	7,462	9.4
청장년 (15-64세)	남자	982	28.9	27,832	38.3	29,988	37.8
	여자	1,014	29.8	27,185	37.4	29,815	37.5
	계	1,996	58.7	55,017	75.7	59,803	75.3
노년 (65세 이상)	남자	49	1.4	2,285	3.1	5,277	6.6
	여자	87	2.6	3,585	4.9	6,864	8.6
	계	136	4.0	5,870	8.1	12,141	15.3
전체	남자	1,710	50.2	36,206	49.8	39,043	49.2
	여자	1,693	49.8	36,464	50.2	40,363	50.8
	계	3,403	100.0	72,670	100.0	79,406	100.0

자료 : 안양시, 『안양시 통계연보』, 1974; 국가통계포털.
비고 : 비율은 연도별 총인구에 대한 것임.

2000년 이후 30대 연령층의 비중이 크게 형성된 것은,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입주한 젊은 연령층의 영향이 있고 최근에는 신규로 건설되는 오피스텔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1970~1980년대에는 연령층별 인구구성에서 비중이 탁월한 연령층을 쉽게 식별할 수 있었지만, 2022년에는 연령층별 인구 비중의 편차가 감소한 가운데 20대(14.1%)에서 60대(14.2%)에 이르기까지 연령층별로 인구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양상을 보였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년 인구의 비율은 지역 차가 뚜렷해, 관양동(행정동)이 18.5%로 가장 높았고 부림동이 10.9%로 가장 낮았다. 인덕원동의 노년 인구 비율은 15.4%를 기록하였다. 부림동은 30대와 40대 연령층의 구성 비율이 각각 21.3%와 17.7%로 높았지만, 관양동(행정동)과 인덕원동에서는 50대와 60대 연령층의 비중이 높게 형성되었다.

1973년의 인구피라미드는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많고 연령층이 상승할수록 인구 규모가 감소하는 삼각형 모양을 유지하면서, 도시적 성격이 약한 농촌지역의 모습을 반영하였다. 도시화가 진행된 2000년의 인구구성은 장년층의 인구 비중이 상승하였고, 대부분 연령층에서 성비가 균형을 유지하며 도시지역의 모습을 반영하는 방추형 피라미드를 형성하였다. 2000년의 인구피라미드는 특히 젊은 연령층에 비해 중간 연령층의 구



관양동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성 변화

모가 훨씬 큰 모습을 보이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실제 관양동(법정동)에서는 2000년을 기점으로 인구 규모가 감소하였다. 2022년에는 40대 이하에서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인구 규모가 축소되는 모양으로 변화했으며, 34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에서 역삼각형 형태를 취하면서 출산율의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 패턴을 반영하는 인구피라미드로 전환되었다. 2022년의 인구피라미드를 2000년과 비교하면, 비중이 큰 연령층이 30대에서 50대로 상승한 동시에 50대 이상 연령층의 증가, 20세 미만 연령층의 감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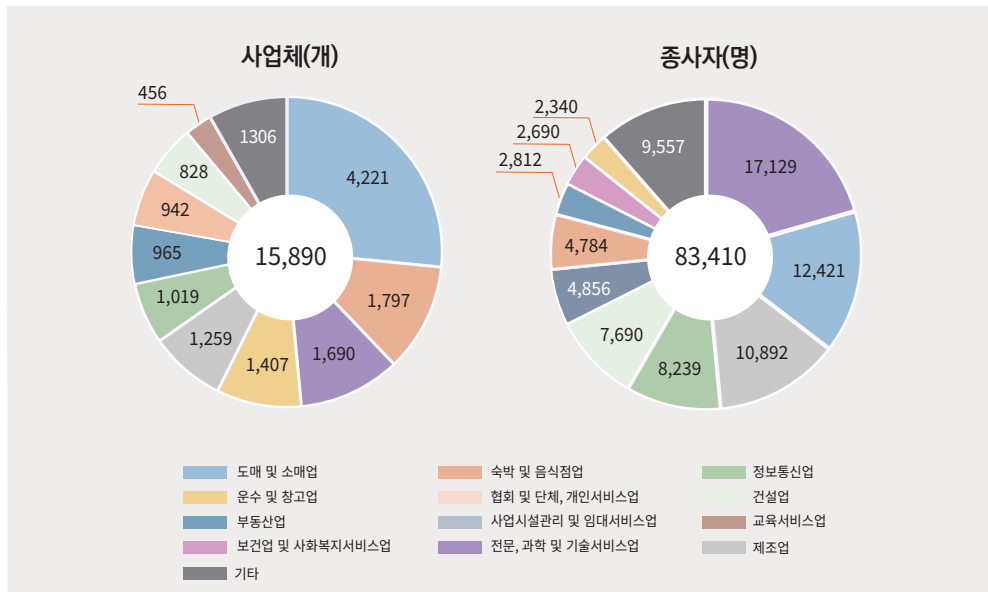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민 평균연령은 관양동(행정동)이 43.7세로 가장 높았고, 인덕원동 42.8세, 부림동 39.2세를 기록해, 부림동의 평균연령이 가장 낮았다. 부림동의 평균연령은 안양시의 31개 행정동 가운데 4번째로 낮은 값이다. 안양시 전체의 평균연령은 42.3세였고, 평균연령이 낮은 행정동은 평안동(37.5세)과 귀인동(37.6세)이었다.

3) 동안양권 경제활동의 중심지

관양동에 입지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규모는 안양시의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편

이다. 2021년 기준 안양시에는 모두 6만 3,452개의 사업체에 27만 2,065명의 종사자가 근무하였으며, 이 가운데 관양동에 입지한 사업체는 도시 전체의 25.0%인 1만 5,890개이고 종사자 수는 도시 전체의 30.7%인 8만 3,410명이었다.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5.2명으로 안양시 전체(4.3명)보다 많았다. 관양동에 입지한 사업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중대형 규모가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0년 기준 관양동에는 4,515개의 사업체에 2만 8,391명의 종사자가 근무하였으며, 당시 안양시에서 차지한 비중은 사업체와 종사자가 각각 13.7%와 18.0%이었다. 관양동에 입지한 경제활동은 시 승격 이후 꾸준히 증가했는데, 이는 단순히 절대적인 증가가 아니라 안양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를 동반한 것이다. 관양동의 경제활동 입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활발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양동의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산업 대분류 방식을 적용하여 도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업종을 찾아보면, 사업체 수 기준으로는 정보통신업(45.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3.4%), 부동산업(28.3%), 금융 및 보험업(24.1%), 제조업(24.2%), 숙박 및 음식점업(24.2%) 등을 비롯해 대부분 업종이 포함된다.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정보통신업(66.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7.4%),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복지행정(44.5%), 건설업(32.5%), 제조업(30.7%), 부동산업(30.5%) 등을 비롯한 대부분 업종이 포함된다.



관양동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상위 10개 업종(2021년)



사업체가 밀집한 인덕원동 공업 지역(2020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이렇게 볼 때, 관양동은 경제활동의 입지 특화도가 매우 높은 지역에 해당하며, 안양시의 경제중심지이자 도시의 심장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도시 전체의 종사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하게 높았던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공공 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등은 관양동으로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업종이다.

2021년 기준 관양동에 가장 많이 입지한 사업체는 도매 및 소매업이고, 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이다. 종사자 수의 분포에서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사자가 가장 많고 뒤를 이어 도매 및 소매업이 많았다. 17 안양시의 다른 지역과 달리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많은 것은 인덕원동에 조성된 안양벤처밸리와 크게 관련이 있으며, 이 업종은 인덕원동에만 1,082개의 업체와 1만 3,005명의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다. 안양시 내에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종사자 수의 특화도가 높았음에도 이 업종의 종사자 수가 관양동의 다른 업종에 비해 많지 않은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이외 업종의 종사자 수 규모가 훨씬 큰 지역이 관양동이기 때문이다.

3개의 행정동 가운데 사업체 및 종사자 수의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단연 인덕원동이다. 인덕원동에는 8,536개의 사업체에 5만 5,821명의 종사자가 있지만, 관양동(행정동)에는 3,297개의 업체에 1만 913명의 종사자가 있고 부림동에는 4,057개의 업체에 1만 6,676명의 종사자가 있다. 인덕원동과 다른 행정동 사이에는 사업체 입지에 있어서 뚜렷

한 격차가 존재하였다. 사업체당 종사자 수에서도 인덕원동은 6.5명이지만 관양동(행정동)과 부림동은 각각 3.3명과 4.1명으로, 인덕원동에 입지한 사업체의 규모가 큰 편이다.

5. 신시가지와 기성시가지의 균형발전이 필요한 시가지

관악산의 양지바른 남사면에서 학의천을 바라보고 달안이들을 품었던 관양동은 1970년대부터 진행된 제조업체의 입지 및 1980년대에 본격화한 택지개발, 1990년대의 신도시 개발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관양동의 시가지는 학의천을 중심으로 북쪽 지역은 택지가 증점적으로 개발되었고 남쪽 지역은 공업지대가 형성되면서, 학의천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도시공간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시가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농촌 경관은 서서히 사라져갔고, 농경지가 있던 자리는 도로·공장·사무실·주택 등 다양한 시설물이 들어섰다.

평촌신도시 개발과 함께 안양시의 주요 행정기관 및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등이 대거 관양동의 행정동인 부림동에 자리를 잡으면서, 관양동은 안양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 계획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이 떠난 부림동의 공간은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서면서 도시적 성격이 이전보다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관양동 학의천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 간에 차별적 도시성장이 존재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안양역에서 과천을 지나 서울로 향하는 길목이기도 하고, 조선시대 이래로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어지는 남북 방향의 주요 교통결절점(交通結節點)이었던 관양동은, 주변 지역으로 편리한 교통망이 개통되면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기존 도시공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노후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제조업 단지의 탈수도권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학의천 남쪽의 기존 제조업 밀집 지역은 공장설비가 있던 이전적지에 공동주택이나 첨단산업이 들어와 장소로 재구성했지만, 학의천 북쪽의 시가지는 특별한 외부요인이 개입되지 못함에 따라 아직도 노후 시가지의 형태로 남아 있는 곳이 많다.

학의천 남쪽은 2010년대 이후 신규의 도시공간으로 재편성되었으며, 기존에 건설된 평촌신도시와 함께 연계 발전이 가능해졌다. 반면, 관양동(행정동)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관악대로 주변의 시가지는 일부 구역을 제외하면 노후성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동쪽 북쪽에 자리한 관악산과 학의천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는 동시에 현대도시의 성격에 부합하지 못하는 일부 시가지의 체질 개선을 통한 균형발전 또는 상생발전이 필요해 보인다.



관양동의 기성시가지지를 관통하는 관악대로(2019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註

- 1 남영우·최재현·손승호, 『한국의 도시와 국토』, 법문사, 2020, 116~117쪽.
- 2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푸른길, 2008, 133쪽.
- 3 유홍식, 「관악산의 화강암 지형 연구」, 『한국지형학회지』, 제14권 제4호, 2007, 2쪽.
- 4 박정열·김태희·김성윤·박동균·이희찬, 2010, 「수도권 거주자의 산림 방문수요 결정요인 분석」, 『한국임학회지』, 2007, 제99권 제1호, 36~46쪽.
- 5 국토해양부, 『한국하천지명사전』, 푸른길, 2011, 168쪽.
- 6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푸른길, 2008, 224쪽.
- 7 국토해양부, 『한국하천지명사전』, 푸른길, 2011, 72쪽.
- 8 「하천 등 오염심각」, 『조선일보』, 1990년 6월 3일.
- 9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집』, 새안양회, 2012, 353쪽.
- 10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푸른길, 2008, 241쪽.
- 11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집』, 새안양회, 2012, 121쪽.
- 12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푸른길, 연도, 242쪽; 안양시사편찬위원회, 2008, 『안양시사-제2권 이야기와 인물로 보는 안양』, 우진 비엔피(주), 361쪽.
- 13 대한전선(<https://www.taihan.com>).
- 14 「공장 땅값 택지 웃돈다」, 『매일경제』, 1996년 3월 10일.
- 15 「안양 관양동 공장지대 용도변경 논란」, 『매일경제』, 1996년 7월 15일.
- 16 안양상공회의소, 『평촌·산본 신도시 건설과 안양권 발전』, 경인문화인쇄사, 1991, 38쪽.
- 17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규모를 나타낸 그림에서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으로 표기된 업종의 정확한 명칭은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다.

제2장

관양동의 도시공간과 도시개발

김용환 수원도시재단 차장



1. 관양동의 인구 및 사업체 현황

법정동으로서 관양동은 안양시 동안구 동북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교통·상업·자연·교육 등이 조화를 이룬 지역으로, 주거와 생활의 균형을 갖춘 살기 좋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관악산과 학의천이 있어 자연환경을 이용한 등산로와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지역 주민들이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안양시청 주변으로 다양한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청사들이 입지하고 있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도 편리한 지역이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이 위치하며, 관악대로·평촌대로·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이 지나고 있어서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한 광역교통의 중심지로 평가받는다.

관양동은 주거와 상업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인덕원역 주변 상권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관양시장은 안양 지역에서 가장 잘 운영되는 전통시장으로 이름 나 있다. 또한 동의 남동쪽에 자리하는 일반공업지역은 제조업 중심의 공업단지에서 지식산업단지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밀집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관양초등학교를 비롯하여, 관양중학교·인덕원중학교·관양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가 다수 존재한다.

관양동(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은 2023년 기준 7만 8,038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안양시 전체 인구의 약 14.3%, 동안구의 약 24.8%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2017년 8만 5,271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다.



관양동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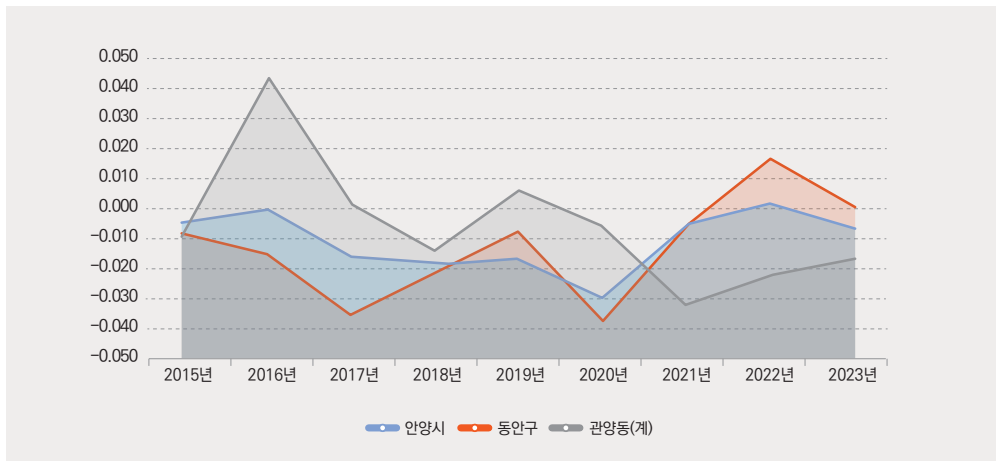
관양동 내 행정동

〈표 1〉 2014~2023년(10년간) 안양시·동안구·관양동의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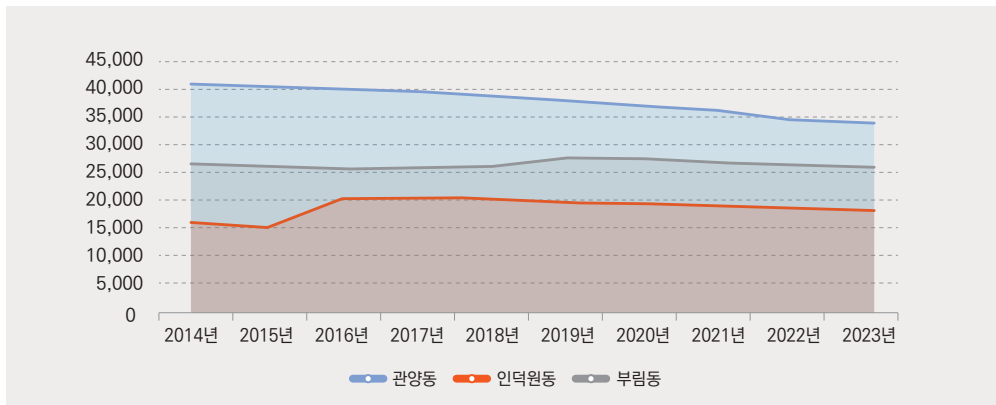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안양시	600,809	597,789	597,414	587,764	576,831	567,044	550,027	547,178	548,228	544,660	
동안구	353,494	350,519	345,061	332,787	325,319	322,809	310,614	308,867	313,834	313,996	
관양동	40,223	39,895	39,448	39,371	38,507	37,662	37,036	35,843	34,653	33,816	
관양동 행정 별	인덕원동	15,792	15,568	20,004	20,147	19,905	19,420	19,377	18,854	18,579	18,375
	부림동	26,391	26,167	25,704	25,753	25,616	27,432	27,588	26,575	26,174	25,847
	합계	82,406	81,630	85,156	85,271	84,028	84,514	84,001	81,272	79,406	78,038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 통계』(<https://jumin.mois.go.kr/>).



2014~2023년 안양시·동안구·관양동의 인구 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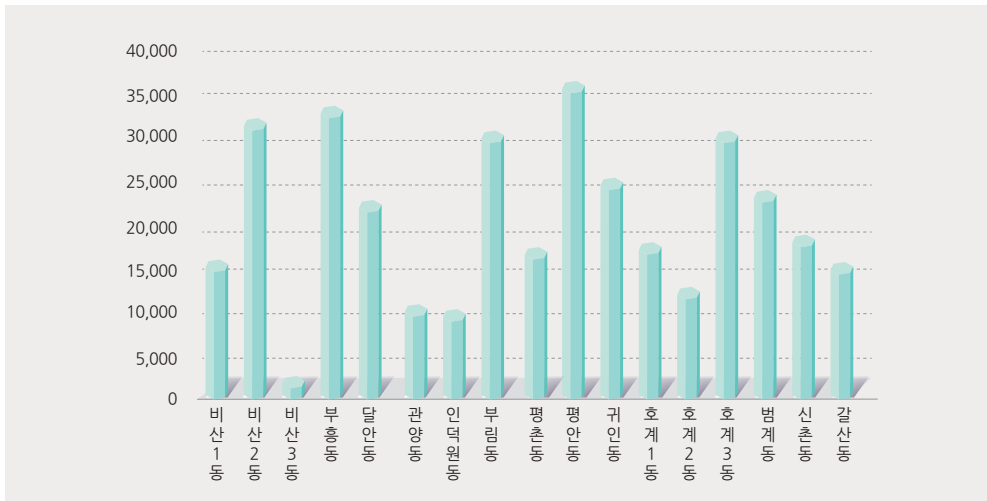
2014~2023년 관양동의 행정동별 인구 변동

〈표 2〉 2022년 안양시·동안구·관양동의 인구밀도

(단위 : 명/㎢)

구분	인구밀도(2022년)	구분	인구밀도(2022년)
안양시	9,476	평촌동	17,400
동안구	14,377	평안동	36,266
비산1동	15,327	귀인동	25,678
비산2동	31,859	호계1동	17,800
비산3동	2,120	호계2동	13,517
부흥동	33,376	호계3동	31,233
달안동	23,345	범계동	24,341
관양동	10,907	신촌동	19,115
인덕원동	10,497	갈산동	15,664
부림동	30,706		
관양동(계)	13,692		

자료 : 안양시, 『안양시 통계연보』, 2023.



2022년 동안구 동별 인구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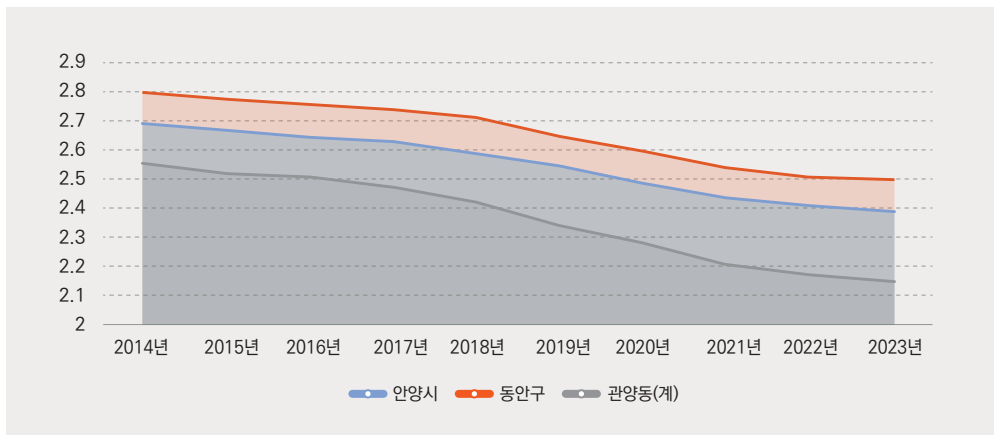
2022년 관양동 전체 인구밀도는 1만 3,692명/㎢이다. 행정동별로 살펴보면, 부림동의 인구밀도는 3만 706명/㎢로 동안구 인구밀도 대비 2배가량 높으나, 관양동과 인덕원동은 각각 1만 907명/㎢과 1만 497명/㎢로 인구밀도가 낮은 편이다. 관양동의 인구밀도는 안양시 전체 인구밀도 대비 144.5%로 높은 편이나, 동안구 전체 인구밀도와 비교하면 일반적인 편이다.

〈표 3〉 2014~2023년 안양시·동안구·관양동의 세대당 인구수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안양시	2.69	2.67	2.65	2.63	2.59	2.55	2.49	2.44	2.41	2.39
동안구	2.80	2.78	2.76	2.74	2.71	2.65	2.60	2.54	2.51	2.50
합계	2.56	2.52	2.51	2.47	2.42	2.34	2.28	2.21	2.17	2.15
관양동	관양동	2.66	2.63	2.59	2.54	2.49	2.43	2.36	2.28	2.19
	인덕원동	2.26	2.22	2.36	2.35	2.31	2.25	2.20	2.12	2.10
	부림동	2.60	2.56	2.51	2.47	2.40	2.29	2.24	2.17	2.13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https://jumin.mois.go.kr/>).



2014~2023년 안양시·동안구·관양동의 세대당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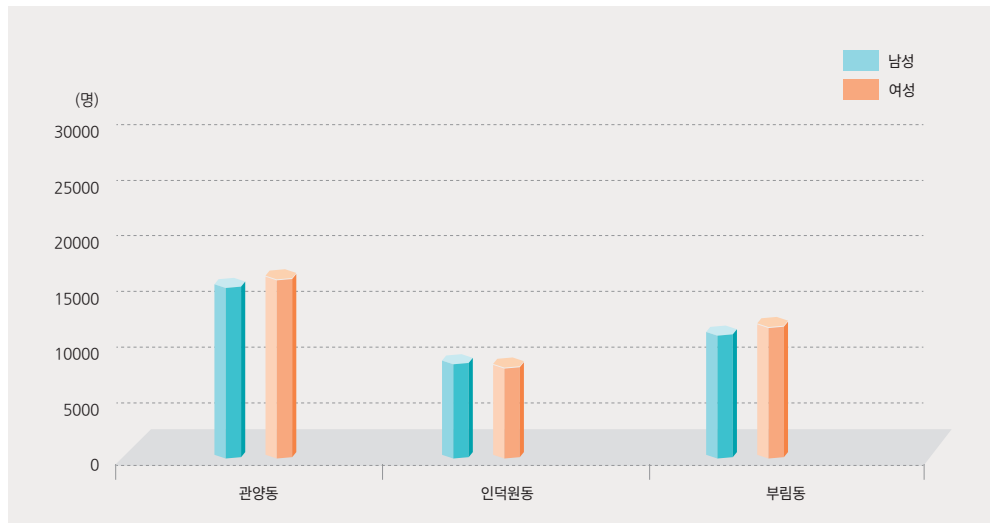
관양동의 세대당 인구는 2023년 2.15명으로, 안양시 및 동안구 대비 적은 편이다. 1인 가구의 증가 등에 따라 안양시 전체적으로 세대당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특히 관양동은 안양시와 동안구에 비하여 세대당 인구수의 감소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관양동의 성별·연령별 인구 분포

(단위 : 명,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관양동	33,068	16,156	16,912	1,351	2,236	4,541	4,441	3,873	6,219	10,407
인덕원동	18,186	9,299	8,887	930	1,260	2,562	2,922	2,538	3,281	4,693
부림동	26,026	12,582	13,444	1,715	2,039	3,286	5,524	4,316	4,277	4,869
관양동(계)	77,280	38,037	39,243	3,996	5,535	10,389	12,887	10,727	13,777	19,969
비율	100.0	49.2	50.8	5.2	7.2	13.4	16.7	13.9	17.8	25.8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 주거인구」(행정안전부, 「인구 통계 및 주거인구(2024년 1월 기준)」를 활용한 추정치).



관양동의 성별 인구(2024년 1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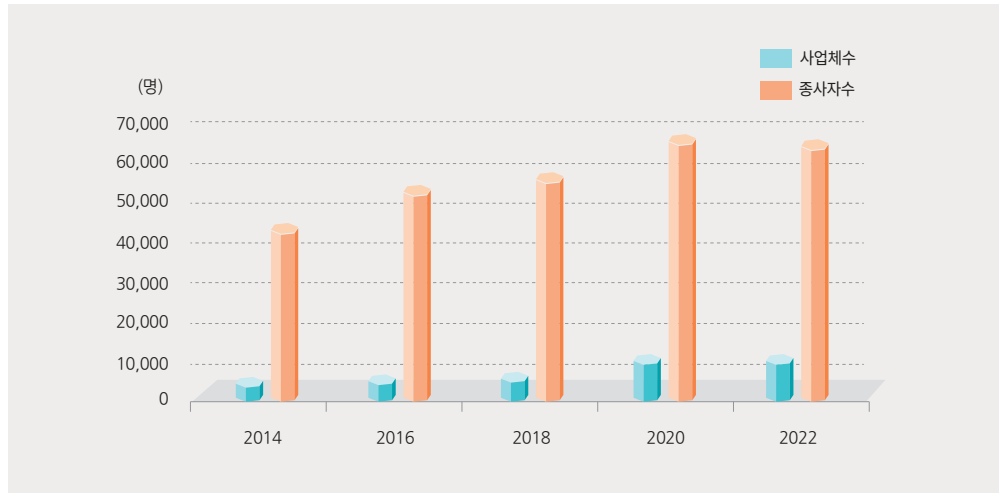
관양동의 전체 거주인구는 7만 7,280명으로, 남성이 3만 8,037명, 여성이 3만 9,243명으로 성비가 비슷한 지역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60대 이상 인구가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고령화가 심한 지역이나, 20~30대 인구도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5〉 2014~2022년 관양동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단위: 개소, 명)

구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안양시	44,505	235,143	44,767	246,711	44,824	255,402	63,348	267,279	65,722	276,105	
동안구	26,789	151,132	27,384	161,360	27,046	166,236	40,652	181,419	40,830	181,863	
계	5,959	43,613	6,801	51,907	7,578	58,418	11,581	67,658	11,985	66,804	
관양동	관양동	2,290	9,138	2,338	9,448	2,356	10,104	3,229	11,870	3,347	10,439
	인덕원동	3,669	34,475	4,463	42,459	5,222	48,314	8,352	55,788	8,638	56,365
	부림동	2,270	13,877	2,406	14,482	2,438	15,166	4,357	17,264	3,953	17,150

자료: 안양시, 『안양시 통계연보』, 해당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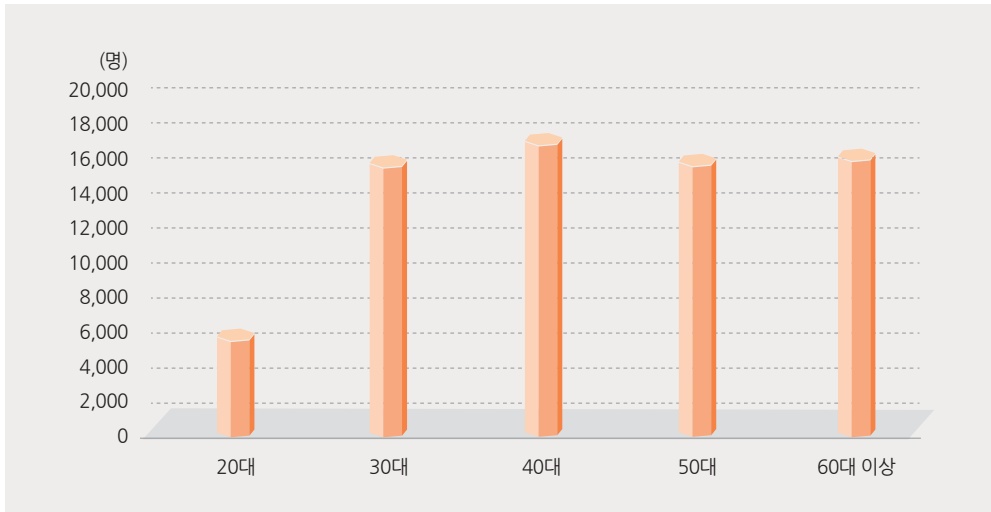
2014~2022년 관양동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관양동은 2022년 기준 안양시 전체 사업체의 약 24%인 1만 5,938개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8만 3,954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약 5.3명으로 안양시와 동안구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사업체의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큰 업체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급격하게 사업체 수가 늘어났으며, 특히 인덕원동 공업지역의 사업체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관양동의 성별·연령별 직장인구 분포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관양동	15,020	7,364	7,656	1,233	2,368	2,950	3,645	4,824
인덕원동	60,557	38,260	22,297	4,848	13,917	14,533	12,517	11,742
부림동	23,720	11,540	12,180	2,360	4,768	5,823	5,860	4,909
관양동(계)	75,577	45,624	29,953	6,081	16,285	17,483	16,162	16,566
비율	100.0	60.4	39.6	8.0	21.5	23.1	21.4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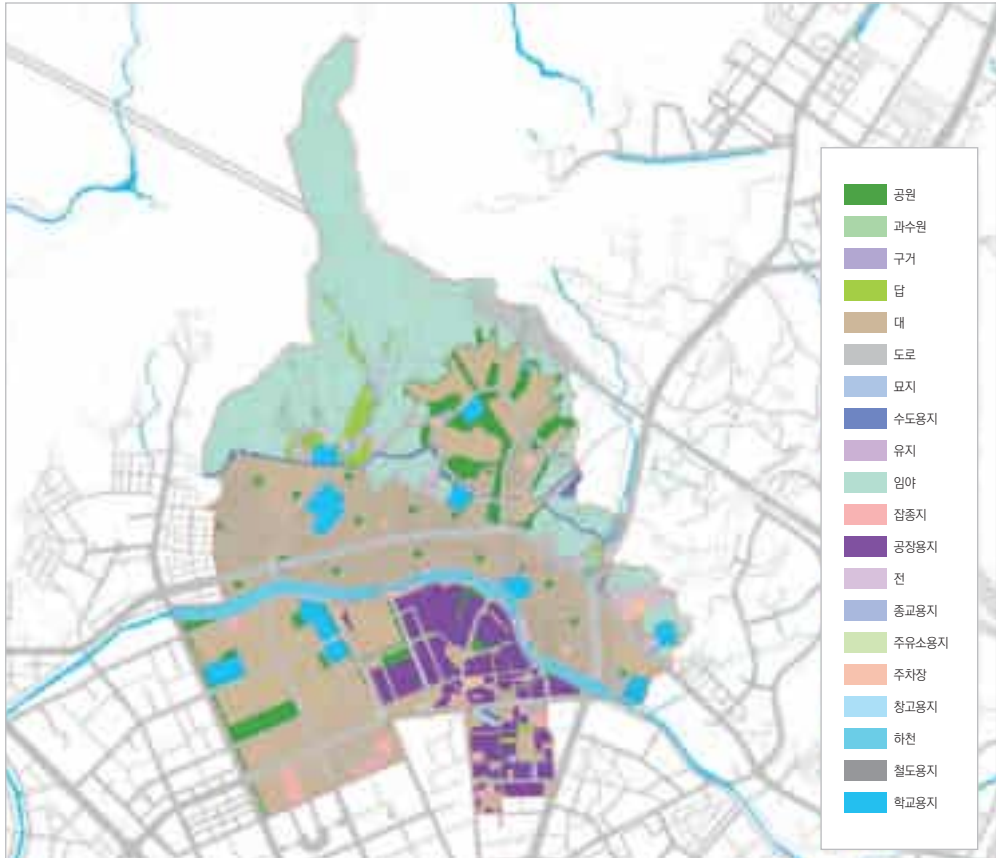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 직장인구」(행정안전부, 「인구 통계 및 주거인구」를 활용한 추정치).



관양동의 연령별 직장인구 분포

관양동의 직장인구 총 7만 5,577명 중, 남성이 4만 5,624명, 여성이 2만 9,953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21.5%, 40대가 약 23.1%대 등 30~60대 이상까지 직장인구가 연령대별로 고르게 분포한다.

2. 관양동의 토지이용



관양동의 지목

관양동의 지목별 현황은 총 584.46ha로, 대(29.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임야는 155.76ha(26.6%)로 자연환경의 주요 구성 요소이다. 도로는 102.98ha(17.6%)로 교통망을 형성하며, 공원은 29.74ha(5.1%)로 주민 여가 공간을 제공한다. 하천(20.17ha, 3.5%)과 학교용지(18.75ha, 3.2%)는 균형 잡힌 지역 생활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다.

〈표 7〉 관양동의 지목

구분	면적(ha)	비율(%)	구분	면적(ha)	비율(%)
대	171.83	29.3	주유소용지	0.57	0.1
도로	102.98	17.6	전	11.70	2.0
임야	155.76	26.6	철도용지	0.53	0.1
공원	29.74	5.1	답	7.98	1.4
종교용지	1.89	0.3	잡종지	8.60	1.5
주차장	3.54	0.6	과수원	1.66	0.3
구거	0.98	0.2	학교용지	18.75	3.2
수도용지	4.49	0.8	묘지	0.03	0.1
하천	20.17	3.5	창고용지	0.65	0.1
공장용지	42.60	7.3	유지	0.01	0.1
합계				584.46	100.0

자료 : 「연속지적도형정보」,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하천(학의천)



학교용지(부림초등학교)



공원(평촌공원)



대(관양동 1560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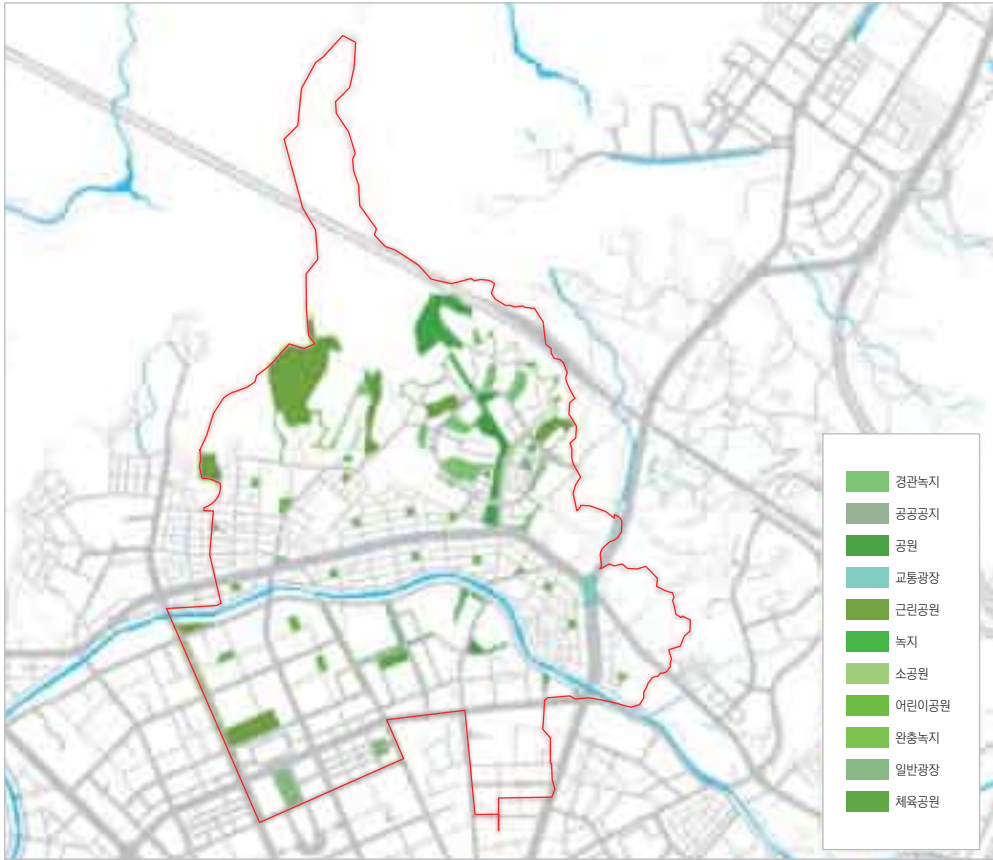
임야(관양동 450-9 일원)



종교용지(인덕원성당)



공장용지(관양동 1749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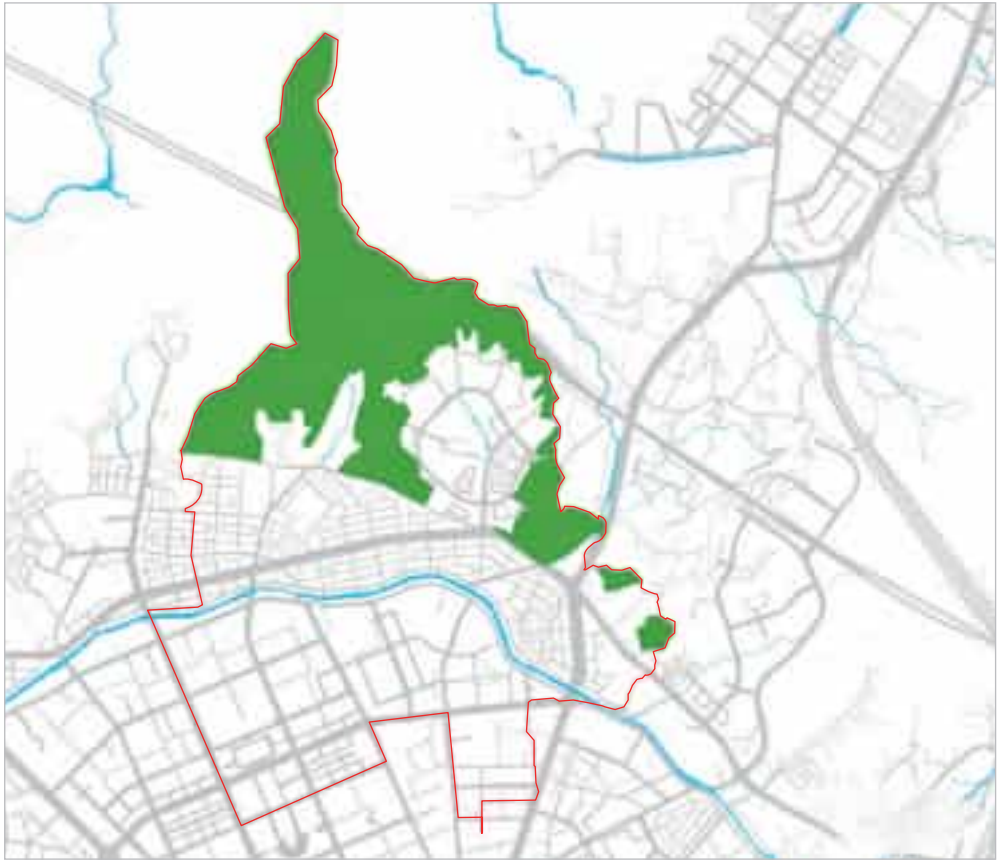
관양동의 공간시설

〈표 8〉 관양동의 공간시설

구분	면적(ha)	비율(%)	구분	면적(ha)	비율
합계	56.22	100.0	근린공원	21.38	38.0
공원	10.08	17.9	어린이공원	4.13	7.3
완충녹지	1.22	2.2	소공원	0.10	0.2
공공공지	1.12	2.0	교통광장	1.39	2.5
경관녹지	10.99	19.6	일반광장	2.68	4.8
녹지	2.13	3.8	체육공원	1.01	1.8

자료 : 「국토계획/공간시설」,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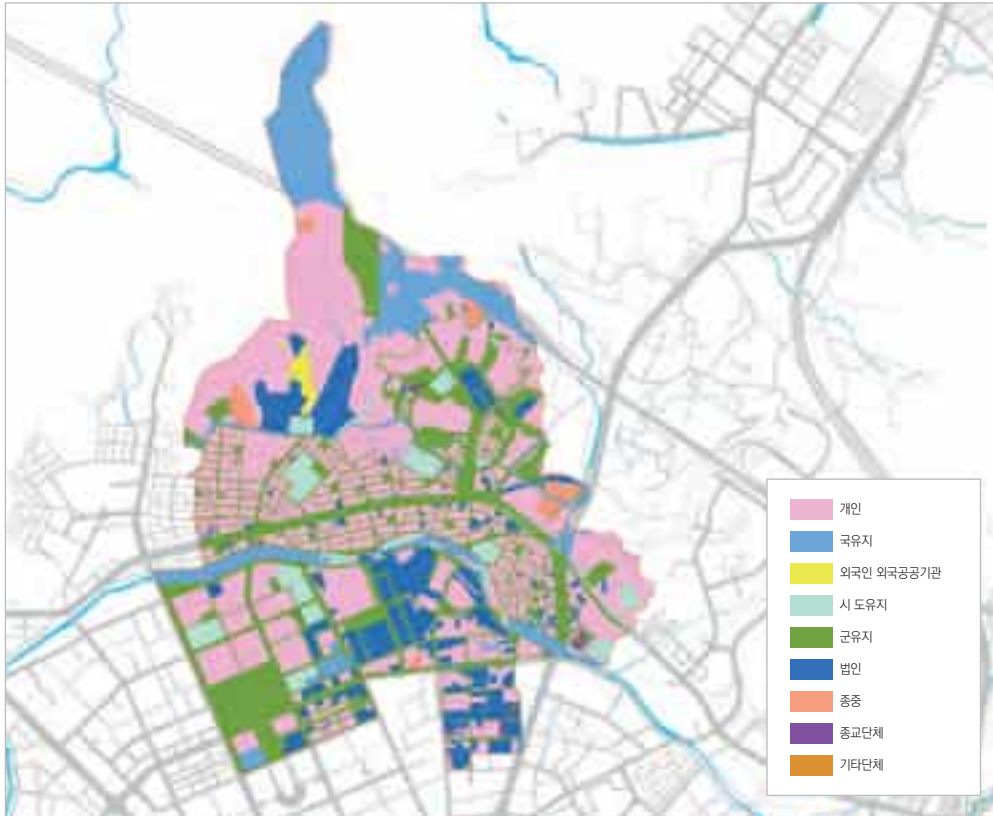
관양동의 공간시설은 총 56.22ha로, 근린공원이 38.0%(21.38ha)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민들에게 주요 여가 공간을 제공하며, 경관녹지는 19.5%(10.99ha)로 자연



관양동의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 2024년 7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친화적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공원은 7.3%(4.13ha)로 주거지 인근에 배치되어 접근성이 높으며, 그 외 공원(17.9%, 10.08ha)과 교통광장(2.5%, 1.39ha)이 생활 편의와 지역 교통을 지원하고 있다.

관양동의 개발제한구역은 총 168.17ha로, 관양동 전체 면적 대비 약 28.8%를 차지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주로 관악산 자락과 북부지역에 위치하며, 자연환경 보호와 생태계 유지 및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역은 주민들에게 녹지 공간을 제공하며, 등산로와 자연 휴식처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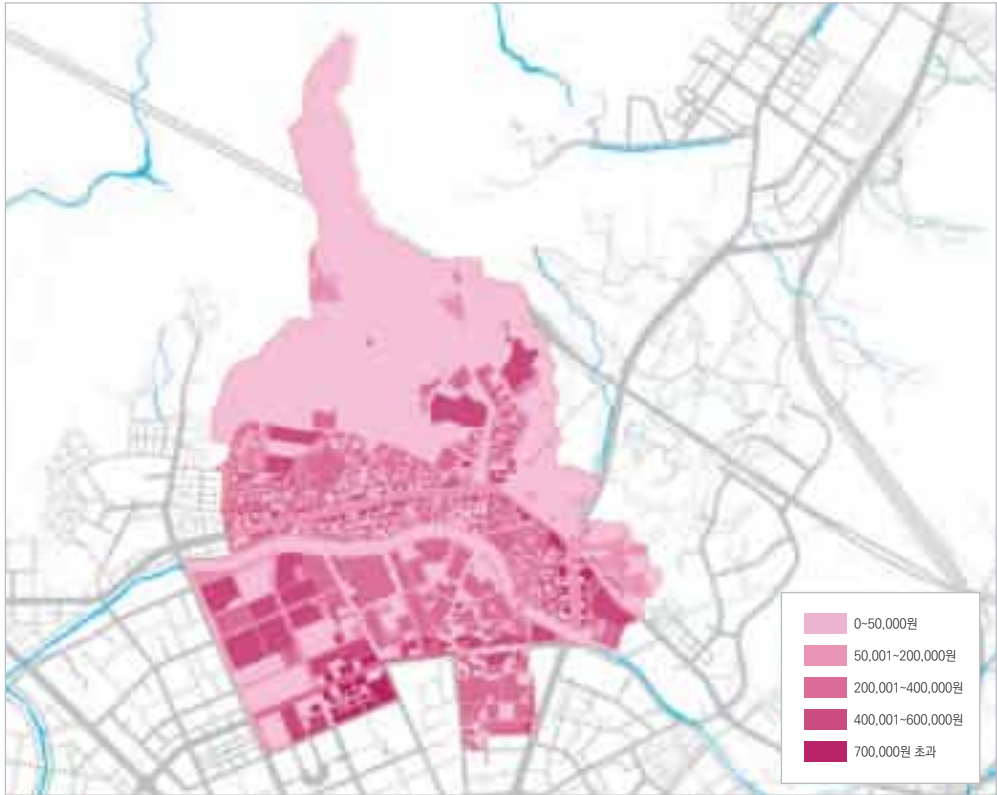
관양동의 토지소유

〈표 9〉 관양동의 토지소유

구분	면적(ha)	비율(%)	구분	면적(ha)	비율(%)
개인	257.24	44.0	법인	63.33	10.8
국유지	75.34	12.9	종중	8.30	1.4
외국인·외국공공기관	3.37	0.6	종교단체	2.08	0.4
시 도유지	26.83	4.6	기타단체	0.05	0.0
군유지	147.97	25.3	합계	584.51	100

자료 : 안양시청, 「토지 소유구분 자료」, 2024년 10월.

관양동의 토지소유 현황을 보면, 전체 584.51ha 중에서 개인 소유지가 257.24ha (4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군유지(147.97ha, 25.3%)와 국유지(75.34ha, 12.9%)가 뒤를 잇는다. 법인 소유는 63.33ha(10.8%)를 차지하며, 기타 시·도유지와 종교단체 소유지가 소규모로 분포하고 있다.



관양동의 공시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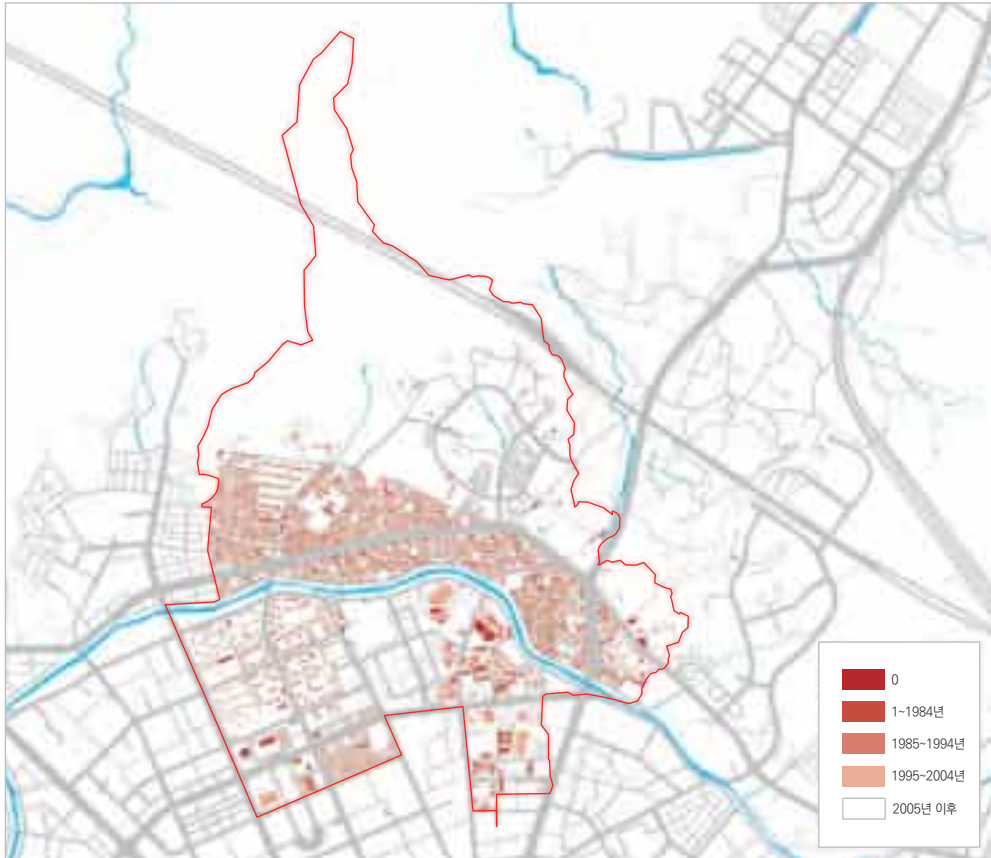
〈표 10〉 관양동의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면적(ha)	비율(%)	개별공시지가	면적(ha)	비율(%)
0~50,000원	221.05	37.8	400,001~700,000원	15.56	2.7
50,001~200,000원	76.00	13.0	700,000원 초과	250.82	42.9
200,001~400,000원	21.22	3.6	합계	584.66	100.0

자료 : 「개별공시지가정보」, 2024년 7월, v-world 디지털트윈국도(<https://www.vworld.kr/>).

관양동의 공시지가는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주거와 상업지역이 밀집한 남쪽 지역은 1㎡당 70만 원을 초과하는 높은 수준(250.82ha, 42.9%)의 공시지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생활 편의시설과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다. 반면, 북서쪽의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은 1㎡당 5만 원 이하(221.05ha, 37.8%)로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은 편이다. 공업지역은 1㎡당 20만~40만 원(21.22ha, 3.6%)으로, 중간 수준의 공시지가를 형성하고 있다.

3. 관양동의 건축물



관양동의 건축물 노후도

관양동의 건축물 현황을 보면, 사용승인일 기준 1985~1994년에 건축된 건축물이 1,759동(49.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양동이 해당하는 안양시 제7차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82년에 완료되었으므로 이 시기에 건축한 건물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1984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402동(11.3%)으로, 두 시기를 합치면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약 60.8%에 이른다. 2005년 이후 건축된 건축물은 502동(14.1%)으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하며, 최근 건축된 건축물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사용승인일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355동(10.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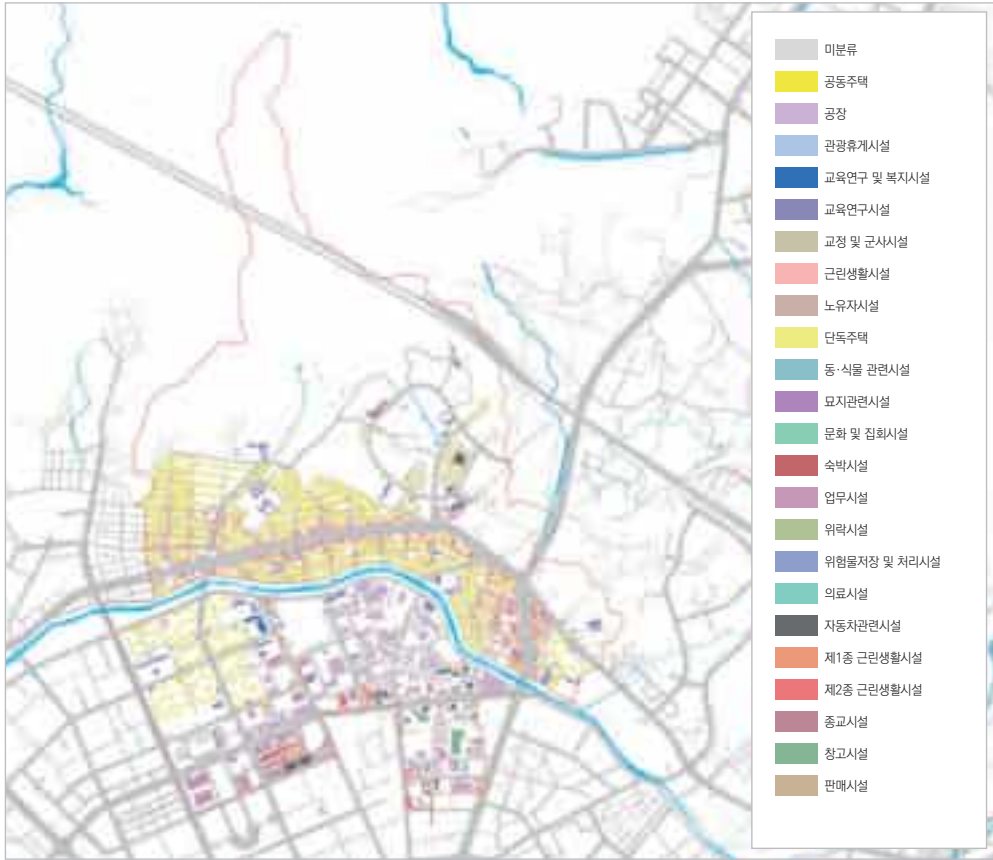
인덕원역(상)과 관양초등학교(하) 일대의 건축물 노후도

〈표 11〉 관양동의 건축물 노후도

사용승인일	동수(동)	비율(%)	사용승인일	동수(동)	비율(%)
-	355	10.0%	1995~2004년	543	15.3
1~1984년	402	11.3	2005년 이후	502	14.1
1985~1994년	1,759	49.5	합계	3,561	100.0

자료 : 「GIS건물통합정보」,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비고 : 해당 건축물 현황은 부속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사용승인일 정보 없음)을 포함하여 검토한 자료임.



관양동의 건축물 용도

관양동의 건축물 용도별 현황은 지역별로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중심부는 주택이 밀집해 있어 주거 중심지 역할을 하며, 남서쪽에는 업무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남동쪽은 공장이 밀집한 산업 지역으로,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북쪽은 시설이 거의 없는 형태로, 자연과 녹지 공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인덕원역(상)과 관양초등학교(하) 일대의 건축물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평촌대로 211번길)



제1종근린생활시설(공작마을 럭키아파트 앞 상가)



자전거관련시설(동편마을 공영주차장)



업무시설(평촌동양트레벨파크)



교육연구시설(세방 R&D 센터)



모역관련시설(안동김씨 문영공파 묘역)



관양동의 건축물 건폐율

관양동 건축물 건폐율은 50~60%가 61.4%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도로변 상가주택 건물이다. 6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3.4%이며, 20~50%의 건폐율인 건축물은 16.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양동은 상가건물이 밀집한 평촌역 주변 상업지역과,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한 인덕원동 공업지역에 건폐율 60%를 초과하는 건축물이 다수 분포하여,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인덕원역(상)과 관양초등학교(하) 일대의 건축물 건폐율

〈표 12〉 관양동의 건축물 건폐율

건폐율	동수(동)	비율(%)	건폐율	동수(동)	비율(%)
0~5%	23	1.6	50~60%	896	61.4
5~20%	108	7.4	60% 초과	195	13.4
20~50%	238	16.3	합계	1,460	100.0

자료 : 「GIS건물통합정보」,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비고 : 해당 건축물 현황은 부속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건폐율 정보 없음)을 포함하여 검토한 자료임.



관양동의 건축물 용적률

관양동의 용적률 현황을 보면, 100~200%인 건축물이 5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200% 이상도 20.3%로 나타났다. 그러나 용적률 300% 이상의 건축물은 거의 없으며, 이는 관양동이 상대적으로 저밀도로 개발된 지역임을 보여준다.

〈표 13〉 관양동의 건축물 용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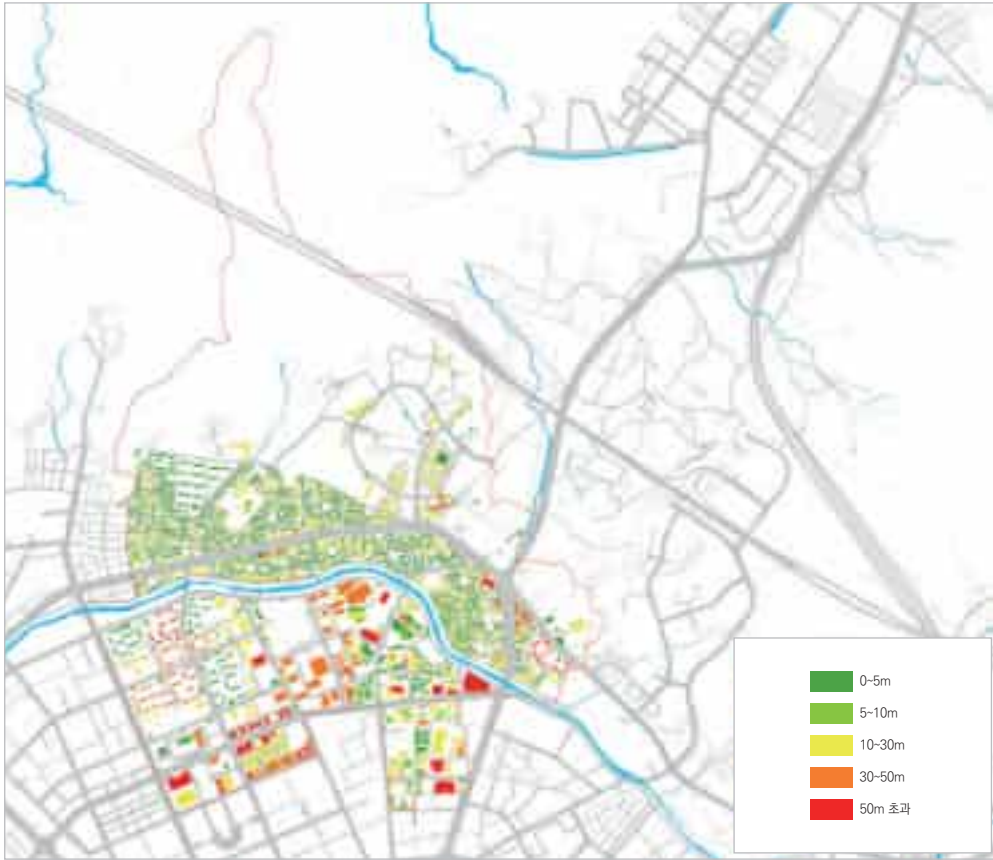
용적률	동수(동)	비율(%)	용적률	동수(동)	비율(%)
0~50%	94	6.5	200% 이상	512	35.2
50~100%	149	10.2	계	1,456	100.0
100~200%	701	48.1			

자료 : 「GIS건물통합정보」,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비고 : 해당 건축물 현황은 부속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사용승인일 정보 없음)을 포함하여 검토한 자료임.



인덕원역(상)과 관양초등학교(하) 일대의 건축물 용적률



관양동의 건축물 높이

관양동의 건축물 높이 현황을 요약하면, 10~30m의 건축물이 5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5~10m의 건축물은 342동(28.3%), 30~50m는 93동(6.5%)로 나타났다. 북쪽의 주거지역은 대부분 높이가 낮고 남쪽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높이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14〉 관양동의 건축물 높이

높이	동수(동)	비율(%)	높이	동수(동)	비율(%)
0~5m	94	6.5	30~50m	93	6.5
5~10m	342	28.3	50m 초과	56	3.9
10~30m	852	59.3	합계	1,43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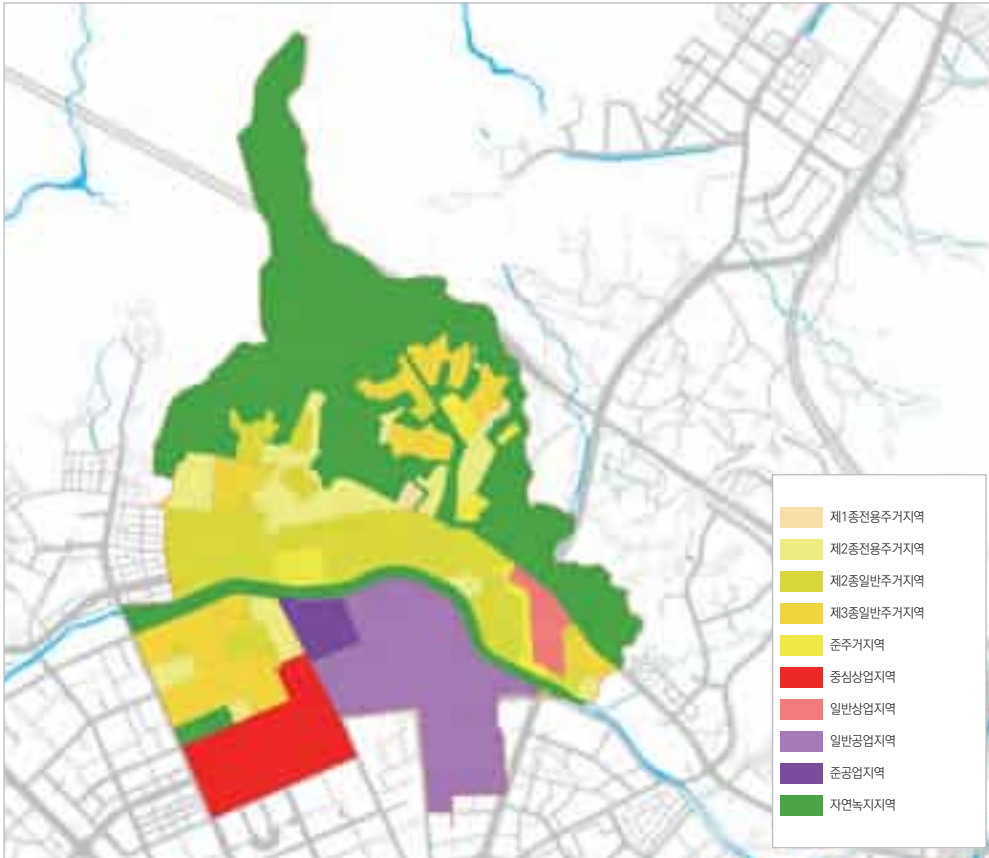
자료 : 「GIS건물통합정보」,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비고 : 해당 건축물 현황은 부속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사용승인일 정보 없음)을 포함하여 검토한 자료임.



인덕원역(상)과 관양초등학교(하) 일대의 건축물 높이

4. 관양동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구상



관양동의 용도지역

〈표 15〉 관양동 용도지역

구분	면적(ha)	비율(%)	구분	면적(ha)	비율(%)
제1종일반주거지역	48.59	8.3	중심상업지역	40.67	7.0
제2종일반주거지역	83.30	14.3	일반상업지역	8.94	1.5
제3종일반주거지역	60.43	10.3	준공업지역	10.01	1.7
제1중전용주거지역	2.50	0.4	일반공업지역	76.89	13.2
준주거지역	15.82	2.7	자연녹지지역	237.36	40.6
			합 계	584.51	100.0

자료 : 「용도지역지구(국토계획/도시지역)」,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상업지역(평촌역 2번출구 주변)



제2종일반주거지역(인덕원 삼호빌라)



공업지역(관양동 1749 일원)



자연녹지지역(관양동 191-7 일원)

관양동이 속하는 비산·관양 생활권의 상위계획을 살펴보면, 지역 중심 기능 강화, 주거환경 노후화 대비, 노후 공업지역 정비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관양동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를 지식산업 및 ICT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식기반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인덕원역 중심의 광역교통 확대 및 교통 집적과 연계한 고밀개발을 통하여 지역 중심지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계획되어 있다.

〈표 16〉 상위계획에서의 관양동 개발구상

분류	현황
2030 안양 도시 기본계획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산·관양 생활권 개발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 중심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교통 확대에 따른 복합기능 도입(4호선, KTX, 인덕원-수원 간,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 편리한 교통수단 간 환승 시스템 구축 · 인덕원역세권 고밀개발 추진 · 지역중심지 내 근생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상업기능 확대 추진 ② 주거환경 노후화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층 주거지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재생사업 추진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추진 ·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존 유도 · 다양한 주민자치조직 육성을 통한 공동체 의식 강화 · 관양동-석수동 연계도로망 구축 ③ 노후 공업지역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지식산업 및 ICT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식기반 클러스터 육성 · 평촌스마트스퀘어와 연계를 통한 노후 공업지역 성장·정비 동력 확보
202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산중생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주거용지의 정비 및 이에 따른 생활권 중심기능 제고 - 첨단산업 및 R&D센터 등 첨단지식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기능 강화 - 관양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및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인덕원역 주변 상업기능 강화 - 인덕원역 주변의 대규모 개발사업(관양지구, 의왕 포일·청계지구)으로 인한 광역적 교통 요충지역활이 증대되며, 지역중심성 강화를 위한 주변 지역의 정비 필요)
안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퇴분석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덕원동은 인구감소, 사업체 감소 및 노후 건축물 다수의 쇠퇴지역 • 인덕원동 도시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통한 보행자 통로 정비,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 CCTV 및 보안 벨신설, 주차타워 설치 등 주거환경 정비 추진
안양시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안생활경관구역 : 시가지 경관위해요소 정비 및 신규개발지와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 북부자연경관구역 : 산림생태환경 보호 및 배후 산림자연과 조화로운 녹색시가지 경관 창출 • 경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변경관축 : 하천 변 경관위해요소 관리 및 수변경관 특성화 유도 - 생활도로경관축 : 주요 생활형 도로의 경관관리 및 보행자를 위한 가로경관 조성

경관권역(4)

안양시 경관특성과 핵심구역, 상위 및 관련계획 반영

- 북부자연경관권역 : 생태환경 보호 및 산림과 조화로운녹색 시가지 경관 창출
- 서부자연경관권역 : 수리산의 생태자연환경과 어울리는산림휴양경관 창출
- 만안생활경관권역 : 중심지 경관 정비 및 특화요소 도입
- 동안생활경관권역 : 쾌적성, 편리성, 여가문화 이미지 형성



경관축(10)

주요간선도로 및 녹지 수변축을 대상으로 설정

- 녹지경관축 : 주요산지의 산림, 녹지경관 보전
- 수변경관축 : 하천 경관 정비 및 특화요소 도입
- 도로경관축 : 경관위해요소 관리, 녹지네트워크 구축
- 철도경관축 : 녹지대 경관형성 및 방음벽 등 시설물 경관개선

경관거점(34)

중요한 경관요소를 형성하고 있거나 잠재성이 있는 지역

- 관문경관거점 : 자연적 요소를 활용한 인지성 강화
- 녹지경관거점 : 녹지거점 배후 자연관광 보전
- 예술여가경과거점 : 커뮤니티 시설 및 문화공간 조성
- 역사문화경관거점 : 상징성 및 인지성 강화

안양시 경관계획



제1장

관양동의 자연마을과 자연마을연합회

이동아 그려보다 대표



관양동은 관악산을 뒤에 두고 학의천을 바라보는 곳에 배산임수형 지세에 형성된 마을이다. 역사적으로 관양동은 안양 지역에서 과천 관아로 향하는 길목에 해당하였다. 관악산 자락에서 과천까지 가기 위해서는 세 개의 고개를 넘어야 했는데, 이 때문에 '삼현 원정리' 또는 '세우개'라 불렸다.¹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관양동이 일찍부터 교통로로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관양동'이라는 동명은 1948년 설립된 관양초등학교에서 비롯되었다. '관악산 아래 양지바른 곳에 자리 잡은 학교'라는 뜻으로, 관악산의 '관(冠)'과 양지의 '양(陽)'을 합해 지었다고 한다. 이후 1973년 7월 1일 안양이 시로 승격하면서 '일동리'였던 법정리 명칭을 관양초등학교의 이름을 따서 법정동 명칭을 관양동이라 하였다.

학의천을 끼고 있는 평지에 발달한 농경지에서 농업을 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던 관양동은, 도시화를 거치면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취락 지역으로 변하였다. 농경지에는 공업지역이 형성되어 안양시 경제의 중심지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1990년대 초반 건설된 평촌신도시 내 관양동 소속 행정동 부림동에는 안양시청과 시의회 등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자리한 행정·금융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관양동의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자연마을도 변화를 겪었다. 외지인 유입에 따라 토박이 비율이 감소하고, 농업을 생업으로 하던 생활방식도 도시형 생업으로 전환되어 갔다.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러 개발사업은 마을의 전통과 공동체문화를 해체함으로써 자연마을의 형태가 사라지고 있다.

1. 관양동의 자연마을

관양동에는 중촌(中村, 가운데말·간데말), 동편(東便), 마분(馬賁洞, 말무덤이), 부림말(富林洞), 수촌(秀村, 뺨말), 간촌(間村, 셋말·샌말), 소능골(小陵谷), 오촌말(吳村洞), 망령골(亡靈谷), 산골재, 골안(谷內), 인덕원(仁德院) 등의 자연마을이 있었다.²

1) 수촌

수촌(秀村)은 ‘뺨말’이라는 순우리말을 한자화한 지명이다. 관양동과 비산동의 경계에 자리한 마을로, 중촌의 서쪽에 위치한다. 수촌마을은 수촌경로당을 중심으로 약 70여 농가가 거주하였다. 조선 초기에 조성된 마을로 전해지며, 김해 김씨 김영군파의 김희만(金希萬)이 과거를 보고 돌아오던 길에 정착하여 형성되었다고 한다.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전한다. 첫째, 마을 주변에 뺨대쑥 또는 뺨쑥(영커시과의 다년초)이 많아 처음에는 ‘뺨말’이라 불리다가 후대에 ‘뺨말’이 되었다는 설이다. 둘째, 마을의 원래 위치가 지금보다 남쪽의 벌판에 있어 ‘벌말’이라 불리다가 ‘뺨말’이 되었다는 설이다. 셋째, 지세가 좋아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의미에서 ‘뺨어난 마을’이라는 뜻으로 불리었다는 설이다. 넷째,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당시 다른 마을들은 큰 피해를 입었으나 수촌마을 사람들만 무사하여 ‘나쁜 일에서 빠진 마을’이라는 의미로 ‘뺨다’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다. 이 가운데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문헌에 기록된 설이고, 넷째는 마을 사람들에게 구전되는 설이다.

수촌에는 김해 김씨 외에도 상주 김씨와 연안 차씨가 정착하여 ‘뺨말의 3대대 성씨’라고 불린다. 이 가운데 김해 김씨는 수촌과 마분의 뒷산인 큰골산에 묘역을 조성하였으며, ‘김해김씨 관양동종친회’를 조직하여 매년 음력 10월 묘역에 모여 시향제를 지내고 있다.

수촌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2일, 큰골산에서 당제를 지낸다. 예전에는 수촌 주민뿐 아니라 인근 마을 주민들도 함께 참석하였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수촌에서 지내는 마을 제사를 으뜸이라는 뜻으로 ‘도당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관양동 일대가 도시 지역으로 변모하면서 현재는 수촌 주민들만 모여 당제를 지내고 있다.



1973년 수촌마을 전경(안양시청 제공)



1976년 수촌마을 입구(안양시청 제공)



수촌마을 새마을부녀회 마을 청소(안양농협 제공)



수촌마을 장남회 제주도 여행(김한석 제공)



2024년 김해 김씨 관양동종친회 시향제 상차림



2024년 김해 김씨 관양동종친회 시향제



1966년 수촌(좌)과 마분(우) 일대(국토지리정보원 제공)

2) 마분

마분은 수촌과 중촌 사이에 자리 잡은 마을이다. ‘마분골’ 또는 ‘말무덤이’라고도 부르는데, ‘마분골’은 말무덤의 한자어인 ‘마분(馬墳)’과 고유어 ‘고을’의 준말인 ‘골’이 합성된 지명이다. 마분에는 관양중학교 입구를 중심으로 40여 농가가 거주하였다. 조선시대에 비산동의 마장골(매곡)에서 기르던 말이 죽으면 이곳에 매장했다고 하여 말무덤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곳에 큰 무덤이 있어서 붙은 이름이라는 다른 유래가 전하기도 한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관양중학교 아래에서 말에게 편자를 박을 때 사용하는 쇧조각이 많이 출토되었다고 하여, 실제로 말무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마을에는 김해 김씨, 나주 정씨, 위씨 등이 오래 거주하였다.

1978년 안양7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면서 마을은 점차 변창하였다. 1985년 농경지였던 곳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선 데 이어 아리랑아파트, 남광2차아파트, 대광아파트 등이 신축되면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1948년 관양초등학교가 개교하였고, 1977년에는 관양초등학교 옆에 관양중학교가 개교하였다.



1976년 중촌 전경(안양시청 제공)

3) 중촌

중촌은 ‘가운데말’ 또는 ‘간데말’이라고도 불리며, 마분과 동편 사이에 위치한다. 조선시대에는 내시들이 사망하면 이곳에 묻혔다. 내시는 조선시대 궁궐에서 왕의 식사와 왕명의 전달, 수문(守門) 및 청소 등을 맡아보던 사람들을 가리킨다. 중촌에는 근래까지 내시 무덤이 있었으나, 주변 환경 변화로 대부분 이장되거나 화장되었다. 예컨대 효성다세대주택(관양동 356) 부근에는 4기의 무덤이 있었고, 관양동 산65-1에도 1기가 있었으나 1970년대 말에 후손이 화장하였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중촌은 20여 호 남짓한 작은 촌락이었다. 1980년대까지도 일반 주택과 농지가 대부분인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으나, 1978년 안양7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택지로 개발되면서 남광1차아파트·동산빌라·뉴한신빌라 등이 들어섰다. 또한 1973년에는 관양동사무소가 신축되었다. 1990년대 이후 평촌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면서 중촌에도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집중적으로 들어섰다.

중촌에 거주한 주요 성씨는 안동 김씨, 김해 김씨, 나주 나씨, 평양 조씨 등이다. 이곳



문영공 김순 묘역(안양시청 제공)

에는 안동 김씨 문영공파의 종무소와 재실이 있어 매년 음력 10월 7일, 후손들이 모여 문영공 묘소에서 시향제를 지낸다. 또한 중촌에서는 과거에 수촌과 함께 음력 10월 2일, 마을 뒷산인 큰골산에서 당제를 지냈으나 현재는 중단되었다.

중촌에는 번영회가 조직되어 있다. 중촌번영회는 1970년대 새마을사업 당시 중촌마을회관 부지를 매입하였는데, 관양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70평 규모의 토지를 환지 받았다. 번영회는 여기에 건물을 지어 임대하였고 임대소득은 중촌마을 공공기금으로 활용하였다. 2010년대 후반 4층 상가주택으로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소득은 사회기부와 30여 명의 번영회원 복지 등에 사용한다.³

4) 부림말

부림말은 중촌 동쪽에 위치하였다. 남평 문씨와 밀양 박씨가 처음 처음 정착하였다고 전한다. 옛부터 산림이 울창하고 부자가 많이 사는 마을이라 하여 ‘부림’이라는 지명이 붙었다고 한다. 부림말은 현존하는 안양 지역 최초의 교회인 ‘부림교회’가 설립된 마을



부림말 새마을사업(1970년대, 안양시청 제공)

이기도 하다. 부림교회는 ‘동은교회’로 개칭하였고, 부림말에서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다. 아랫마을이 관악로 확장 당시 도로에 일부 포함되고 이후 개발되면서 윗마을만 자연마을로서 유지하다가, 관양지구 개발 당시 자연마을의 형태를 잃어버렸다.

부림말에는 세 개의 우물이 있었다. 관악초등학교 자리에 있던 부림우물, 관양우체국 옆에 있었던 박우물, 신작로에 있던 두렛물이 그것이다. 부림우물은 마을에서 다소 떨어져 2~3호 정도가 사용했기 때문에 ‘너머말우물’ 또는 ‘윗우물’이라고 불렸다. 박우물은 바가지로 물을 길어 먹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두렛물은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먹는다고 하여 붙여졌다.

부림우물은 관련된 전설이 있다. 약 200여 년 전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농사는 물론 식수마저 구하기 어렵고 마을에는 변고가 잦아 민심이 흉흉해졌다고 한다. 이에 마을의 한 원로가 관악산 도인을 찾아가 자문하니, “우물제사를 지내면 물이 솟고 민심도 진정 될 것”이라고 하여, 주민들이 마을의 우물에 제사를 지내자 물이 잘 나오고 마을의 변고도 사라졌다고 한다.

부림말에서는 매년 음력 7월 1일 우물을 당으로 삼아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



개발 전 부림말 마을 지도(『안양시 관양지구 사이버 고향마을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대한주택공사, 2007)

는 제사를 지냈다. 이때 우물은 제의의 당이자 신격으로 간주되었다. 제주는 마을의 고령자가 맡았으며, 제물로는 소 한 마리를 사용하였다. 제물용 소는 주민들이 각출하여 구입하였다. 제물은 외상으로 마련하고 제사를 지낸 뒤에 걷었는데, 책임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므로 부담이 컸다. 그래서 제비를 걷는 사람에게는 제를 마친 후 소머리를 주었다.

제물에는 막걸리와 과일(사과·배·감·밤·대추·포도·참외·수박), 조과(산자) 등을 준비하였다. 우물마다 별도의 상을 차려 올렸는데, 소머리는 관악초등학교에 있는 윗우물에, 다른 우물에는 소갈비를 올렸다. 이는 관악초등학교의 우물이 제일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었다. 살코기, 선지, 내장도 두 근씩 올렸다.

제의 당일에는 관내 도랑을 청소하고 우물물을 모두 퍼내어 오물을 제거하였다. 약정오가 지나 제를 올렸으며, 제주가 옷을 갈아입고 나와 술을 부은 뒤 삼배하였다. 이후 우물마다 차례대로 제사를 지냈다. 우물제사가 끝나면 오후 2~3시경부터 우물을 사용할 수 있었고, 주민들은 서로 먼저 물을 뜨기 위해 경쟁하기도 하였다. 제사를 마친 뒤에는 내장을 넣고 끓인 국을 나누어 먹으며 하루를 즐겼고, 고기는 주민 수대로 분배하였



2004년 부림말 윗마을 전경(이정범 제공)

다. 이때 제비를 내지 못한 사람은 받은 고기를 이웃에게 팔아야 했다.

주택이 늘어나면서 박우물과 두렛물은 폐정되었고, 1980년대 도로 확장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현재는 ‘너머말우물’이라 불린 부림우물만 관악초등학교 안에 남아 있다. 『관양동지』(1999)에는 1988년부터 제를 지내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2005년과 2007년에 발간된 보고서⁴에는 당시 관악초등학교에 있는 우물에서 여전히 제를 지냈다고 되어 있다.

5) 간촌

간촌은 ‘샌말’ 또는 ‘셋말’이라고도 불렸으며, 동편과 부림말 사이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이’를 뜻하는 ‘새’와 ‘마을’이 합쳐져 ‘셋말’이 되었고, 발음이 굳어져 ‘샌말’이 되었다. 2007년 조사 당시 간촌에는 약 40여 농가가 거주하였다. 관양지구 택지개발 당시 폐동되었다.

간촌은 전주 이씨·보성 오씨·경주 이씨·광주 이씨 등의 오랜 세거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전주 이씨가 대성을 이룬 마을이다. 간촌은 원래 소농골·오촌말·산골재로 이루어진 숲속의 마을이었으나 후에 각각 분리되었다. 부림에서 간촌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활터



개발 전 간촌 마을 지도(『안양시 관양지구 사이버 고향마을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대한주택공사, 2007)

1988년 간촌 전경(안양시청 제공)



고개'라고 불렀는데, 이곳에 간촌 노인들이 활을 쏘며 놀던 활터가 있었다고 전한다.

개발되기 이전 주소인 관양동 422번지에는 간촌 주민들이 사용하던 우물이 있었다. 이 우물은 마을 중심부에 자리하였으며, 조선시대부터 사용되었다고 한다. 2005년 당시에는 빨래터로 이용되고 있었다. 우물은 반지하식 구조로 약 40cm 내외의 활석으로 쌓은 석축 시설이 남아 있었으며, 외부는 시멘트와 철제 난간 등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개조 공사 때 하부 구조는 그대로 두고 위에 축조하였다고 한다. 예전에는 오씨 집안에서 매년 음력 10월 우물을 청소하고, 물을 떠서 미역국과 밥을 지어 우물 앞에서 제를 지낸 후에야 마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6) 동편

동편은 간촌 동쪽에 있던 마을이다. '동편'이라는 지명은 '세우고개의 동쪽 편'이라는 의미로, 정조 때 사도세자의 능행과 관련이 있다. 안양동을 통과하는 시흥로가 개설되기 전까지 수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마을의 길을 거쳐야 했다. 남태령을 넘어 과천으로 가는 길이 첫 번째 고개, 갈현동 찬우물에서 인덕원으로 가는 길이 두 번째 고개, 관양동 마분 지역이 세 번째 고개였다. 따라서 세 번째 고개의 동쪽 편에 자리한 마을이라 하여 '동편'이라 불렀다고 전해진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동편은 성종의 여덟째 아들 익양군의 손자 덕림수(德林守)가 조선 중기에 처음 세거하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그러나 2005년 조사된 보고서에 따르면, 동편에는 고고·역사·유교·사회·민속 등 각 분야의 문화유산이 다양하게 분포해 있다. 지식묘로 추정되는 고고학 유물부터 주민들의 생활상을 보여 주는 민속문화유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은 조선 중기 이전에도 이곳에 사람들이 거주했음을 알려 준다.

동편에 처음 세거한 성씨는 전주 이씨 익양군파 덕림수로, 약 1600년경 정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동편에는 5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었고 그 중 48세대가 전주 이씨였다. 이처럼 압도적인 비율로 보아 동편은 전주 이씨의 오랜 집성촌임을 알 수 있다.

동편마을의 전주 이씨 종가는 입향조 덕림수가 처음 정착한 장소 근처라고 전해지며, 입향 당시 집의 사랑채가 길어 그 집을 중심으로 윗말·아랫말·건너말로 나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윗말은 동편마을의 동북쪽에, 아랫말은 서남쪽에 위치한다. 동편마을에는 망



개발 전 동편 마을 지도(『안양시 관양지구 사이버 고향마을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대한주택공사, 2007)

령골이 속해 있었으나 후에 별도의 마을로 분리되었다.

동편에는 원래 네 개의 우물이 있었다. 하나는 관양동 94-2번지 앞 농지에, 또 하나는 관양동 60번지 앞에 있었으며, 마을회관 근처인 관양동 28번지와 29-3번지 부근에 하나, 그리고 관양동 46-1번지 앞에는 빨래터로 사용하는 우물이 있었다. 그러나 도로가 개설되면서 관양동 94-2번지 우물만 남게 되었다.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아 지하수를 사용하였기에 마을 우물은 주민들에게 중요한 식수 공급원이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음력 8월 보름 무렵 공동우물을 청소하고 고사를 지냈으며, 이 우물을 사용하는 주민 모두가 제사에 참여하였다.

동편마을은 관양지구 택지개발로 인해 폐동되었다. 이를 아쉬워한 주민들은 2016년 동편마을 카페거리 입구에 ‘간촌·동편·부림말 옛터’라고 적은 마을 표지석을 세웠다. 동편마을 택지개발지구에는 3,7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건설되었고, 상업지역에 150여 개의 카페와 음식점이 들어서면서 ‘동편마을 카페거리’가 조성되었다. 특히 2016년 방영된 드라마 ‘도깨비’에서 남녀 주인공이 함께 걸었던 길로 알려지며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로 변모하였다.



2005년 동편 마을 전경(이정범 제공)



2007년 동편 마을 입구(이정범 제공)



간촌·동편·부림말 옛터 표지석

7) 인덕원

인덕원은 김해 김씨가 입향하여 마을을 이루었다고 전한다. 특히 인덕원은 조선시대 내시들이 살던 마을이라고 알려져 있다. 내시는 비록 거세된 신분이었으나, 궁중을 출입하며 임금 곁에서 벼슬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이들을 ‘덕을 베푸는 사람’이라 칭하여 마을 이름을 ‘인덕(仁德)’이라 하였고, 이후 공용 여행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원(院)을 설치하면서 ‘인덕원(仁德院)’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 원은 임진왜란 때 폐지되었다.

인덕원은 조선 초기부터 교통의 요충지로 알려졌다. 충무공 이순신의 『난중일기』에는 수원부로 가던 길에 인덕원에서 말을 먹고 쉬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 화산으로 천장하는 길에 과천행궁을 거쳐 인덕원을 지나갔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현대에는 여러 차례의 도시계획을 거쳐 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를 잇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로 급성장하였다.

인덕원 사거리에서 수원 방향으로 약 200m 떨어진 도로변에는 두 기의 과천현감 선정비가 있다. 숙종 연간에 과천현감을 지낸 송정명(1670~1718)의 ‘송정명불망비(宋正明不忘碑)’와 고종 연간에 과천현감을 지낸 이태응(1812~?)의 ‘이태응영세불망비(李泰應永世不忘碑)’이다.

선정비의 건립 배경에는 두 가지 설이 전한다. 첫째는 두 현감이 인덕원 지역에 선정을 베풀었으므로 주민들이 은혜를 기리기 위해 세웠다는 설이고, 둘째는 과천현감 선정비군(현 과천시 중앙동사무소와 과천초등학교 사이)에 있던 것을 후대에 주민들이 옮겨왔다는 설이다. 선정비와 관련해 “이 비석은 인덕원과 인접한 두 마을이 공동으로 관리해야 하며, 한 마을만 관리하면 그 마을은 흥하지만 관리하지 않은 마을은 화를 입는다”는 전설도 전해진다. 실제로 관리 문제로 두 마을 간 분쟁이 있었고, 자리를 정하지 못하다가 1984년 도로 확장공사 때 인덕원 도로변에 나란히 세워졌다.

인덕원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중 두 비석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인덕원 마을 현감제’ 또는 ‘비석제’라 부른다. 처음에는 이태응불망비만 있었으나 홀로 있어 외롭다는 이유로 송정명 불망비를 옮겨와 나란히 세웠다고 한다. 제의 날짜는 음력 10월 15일 전후로 정하되, 집안에 상이 나면 연기하기도 한다. 제의는 인덕원마을회 회장이 주관한다. 인덕원마을회는 1999년 토박이들이 조직한 단체로, 1970년대까지 인덕원에 살던 어른들이 중심이 되었으며, 사망하면 그 자손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약 50여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회는 2년 임기의 회장을 선출하고, 회장이 당제의 제



1976년 인덕원 일대(안양시청 제공)



인덕원 현감 비석 제사

관을 맡는다. 제의 비용은 마을 기금에서 충당하며, 안양시에서도 일부 지원한다. 제물은 돼지머리·삼색실과·포·탕·시루떡 등이며, 주로 인덕원 인근의 안양농수산물시장에서 마련한다.

인덕원은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나뉘어 있었으나 당제는 원래 윗마을을 단독 행사였다. 그러나 1999년부터 안양시청의 지원을 받으면서 인덕원 전체 마을 행사로 확대되었다. 당제는 오후 1~2시경 풍물패의 협찬 속에 시작되며, 풍물을 울리며 절을 하고 술을 올린다. 제의가 끝나면 인근 공원과 놀이터에서 음식을 나누며 하루를 즐겼으나, 최근에는 근처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음복한다.

8) 오촌말

오촌말은 간촌 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오씨가 옮겨와 살기 시작한 데서 유래하였다. 처음 정착한 이는 조선 숙종 때 승정원 좌승지를 지낸 오익서(吳益瑞)로 알려져 있다. 그는 당파 간 갈등과 신하들의 아침을 보다 못해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하여 이곳에 살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그의 후손인 보성 오씨들이 세거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마을 뒤

오촌말 내사가옥(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오촌말 내시가옥 안채(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북쪽 언덕에는 오익서가 새겼다는 ‘삼산동천(三山洞天)’ 각자 바위가 남아 있다. 이는 그가 과거에 급제하여 처음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새긴 것이라고 전한다. 관양지구 개발 당시 폐동되었다.

오촌말 입구에는 수령 70년의 느티나무가 있었다. 원래는 ‘군웅대감’이라 불리던 수령이 약 500년 된 느티나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일제강점기 때 나무가 서 있는 터의 주인이 베어 버렸다고 한다. 그 후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잇따르자 굿을 하고서 느티나무를 다시 심었다고 한다. 이 느티나무는 마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위하던 나무였고, 매년 음력 10월 가정고사 때마다 기도하던 장소였다.

9) 망령골·소능골·산골재

망령골은 원래 동편에 속한 마을로, 동편 입구에서 과천 갈현동 찬우물로 가는 고개 주변에 자리하였다. ‘망령골’이라는 지명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나타난 곳이라는 데서 비롯되었다. 청주 한씨의 세거지로 알려져 있으며, 청평군 한언(1448~1492)의 후손들



소능골 우물(이정범 제공)

이 모여 살았다.

망령골과 관련해서는, 한 여인이 이곳에서 3년 동안 관악산을 바라보며 기도하였고 하여 ‘바라볼 망(望)’ 자와 ‘고개 령(嶺)’ 자를 붙여 ‘망령골’이라고 불렀다는 지명유래도 전한다. 또한, 신라 말기에 한 사람이 서울에서 나무를 팔고 이곳을 지나가던 중 흰옷을 입은 여인과 하룻밤 정을 나누었는데, 후에 그 여인이 나타나 “관악산 바위틈에 아이가 있다”고 알려주어 가 보니, 아이가 있어서 데려다 키웠는데 그 아이가 강감찬 장군이 었다는 설도 전한다.

소능골은 원래 간촌에 속했던 마을로, 간촌에 살던 보성 오씨 후손들이 분가하면서 새롭게 형성된 곳이다. 능골 아래에 자리한 마을이라 하여 ‘소능골’이라 불렀다. 다섯 가구 정도가 거주하던 작은 마을로, 농업을 주업으로 삼았다.

산골재는 오촌말과 동편 사이에 자리한 마을이다. 산속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붙여진 지명이다. 산골재에는 수령 약 500년의 느티나무가 있었고, 보성 오씨 종가도 있었다고 한다. 망령골, 소능골과 함께 관양지구 개발사업으로 폐동되었다.

2. 자연마을연합회의 결성과 활동

관양동에 속한 각 자연마을에는 집안의 상·장례나 회갑례 등 잔치 비용을 마련하거나 큰일을 함께 치르기 위한 ‘상조계’, 나이와 성별에 따라 친목을 다지는 ‘친목계’ 등 다양한 마을공동체가 조직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간촌에는 ‘초상계’와 ‘새찬계’가 있었고, 부림에는 ‘사춘계’, 수촌에는 ‘수촌대동회’가 있었다. 그러나 외부 이주민이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 문화는 점차 와해되었고, 대신 새로운 형태의 마을 조직이 구성되었다⁵

관양동이 여러 차례 진행된 개발로 인해 자연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옛날과 다른 모습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관양동 토박이들은 기존의 마을조직을 유지하며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 그리고 관양동 전체 자연마을이 연합으로 매년 개최하던 체육대회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1960년대 전국적으로 설치되었던 농촌 청소년 조직인 4H 구락부는 1970년대 마을 청년회 조직으로 이어졌다. 관양동 자연마을 청년회는 비산동 자연마을 청년회와 체육대회를 열었다. 처음에는 축구대회로 시작하였는데, 매년 패하던 한 마을에서 배구 경기를 추가하자고 요청하여 축구와 배구 경기를 하였다.

비산동과 관양동 청년회가 연합한 이유는, 두 지역이 관양초등학교 학구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1980년에 안양비산초등학교가 개교하면서 비산동 지역 아이들은 관양초등학교에서 분리되었지만, 1970년대까지는 임곡을 제외한 비산동과 관양동이 관양초등학교 학구로 묶여 있어서 모두 관양초등학교 동문이었다. 따라서 같은 지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유세형 : 청년회가 우리가 학군이 비산초등학교 우리 관양·그동이 관양초등학교를 다녔잖아요. 운곡, 매곡, 안남미 사람들이. 이제 수촌, 마분, 중촌이 다 일로 왔잖아. 인덕원서부터. 그러니까 거기 비산초등학교가 분교가 되기 전에.

1990년대 들어서 관양동과 비산동 청년회는 ‘자연마을연합회’라는 이름의 정식 조직을 만들었다. 관양동의 수촌·마분·중촌·간촌·부림·동편·인덕원과 비산동의 매곡·운곡·안남미가 참여하였고, 초대 회장은 중촌 출신 유세형이 맡았다.

유세형 : 동네에 청년회가 있어가지고, 청년회들을 우리가 구성을 해가지고 80 몇 년서부터 자연마을 체육대회를 매년 실시를 했었죠. (중략)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동네마다 주관을, 맨 처음에 이제 운곡청년회에서 주관을 해. 그다음에 이제 매곡 청년회에서 해. 그다음에 이제 날뫼 청년회, 비산동을 날뫼라고 해서 날뫼청년회라고, 그다음에 이제 수촌 이렇게 올라가면서 쪽. 그다음에 이제 밥도 돌아가면서, 옴해 이번엔 중촌에서 했어. 그다음에는 부림서 하고 그런 식으로 쪽 하다가 나중에 자연마을 연합회를 구성을 해버렸죠. (중략) 4H구락부라고 이렇게 쪽 하다가 청년회로 와서 자연마을 연합회로 이렇게 온 거죠.

자연마을연합회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회장은 각 마을을 순회하며 선출되었다. 전임 회장을 비산동에서 맡았으면, 후임 회장은 관양동에서 맡는 방식이다. 비산동과 관양동의 자연마을연합회는 매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체육대회는 매년 한 마을씩 돌아가면서 주관한다. 봄에는 5월에 관양초등학교 동문체육대회가 있으므로 가을에 개최하는데 보통 10월에 열리며, 안양시민체육대회가 끝난 다음 주 일요일에 개최하였다.

체육대회에서는 축구, 육상, 피구 등 스포츠 경기와 윷놀이 같은 민속놀이가 열려 주민 화합의 장이 마련되었다. 대회 당일 마을마다 차양을 치고 음식을 나누며 하루를 즐겼으며, ‘마을문화 전통 계승’이라는 명목으로 시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받기도 하였다.

유세형 : 황성화가 돼서 제가 이제 연합회장하고 체육회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두루두루 해왔을 때, 이것도 전통이다 해서 내가 안양시에서 예산을 다 받아냈어요. 안양시 예산에서 200만 원을. 내가 500만 원을 처음에 신청했는데 이제 깎고 깎고 해가지고 200만 원씩을 계속 몇 년 동안 그걸 우리가 행사 비용을 받아냈어요. (중략) 그러니까 여기서 안양시에서도 보기도 이런 마을이 없어.

2011년 제16회 자연마을 체육대회에는 9개 마을이 참가하였다. 비산동에서 운곡과 매곡이 하나로 합쳐서 참여하면서 참여하는 마을 수가 9개로 줄었다. 2013년 제18회 대회에는 비산동 마을이 다시 줄어서 8개 마을이 참가하였다.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이 모두 이주하여 참여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제18회 체육대회에서는 관양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인 풍물단과 에어로빅반이 참여하여 호남좌도 풍물놀이와 방송 댄스를 선보이며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매년 가을 활발히 열리던 자연마을 체육대회는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제17회 자연마을 체육대회(2012년, 동안구청 제공)





제17회 자연마을 체육대회에 참가자들(2012년, 동안구청 제공)

유세형 : 지금까지 쭉 해오다가 코로나로 3년을 못 했잖아요. 그게 작년(2022년)에도 해야 되는데 회장 아이가 지금 편찮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 운동장도 다 없어져 버렸어. 없어진 건 아니고 체육관을 지어버려서 운동회 할 수도 없고.

자연마을 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해 연합회원 수가 감소하고, 체육대회가 잠시 중단되었지만, 관양동 주민들은 체육대회를 통해 옛 마을 정취를 되새기고, 마을 주민 간 친목을 다질 수 있었던 즐거운 기억으로 회상하고 있다. 관양동은 개발의 바람을 맞으면서 옛 마을의 모습을 하나씩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나 자연마을연합회와 같은 조직이 유지되는 한, 그 명맥은 유지될 것이다.

제보자

유세형 : 1956년생, 남, 중촌 토박이, 2023년 9월 18일 면담.

수촌마을 도당제 참석자 : 2024년 11월 2일 면담.

참고자료

경기재단문화재단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안양 관양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05.

관양동 새마을금고, 『관양동지 - 여기가 내 고향』, 1999.

국토연구원 전자도서관(<https://library.krihs.re.kr/>).

대한주택공사 · 경기문화재단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안양시 관양지구 사이버고향마을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용역보고서』, 2007.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안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1.

새안양회, 『안양시 지명유래집』, 2012.

안양문화원(<https://anyanglsd.tistory.com/>).

안양문화원 안양향토문화연구소, 『안양집성촌 자료집』, 2005.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2권 : 이야기와 인물로 보는 안양』, 2008.

안양시지편찬위원회, 『안양시지』, 1992.

안양시청(<https://www.anyang.go.kr/>).

註

- 1 관양동 새마을금고, 『관양동지-여기가 내 고향』, 1999, 16쪽; 대한주택공사 · 경기문화재단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안양시 관양지구 사이버고향마을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용역보고서』, 2007, 32쪽.
- 2 자연마을에 대한 내용은 이승연, 『안양시 지명유래집』, 새안양회, 2012; 관양동 새마을금고, 『관양동지 - 여기가 내 고향』, 1999; 안양문화원 안양향토문화연구소, 『안양집성촌 자료집』, 2005;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2권 : 이야기와 인물로 보는 안양』, 2008; 대한주택공사 · 경기문화재단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안양시 관양지구 사이버고향마을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용역보고서』, 2007 등을 참조하였다.
- 3 중촌 토박이 유세형 구술, 2023년 9월 18일.
- 4 경기재단문화재단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안양 관양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05; 대한주택공사 · 경기문화재단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안양시 관양지구 사이버고향마을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용역보고서』, 2007.
- 5 경기재단문화재단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안양 관양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05, 22쪽; 대한주택공사 · 경기문화재단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안양시 관양지구 사이버고향마을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용역보고서』, 2007, 40-44쪽.

제2장

마을의 안녕을 비는 관양동 수촌마을 도당제

이동아 그려보다 대표



1. 수촌마을 도당제의 명칭과 전승

수촌마을에서 지내는 마을제사는 수촌마을 도당제, 뽕말(뽕말) 마을굿, 관악산 당제, 관악산 산신제 등 네 가지 명칭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당제’는 경기도 지역에서 마을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지내는 마을제사의 명칭이며, ‘마을굿’은 마을의 평안을 위해 무당을 참여시켜 지내는 마을제사의 명칭이다. ‘당제’는 마을의 안녕을 위해 제당에서 지내는 마을제사의 명칭이며, ‘산신제’는 마을의 수호신인 산신에게 지내는 마을제사의 명칭이다. 앞서 서술된 각각의 명칭에는 제의 방식, 제의 주관자, 제의 장소, 제의 대상에 대한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 여기서는 먼저 문헌과 주민 면담에서 확인된 수촌마을의 마을제사 명칭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살펴볼 명칭은 ‘수촌마을 도당제’이다. 이 명칭은 『경기도의 민속예술』, 『안양의 역사와 문화』, 『안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안양의 전통가옥』, 『안양집성촌 자료집』 등 5건의 문헌에서 확인된다. 이 가운데 ‘수촌마을 도당제’라는 명칭이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1997년에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에서 발간한 『경기도의 민속예술』이다. 이 책은 경기도에서 1982년부터 10회에 걸쳐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재현된 민속예술 작품들을 기록·보존 차원에서 정리하여 발간한 것이다. 『경기도의 민속예술』에 기록된 ‘도당제(都堂祭)’는 도당에서 지내는 제의를 의미한다. 도당이란 당을 높여서 부르는 말로 으뜸이 되는 곳을 상징하며, 이곳은 마을에서 최고의 신격이 거처하는 곳을 의미한다. 『경기도의 민속예술』에는 수촌마을 도당제의 역사를 마을 형성과 당나무의 수령을 근거로 하여 약 1500년 이후부터 지낸 것으로 추측된다고 기록하였다. 『경기도의 민속예술』 외에 수촌마을 도당제라는 명칭이 나타나는 문헌들의 내용은 대동



수촌마을 제당 위치

소이하다.

두 번째로 살펴볼 명칭은 ‘뱀말(뱀말) 마을굿’이다. 뱀말(뱀말) 마을굿이라는 명칭은 안양시에서 편찬한 『안양시지』(1992)와 『안양시사』(2008)에서 확인된다. 뱀말(뱀말)의 마을굿이라는 명칭이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안양시지』이다. 『안양시지』에는 ‘관양동 뱀말의 마을굿’이라는 제목을 서술하였으나, 제명(祭名)으로는 ‘관악산 당제’라고 서술하였다. 한 문헌에서 두 개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후 발간된 『안양시사』에서도 ‘관양동 뱀말의 마을굿’이라는 제목을 서술하였으나, 제명은 서술하지 않았다. 두 문헌 모두 ‘마을굿’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무당의 참여 여부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수촌마을에서 전승되는 마을제사에 무당이 참여하였다는 내용은 『경기도의 민속예술』 도당제의 의의 부분에 서술되어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보고서를 발간할 당시(1997)로부터 4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과천 찬우물에서 용한 단골무당을 불러 큰굿을 벌렸다는 증언을 서술하였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촌마을 주민들에게 무당의 참여 여부와 규모에 대해 면담하였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무당이 참여는 했으나, 다양

한 곳거리를 선보인 것은 아니고 마을제사를 지낼 동안 옆에서 비손을 하는 정도의 치성이었다고 증언하였다. 『경기도의 민속예술』의 내용과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 정리하면, 무당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수촌마을에서 전승되는 마을제사의 명칭을 ‘마을곳’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살펴볼 명칭은 ‘관악산 당제’ 혹은 ‘당제’이다. 이 명칭은 『안양시지』와 『관양동지-여기가 내 고향』 그리고 마을주민들과의 면담에서 확인된다. 『안양시지』에는 ‘관양동 뱀말의 마을곳’이라는 제목을 사용했으나, 제의 명칭으로는 ‘관악산 당제’라고 하였다. 『관양동지-여기가 내 고향』에는 수촌당집에서 지내는 산제를 ‘당제’라고 서술하였다. 『관양동지-여기가 내 고향』은 1989년에 관양동 새마을금고에서 관양동의 뿌리를 후세에게 전할 목적에서 발간하였고, 1999년에 3판으로 재발간하였다. 2024년 면담한 수촌마을 주민들은 마을에서 지내는 제사를 ‘당제’라고 표현하였다. 앞의 두 문헌과 주민들은 수촌마을에 있는 당에서 지내는 마을제사였기에 ‘당제’라는 표현한 것이다.

네 번째로 살펴볼 명칭은 ‘관악산 산신제(혹은 산신제)’이다. 관악산 산신제 혹은 산신제라는 명칭은 『안양시 지명유래집』과 『안양시 관양지구 사이버고향마을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용역보고서』 그리고 『한국의 마을제당 - 제1권 서울·경기도편』에서 확인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은 새안양회에서 1996년에 초판 발행 후 2012년에 증보판을 발행하였다. 『안양시 지명유래집』에는 ‘관악산 산신제’라고 기록되어 있다. 『안양시 관양지구 사이버 고향마을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용역보고서』는 2007년에 대한주택공사와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전통마을의 현장조사를 통한 생활문화 전승과 마을과 주변에 대한 역사적 보존 그리고 확보된 자료의 사이버 공간 재현을 목표로 조사하여 발간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안양시지』의 내용을 인용하여 ‘관악산 산신제’라고 기록하였다. 『한국의 마을제당 - 제1권 서울·경기도편』은 1967년 문화재관리국에서 시행한 「전국부락제당조사질문지」의 내용을 1995년에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정리하여 발간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당 이름은 ‘상당(上堂)’, 효험·전설은 ‘산신제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수촌마을 주민들이 지내는 마을제사에 대한 명칭을 한 가지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수촌마을에서 지내는 마을제사에 대해 처음으로 기록된 명칭은 ‘산신제’이지만 현재 안양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도당제’이며, 마을제사를 전승하고 있는 주민들은 ‘당제’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다만, 수촌에서 지내는 마을제사에 관양동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참여한 것을 보면, 수촌에 있는 당집을 ‘도당’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관양동의 다른 자연마을 즉, 중촌·동편·간촌·오촌말·부림말에서는 마을별로 우물제와 군웅제 같은 마을제사를 지냄에도 불구하고, 수촌에서 지내는 마을제사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즉 관양동에 소속된 각 자연마을에는 수호신이 있고, 그 수호신 중에 으뜸이 수촌마을 당에 모신 산신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수촌에서 지내는 마을제사의 이름은 ‘도당제’라는 명칭이 적합해 보인다.

수촌마을에서 전승하고 있는 마을제사의 유래는 문헌과 주민들의 구전으로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삼남지방의 김해 김씨 유생이 한양에서 과거를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이곳에 들렀다가 관악산 밑의 산세와 비옥한 토질에 마음이 끌려 정착하게 되었고 한다. 김해 김씨가 정착한 이후 상주 김씨와 연안 차씨가 들어오면서 수촌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해 김씨 유생이 마을 입구에 심은 나무가 현재 수촌에서 신목으로 삼고 있는 느티나무라고 전하며, 주민들은 이 나무의 수령을 500년 이상으로 보고 있다.

수촌의 마을제사는 상당, 하당, 신목에 올리는 제사로 구성되어 있다. 상당은 관악산의 큰골산이라는 곳에 있는 당집이고, 하당은 고인돌의 형태와 비슷한 제단이고, 신목은 관양동 수목어린이공원에 서 있는 느티나무이다. 상당인 당집은 1997년에 지어졌고, 하당인 제단은 연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바위이며, 신목인 느티나무는 시에서 세워놓은 안내판에 수령이 약 150년이라고 되어 있다. 이 세 곳을 통해서는 수촌의 마을제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수촌마을의 김해 김씨는 2024년 현재 입향조의 19세가 거주하고 있는데, 세대를 25~30년으로 추정한다면, 김해 김씨가 475~570년 동안 수촌마을에 거주해왔으므로 주민들은 신목의 수령을 500년 이상으로 보고 있다.

수촌의 마을제사는 상당, 하당, 신목 등 세 번의 제의를 통해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고 있다. 수촌의 마을제사는 수촌마을 뒷산에 있는 산에서 지내지만, 참여대상은 수촌 뿐만 아니라 마분·중촌을 비롯해 관양동 인근 마을의 주민들 다수가 참여했다고 전해진다. 주민 면담에 의하면, 제관이 선정되면 ‘계통문’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제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하는데, 그 문서는 관양동 주변에 있는 마을에는 다 돌렸다고 한다.¹ 수촌의 마을제사는 수촌마을 단독으로 지낸 것이 아닌 수촌 주변에 있는 마을이 함께 참여한 마을제사였다. 그러나 현재는 수촌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마을제사를 지내고 있다.

2. 수촌마을 도당제의 제당과 신격

1) 상당

‘웃당’이라고도 불리는 상당은 관악산의 줄기인 큰골산에 위치한다. 큰골산은 수촌과 마분의 뒷산에 해당하는 곳이다. 관양현대아파트 8동 뒤로 난 등산로를 따라 10여 분 올라가면 산 정상 가까운 곳에 평평한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마을 방향으로 당집 형태의 상당이 있다.

상당은 6·25전쟁 이후 세 번에 걸친 개축과 건축이 있었다. 한국전쟁 이전의 상당은 규모가 크고 깊으로 이영을 엮어 만든 초가지붕에 자연석 돌담으로 지어진 형태였다. 돌담 가운데에 문도 달았는데, 큰비가 내려 사라졌다고 한다. 당집의 초가지붕은 당제를 지내기 전에 새로 엮은 이영으로 보수하였다.² 그러나 6·25전쟁 때 폭격으로 지붕이 없어져서 기와지붕을 올리고 건평 1칸 내외³의 제당을 유지하는 형태로 개축하였다. 2차는 1980년대에 아래의 맨 위 사진⁴과 같이 구들장 돌을 이용하여 벽체를 만들고, 기와지붕을 올린 모습으로 개축하였다. 예전에는 마을제당 뒤에 구들장으로 사용하는 돌이 많아 그 돌들을 캐다가 켜켜이 쌓아 지었다고 한다.⁵ 그리고 1997년에 3차로 기존의 당집에 사용된 돌과 시멘트로 혼합하여 벽체를 세우고, 검은색 기와를 얹은 후 입구에는 이분합 판장문을 달아⁶ 현재의 모습으로 건축하였다. 제당의 규모는 정면 3.46m, 측면 3.4m이며 전체 높이는 1.95m이다.⁷ 새로 건축된 제당 내부에는 시멘트로 만든 제단이 있고, 상량에는 1997년 9월 21일



1980년대 상당



1997년에 개축한 상당



상당 내부

에 상량했음을 알리는 내용이 한자로 쓰여 있다. 상당 내부에는 신격을 알 수 있는 위패나 그림은 없다. 예전에는 상당 내부에 얼룩진 큰 호랑이 그림이 걸려 있었다고 하는데,⁸ 현재는 호랑이 그림이 없다.

상당의 신격은 산신이다. 수촌마을과 관련된 문헌들에 의하면 수촌에서 지내는 마을 제사의 신격을 ‘관악산 산신’ 또는 ‘산신’으로 기록하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는 산신에 대해 ‘산을 지키며 산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장하는 것으로 믿어지는 신’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산신의 신체는 주로 호랑이 또는 신선의 모습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⁹ 수촌의 상당에 있었다는 호랑이 그림은 산신의 신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산중의 왕’이라 칭하는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과 호랑이의 강력한 힘에 대한 외경심이 호랑이를 신성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 것이다. 수촌마을처럼 산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는 호랑이를 산신 또는 산신을 보좌하는 영물로 인식하여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수촌마을 주민들에게 전승되는 체험담을 통해서도 상당의 신격이 호랑이임을 알 수 있다. 주민들은 마을제사를 지낼 때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호환을 당했다거나¹⁰, 당주가 제를 지내기 전에 부정한 짓을 하였을 때는 관악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와 당주집에 모래를 뿌렸다¹¹거나, 제사를 잘못 지낸 날 저녁에 제관이 집에 돌아와 보니 큰 호랑이가 수수깡 담장 너머에 앉아 있었다¹²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수촌마을 상당의 신격은 산신이며, 이 산신은 호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당에 대하여 『안양시지』¹³에는 앞에 서술한 문헌 기록과 다른 내용이 있다. 수촌마을 상당은 ‘웃당’, 하당은 ‘아랫당’이라 하였고, 웃당과 아랫당은 ‘할아버지당’과 ‘할머니당’으로도 불렸다고 한다. 이는 윗당과 아랫당을 부부신으로 인식하여,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표현한 것이다. 이 내용은 『안양시지』의 「세시풍속」에서 언급되었는데, 「마을지킴이」에서는 상당과 하당으로 언급하였다.

2) 하당

하당은 행정구역 상 비산동에 속하며 성원아파트 오른쪽 산 입구에 있다. 하당은 고인돌 같이 생긴 너비 1m 30cm에 폭 70cm 크기의 탁자형 제단석과 소나무이다¹⁴. 제단석에 제물을 진설하고 소나무를 향해 하당제를 지낸다. 주민들은 하당의 제단석을 고인돌이라고 칭하고 있다. 제단석이 고인돌의 뒷개돌 형태를 띠고 있으나, 제단석으로 조성

되는 과정에서 훼손되어 선사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는 없어 보인다. 다만, 마을제사의 제단 역할을 하므로 민속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는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당의 신격을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주민들은 그냥 ‘신령님’이라고 표현하고, 기존 문헌에는 하당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 하당에서 마을제사를 지내는 내용은 1997년에 발간된 『경기도의 민속과 예술』에 기록되어 있으나, 신격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주민들에게는 상당의 신격보다는 하당의 신격이 좀 더 친근한 존재로 여겨진 듯하다. 주민들은 평소에도 개인적으로 기원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당에 와서 기도하였다고 한다. 마을과 관계된 큰일은 상당에 올라가 기원을 하지만, 개



하당의 모습

인적인 바람은 하당에서 간단한 제물을 차리거나 비손으로 기원하였다고 한다.¹⁵



신목과 제단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수촌마을 신목

3) 신목

신목은 관양동 수목어린이공원 내에 있으며, 수종은 느티나무이다. 신목은 성황님·당나무·수목정자나무로 칭하며, 2023년 2월에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되었다. 주민들은 신목이 수촌마을에 정착한 김해 김씨 유생이 심은 나무이며, 수령은 약 540년이 넘는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안양시에서 아름다운 나무 지정 당시 조사한 수령은 약 150년이다.

수목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신목의 신격은 ‘성황님’으로 알려져 있다.¹⁶ ‘성황님’은 신목의 위치를 보아 서낭신이 변모한 것으로 여겨진다. 서낭신은 서낭당에 모신 신으로, 서낭당은 대부분 고갯마루나 한길 옆, 마을 어귀 등지에 있다. 현재 신목의 위치는 관양동과 비산동의 경계쯤에 해당하는데, 예전에 수촌에서 비산동의 안날미로 넘어가는 고갯길에 해당하는 곳이다. 주민들은 신목의 신격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신목을 신령하게 여겼다. 주민들은 군에 입대할 때는 신목 앞에서 치성드리거나 만세를 부르고 갔으며,¹⁷ 신목에서 떨어진 삭정이를 주워다 쓰면 화를 입는다¹⁸고 믿었다.

3. 수촌마을 도당제의 절차와 구성요소

1) 제관 선정과 금기

수촌에서 지내는 마을제사에는 수촌, 마분, 중촌, 부림, 동편, 간촌, 인덕원, 안날미(내비산동), 밭날미(외비산동) 등 관양동과 비산동 자연마을 주민들이 참석하였다. 제관도 마을제사에 참여하는 주민 중에 선정하였다. 그러나 관양동과 비산동이 도시화하면서 당이 위치한 수촌마을의 주민들만 제사에 참석하게 되었고, 제관도 수촌마을 주민 중에 선정하게 되었다.

수촌에 전승되는 마을제사의 제관 선정방식은 수촌변영회가 구성되는 1980년대 중반에 변경되었다. 수촌변영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제관은 마을제사를 지내기 약 1주일 전인 음력 9월 25일에 마을 원로들이 모여서 선정하였다. 생년월일을 따져 신과 소통이 가능 여부를 따지는, 생기복덕(生氣福德)을 가려 제관을 정하는데, 제관은 흔히 당주라고 한다. 당주집은 ‘도가집’이라고도 불렀다.

제관의 명칭과 역할은 『안양시지』와 『경기도의 민속예술』에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안양시지』에는 ‘상당주’와 ‘하당주’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다. 상당주는 상당에서 제의를 주관하는 제관이고, 하당주는 하당에서 제의를 주관하는 제관이다. 『경기도의 민속예술』에는 ‘안당주’와 ‘바깥당주’로 기록되어 있다. 안당주는 제물을 만드는 제관이고, 바깥당주는 제물을 사 오는 제관이다. 상당주와 하당주는 제사를 맡은 당의 위치에 따라 구분한 것이고, 안당주와 바깥당주는 제의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역할과 명칭은 차이가 있지만, 당주 선정 조건과 당주가 지켜야 하는 금기가 엄격하다는 점은 같다. 당주로 선정되는 자의 조건은 몸가짐이 바르고, 상(喪)을 당하는 등의 부정이 없는 50대 남자이며, 당주를 도울 사람들도 선정한다.¹⁹ 당주가 선정되면 당주의 집에는 황토를 뿌리고 원새끼로 줄을 꼬아 대문에 쳐 두었다. 황토와 원새끼는 당주로 선정된 집임을 알리고, 외부인과 잡귀의 출입을 금하는 표시이다. 제관으로 선출된 당주들은 당제가 끝날 때까지 바깥출입을 삼가고 부정한 일에는 일절 참석하지 않고 철저히 금기를 지키며 제사를 준비한다. 당주로 선정되면, 상가에 조문하러 가면 안 되고 개를 잡는다거나 쥐 같은 동물도 잡아서 안 된다. 그리고 제물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목욕재계 후 일절 말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신에게 올리는 제물에 불결한 침이 튀지 않기 위함이다.²⁰

수촌번영회가 구성된 후에는 제관을 수촌번영회 회장과 총무가 맡고 있다. 회장과 총무는 마을제사에 필요한 제물 장만과 주민들에게 제의 날짜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2) 제의 비용 마련과 제물 준비

수촌번영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바깥당주가 제의 비용을 주민들에게 건었다. 1967년의 조사에서는 각 호당 약 2만 원 내외의 돈을 추렴한다²¹고 하였고, 1992년에 발간된 『안양시지』에는 예전에는 쌀로 내었으나, 이제는 돈으로 걷는다²²고 하였다. 1997년의 조사에서는 작은 되로 쌀 3되를 세대별로 거두었다고 되어 있다. 제의 비용을 걷을 때는 세입자도 포함하는데, 집주인보다는 적게 냈다고 한다.²³ 세 문헌에는 제의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이 각기 다르게 기록되어 있으나,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추렴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수촌번영회가 구성된 이후부터는 수촌번영회 기금에서 제의 비용을 충당하였다. 수촌번영회 기금은 수촌번영회가 조직될 당시에 마을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하였다. 수촌마을의 공동재산으로 관양동 일대의 토지와 마을회관 건물이 있었는데, 개발지역에 수용되면서 보상받았다. 최근에는 수촌번영회 기금과 안양문화원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제의 비용으로 충당한다.

예전에는 제의 비용을 걷었던 바깥당주 혹은 도가집에서 제물을 구입하였다. 마을제사의 중요 제물인 소는 안양 남부시장이나 수원에서 사 왔다. 제물 구입을 마치면 마을 토박이인 김득춘(제보자 김재덕의 아버지)의 집 앞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제물을 세척하고 조리하였다. 현재 이 우물은 도로 포장으로 인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²⁴ 안양문화원에서 마을제사 비용을 보조받은 후부터는 관양동 주변에 있는 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제물을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한다. 보조금 사용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을주민들에 의하면 카드로 제물을 구매하여 증빙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한다.

제사상에 올릴 제물은 안당주 부부가 조리하였다. 안양이나 수원 우시장에서 사 온 소는 도축하여 소머리는 제물로 사용하고, 나머지 정육은 제의 비용을 낸 집들에 나눠주고, 내장은 국으로 끓여 주민들이 나눠 먹었다. 시루떡은 옷당에 올릴 것과 아랫당에 올릴 것을 구분하여 만든다. 옷당에 올릴 떡은 3말 3되 5흡으로 만들었다.

제의에 사용하는 술은 ‘조라술’이라고 하였는데, 안당주 부부가 제의 전날에 담가 아랫당 소나무 밑에 터주거리 짚을 세우고 묻었다가 제의 당일에 걸러서 사용하였다.²⁵



수촌마을 도당제 제물

한 주민도 부모님이 당주로 선정되어 제사 전날에 술을 담가 밤이 되자 하당에 올라가 묻었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제의 전날에 담근 술이지만, 마을제사가 끝나고 음복할 때 보면 잘 익어서 술맛이 좋았다고 기억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수촌번영회 회장과 총무가 조리된 음식과 기성품으로 나온 막걸리를 구입하여 제물로 올린다.

3) 제사 지내기

예전에는 제당에서 제를 지내기에 앞서 ‘계통문’을 돌리는 절차가 있었다. 계통문은 주민들에게 제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이다. 계통문은 제의 1주일 전에 마을 원로들이 회의하는 자리에서 제관이 선정된 후에 작성하였다. 계통문에는 제의 날짜와 주민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계통문은 마을별로 주민들의 이름을 적어 넣은 문서를 작성한 후에 마을 통반장이 그



제물을 지계에 옮기기

문서를 받아 주민에게 확인받는 방식으로 돌렸다. 계통문을 받은 주민은 자신의 이름 밑에 있는 공백에 담뱃불로 표시하여 제의 참석을 알렸다고 한다. 담뱃불로 표시한 이유는 일하기 바쁜 사람들이 필기도구를 꺼내 서명할 수가 없어 피던 담뱃불로 빠르게 표시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계통문에 표시를 한 사람은 표시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달한다. 계통문은 수촌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제의에 참석했던 다른 마을에도 전달되었다. 당시 계통문을 작성할 때 사용했던 벼루가 제보자 김재덕의 집에 보관되어 있다.

1967년 조사에서는 상당에서만 제를 지낸다고²⁶ 되어 있다. 1992년에 발간한 『안양시지』에는 자정에 올렸던 제의를 정오로 옮겨 지내며, 상당과 하당에만 제를 지낸다고 기록²⁷ 되어 있다. 1997년 자료에는 웃당→아랫당→신목 순으로 지낸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⁸ 『안양시지』에는 상당주가 상당에 올라가 술을 올린 후 절을 세 번 하는 것으로 상당제를 마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방식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제당 앞에 자리를 깔고 촛불을 밝힌 후, 초헌·아헌·종헌·독축·소지·음복의 순으로 제를 지냈다.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에 시작하여 새벽 1시쯤에 제의를 마치고 나면, 제물을 바구니나 종이에 싸서 골고루 나눠 먹었다고 한다. 마을 사정에 따라 정오나 오후 5시에 지내기도



지계로 제물 운반하기

하였다.²⁹

2024년 도당제는 주민들이 정오쯤에 관양시장 인근의 식당에 모여 식사를 먼저 하였다. 식사 후에 제물을 상당·하당·신목 등 제당별로 구분하여 담고, 구분된 제물은 산 입구까지 차에 싣고 운반하였다. 상당 제물은 상당으로 가는 등산로 입구에서 지계에 옮긴 후 제당까지 운반한다. 하당 제물은 하당 아래에 있는 경작지 입구에서 지계에 옮겨 제당까지 지고 올라간다. 신목 제물은 신목이 있는 수목어린이공원 아래에 제물을 내려 놓으면 주민들이 들고 올라간다. 상당·하당·신목 제당까지 차량으로 운반할 수 없으므로 도로에서 제당까지 제물을 운반하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해야 한다.

상당 제물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도착한 주민들은 제당 주변을 정리하고 제물이 오기를 기다린다. 제당은 제의 전날 미리 청소한다. 제물이 도착하면 상당 문을 열어 내부도 다시 한번 정리한다. 제당 주변과 내부 정리가 끝나면, 제당 내부에 있는 제단에 한지를 깔고 제물을 진설한다. 제물 진설을 마치고 초와 향에 불을 켜 후, 제관을 맡은 사람들은 옥색 두루마기와 검은색 건을 착용하여 제관으로서 복장을 갖춘다.

상당 제물은 시멘트로 만든 제단 위에 3줄로 차려졌다. 제단 아래에 향로를 올려놓는



수촌마을 도당제 상당 제사 상차림

보조 제단이 있고, 보조 제단 아래에 술과 퇴주잔을 놓아둔다. 제사상의 첫 번째 줄에는 한과, 배, 옥춘, 약과, 소전(채소를 넣어 만든 전), 육전(소고기로 만든 전), 두부전, 감, 사과, 밤과 대추, 북어포가 진설되었다. 두 번째 줄에는 얇게 편 흰떡을 올린 시루떡,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소머리가 진설되었다. 세 번째 줄에는 초와 술잔이 놓였다.

『안양시지』³⁰에는 제의 당일 새벽에 깨끗한 가게에 가서 정결하고 좋은 것으로 제물을 구입하며, 메(밥)·시루떡·탕(쇠고기)·적·삼색 과일, 소머리 외에도 집안의 차례와 유사하게 올린다고 되어 있다. 2024년의 제의와 비교했을 때 밥과 탕이 제물로 올라간다는 차이가 있다.

제의 준비가 모두 끝나면, 초헌관·아헌관·종헌관이 술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관들의 술 올리기와 절 올리기가 끝나면 상당에 함께 올랐던 주민들의 술 올리기와 절 올리기가 이어진다. 예전에는 독축과 소지올리기 절차가 있었으나, 언제부터인가 그 절차는 생략되었다. 제의에 참석한 주민들의 술 올리기와 절 올리기가 끝나면 제물을 철수한다.

상당에 올렸던 제물 중에 소머리와 떡은 하당으로 옮기기 위해 지계에 다시 싣고, 다른 제물들은 마을로 가져가기 위해 상자에 담아서 운반한다. 마지막으로 제당의 문을 닫

고 하당으로 내려간다.

하당에 도착하면, 고인돌 덮개돌처럼 생긴 제단에 소머리와 떡을 올린 후 다른 제물들을 차린다. 제물을 다 차린 후에 제관과 주민들이 상당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를 올린다. 하당제가 끝나면 소머리와 떡은 신목이 있는 수목어린이공원으로 옮기기 위해 지계에 다시 싣고, 나머지 제물들은 상당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자에 담아 신목으로 이동한다.

하당 제물은 소나무 앞에 놓인 고인돌 덮개돌로 보이는 제단 위에 네 줄로 진설되었다. 제단 아래 바닥에 향로와 퇴주잔 그리고 술을 놓아둔다. 제사상의 첫 번째 줄에는 술잔이 놓인다. 두 번째 줄에는 소전(채소로 만든 전), 두부전,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밤과 대추, 감이 진설되었다. 세 번째 줄에는 약과, 한과, 육전(소고기로 만든 전), 사과, 배, 옥춘, 북어포가 진설되었다. 네 번째 줄에는 초와 얇게 편 흰떡을 올린 시루떡, 소머리가 진설되었다.

신목이 있는 수목어린이공원에 도착하면 신목 앞에 있는 제단에 소머리와 떡을 올린 후 다른 제물들을 차린다. 제물을 다 차린 후에 제관과 주민들이 상당·하당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를 올린다. 신목에서의 제의가 끝나면 제관과 참석자들은 그곳에서 떡과 일부 음식을 나눠 먹는다.

신목 제물은 수목어린이공원에 있는 느티나무 앞에 놓인 제단 위에 네 줄로 진설하였다. 제단 오른쪽에 빈 종이상자를 두고 그 위에 소머리를 진설하였다. 소머리가 놓인 상자 앞 바닥에 술이 놓이고, 신목 앞 제단 아래에 향로가 놓였다. 제사상의 첫 번째 줄에는 감, 밤, 사과, 배가 진설되었다. 두 번째 줄에는 소전(채소로 만든 전),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가 진설되었다. 세 번째 줄에는 옥춘, 육전(소고기로 만든 전), 두부전, 대추가 진설되었다. 네 번째 줄에는 한과, 약과, 흰떡을 올린 시루떡, 북어포가 진설되었다. 시루떡 좌우로 초를 세우고, 소머리 우측에 술잔, 소머리 앞에 퇴주잔을 놓았다.

2024년 11월 제의는 관양동시장 인근 식당에 낮 12시에 모여 점심을 먹은 후 12시 30분에 각 제당으로 이동하였다. 상당, 하당, 신목까지의 전체 제의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소머리와 떡을 제외한 다른 제물들은 제당별로 따로 마련하여 각각 이동하였고, 제관이 상당부터 신목까지 옮겨 다니며 제를 올렸다. 제관은 초현관·아현관·중현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수춘번영회 회장과 총무과 제관을 맡는다. 예전에는 남자들만 제의에 참여했으나, 주민들의 참여가 줄어들어 요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밤에 제를 지내던 시절에는 제당과 제당 오르내리는 길을 밝히기 위해 횃불을 들고 올라갔었다고 한다. 횃불용 막대를 만들어 경유를 문힌 후에 불을 붙여 들고 올라갔다가

〈수촌마을 도당제〉



상당제 절 올리기



상당제 마치고 하당으로 이동



하당제 준비



하당 제사 상차림



하당제



하당제 마치고 신목으로 이동 준비



하당에서 신목으로 이동



신목 제사 상차림



신목제

제를 마치면 길을 밝히며 내려왔다고 한다. 햇불을 든 사람들은 모든 제의가 끝난 후에 ‘달떡’이라 부르는 떡을 더 주는 조건으로 참여시켰다고 한다. ‘달떡’은 간장 종지보다는 조금 더 큰 크기의 흰떡으로 시루떡과 별개로 제당에 올렸던 떡이라고 한다. 현재도 흰떡을 조금 만들어 시루떡 위에 올리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둥근 모양이 아닌 넓적한 형태로 시루떡 위에 올린다.

4) 음복

마을제사의 모든 절차가 끝나면, 참석자들은 제당에 올라가기 전 식사했던 식당에 모여 음복하는데, 이때는 제사에 참여하지 못한 고령자들도 함께 모인다. 제물로 올렸던 소머리는 식당 마당에서 삶고, 떡과 다른 음식들도 식탁 위에 차려 놓는다. 예전에는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소머리와 내장으로 국을 해서 나눠 먹고, 정육은 제의 비용을 낸 집마다 균등하게 나눴다고 한다. 주민들 식사용으로 돼지 한 마리를 사서 음복할 때 돼지고기를 나눠 먹은 적도 있다고 한다.

80대 이상의 수촌마을 주민 중에는 마을제사가 끝난 뒤에 나눠 먹은 ‘달떡’을 기억하고 있었다. 달떡은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진 하얀색의 떡으로 크기는 간장 종지보다는 크고 밥그릇보다는 작았다고 한다. 제의를 마치고 나면 제당에 올렸던 달떡을 반으로 잘라 제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반쪽씩 나눠 줬다고 한다. 이때 제당에 오를 때 햇불을 밝힌 주민은 두 뿔으로 한 장을 받았다는 것이다. 달떡을 반으로 갈랐던 것은 제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 위함이라고 한다. 달떡은 시루떡과는 별개로 만들어서 시루떡 위에 올렸다고 한다.



시루떡 위에 얹은 달떡

주민들이 기억하는 달떡은 ‘웃기떡’의 일종으로 보인다. 웃기떡은 제물로 올린 음식 위를 장식하기 위해 만드는 떡이다. 멥쌀가루를 물에 버무려 얇게 펴서 찌거나 혹은 기름에 지져 부침개와 비슷한 모양으로 조리한다. 웃기떡은 음식을 장식하기 위해 만들기 때문에 많이 만들지 않는다. 웃기떡의 양이 적다 보니 제의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 반으로 잘라 나눠 준 것으로 보인다.



신목제를 마친 후 음복하는 주민들

현재도 시루떡 위에 웃기떡으로 얇게 펴서 만든 흰떡을 올리고 있는데, 크기가 예전보다 많이 커졌다.

4. 도당제의 전승과 수촌번영회의 역할

2024년 현재 수촌의 마을제사는 ‘수촌번영회’가 전승하고 있다. 수촌마을 토박이 모임인 수촌번영회는 마을제사를 전승하기 위해 조직한 모임은 아니지만, 이 모임의 회장과 총무가 마을제사를 전담하여 준비하고 제관도 맡고 있다. 수촌번영회에는 회장과 총무를 포함해 약 63명의 마을주민이 가입되어 있다. 1980년대 초반에 조직되었으며, 조직 당시 각 가정의 세대주가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번영회는 회원이 사망하면 그의 장남이 자격을 승계하는 형태로 유지된다. 그래서 번영회 회원은 조직 초기부터 지금까지



식당에서 음복하기

63명 내외로 구성되고 있다.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나뉜다. 정회원은 번영회에 가입한 회원이며, 나이 70세가 넘으면 명예회원이 된다. 명예회원은 정회원보다 회비를 적게 내는 혜택을 받고 있다. 수촌번영회의 회장과 총무는 임기가 2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수촌번영회에서는 수촌마을의 대소사를 회의로 결정하고 있으며, 격월로 친목 모임을 한다.

수촌마을이 도시화하면서 토박이의 비율이 매우 적어졌지만, 수촌마을 도당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수촌마을 도당제가 관양동과 비산동의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마을제사였고, 수촌마을 주민들은 ‘으뜸’ 마을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수촌의 마을제사는 호환(虎患)은 물론이고,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때도 마을에 피해가 별로 없었다는 체험담을 바탕으로 전승되고 있다. 주민들이 마을이름 ‘뺨말’의 유래를 ‘빠다’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수촌마을은 도당제를 지내는 덕분에 이러한 국가적 재난 당시 피해 지역에서 빠졌다고 믿는 것이다. 수촌의 마을제사가 세상의 험한 일에서 주민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마을제사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은 주변 마을에서 수촌마을 도당제에 참여하지 않지만, 여전히 이어지는 이 마을제사 덕분에 다른 마을도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믿음이 수촌마을 사람들에게 남아 있다.

제보자

김재덕 : 남, 85세, 수촌마을 토박이, 2024년 11월 10일 면담.

수촌마을 도당제 참석자 : 2024년 11월 2일 면담.

김해 김씨 관양동종친회 시향제 참석자 : 2024년 11월 10일 면담.

참고자료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서울·경기도편』, 1995.

관양동 새마을금고, 『관양동지-여기가 내 고향』, 1999.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안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1.

대한주택공사·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안양시 관양지구 사이버 고향마을 구축을 위한 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07.

새안양회, 『안양시 지명유래집』, 2012.

안양문화원, 『안양의 역사와 문화』, 1998.

안양문화원 안양향토문화연구소, 『안양 집성촌 자료집』, 2005.

안양시·안양문화원, 『안양의 전통가옥』, 2002.

안양시지편찬위원회, 『안양시지』, 1992.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2권, 2008.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의 민속예술』, 1997.

국립민속박물관(<https://folkency.nfm.go.kr/>).

안양시청(<https://www.anyang.go.kr/>).

- 1 2024년 11월 2일, 11월 10일 김재덕(남, 85세) 면담, 2024년 11월 2일 수춘마을 주민들 면담.
- 2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의 민속예술』, 1997, 44쪽;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안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1, 423쪽; 안양시지편찬위원회, 『안양시지』, 1992, 549쪽.
- 3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서울-경기도편』, 1995, 243쪽.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안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1, 423쪽.
- 4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의 민속예술』, 1997, 43쪽.
- 5 2024년 11월 2일, 11월 10일 김재덕(남, 85세) 면담, 2024년 11월 2일 수춘마을 주민들 면담.
- 6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안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1, 423쪽.
- 7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안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1, 423쪽.
- 8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의 민속예술』, 1997, 44쪽.
- 9 국립민속박물관(<https://folkency.nfm.go.kr>).
- 10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의 민속예술』, 1997, 44쪽.
- 11 관양동 새마을금고, 『관양동지-여기가 내 고향』, 1999, 25쪽.
- 12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의 민속예술』, 1997, 46쪽.
- 13 안양시지편찬위원회, 『안양시지』, 1992, 510-511쪽.
- 14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의 민속예술』, 1997, 44쪽; 안양시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477쪽.
- 15 2024년 11월 2일 수춘마을 주민 면담; 2024년 11월 10일 김재덕(남, 85세) 면담; 2024년 11월 10일 김해 김씨 관양동종친회 시향제 참석자 면담.
- 16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의 민속예술』, 1997, 44쪽.
- 17 관양동 새마을금고, 『관양동지-여기가 내 고향』, 1999, 39쪽.
- 18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의 민속예술』, 1997, 46쪽.
- 19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서울, 경기도편』, 1995, 243쪽.
- 20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의 민속예술』, 1997, 45쪽; 안양문화원 안양향토문화연구소, 『안양 집성촌 자료집』, 2005, 40쪽; 안양시지편찬위원회, 『안양시지』, 1992, 478쪽.
- 21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서울, 경기도편』, 1995, 243쪽.
- 22 안양시지편찬위원회, 『안양시지』, 1992, 478쪽.
- 23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의 민속예술』, 1997, 45쪽.
- 24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의 민속예술』, 1997, 45쪽; 안양시지편찬위원회, 『안양시지』, 1992, 478쪽.
- 25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의 민속예술』, 1997, 45쪽.
- 26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서울, 경기도편』, 1995, 243쪽.
- 27 안양시지편찬위원회, 『안양시지』, 1992, 478-479쪽.
- 28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의 민속예술』, 1997, 45쪽.
- 29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의 민속예술』, 1997, 45쪽.
- 30 안양시지편찬위원회, 『안양시지』, 1992, 510-511쪽.

제3장

부림교회에서 동은교회까지, 100년의 역사를 넘어서다

송지영 광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강사



1. 안양 최초의 장로교회, 동은교회

한국 개신교의 역사는 19세기 말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미국 북장로회와 북감리회가 의료와 교육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하였으며, 이후 영국 성공회, 호주 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미국 남감리회 등에서도 선교사를 보내면서 교세가 확장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흥 지역에는 1895년 감리교단을 통해 기독교가 들어왔으며, 1898년 무렵 김동현에 의해 무지내교회가 설립되었다.¹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1907년 평양에서 예수교장로회 대한노회(독노회)로 조직되었으며, 1911년 12월 4일 언더우드 목사를 노회장으로 하여 경기충청노회로 분립하였다. 이어 1912년 9월 1일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창립되었다. 동은교회(안양시 관양동)는 이 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안양 최초의 장로교회였다.²

동은교회의 역사를 알려주는 기록은 많지 않다. 교회 공식 자료에는 1910년부터 현재까지의 연혁이 “걸어온 길”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되어 있고, 1981년에 발간된 『동은교회 71년사』가 1910년부터 1981년까지의 준당회록과 당회록을 토대로 교회의 역사를 전하고 있다. 이 글에서 1980년 이전의 역사는 주로 『동은교회 71년사』에 의거하여 정리하였다.

1910년 4월 15일 피득 선교사(Alexander Albert Pieters, 1871~1958)가 부림마을 문학선의 집에서 드린 예배가 동은교회의 시작으로 기록된다. 피득 선교사는 유대계 러시아인으로, 오늘날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의 에카테리노슬라브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1895년 일본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같은 해 미국성서공회 권서인(勸書人, colporteur)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1897년부터 구약성경 시편(저주시 제외)을 한국어



피득 선교사 가족(양화진의국인선교사모원 제공)



곽안련 선교사(양화진의국인선교사모원 제공)

로 번역하여 1898년 『시편촬요』라는 이름으로 출간하였다. 1899년 권서직을 사임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시카고 맥코믹 신학교에 입학하여 1902년 목사 안수를 받고, 필리핀을 거쳐 1904년 서울로 선교지를 옮겼다. 이후 경기도 광주군, 시흥군, 군포군에서 사역하였다.³

피득은 문학선의 집에서 김씨 부인, 음진실, 문성범 등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날 모인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 동은교회의 시초가 되었다. 1911년 10월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초가삼간을 매입하였고, 11월 4일 피득 선교사와 곽안련 선교사(Charles Allen Clark, 1878~1961), 박태선 조사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문학선, 김씨 부인, 음진실, 문성범이 학습을 받았다. 곽안련은 1902년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로, 150여 개 교회를 개척하고 순회하며, 평양신학교 교수로도 활동하였다.⁴

교회 설립 초기에는 오늘날처럼 담임 교역자가 상주하지 않았다. 대신 순회 선교단이 교회를 방문해 예배를 인도하였다. 1912년과 1913년에는 곽안련 목사와 박태선 조사가, 1921년에는 고안 목사와 박태선 조사가 교회를 맡아 예배를 이끌었다. 담임 교역자는 없었으나 1913년 문경삼, 차군선, 문성범이 서리집사로 세워졌고, 같은 해 10월에는 음진실, 문성범, 문경삼이 세례를 받는 등 교회 조직은 점차 모습을 갖추어 갔다. 당시 교인은 32명으로, 교회 건축을 위해 8원을 헌금하기도 했다.



문학선(동은교회 제공)



음진실(동은교회 제공)

1916년에는 교회의 첫 준당회가 열려 세례 시행 여부를 논의하였다. 이후에도 준당회가 계속 이어졌으며, 1927년에는 예배당 건물이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 교회는 교육을 위한 강습소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와도 긴밀히 연결되었다.

그 뒤로 김현봉 전도사, 차재명 목사, 양동일 전도사, 배진성 목사, 김홍식 목사, 이반석 전도사 등이 차례로 시무하였다. 그러나 1934년부터 1945년까지의 당회록은 남아 있지 않다. 『동은교회 71년사』에 따르면, 이 시기 문성범이 안양리로 이주하면서 교회가 약 10년간 침체기를 겪었으며, 일제강점기의 종교 통제 정책 또한 교세 약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39년 공포된 「종교단체법」은 교단의 설립과 운영을 엄격히 제한하였고, 1940년 문부성은 교단 인정 요건으로 50개 교회와 5천 명의 신도를 요구하였다.

1942년 『조선총독부관보』에는 동은교회가 ‘부림교회’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이때 교회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소속이었으며, 안양리 교회와 군포 교회까지 담당하였다. 조선예수교장로회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장로교 선교회가 통합해 1912년 평양 신학교에서 창립한 교단이었다.

해방 이후 교회는 다시 예배와 조직을 회복하였다. 1946년 강인병 목사가 부임하였고, 1947년에는 정운태 장로가 임시 교역자로 시무하였다. 이때 문기성이 영수로 추대



부림리교회 당회록(동은교회 제공)



1930년대 부림리교회 주일 연보(헌금) 영수증(동은교회 제공)

되었는데, 교회 공식 자료에는 문성범이 개명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동은교회 71년사』에는 이미 1931년 문성범이 영수로 임명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교회의 전승과 공식 기록 사이의 차이를 보여 준다.

2. 전쟁과 휴전 속 교회의 재건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4월에는 조원국 전도사가 부임하여 1955년 3월까지 교회를 맡았다. 그러나 전쟁 중 교회의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다만 1952년 2월 16일에 단 한 차례 당회가 열렸는데,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같은 해 2월 6일 정부가 「대통령령 제605호」를 공포하여 4월 25일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고, 그에 따라 4월 5일에는 제1회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이어 8월 5일에는 제2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교회의 당회 역시 열렸던 것으로 짐작된다.

휴전 이후인 1954년 12월 24일 당회가 다시 열렸다. 이날 교회는 교역자를 청빙하기로 하면서 봉급을 백미 다섯 석과 현금 5천 원으로 정하였다. 이어 1955년 3월 13일 제직회에서는 정창선 전도사를 청빙하기로 결의하였고, 그는 같은 해 3월 24일 부임하였다. 그해 12월 16일에는 교회 신축 헌당식이 열렸는데, 당시 교인은 약 300명에 이르렀다. 정창선 전도사는 1959년 11월 사임 후 교육 사역에 전념하며 신성학원을 설립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1956년 교회는 조직을 정비하였다. 1월 4일 서리집사 남녀 각 7명을 선출하고, 주일학교 유년교장과 유년부장, 장년부장을 임명하였다. 교사 선발은 교장과 부장에게 위임하였다. 이 무렵 교인은 심방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를 ‘구(區)’로 개편하여 4구로 운영하였다. 1957년 1월에는 5구로 확대되었으며, 각 구역별로 권찰을 선정하였다. 1959년에는 서리집사와 구역장 24명이 새로 선출되었다.

주일학교는 처음에는 유년부로 운영되었으며, 교장, 부장, 부감, 서기, 반사(班師)로 구성되었다. 1957년 1월 20일에는 12명의 반사가 임명되었고, 1958년에는 11명의 반사가 임명되었다. 1960년에는 소년부가 새로 조직되면서 교육 활동이 점차 확대되었다.

1959년 1월에는 정인형 전도사가 부임하여 1960년까지 시무하였다⁵ 1963년에는 최세현 목사가 부임했다. 같은 해 교회는 유년부, 소년부, 음악부, 보조부로 새롭게 구성



1959년 부림교회 성탄 준비(최태술 제공)

되었다. 과거와 달리 주일학교에 반사 외에도 보조 반사를 별도로 두었으며, 구역은 전체 다섯 구로 1-4구와 중앙구를 두었다. 그러나 최세현 목사는 1963년 7월 19일자로 사임하였으며, 후임으로 김포시찰의 김홍준 목사(~1969년)가 부임하였다.

김홍준 목사 재임기인 1964년부터 교회 조직은 다시 확대되었다. 유년부와 소년부 외에 청년부, 성가대, 부인회가 새로 편성되었으며, 1967년에는 소년부와 청년부가 합쳐져 청소년부가 되었다. 1968년 6월 30일에는 여전도회의 전도와 심방을 돕기 위해 전도부인을 세웠다. 전도부인에게는 교회에서 월 3천 원의 사례비와 여전도회에서 매일 백미 한 소두(小斗)를 지원하였다. 당시 김원순 권사가 부임하여 1971년까지 활동하였다. 교회 기록에는 그가 '전도부인'이 아니라 '전도인'으로 표기되어 있다.⁶

1960년대 후반부터 교회는 점차 사역을 확장해 나갔다. 1968년에는 10평 규모의 교육회관을 건축하기로 하였으며, 1969년 1월 12일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교역자 한 명을 양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교인 나달윤 집사가 선발되어 신학교 학비 전액을 지원받았다. 그는 1973년 전도사로 부임한 후 부목사로 1987년까지 교회에서 사역하였

다. 같은 해 6월 16일 김홍준 목사가 노회 전도부 총무로 초빙받아 사임하였고, 후임으로 최순호 목사가 6월 30일 부임하였다. 최 목사 부임에 맞추어 교회는 목사 사택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3. 성장과 도약, 1970년대 동은교회

최순호 목사 부임 이후 동은교회는 규모 면에서도 확장된 모습을 보였다. 1972년부터는 재정부와 교육부가 운영되었으며, 1973년부터는 교회 월간 일정이 정비되어 매월 첫째 주일에는 부서 헌신예배, 셋째 주일에는 11명의 예산위원 회의, 마지막 주일에는 정기 당회를 열었다. 교회 조직도 세분화되어 구역은 6개로 나뉘었고, 재정부·교육부·전도부·봉사부·유년부·청년부·소년부·성가대·기록회계 등 다양한 부서가 활동하였다.

1972년 7월 23일에는 교육관·본당 증축을 위해 철거된 교육관을 8평 규모로 재건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시기 이후에는 피아노, 찬양대 의자 등 교회 비품을 기증하는 교인들의 참여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회 정원에 기념식수를 하기 위해 교인 가구마다 나무 한 그루씩을 심도록 하였고, 교회 정문 앞 상록수는 장로들이 부담하였다. 교회는 교인들의 생활도 돌보았다. 1973년에는 어려운 가정에 밀가루를 지원하는 등 구제 활동을 했고, 아버지 주일에는 60세 이상 교인에게 백색 고무신 한 켤레씩을, 1979년에는 65세 이상 교인에게 수건을 선물하였다. 1974년에는 장례부(후에 상조부로 변경)를 신설하여 교인들의 장례를 교회 안에서 진행하기로 했으며, 1975년에는 병중인 교인을 위해 환자 성명을 후보에 명기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였다.

교회 규모의 변화는 『동은교회 71년사』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1971년 5월 7일 창립 61주년 기념 당회에는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1973년 10월에는 구역이 10개로 확대되었는데, 부림 지역뿐만 아니라 과천면 갈현리, 인덕원 도로 동·서쪽, 중촌, 마분, 수촌, 비산리, 안양·군포, 서울 등으로 나뉘었다. 구역 강사는 목사, 전도사, 장로 등이 맡았다. 1974년에는 구역이 8개로 조정되었고, 서울구역도 포함되었다. 구역 강사는 한 달씩 순회하는 제도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1975년 1월 26일 당회에서는 “250명 이상의 교인을 확보하기 위해 1년간 노력하고 기도하기로 한다”는 결의를 했으나, 같은 해 12월 31일 전체 구역 편성 인원이 60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아 교회 규모는 오히려 축소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동은교회 71년사』

이 시기 교회는 지역사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하였다. 1975년 2월에는 설교대 옆에 태극기를 세워 민족의식을 고취할지 논의하였고, 1976년 3월 1일에는 “애국심을 고취하고 민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성전에 국기를 설치하기로 가결하였다. 1975년에는 관내 지역 학교와 기관 행사에 교회 대표가 참석해 표창장을 수여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지역 학교 행사에 적극 참여하였다. 1978년 2월 26일에는 미국에 거주하던 성도가 장학금을 보내와 교회가 이를 지급하기도 했으며, 다른 지역의 작은 교회 여름 성경학교에도 동참하였다. 1979년에는 자매결연을 맺은 무기수가 석방된 뒤 귀가할 수 있도록 여비를 지원하였다.

『동은교회 71년사』에는 ‘제단 교환’이라는 기록도 두 차례 나타난다. 「교회법」상 제단 교환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목사의 사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1975년 8월 24일 동은교회와 신도교회(엄두익 목사)가 제단 교환 시무를 합의하여 당회에서 가결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했고, 같은 해 11월 30일 백지화가 결정되었다. 당시 최순호 목사가 사임 의사를 밝혔던 이유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최순호 목사는 1976년 9월 12일 개화동교회 김중도 목사와 제단 교환 시무를 가결하였고, 9월 19일 송별예배를 드린 뒤 교회를 떠났다. 김중도 목사는 같은 해 9월 26일 부임하여 시무하였다.

김중도 목사가 부임한 이후, 1977년에는 기존 구역이 특별구역을 포함하여 11구역으로 세분화되었고, 구역예배도 다시 시행되었다. 1979년 9월 23일자 기록에 따르면 구역은 갈현구역, 인덕원구역, 새마을 1·2구역, 부림 1·2구역, 중촌구역, 마분 1·2구역, 수촌구역, 안양구역, 특별구역 등 총 11개로 운영되었다. 1980년 5월에는 서울 응암동교회 홍다위 목사와 교체 시무가 결정되어, 홍 목사가 같은 해 5월 부임하였다. 이후 1981년부터는 1구역을 5~7가정 단위로 나누어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이 해 기준으로 총 53구역이 편성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이전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났다. 1977년 3월에는 주일 예배 시 예배당에서 구역별로 앉던 방식을 변경하여, 남자부·여자부·가족부로 구분해 앉도록 하였다. 1978년 1월 14일에는 공동번역 성경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당회록에는 “신도들의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하여” 이해하기 쉬운 번역본을 채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당회원과 제직회원에게는 공동번역 신약성서를, 일반 신도에게는 공동번역 신약성경을 무료로 배포하였다. 그러나 공동번역 성경의 사용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1980년 말, “새로 등록하는 교인들의 이해 부족”을 이유로 사용을 보류하였고, 1981년부터는 다시 개역성경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같은 해 7월 27일에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급적 ‘당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4. 부림교회에서 동은교회로

동은교회는 창립 당시 ‘부림교회’라 불렸다. 안양 부림말(富林洞) 언덕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수필가 정진원은 부림교회 주일학교에 다니던 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부림말은 안양이라는 도시로 나가는 중간 기착지였다. 안양-과천 선에서 한직골 선이 분기하는 당시 교통의 요지가 부림말이었던 것이다. 전에는 버스가 안양-과천 사이만 왕래했기 때문에 부림말까지 걸어 나와서 버스를 이용해야만 했던 때도 있었다. 버스정류소는 부림말 길가에 있는 대장간이 붙어있는 집 앞이었다. 겨울철이면 그 대장간 안에서 버스를 기다리곤 했었다. 그 대장간의 녹슨 양철 칸막이의 틈새로 과천 쪽 찬우물에서 올라오는 버스 불빛을 기다리곤 했었다. 가끔 그곳에서 낮이고, 호미를 단검에 쇠망치로 쳐서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 과탄과 화덕과 모루, 풀무 등이 참 신기한 것들이었다. 그 대장간 뒷길로 들어가면 부림교회가 있었다. 그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만발했었다. 그 교회는 나중에 동은교회로 개명하고, 길 건너 안양 쪽으로 이전 개축하였다. 부림교회 주일학교를 다녔었다. 나무 종루에서 울려 퍼지던 교회 종소리가 멀리 덕장골까지 들렸었는데, 이제 어디서고 교회 종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요절을 외우는 일, 하기학교가 시작되면 교회 앞마당에 큰 물통을 놓고, 감미료(사카린, 아니면 당원이란 것)만을 탄 물을 한 컵씩 나눠주곤 했었는데, 그것이 무슨 별식이라도 되는 양 띄약별에 장사진으로 기다리곤 했었다.⁷



부림말에 있던 동은교회(1972년, 안양시청 제공)



부림말 시절의 동은교회(1978년, 안양시청 제공)

동은교회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75년 1월 26일 당회 기록에서이다. 당시 교회는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다음 당회까지 후보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때 제시된 다섯 가지 이름 가운데 하나가 '동은(東恩)'이었다. 다른 후보로는 동광(東光), 동성(東星), 동신(東信), 동부(東部)가 있었다. 이후 1975년 2월 3일 당회에서 교회 명칭을 '동은교회'로 개명하기로 확정하였다.

교회 이름이 변경된 구체적 경위는 명확하지 않으나, 교회 건축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동은교회는 한국전쟁 당시 전소된 건물을 1955년 30평 규모로 재건한 바 있다. 1974년부터는 교회 건축을 준비하면서 토지를 매입하여 목사 사택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교육관을 세웠다. 1975년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에는 전 교인이 감사헌금을 교회 신축에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1980년까지 감사주일 헌금을 모아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1977년에는 관양동에 700평의 토지를 구입하는 등 교회 부지 약 1,200평을 확보하였고, 별도로 130평가량의 땅도 추가로 매입하였다. 1979년 10월부터는 건축헌금을 작성하였다. 7년 동안 저축하여 대지와 건축비를 마련한 끝에 1980년 6월 24일 600평 규모의 기공식을 열었고, 1년 뒤 공사를 완공하였다. 1981년 4월 19일에는 새 성전 입당식이 거행되었다.

따라서 교회 명칭 변경은 교회의 성장과 건축이라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순호 목사 부임 이후 교회 사역이 안팎으로 확장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뒤따른 것이다. 1975년 초 교회 이름을 새롭게 정하고, 교회 건축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며, 교인 250명 확보를 목표로 한 시점은 부림교회에서 동은교회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기였다.

4. 교육과 봉사, 지역사회와 함께한 발자취

동은교회가 주목되는 점은 교육 사역이다. 동은교회의 교육 활동은 앞서 언급한 정창선 강도사(1925~1982)가 1955년 부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창선은 교회 옆에 천막 교실을 세우고 이를 '성림중등성경구락부'라 명명하여,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청소년들에게 신앙과 함께 지식을 가르쳤다.

성경구락부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 권세열(Francis Kinsler, 1904~1992)이 1929

년에 설립한 조직으로, 학업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신앙생활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이나 전쟁고아들의 성장과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 1955년 당시 전국에는 696개의 성경구락부가 있었으며, 지도자는 1,856명, 학생은 70,645명에 달하였다.⁸ 당시 동은교회 교우였던 노영수, 라달윤, 강덕환, 안동철, 이연우 등이 함께하였다. 성림중등성경구락부는 1956년 성림중학원으로 확대하여 흠담을 쌓고 큰 방 두어 개와 책상을 놓아 본격적으로 교육하였다. 1958년에는 성림고등공민학교를 신축하였다.⁹ 이후 1969년 5월 15일 신성학원 설립위원회가 창립되었고, 같은 해 11월 20일 학교법인 신성학원이 설립되었다. 신성학원의 초대 이사장으로 정창선이 취임하였다.

2004년 8월 31일자 『안양광역신문』에는 1967년 성림고등공민학교에서 1974년 안양동고등학교까지 교사로 재직했던 인물이 구술한 신성학원의 초기 역사가 실려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신성학원의 설립은 “당시 학생들과 교사들의 피땀의 결정체”였다. 학생과 학부모들 역시 교사의 헌신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각자의 형편에 따라 수업료라는 이름으로 일정 금액을 내어 경상비에 보탬다고 한다.

1957년 가을 학생들의 제안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흠벽돌을 찍어 인덕원 송재수 씨 땅에 교실 2칸과 사무실 겸 숙소를 건축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전기가 없어 매일 저녁 교사들과 뜻있는 학생들이 먼저 와서 호야(조명기구)를 닦아 불을 켜고, 자정까지 수업한 후 4km 정도 거리에 사는 학생들을 일일이 데려다 주고 숙소에 돌아오면 보통 새벽 한두 시였습니다. 3년 후 인덕원(전 학교 위치) 1,000평 정도의 땅



성림고등공민학교 교사 전경(1965년, 『신성학원 30년사』, 2000.)



1957년 성림고등공민학교 흙벽돌 교사건축(동은교회 제공)



1957년 성림고등공민학교 흙벽돌 교사건축(동은교회 제공)



1957년 성림고등공민학교 교사전경(『신성학원 30년사』, 2000)



성림고등공민학교 창립자 정창선



성림고등공민학교 체육행사



성림고등공민학교 행사



성림고등공민학교 조회



성림고등공민학교 체육행사



성림고등공민학교 제1회 졸업(1959년 2월 7일, 『신성학원 30년사』, 2000)



성림고등공민학교 제3회 졸업생과 교사(1961년 3월 10일, 『신성학원 30년사』, 2000)



안양동중학교 통학버스(1970년대, 『신성학원 30년사』, 2000)

을 구입(평당 90원으로 기억)하고, 교실 4개와 교무실 1, 숙직실 1을 건축하였습니다. 건축비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직접 지었습니다. 나머지 땅은 그 후 국회의장을 지낸 이 지역 정치 원로 이재형 씨가 약 4,000평(확실한 것은 전 학교 번지의 제적등본을 보면 알 수 있음)을 사서 학교 부지로 기증하였습니다(당시 평당 약 300원).¹⁰

1959년 정창선은 교육 사역에 전념하기 위하여 교회를 사임하였다. 그러나 동은교회의 당회 기록은 교회와 학교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964년부터 1969년까지 학교에서 건축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동은교회는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본부에 신청하여 보조를 받기로 하였다. 1977년에는 신성중·고등학교 강당 준공식에 앰프를 기증하기도 하였다.

교회는 인력 측면에서도 학교와 연계되었다. 1967년 5월 3일 기록에 따르면, 당시 성립고등공민학교 교사였던 정상희가 동은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가 안양성결교회 서리집사로 봉직한 경력을 근거로 동은교회 서리집사로 임명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정상희는 청소년부 지도자로도 임명되었다. 이어 같은 해 5월 7일에는 이 사회를 조직하였다. 1976년에는 동은교회 조병성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고 신성고등학교 기관목사로 청빙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2년 정창선이 사망하면서 교회의 재정 지원이 어려워졌고, 결국 1987년 1월 5일에는 별도로 신성교회가 창립되었다.¹¹



인덕원 신성중·고등학교 전경(1977년, 『신성학원 30년사』, 2000)

1970년 3월 2일 안양동중학교가 개교하였고, 1974년에는 안양동고등학교가 개교하였다. 안양동중·고등학교는 1980년에 신성중·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정창선의 모교였던 평안북도 선천군 선천읍의 신성학교 이름을 계승한 것이다. 선천 신성학교는 1906년 4월 18일 김석창 목사와 양전백 목사가 설립하였으며,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위대모(Norman C. Whittemore, 1870~1952)가 초대 교장을 맡았다.¹²

1981년 당시 신성중·고등학교는 중학교 30학급, 고등학교 30학급, 교직원 100여 명 규모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현재 신성중·고등학교는 남아 있으나, 신성학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1996년 정철 이사장이 학교 이전 과정에서 관양동 부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건설업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재단 소유 재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은 뒤 다시 토지를 매각하여 재단 전입금을 충당한 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교육청은 이 문제를 지적하며 이사진을 교체하였고, 이후 안대중 중화한방병원장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¹³

동은교회는 유치원 사역도 전개하였다. 그 시작은 1973년 11월, 최순호 목사가 목사 취임 기념 특별감사헌금으로 유치원 설립을 목적으로 50만 원을 헌금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후 1976년 5월 1일 교회 부설 동은유치원이 개원하였다. 초대 설립자 겸 원장으로는 김영주 전도사(1985년 은퇴, 1991년 별세)가 취임하였다.

김영주 전도사는 1979년 4월 1일 자신의 재산을 헌납하여 관양동 387번지를 동은유치원 명의로 등기하고 공증하였으며, 사후에는 해당 재산이 법인에 귀속되도록 하였다. 또 1977년 5월 29일에는 인덕원 새마을 교인들과 유치원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량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유아 교육 활동은 1996년 3월 6일 동은교회 부설 동은어린이집 개원으로 이어졌다.

5. 섬김과 나눔의 역사: 동은교회의 목표와 활동

2025년 동은교회는 창립 115주년을 맞이하였다. 긴 역사 동안 동은교회에는 여러 변화가 있었다. 1911년 초가삼간으로 시작되었던 교회는 2024년 현재 3층 건물의 본당과 5층 건물의 교육관 ‘셋별채’로 발전하였다. 창립 당시에는 교회 사역자가 없었고, 너댓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였으나 현재는 권대선 담임목사를 비롯하여 부목사 3명, 교육목사 1명, 교육전도사 3명이 사역하며, 선교사 4명을 파송하고 있다.¹⁴

교회학교는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로 구성되어 있다.¹⁵ 교인들의 신앙 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는데, 새가족 교육, 일대일 양육, ‘어? 성경이 읽어지네’, 힐링·해피맘스쿨, 성경대학, 어린이 정철 영어, JDTS(예수제자 훈련학교), 트레스 디아스(Tres Dias, 평신도 영성 훈련 프로그램), 독서 나눔, 16주 성경 통독, ‘단독 바이블’ 등이 있다.¹⁶ 주목할 점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교회는 교인들의 신앙적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며, 교회 안만을 고집하지 않고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도움을 주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24년 동은교회는 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청년회, 여전도회 협의회와 연령을 기반으로 한 자치회로 구성되어 있다. 남선교회는 아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으로, 여전도회는 사라, 나오미, 룻, 한나, 유니게, 에스더, 루디아, 마르다로 나뉜다. 자치회는 매월 월례회로 모인다. 과거의 구역은 목장으로 바뀌었으며, 목장은 3부 예배 후에

모인다. 현재 실버 목장과 젊은 부부 목장을 제외하고 30개의 목장이 운영되고 있다.

교회의 형식은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동은교회는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을 세우는 교회’를 3대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창립 이래 동은교회가 추구해 온 역사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동은교회는 이를 위해 교회 안팎은 물론 국내외적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성도들을 위해 각종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은퇴’라는 용어를 ‘사역’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 교회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무엇보다 동은교회는 선교 사역에도 힘쓰고 있다. 2022년 2월 6일 교인들은 캄보디아 캄퐁참에 에덴교회를 세웠다. 이는 동은교회가 선교를 위해 교회를 설립한 첫 사례가 아니다. 2021년 창립 111주년을 기념하

여 같은 지역에 브살렐 기술학교를 개교하였다. ‘브살렐’은 출애굽기에 언급된 성막 건축 기술자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기술자를 양성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¹⁷

이보다 앞서 2010년에는 캄보디아에 임마누엘교회를 세웠으며, 그 이전인 1984년에는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길동에 동원교회를 설립하고 홍다위 목사를 파송하였다. 1987년에는 신성교회를 별도로 분립하였다. 동은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교육 사역에 힘을 쏟아 온 역사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국내외 교회를 설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단기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1984



동은교회

년에는 교회를 설립하였고, 2002년에는 이명진 전도사를 선교선 돌로스호에 2년간 파송하였다. 2006년에는 김문주 전도사를 베트남에 1년간, 2008년에는 김영달 장로와 석순희 권사를 캄보디아에 파송하였다. 2010년에는 한요한 청년을 터키에, 심면보 청년을 가나에 각각 1년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2014년에는 조기영, 김경미 전도사를 캄보디아에 파송하였다.

동은교회는 지역과도 함께하였다. 1984년 5월 교육관 부지를 구입한 뒤, 1995년 11월 지하 1층 규모의 교육봉사관을 준공하였다. 교육봉사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교실, 청소년 교실, 주부 교실, 상담실, 재활 교실뿐만 아니라 무료 예식장과 장례 예배실을 갖추었다. 이러한 시설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2003년에는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였고, 2013년에는 ‘사랑의 쌀독’을 개설하여 어려운 이웃을 살폈다. 2022년에는 부활 장학금을 마련하여 교회 인근 지역 학생 10여 명에게 총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2023년에는 교회학교 및 지역 아동을 돕는 ‘사랑 나눔바자회’를 개최하였다.

동은교회는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며 지역과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이다.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이웃사랑 나눔’과 ‘이삭(동은) 장학금’¹⁸이 있다. ‘사랑의 쌀 나누기’는 설날과 추석에 교회 인근 주민들에게 20kg씩 쌀을 전달하여 지역 이웃과 명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사랑의 선물 나누기’는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집배원, 재활용 분리 요원, 음식물 미화원 등 지역사회의 일꾼들에게 마음을 담은 선물 세트를 증정하는 것이다. ‘사랑의 과일 나누기’는 추수감사절에 과일 바구니를 준비하여 소외된 이

‘1910년에 세워진 안양 최초의 교회’라고 적은 동은교회 간판(이정범 제공)



웃을 직접 찾아가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연대를 이어 가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동은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권대선 목사는 2016년 부임과 함께 교회의 3대 목표를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로 제시하였다. 교회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섬기는 교회’는 예배와 봉사를 통해 하나님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를 뜻하며,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와 차세대 리더 양성에 중점을 둔다. 또한 ‘상식이 통하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서 평신도가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민주적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교회를 의미한다.

동은교회의 표어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가치관을 반영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동은교회의 역사는 단순히 한 종교 기관의 변천사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긴밀히 맞닿아 있는 공동체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교회는 신앙 활동을 넘어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며 안양의 교육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봉사관을 통한 복지 활동은 주민들의 삶과도 깊이 연결되었다. 무료 급식과 장학금 지원, 나눔 활동은 지역사회의 돌봄 기능을 담당하며 신앙과 생활을 잇는 다리가 되었다.

오늘날 동은교회의 선교와 봉사 활동은 교회 울타리를 넘어 지역과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동은교회가 단순한 예배의 공간을 넘어, 안양 지역의 교육·복지·문화 발전에 기여한 살아 있는 역사적 사례임을 잘 보여 준다.

註

- 1 김혜원, 「19세기 말 시흥지역 개신교 전래 과정 연구」, 『인문논총』, 81권 3호, 13~14쪽, 2024, 19쪽.
- 2 안양노회(<https://www.anyangpck.com/>).
- 3 박용규, 『알렉산더 피터스(Alexander Albert Pieters) : 성경번역자, 찬송가 작사자, 복음전도자 1895-1911』, 『신학지남』, 2008, 109, 128, 137-139쪽.
- 4 정장복, 『한국교회 최초의 실천신학교수 곽안련(Chales Allen Clark)의 『목사지법』에 나타난 예배의 신학과 이론』, 『장신논단』, 2004, 219-223쪽.
- 5 동은교회(<https://www.dech.or.kr>).
- 6 동은교회(<https://www.dech.or.kr>).
- 7 「한직골에서 안양까지(2) [인덕원-말무데미]」, 『안양광역신문』, 2010년 12월 17일(<http://www.anyangnews.net>).
- 8 사단법인 대한 청소년 성경구락부, 『창립 45주년 기념논문집』, 화술, 1973, 29쪽.
- 9 성철, 『신성학원 30년사』, 신성학원, 2000, 100-101쪽.
- 10 안양광역신문(<http://www.anyangnews.net/>).
- 11 성철, 『신성학원 30년사』, 신성학원, 2000, 106쪽.
- 12 성철, 『신성학원 30년사』, 신성학원, 2000, 8쪽.
- 13 신성고등학교(<https://shinsung-h.goeay.kr/>).
- 14 동은교회(<https://www.dech.or.kr>).
- 15 동은교회(<https://www.dech.or.kr>).
- 16 동은교회(<https://www.dech.or.kr>).
- 17 「안양 최초의 장로교회 '동은교회' 창립 111주년 맞아」, 『한국기독교공보』, 2021년 3월 22일(<https://pckworld.com>).
- 18 교회 수련회 중 익사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조이삭의 이름을 따서 조태영 목사와 전순옥 사모가 기탁한 장학금에서 비롯되었다. 동은교회(<https://www.dech.or.kr>).

제4장

관양초등학교의 시간을 꺼내 보다

정미경 시인, 안양문인협회 이사



1. 관양동 교육의 중심 관양초등학교

1) 중촌강습소에서 관양국민학교로

관악산(冠岳山) 남쪽 양지(陽地)바른 곳에 자리 잡은 학교라 하여 ‘관양(冠陽)’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관양초등학교는, 1948년 개교하였지만, 그 전사(前史)까지 따지자면 배움의 역사가 시작된 지 90년이 되어가는 학교이다. 관양초등학교의 시발점은, 시흥군 서이면 일동리에 개설되었던 중촌강습소라고 할 수 있다. 중촌마을에 생긴 강습소라서 그렇게 이름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1938년 10월 19일 『동아일보』의 단신에서 중촌강습소가 언급되고 있다.

지난 14일 시흥군 서이면 내 사립 강습소 연합운동회를 개최하고 동(同)면 일동리 중촌강습소 교정에서 거행하였는데 당일은 수백 아동과 학부모로 일반 유지가 모히어 50여 종목으로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동아일보>, 1938년 10월 19일

당시 서이면 내 사립 강습소의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 다만, 토박이들의 구술에 의하면 안양리에 주점강습소·양지강습소 등이 있었다고 한다.

해방 이후 중촌강습소는 1946년 9월 1일 안양국민학교로부터 중촌분교실 설치 인가를 받았고, 1947년 12월 2일 관양국민학교로 승격되어 6년제 4학년 편성 인가를 받았다.¹ 그리고 1948년 4월 1일 관양국민학교가 개교하였다.

이는 기존 강습소에서 국민학교 체제로의 변환으로 체계적인 초등교육을 제공하는



관양국민학교 제2회 졸업사진(1951년, 이석호 제공)

지금 관양초등학교의 시작점이 되었다.

1948년 관양초등학교 개교 당시 일동리와 내비산 지역 아이들이 입학하였다. 신입생을 제외한 학년은 안양초등학교에 다니던 일동리와 내비산 아이들이 관양초등학교로 전학을 왔다. 어엿한 학교의 모습을 갖추고 배움을 장으로 도약하려고 하던 즈음, 학교에 시련이 찾아왔다. 1950년에 6·25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관양초등학교는 폭격을 맞아 학교 건물이 전소되었다.²안양은 한국전쟁 당시 서울로 진입하거나 후퇴하는 길목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전쟁 초창기 국군의 후퇴로 함락되고 인천상륙작전으로 수복되고 다시 중공군 개입으로 함락되고 국군의 반격으로 수복되길 반복하며, 학생과 지역 주민들은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었다.

1951년 8월에 찍은 관양초등학교 2회 졸업사진에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결연함이 보인다. 폭격을 맞아 건물이 전소되어 배경에 학교 건물이 없다. 생사가 오고 가는 전쟁 중에도 배움을 향한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2) 전쟁 속에서 피어난 배움의 의지

1951년 8월, 한반도는 전쟁의 불길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배움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관양초등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은 폭격과 피난의 어려움을 견디며 학교를 지켜냈다. 학생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마치고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웠다. 학교는 당시 지역 주민들의 의지로 간신히 유지되었다. 교사들은 적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했고, 학부모들은 피난길에서도 책과 노트를 챙겨줄 만큼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다.

김부창³ : 우리가 그 관양초등학교 여기를 다닐 적에, 우리가 4학년 때 그전에는 여기 그 부림말 있는 데, 거기가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학교가 타 가지고, 6·25 때 타 가지고, 우리를 화장실에서 인제 거기 다 메꾸고 거기서 공부하고 우물 파고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거기서 강당을 하나 세웠는데, 내시 그 사람, 그 사람들이 강당을 지어줬다 소리를 들었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들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생들은 단정한 흰옷을 입고 졸업사진을 찍으며 서로를 다독였다. 비록 책상 대신 판잣집에서 공부하고, 폭격 소리를 들으며 잠들어야 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다. 이 졸업사진은 단순한 기념 사진이 아니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배움과 꿈을 이어가려는 희망과 의지를 담고 있는 역사의 증언이다. 화장실을 메우고 그곳을 교실로 삼았다.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교육 재개를 위한 노력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권전주⁴ : 학교 지을 때, 그때 전교생들이 다 이제 돌도 나르고 뭐도 하고 아이들은 그런 일을 했을 거고, 학부모들은 이제 기둥 세우고 벽돌 찍고 쌓고 나르며 흙벽돌 건물을 지었어요. 기초 공사하는데 돌을 우리가 부모님 들고 같이 이렇게 해서 돌을. 그때 이만큼씩 넓게 파



관양초등학교 체육관을 지어준 이한승의 덕을 기리는 송덕비(관양초등학교 제공)



관양초등학교 5회 졸업생 일동(1955년, 이석호 제공)

서 깊이도 1m 정도 이렇게 깊어요. 1m 됐나 우리 어렸으니까 모르죠. 깊었으니까 거기다가 돌을 전부 쌓아서 거기다가 흙벽돌을 올렸어요. 그 당시 수촌마을에 있던 그 냇가의 돌을 다 가져다 학교를 지었지요.

처음엔 화장실도 메우고 움막에서 수업했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힘을 합쳐서 흙벽돌로 된 교실을 세웠다. 이윽고 1954년엔 시멘트 벽돌로 된 학교를 재건하기 시작하여 다시금 학교의 모습을 찾았다. 시멘트 벽돌을 쌓아서 지은 교실 4개 교사가 완공되어 1955년 7월 15일 준공식을 거행하였다.⁵ 이 재건 과정은 단순한 건축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전쟁 속에서도 교육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모두의 노력이 응축된 결과물이었다. 이 이야기는 관양초등학교가 단순히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희망과 연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1955년, 관양초등학교의 5회 졸업생들은 특별한 졸업사진을 남겼다. 이 사진은 단순한 졸업 기념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 세운 새 건물을 배경으로 한 상징적인 기록이다. 당시 학교는 시멘트 벽돌로 된 새 교사를 준공하며, 전쟁과 가난 속에



관양초등학교 8회 졸업생 일동(1957년, 이석호 제공)

서도 교육을 지속하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 졸업사진 속의 배경은 1955년에 완공된 시멘트 벽돌 교사이다. 학교는 이전에 임시로 흙벽돌로 지어진 교사에서 수업을 이어갔으나, 지역 주민들과 학생, 학부모들의 헌신으로 더 튼튼하고 지속 가능한 교사를 세우는 데 성공하였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직접 돌을 나르고,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다루며 학교 건축을 도왔다.

이 건물은 전쟁의 흔적과 빈곤 속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던 세대의 노력을 담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던 지역사회의 염원이 녹아 있다. 사진 속 학생들은 깔끔한 옷차림에 정돈된 자세로 앉아 있다. 아이들의 표정에는 졸업의 설렘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약간의 긴장이 엿보인다. 당시 전쟁 후 복구가 한창이었던 시절, 학생들은 지금처럼 풍족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 사진은 어려운 시기에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던 세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1970년대 관양초등학교 교사 전경(1978년, 안양시청 제공)
1957년 준공한 교사에 증축한 흔적이 보인다.

3) 재건한 교실에서 계속되는 관양초등학교의 역사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학교를 복구하기 위해 너나없이 힘을 보탰다. 특히 거액의 토지를 기부한 사례가 보도되었다.

시흥군 안양읍 일동리에 거주하는 조정기(趙正基, 57세) 씨는 동리에 있는 관양국민학교에서 교사를 신축코자 건축자재까지 확보되었으나 공사비가 없어 건축치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소유토지의 전부인 637평(싱가 약 10만 환)을 자진 희사하여 청송을 받고 있다.(『조선일보』, 1954년 11월 8일.)

제8회 졸업사진을 보면 뒷배경에 학교 건물이 보인다. 흙벽돌 말고도 시멘트 건물도 준공돼 점차 학교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1960년 이후 관양초등학교는 더욱 나아져 갔다. 화장실, 급식소, 숙직실 신축 등 편의시설의 고도화가 이루어졌다. 교실 또한 지속해서 증축되어 1948년 4학급으로 시작한 학교가 1987년에는 61학급으로 증가하였다. 무려 15배가 넘는 성장을 보인 것이다. 일반 학급 외에도 유치원 2학급, 특수학급 1학급을 보유한 건실한 학교로 성장하였다.

중촌분교 당시에 입학한 3회 졸업생 김재덕은 1940년생으로 관양동에서 19대째 살고 있다. 관양동은 과거 김해 김씨의 집성촌이었다. 선대에서 과거를 보러 왔다가 낙방



1980년대 관양초등학교 전경(1986년, 관양초등학교 제공)

해서 내려가는 길에 인덕원쯤 양지바른 마을이 살기 좋아 정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일본 말을 배웠고 5살에 해방을 맞이해 태극기를 흔들었다. 그리고 10살에 6·25전쟁을 겪었다. 그야말로 격동의 역사 속에서 살아온 세월이었다. 나라 없는 설움도 겪었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 공부하며 어려운 시절을 겪은 우리 역사의 산증인이다.

김재덕⁶ : 전쟁이 나고 학교가 폭격을 맞아서 무너졌어. 그래서 땅을 파고 나무로 기둥을 세워 간신히 움막을 만들고 거기서 공부했어. 졸업할 때 운동장을 깎아서 거기서 운동회를 했지. 운동회날은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잔칫날이었어. 마을 대항전 같은 것도 하고 그랬지. 그때 수춘마을이 달리기를 잘 하는 걸로 유명했지. 특히 400m 계주를 잘해서 대표선수로 여기저기 많이 출전했어.

고요하고 잠잠하던 마을이 갑자기 들썩거린다. 운동회를 기다리는 건 아이들만이 아니었다. 어른들도 모처럼 동심으로 돌아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날이다. 예전에는 보통 운동회를 추석 다음 날쯤 하는데, 음식이 귀한 시절 따로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명절 음식을 좀 넉넉히 해서 운동회날 잔치를 벌이는 것이다. 모처럼 고단한 일손을 놓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한다. 외지에 나가 있던 식구들도 추석 명절에 많이 와 있어서 반가운 얼굴과 서로 그간의 안부도 묻는다. 예전부터 초등학교는



관양초등학교 운동회의 군인 태권도 시범(1970년대, 관양초등학교 제공)

지역 주민과 궤적을 같이하는, 교육과 동네를 잇는 중심지였다.

김재덕 : 남학생들은 주로 까만 광목으로 물들이 옷을 입었고 여학생들은 치마저고리를 많이 입었지. 그때 등록금도 있었는데 등록금 못 내는 아이들도 꽤 있어서 선생님 눈치를 많이 봤지. 교과서도 사야 하는데 그것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꽤 있었고 공책도 연필도 사기 힘들었어. 책상도 의자도 없고 나중에는 궤짝으로 대충 만든 것 같은 데서 공부한 것 같아. 전쟁 후에 못 먹고 가난하고 너나 나나 다 힘든 시절이었지.

그 당시는 주로 관악산 근처의 사찰로 소풍을 갔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부족한 시절엔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큰일이었다. 그래서 힘든 시절을 함께 겪은 친구들이 더욱 소중하다. 한평생을 같이한 인생 친구들을 지금도 만나고 있다.

김재덕 : 마을 앞에 큰 개울이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공사 하면서 묻혀버렸어. 관악산 줄기에 내려오는 물이 얼마나 깨끗했는지 몰라. 아이들이 개울에

가서 놀고 가재도 잡고 물고기도 잡고 하던 기억이 생생해. 학교에서 염소도 몇 마리 길렀던 걸로 기억해. 아이들이 풀을 뜯어다 먹었지. 소사 아저씨가 길렀던 것 같아, 다리 밑 모래사장에서 땡땡이 풀로 공을 만들어 축구하던 기억도 생생해.

아버지가 다닌 학교를 아들이 다니고 그 손자가 다니는 학교는 요즘 시대에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개발 등의 이유로 동네가 사라져 오랜 시간



관양초등학교 전경(이정범 제공)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보기 힘들다. 관양동에는 아버지가 다닌 학교를 아들이 다니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오랜 시간 마을과 함께 한 학교이다. 김재덕은 지금도 초등학교 동창들을 자주 만난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한 인생 친구들과 옛날 추억을 얘기하면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만 같다.

김재덕 :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간다면 나는 달리기를 하고 싶어. 세상을 맘껏 달리고 싶어. 열심히 훈련하고 체육학교도 가고 싶어.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릴 거야. 400m 계주 선수가 되는 게 내 꿈이야.

안양시 승격 이후 관양동 일대 인구가 증가하면서, 관양초등학교의 운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1986년 병설유치원을 개원하고, 1987년에는 인덕원초등학교로 7학급을 분리하였다. 1991년에는 부림초등학교로 22학급을 분리하였고, 2000년 개교한 안양관악초등학교로 522명을 분리하였다. 2009년에는 영어거점 체험센터를 개설하였으며, 2022년에 혁신학교로 지정되었다. 2024년 제76회 졸업식으로 그간 17,75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관양 마을 교육공동체와 더불어 성장하며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공감하고 참여하는 학생 중심, 현장 중심 교육으로 ‘꿈과 끼를 키워가는 행복한 배움터’를 지향하고 있다. 2024년 현재 26학급으로 편성해 서로 배려하며 꿈을 키우는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⁷

2. 25년 만에 개봉된 관양초등학교 타임캡슐

1) 관양초등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타임캡슐 만들기

1998년, 관양초등학교는 개교 50주년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였다. 전교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염원을 담아 타임캡슐을 제작한 것이다. 약 3,300명의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꿈과 우정, 가족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적어 로켓 모양의 철통에 담았고, 이는 교정 한편의 화단에 묻히며 미래를 향한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 편지 외에도 기념품, 옷, 사진, 교과서 등 아이들의 동심을 간직한 물품들이 함께 담겼다. 타임캡슐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인 2020년 5월 5일 오전 10시에 개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팬데믹과 학교 사정으로 인해 개봉이 연기되었고, 결국 2023년 4월 28일에 비로소 개봉되었다. 안양시 초등학교 중에서 대대적으로 타임캡슐을 준비한 사례는 관양초등학교가 유일했기에, 이번 행사는 학교의 오랜 역사 속에서도 특히 뜻깊은 순간으로 남았다.

타임캡슐을 묻는 일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추억의 소중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배우는 특별한 경험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일상을 직접 기록해 타임캡슐에 담은 과정은 현재의 모습을 기억하고, 미래의 자신과 약속을 나누는 의미 있는

활동이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간이 지나 캡슐을 다시 열었을 때 어린 시절의 순수한 열정과 희망을 되새기며 큰 감동을 준다. 이는 학생들에게 꿈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다. 또한, 타임캡슐은 공동체의 힘과 함께 시간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교육적 활동으로, 친구들과 함께한 추억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이 모든 과정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평생 간직할 수 있는 귀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는다.



관양초등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타임캡슐
(관양초등학교 제공)



타임캡슐 개봉 과정(관양초등학교 제공)

2) 3년이나 늦어 버린 22년의 약속

관양초등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타임캡슐은 2020년 개봉을 기다리며 묻혀있었다. 하지만 뜻밖의 코로나19 팬데믹과 학교 사정으로 인해 개봉이 지연되었다. 학교 측은 타임캡슐 발굴 전에 졸업생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발굴 및 개봉행사 안내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타임캡슐이 세상의 빛을 본 것은 2023년 4월 28일이었다. 본관 앞 화단에서 졸업생과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타임캡슐을 발굴·개봉하였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캡슐이 열리던 날, 당시의 학생과 교사 그리고 재학생들이 함께 모여 과거의 염원과 현재를 이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포크레인이 땅을 파기 시작한다. 한참을 파내려 가도 보이지 않아 함께 있는 사람들을 초조하게 했다. 3미터 정도 파 내려갔을까? 포크레인에 걸리는 둔탁한 소리. 드디어 타임캡슐이 묻혀있는 철판을 열었다. 그런데 타임캡슐이 물에 떠 있어 포크레인이 쉽게 꺼내지 못했다. 조심조심 몇 번의 장비를 바꿔가며 드디어 타임캡슐이 지상으로 나오는 순간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25년의 세월이 열리는 떨리는 순간이었다.

타임캡슐 속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들어 있을까? 오랜 시간이 지나 어린 시절의 추억을 꺼내어 보는 것은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타임캡슐은 물에 젖어 있어 모든 학생의 글과 물건들을 온전히 보존하지는 못했다. 물에 잠겨있어 훼손이 심했고 악취도 심해서 제대로 구별해내기 어려웠지만, 그 당시의 추억을 하나라도 더 건지려는 줄

업생들의 노력으로 추억 속에 묻혀있던 물건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냈다. 상태가 우수한 것들은 학교 역사관에 전시되어 찾는 이들의 발길을 즐겁게 해주었다.

3) 타임캡슐 속에 담긴 꿈과 사랑의 기록

타임캡슐 속에는 1998년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아이들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이들은 의사·선생님·과학자 등 각자 품었던 꿈과 목표를 기록하였다. 친구들과의 우정,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가득 담은 편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몇몇 메시지는 낡고 빛바랜 흔적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여전히 생생했다.

안병수 : 그날 날씨는 참 좋았어요. 2023년 4월 28일 두 시쯤 포크레인이 찾기 시작한 것 같아요. 위치를 못 찾아서 좀 시간이 걸렸어요. 학교 공사하면서 위치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너무 부패하고 악취가 있어 버리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한 선생님께서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의미가 있다고 하시면서 어떻게든 다 살리려 노력하셨어요. 간혹 가운데 정말 잘 보존된 종이 하나씩 나올 때 같이 정리했던 선생님들과 도와주시는 분들이 환호했어요.

개봉 당일 졸업생들도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이 오지 못했다, 참석자들은 너무 졸속으로 개봉행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한 선생님은 쓰레기봉투에 넣은 걸 다시 꺼내서 정리하기도 했다. 지퍼백 앞에 전교생이 반별로 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이 다 들어가 있었다. 학년 반을 표시한 사진을 지퍼백 안에 넣고, 미래의 자신에게 쓰는 편지 등을 넣었다. 그 당시 사진을 코팅하여 넣은 반이 있었고 그냥 넣은 반이 있었는데, 코팅한 것은 보관 상태가 괜찮았다. 하지만 방수포장이 안 된 채 물에 잠긴 사진이나 편지들이 많았고, 이것들은 물때가 끼고 검게 변해 냄새가 심했다. 물에 잠겨있던 타임캡슐의 보관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당황했고 정신이 없었다. 오래 묻혀있었던 만큼 많이 썩고 냄새가 심한 것들은 버리고 빨리 끝내자는 분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희미해진 사진이나 편지도 의미가 있다. 한 장 한 장 말리면 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한 장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선생님도 있었다.

타임캡슐을 묻을 때 2학년이었던 신재윤은 2023년 관양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운명처럼 타임캡슐 행사의 시작과 끝을 지켜봤다.



타임캡슐 안의 물건들(관양초등학교 제공)

신재율 : 저는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잘 생각은 안 나지만 다 모여서 로켓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년별로 물건들을 넣은 기억이 있어요. 개봉하고 많은 분이 자기 물건을 찾아오시는데, 자기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죠. 사진들이 물에 젖어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였어요. 사진이 잘 안 보여도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찾아서 그나마 이거라도 남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물건을 찾았을 때 그냥 엇그저께 만들어서 갔던 그것 같은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그 당시 학교에서 주신 형식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가장 친한 친구, 저희 강아지랑, 특기 피아노 치기, 이런 걸 적었네요. 이때 당시 이것저것 가족들의 편지도 많았고 구구절절한 사연도 많았는데 그게 귀중하게 대우를 못 받는 느낌이 있었어요. 잘하면 참 좋았을 텐데, 저의 언니 물건을 못 찾아서 미안하다고 하니까 자기가 뭘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안 찾아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서운한 것 같았어요.

전교생 3,300명이 넣었는데, 대략 300점 정도 건진 것 같다. 타임캡슐에서 꺼내서 말리고 분류하는 힘든 작업 끝에, 온전한 것들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의 물건이 나왔고 다양한 내용의 글도 많았다. 학부모의 편지들이 많았는데, 많이 살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더 살렸어야 했는데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관양초등학교 역사관에 전시된 타임캡슐 물건들(관양초등학교 제공)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소중한 기억의 한 페이지가 있다는 것은 소중한 일이다. 타임캡슐이라는 게 과거의 내 모습을 확인해 보는 것인데 보관을 좀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졸업생들에게 정말 큰 선물이 되지 않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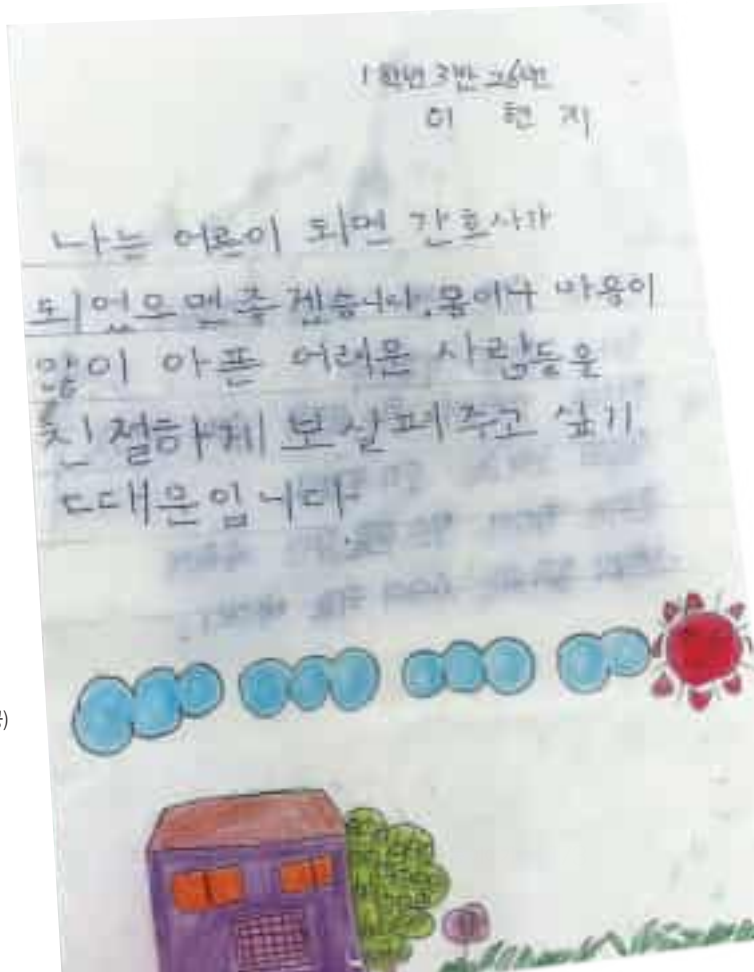
타임캡슐 행사 당시 6학년이었던 안병수는 2020년 5월 5일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개봉행사 소식을 전해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갔으나 기대한 만큼 아쉬움도 큰 행사였다고 한다.

안병수 : 타임캡슐 준비는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해요.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가 있었고 부모님이 저에게 쓰는 편지도 있었어요. 집 가훈이라든지 취미 특기 장래 희망 가장 친한 친구, 가족사진 등을 한두 장 정도에 압축해서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걸 넣고 싶은지 추천을 받았고, 실제로 미래 후손에게 이런 게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걸 가져오라 했어요. 당시 가수들 앨범이라든지 스티커 사진 이런 걸 넣었어요. 실제 개봉할 때 H.O.T 앨범 재킷이 있었어요. 스티커 사진 이런 게 많이 들어있었어요. 전 가족사진을 넣은 걸 기억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서 아쉬웠죠. 끝나고 6학년 친구들이 10명 정도 모여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보관했을까? 그런데 타임캡슐 보관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팔 때부터 이미 물이 차 있는 상황인데 그냥 땅에 묻어도 밤이 되면 습기 차는데 그런 걸 보관할 때 방수팩이나 두꺼운 갑바천으로 두 개를 싸놓고

그 위에 포장하는 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무 박스에 그 부분만 철로 되어있었어요. 너무 기본적인 방수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속상하고 아쉬웠죠. 당시에는 많이 부패했지만 하나라도 살펴보다 라는 생각이 커서 역사관에도 옮겨놓는 작업을 했어요. 개봉일 참석한 졸업생은 10명도 안 되었어요. 안에 비닐 팩을 한 것들은 괜찮았고 실제로 화석처럼 검게 변해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것들이 많았어요. 부모님도 학생들도 다 2020년 5월 5일은 무조건 기억하는 날이었어요. 무조건 오겠단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때 했으면 많이 모였을 텐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개봉을 하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공지는 못 받았어요. 행사 공지가 따로 된 것이 아니고 총동문회를 통해 알음알음 전달된 것 같아요. 친구 중에 자녀들이 관양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전날 학부모가 된 친구가 홈페이지에 뜬 것을 알려줘서 다행히 몇 명이라도 참석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시절 초등학생들은 어떤 꿈을 꾸었을까? 과학자, 축구선수. 소방관, 경찰관, 선생님 등 다양했다.

안병수 : 저희는 어렸을 때 과학자랑 소방관 이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전 그때도 선생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꿈을 이룬 거죠.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타임캡슐에 넣을 것을 쓴다면 미래의 나보다는 당시의 나에 대해 더 자세히 쓰고 싶어요. 그래서 20년 지나면 그때 내가 그랬었는데 하면서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할 수 있겠죠.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좀 해이해진 마음가짐이라든지 순수했던 마음도 돌아보고 싶어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옷이나 신발을 넣었을 것 같아요. 그때 아니면 못 입는 것들을 넣고 싶어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못 입게 되잖아요. 당장 몇 개월만 지나도 못 입잖아요. 초등학생이니까.



타임캡슐에 들어 있던 나의 꿈(관양초등학교 제공)

4) 순수한 마음, 미래를 향한 꿈

관양초등학교의 추억은 타임캡슐에 저장되어 있지 않아도 저마다의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다. 어린 시절을 함께 했던 친구들의 기억 속에는 순수했던 마음, 미래를 향한 꿈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다.

안병수 : 안양 특유의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대를 이어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른 지역을 가보면 한군데 집약적으로 뭉쳐있는 곳이 없어요. 가까운 곳에 있을 것 다 있잖아요. 다 걸어가서 충분히 할만한 것들이 많아서 참 좋았죠. 관양동은 오래 살아도 좋은 동네죠. 특별히 변한 게 별로 없어 더 좋아요. 그때는 2020년 우리가 다 같이 만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결과가 안 좋았더라도 모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을 텐데 못 본 친구들이 많죠. 당시 6학년 친구 두 명 밖에 안 간 상황이라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제가 일부러 6학년 들 것만 찍어서 올렸어요. 양해를 구해서 6학년 것만 챙겨서 말린 후 제가 한두 달 보관했어요. 친구들이 전화도 많이 오고 혹시 내 것도 있는지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연락이 안 됐던 친구들 것은 오히려 보관이 잘 되어있어 아쉬웠어요.

타임캡슐에는 학생들의 글뿐만 아니라 캡슐을 묻던 당시의 물건도 같이 들어 있었다. 책, 간식류, 문구류 등 지금은 볼 수 없는 물건이 타임캡슐과 같이 나왔다. 뛰어난 고증이 시대극을 완성하듯이, 타임캡슐과 같이 나온 물건들은 학생들의 글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신재윤 : 당시에는 학교 앞에서 불량 식품을 사 먹는다가, 그때는 좀 더 학교가 지금보다 더 그러니까 뭘 많이 사가야 하기도 하고 학교 앞에 문방구도 활성화돼 있어서 그러니까 학교 다녔던 때가 추억이 더 많았죠.



타임캡슐 안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던 과자도 있었다.(관양초등학교 제공)

그 당시 초등학교 아이들이 즐겨 먹었던 과자 봉투들이 그 시절의 기억을 새록새록 떠오르게 한다.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놀며 먹던 과자의 맛은 얼마나 맛있었을까?

타임캡슐 속에서 꺼낸 만화책들은

단순히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이는 20년 전 아이들의 꿈과 일상, 그리고 당시의 문화를 그대로 담아낸 시간의 흔적입니다. 각 권의 책들은 그 시절 학생들이 읽으며 웃고, 울고, 함께 이야기 하던 소중한 순간들을 상징한다.



타임캡슐 안에 넣은 만화책(관양초등학교 제공)

‘드래곤볼’과 ‘슬램덩크’ 같은 만화는 그 시절

청소년들 사이에서 대단한 인기였다. ‘드래곤볼’의 손오공은 아이들에게 끝없는 도전과 성장을 상징했고, ‘슬램덩크’는 농구라는 스포츠를 넘어 청춘의 열정을 대변했다. ‘짱구는못말려’는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을 선사하는 최고의 친구였다. 아이들이 부모님 몰래 읽고 킥킥 웃는 모습이 떠오른다. ‘명탐정 코난’은 추리와 지혜를 상징하며, 미래의 꿈을 탐정, 과학자, 혹은 작가로 꿈꾸게 만들던 만화였다.

이 책들은 단순한 이야기의 모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감정을 담아낸 창구였다. 아이들은 만화 속 캐릭터를 통해 꿈을 꾸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유대감을 형성하였다.

이 만화책들이 발견된 것은, 시간이 지나도 공감과 감동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현재의 학생들은 과거 세대가 무엇에 열광했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자신들의 이야기가 언젠가 미래 세대에게 전달될 것을 상상해 본다. 20년 전의 아이들이 느꼈던 설렘이, 지금도 살아 숨 쉬고 있다.

“슬기롭고 건강하게 자라라, 앞날에 축복이 있기를” 엄마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듯하다. 아빠는 “이웃과 사회에 큰 일꾼이 되길 바란다.” 믿어주고 응원해 주는 모습이 든든하다. 엄마와 아빠 그 사이에 있는 학생은 장래 희망에 유명한 만화가라고 썼다. 가족이 함께 다정하게 있는 그림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진다. “믿음과 최선의 노력으로 꿈을 실행하는 가족의 약속”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

타임캡슐의 이야기는 관양초등학교가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세대 간의 연결과 희망



우리 가족(관양초등학교 제공)

의 상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과정은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학생들과 지역사회의 기억을 이어주는 소중한 장면으로 남아 있다.

신재윤 : 그 당시에 초등학교생들이 뭔가 사부작사부작 그걸 적었던 것이 보관됐다는 사실 자체가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웅장해지기도 하고 좀 그걸 그걸 보면서 사람들 글을 읽으면서 약간 눈물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다들 마음속에 뭔가 소망이라든가 희망하는 것, 가족들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이 잘 담겨 있고 또 관양초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중

에 그렇게 넉넉한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힘든 와중에도 서로 막 견뎌 나가자 약간 이런 의지도 좀 보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소중한게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시 빛을 봤다는 사실에 의미를 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5) 타임캡슐 개봉과 함께 한 시간 여행

타임캡슐을 넣고 25년이 지난 시간, 그 시절의 추억을 다시 만날 생각에 달려온 졸업생들은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혹시나 내가 넣은 것들을 찾을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살피고 또 살폈다. 1993년 입학해서 1999년에 졸업한 한영식은 2023년 5월 17일부터 18일, 이틀간 학교에 방문했다. 그는 “관양초등학교는 제게 참 특별한 학교입니다. 어머니 손잡고 아장아장, 처음 학교에 왔던 게 바로 어제 있었던 일 같은데 어느새 입학 30주년을 맞이했네요. 비록 제가 작성한 자료는 못 찾았지만, 추억에 잠길 수 있어 참 좋습니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그 당시 6학년이었던 신수원은 “타임캡슐에 넣을 개인별 페이지를 작성하면서 아이들 모두 설렘고, 2020년 5월 5일 꼭 만나자고 굳게 약속했다. 가장 소중한 꿈, 가족, 추억,



타임캡슐에 넣은 이유가 궁금해지는 물건들
(관양초등학교 제공)



타임캡슐 속 기억을 찾으러 온 관양초등학교 졸업생들(관양초등학교 제공)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와 사진을 담아 만들었고 사랑하는 반려동물 거의 사진을 넣었다. 그리고 미래의 세상은, 우리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고 기대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당시 타임캡슐 행사를 진행했던 관양초등학교 16대 교장 남궁양운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그는 지금도 타임캡슐을 묻을 때의 설렘과 기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남궁양운 :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 졸업생들에게 미안합니다. 타임캡슐을 묻을 당시 20년을 보관해야 하기에 많이 신경 써서 준비했는데 실망스러운 결과로 돌아와서 매우 아쉬웠습니다. 모두 다 내 불찰이라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졸업생들도 이제는 다 30대가 넘어서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졸업생들 정말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늘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3,300여 명의 아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을 담은 타임캡슐 행사는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 20년 후의 내 모습을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하며 나의 소중한 물건들과 추억들을 타임캡슐에 담았다. 20년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긴 시간 동안 타임캡슐은 어떤 꿈을 꾸며 잠들어 있었을까? 그리고 2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아이들은 또 어떻게 성장했을까 궁금했다.

6-6

강문정, 밤 지은, 숨지은

(내선지)

왕과 경

6-6 반장들 ~ 안키 불수업이 열려

일이 많아 많이 갔어 - 여학생 4명이다.

2-1 김리영

6-8

순서대로?

저녁 6시

1-9

6시 30분

2023 2월 28일 금요일

의. 2월 28일 수요일 (6-9)

- 6-10 정지은, 유다정, 정지은, 최지은
- 6-8 김지은, 최지은, 최지은
- 6-4 이서은, 최지은
- 시킨 것 없음. 심리, 회개한다
- 일이 있어 참석 못함. ...

5-10 김리영

5-6 김리영

2023. 2. 11 수요일

5-10 이도담, 정지은, 안키

5-5 유제성

2023. 2. 11 수요일
이도담, 안키, 유제성
이도담, 안키, 유제성
(안키, 유제성, 안키, 유제성, 안키, 유제성)

안키, 유제성, 안키, 유제성, 안키, 유제성
→ 안키, 유제성, 안키, 유제성, 안키, 유제성
안키, 유제성

1-9

한, 김, 정
× 1000 원 줄임

90원생 한태욱 대역감

2023년 2월
이도담, 안키, 유제성, 안키, 유제성, 안키, 유제성
안키, 유제성, 안키, 유제성, 안키, 유제성

관양초교정당 이하 모은 집회를 저급과 행복을 (전.방)
기회입니다. 18차교정 당금양은입니다.

2023년 6월 14일

김리영

1997년에 졸업한 한영직입니다 1973년에 입학해서
6년 3달 공부했던 학교였기에 다산문화재단은 저의 한
특별한 학교입니다 거기서 등 함께 공부하며 지내 학교에
관한 게 바로 내려 오셨던 일 알뜰히 써서 입학 2주년을
맞이했네요! 비록 저가 작지만 무용은 돈 못벌지만, 무대에
장기 두 있어 늘 좋습니다. 비록 저와 아예 다른 모든
분야 접해보고, 학교와 모든 도우며 무용의 바깥에 관심으로
계속 합니다 2023. 5. 19 (수) ~ 2023. 5. 18. (목)
이러한 방문했습니다. 1993년 입학 ~ 1999년 졸업
한영 직

2008년 졸업. 박성현 (비서 장모)

2003년 졸업 장희범

1999년 졸업 김은지

2001년 졸업 손상현

소예진

6-3 김주은

2007년 졸업 최승환

1-3 노유리

김 주송영이 예심 있음.

2008년 졸업

↳ 지도할이라고 오디션

년도
2015년 다산 ~ !

주유정 앞사감! 1

8월 22일

5월

자신대상 앞사감

56 (연말 (목요일))

시상식 끝나다

58 (연말 (목요일))

신년회 대접이다 (91 명) (2-6)

<5.19>

- 2019년 선공로 참가함 2년 만에 재회하는 행사임
- 17년 10월 10일 참가 (1-10 참가)
- * 변량도 참가함 "
- " 오디션 참가 (1-5 ")

9월 22일 김기은



장래비 장래비 대접함

9월 22일 입학 - 2000년 2차

2차에 이었던 김다. 2학년이

너를 맡기니 대접합니다

;) ☺

9월 22일 입학이 아니라

9월 22일 입학 10월 10일 참가

1-11, 1-12, 3-3



관양초등학교 역사관 내부

교과서와 학용품, 걸스카우트 단복, 보이스카우트 단복, 해양소년단 단복, 아이들이 쓴 나의 꿈 이야기, 가족 이야기, 과자 봉지, 미래에 남기고 싶은 기념품 등 추억 할만한 물건들을 비닐에 싸아서 넣어두었다.

드디어 타임캡슐을 개봉했다. 2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일까? 타임캡슐이 담겨 있던 철문이 열리는 순간 물속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며 당황했다. 제발, 제발 그 안에 들어있는 소중한 추억들이 무사하기를 기원했지만 기나긴 시간 속에서 물에 젖어 썩고 악취가 진동했다. 참담한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쉬움도 즐거움도 있었던 타임캡슐 행사. 모두의 글과 추억의 물건들을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했지만, 타임캡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우리가 과거를 회고할 때 그 시절을 담고 있는 사진, 혹은 옛 물건 같이 과거에 멈춰있는 것들이 함께 하면 우리의 경험은 시간을 거슬러 그때로 돌아간 것과 같다. 때에 따라 과거를 바로 기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기억은 마모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타임캡슐같이 과거를 고스란히 전해주는 것들은 시간이 마법을 부린 것처럼 그 기억을 되살려 준다. 또한 과거를 회상하며 지금 모습과의 비교로 자신을 성찰할 기회도 줄 수 있다.

타임캡슐에 참여한 모든 이가 행사 현장에 오진 못했지만, 그들의 기억은 타임캡슐로

인해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잘 지낼 관양초등학교 출신 모두를 응원한다. 관양초등학교 100주년에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때는 또 어떤 추억을 꺼내 볼 수 있을까? 궁금해진다. 추억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해준다.

註

1 『안양학논총』, 제1권, 2001.

2 『관양초등학교 연혁지』

3 관양초등학교 4회 졸업생, 2016년 10월 10일 인터뷰 자료.

4 관양초등학교 5회 졸업생

5 『관양초등학교 연혁지』

6 관양초등학교 3회 졸업생

7 관양초등학교(<https://kwanyang-e.goeay.kr/>)

제1장

인덕원동 공업지역의 자동차 산업

김정환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법정동 관양동에 속하는 행정동 인덕원동은 평촌신도시와 맞닿아 있다. 인덕원동의 동북부를 지나는 학의천을 중심으로, 아래는 공업지역이고, 위는 주거밀집 지역과 인덕원역세권을 포함하는 상업지역이 자리 잡은, 복합 성격의 지역이다. 특히, 시민대로 평촌역사거리-벌말오거리 구간은 국내외 자동차 판매업체와 정비·검사·세차 시설이 밀집한 자동차 전문 단지가 형성되어 있어, 현재 인덕원동 공업지역의 특성을 보여준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의 국내 브랜드와, 메르세데스-벤츠·아우디·폭스바겐·랜드로버 등 주요 수입차 브랜드 매장이 들어서 있으며, 자동차 부품 도소매점·대형 정비소·자동차검사소·주유소 등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명실공히 ‘안양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부를 만하다.

이 일대에는 자동차 산업 관련 시설뿐 아니라 중형 병원, 의류 아울렛, 카페, 음식점 등이 들어서 있어 인근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상업·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인덕원동 공업지역은 1970년대 이후 안양의 도시 확장과 더불어 꾸준히 변화를 겪어 왔다. 이 글에서는 이 지역이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인덕원동 공업지역의 형성 배경

안양은 1950년대까지만 하여도 인구 2만여 명에 불과한 작은 도시였으나, 서울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환경 등 좋은 기업 입지와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의 실행과 더불어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본격적인 공업단지가 형성되었다.¹ 인덕원동은 1960



1970년대 흥안로 주변 공장들(이정범 제공)

년대까지도 학의천의 물을 이용해서 드넓은 벌말들의 농사를 짓던 농촌이었다. 그런데 1969년 흥안로 건너편에 동일방직 안양공장이 준공되면서 산업화의 바람을 맞기 시작하였다.

동일방직은 이후 점차 성장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경공업 중심의 한국 경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기업이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한국은 경공업을 근간으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수출 증대에 힘쓰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공업 확장 과정에서 1969년에 동일방직 안양공장이 준공된 것이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동일방직은 계열화 공장 설치 계획에 따라 특수직물 공장을 안양에 세웠으며, 직기 200대 규모였다고 한다.²

동일방직 이후 여러 기업체가 흥안로 변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흥안로는 안양에서 과천을 거쳐 서울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 도로 주변이 공장 입지로 유리한 지역이었다. 또한 학의천을 끼고 있어 공장의 용수 배출에도 용이하였고, 평지라는 조건도 공장부지로 안성마춤이었다. 교통 입지로만 보면, 인덕원동은 성남 분당보다도 서울 강남역과 더 가깝고, 서울 서남권의 사당역·구로디지털단지·영등포와도 가까운 위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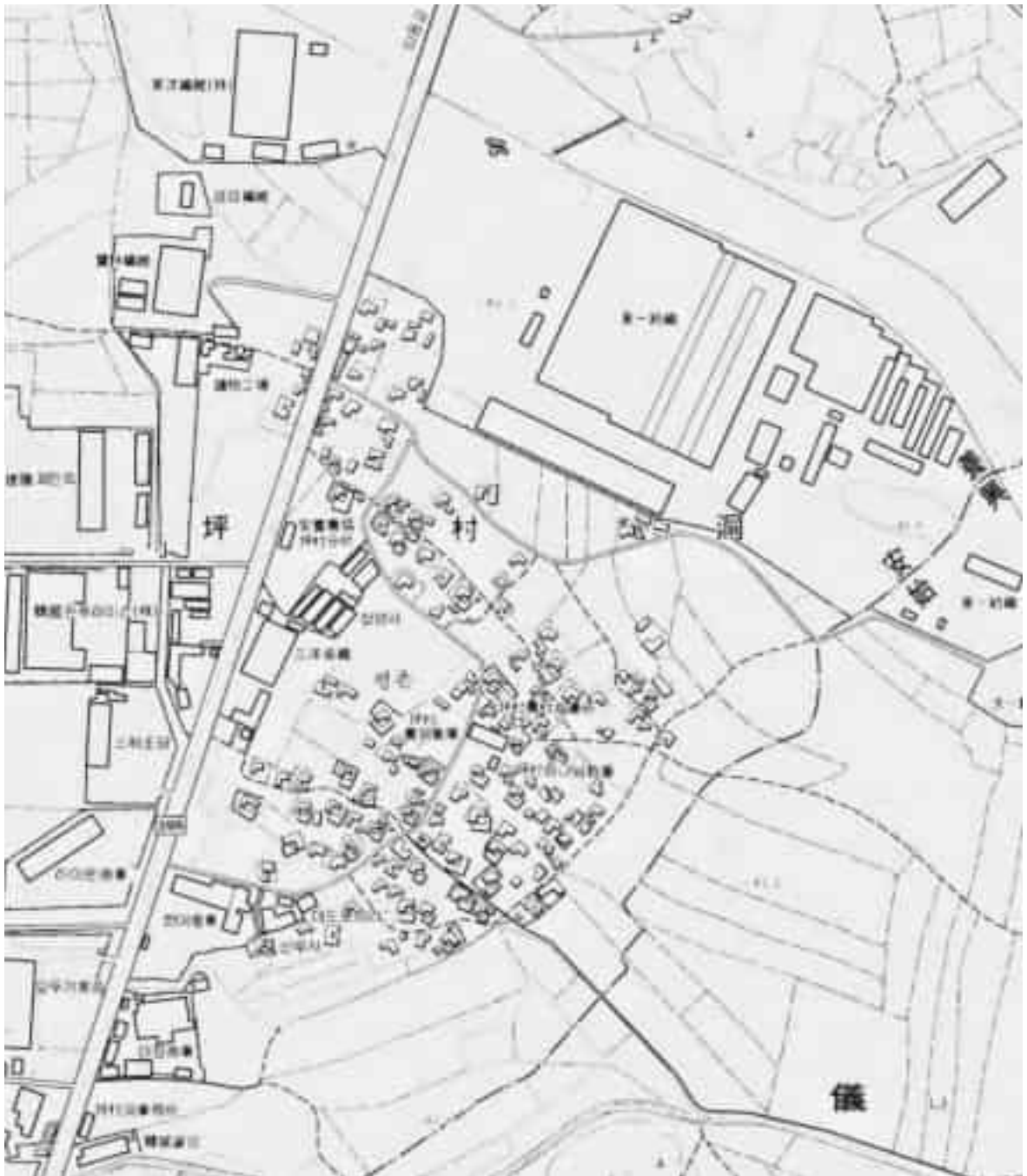


대한전선 안양공장(1970년대, 이정범 제공)

법정동 관양동과 평촌동의 경계가 흥안로를 기준으로 하지 않아서, 흥안로 주변을 인덕원동으로 포함하여 살펴보면, 오투기식품·삼화왕관·건양페인트·동양섬유·한국판푸라이스 등이 1970년대 초반부터 자리 잡았다. 학의천변으로도 대한전선을 비롯한 공장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대한전선은 1973년에 6만여 평의 벌말 농경지를 매입하고 1977년부터 공장을 가동하였다. 대한전선 안양공장은 2011년 당진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안양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국가 전체의 수출 증가로 수도권 일대의 공업단지 형성이 가속화되었으며, 인덕원동 역시 공업단지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일부 공장부지의 시세가 택지 시세를 넘어서는 현상도 나타났다.³ 이로 미루어볼 때 인덕원동은 공업지역으로서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인덕원동 일대의 지형도를 보면,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관양동 공업지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방직 부지를 중심으로 한 지형도를 살펴보면, 1976년 지형도에서 동일방직은 하천을 끼고 자리 잡고 있으며, 오투기식품·한국판푸라이스·현대산업·신우사·삼영사 등 공업지역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87년도 지형도에서도 큰 변화 없이 1970년대 형성된 공업지역이 유지되고 있는데, 2001년 지형도에서는 동일방직과 여러 공장이 사



1970년대 중반 홍안로 변에 자리 잡은 공장들(1976년)

라지고 그 자리에 아파트 단지와 유치원, 상가 등 주거지 인프라가 들어선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성격의 변화는 1990년대 평촌 신도시의 변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2. 인덕원동 공업지역과 평촌신도시를 배후로 형성된 자동차 단지

1980년대까지 공업지역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던 인덕원동은, 1990년대 초반 평촌신도시 형성과 함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약 150만 평에 달하는 평촌신도시는 1기 신도시 중 가장 좋은 서울 접근성과 행정지구 및 산업지구 인근에 건설된다는 이점 때문에 분양 당시부터 하루에 10만 명이 몰릴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⁴

1992년부터 평촌신도시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이후부터 인덕원동은 평촌신도시와 연계하여 배후 상권이 형성되었다. 안양권 행정·문화 기능을 수용한 중심 지역 발전과 관련한 도시계획 아래에서, 공공청사 17개 시설이 들어서는 등 행정 기능이 평촌신도시가 형성된 동안구로 이전하였다. 요컨대, 평촌신도시의 형성은 인덕원동 일대가 공업지역이라는 특성뿐만 아니라 평촌신도시의 행정적·소비 배후지역이라는 성격이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90년대 초반 인덕원동 일부 지역에 자동차 관련 업종이 모여 들기 시작하였다. 현재 이 지역에서 오래된 자동차 관련 업주 중 한 명인 최광일의 사례는, 이 지역의 변천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과천 출신인 그는 원래 자동차에 대한 개인적 관심으로 자동차용품 도매업에 뛰어들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매업을 하던 중, 1991년경 소매업으로 전환을 결심하면서 이 지역에 자리 잡게 되었다. 당시 그의 판단으로는 도매시장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었고, 소매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당시 인덕원동 시민대로 주변은 현재와는 매우 달랐다. 중앙도로만 포장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비포장도로였으며, 개발이 덜 된 변두리 지역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인덕원역과 평촌역 사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었고, 특히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자동차 정비공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었다. 실제로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받기 어려운 자동차 정비업 허가가 이 지역에서는 가능하였고, 이는 이후 자동차 관련 업종이 집적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인덕원동의 자동차 관련 업종 집적은 특이하게도 정부나 지자체의 계획적인 개발이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서 30년 이상 정비업에 종사해 온 정진철 정비사의 구술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의 관양동 자동차 단지는 현재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다. 당시는 “허허벌판”이었으며, 규모가 큰 정비공장도 공업사 하나 정도만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현재 자동차

매장이 밀집해 있는 사거리 부근은 거의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시기에는 폐차장도 여러 곳에 있었는데, 점차 지가가 상승하면서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고 한다. 현재 인덕원동 일대에는 자동차 단지에 두 곳의 폐차장이 운영되고 있다.

관계자들의 구술을 종합해 보면, 1990년대 초반 평촌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인덕원동 시민대로 주변에 개인 카센터들이 하나둘씩 입점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자동차 단지의 초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동차 단지의 형성은 단순히 평촌신도시 형성으로 인한 자동차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의 자동차 보급률 자체의 증가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특히 자동차 보급률이 급증하였는데, 1990년 전국 자동차 보급 대수는 300만 대를 넘었고 불과 3년 후인 1993년에는 600만 대로 두 배 증가하였다.⁵ 이와 맞물려 국내 자동차 제조사도 본격적으로 확장하였는데, 인덕원동 자동차 단지의 형성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함께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1990년대 초반 자동차 정비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안양 구도심이나 신도시 내에는 자동차 정비소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가 많지 않았다. 그런데 관양동의 경우, 1970년대부터 이미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자동차 정비업 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지가도 도심 변두리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였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카센터들은 ‘바둑판’처럼 계획적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 개별 업주들의 판단에 따라 자연스럽게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지역적 맥락에서 볼 때, 자동차 단지 형성 초기에 이 지역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두 가지 안정적인 수요 기반이 있었다. 하나는 대한전선, 동일방직 등 기존 공업 단지의 수요였다. 이들 공장의 업무용 차량과 직원들의 개인 차량이 평일 수요의 상당 부분



1990년대 초반 인덕원동 자동차 정비소
(『안양저널』 제19호, 1992년 5월 6일)



2003년 흥안로 모습(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2001년 시민대로 일대 자동차 관련 업종

을 차지하였다. 다른 하나는 평촌 신도시와 인근 과천시 거주자들이었다. 최광일의 구술에 따르면, 주말에는 수요가 상당히 있었다고 한다.

최광일 : 아파트 단지에도 입성하기가 좋고, 거기 공장이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평일에는 공장 차 위주로. 그리고 주말에는 아파트 단지 손님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그렇게 활성화가 됐죠. (중략) 평일에는 예전에 만약에 일주일로 따졌을 때 나흘 정도는 여기 손님들 보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비율로 따지면 공장 쪽에 손님들이 한 60~70%, 그다음에 아파트 손님들이 이제 한 30%였는데, 주말에는 이제 반대로 공장 주말에 쉬니까 공장 차들은 없잖아요. 평일에는 이제 주민들이 와서 이제 동네 주민들 위주로.

이처럼 평일과 주말의 수요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지역 자동차 업종은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는 수도권외의 다른 신도시와 비교할 때,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평촌 신도시 관양동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인덕원동 자동차 단지의 전문화와 조직화

현재 인덕원동 자동차 단지에는 현대·기아·폭스바겐·쉐보레 등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정비업체와 대산자동차·한근자동차공업사 등 큰 규모의 정비업체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중반에는 이 지역 자동차 관련 업종이 주로 2~3인 규모의 소규모 카센터 위주였다. 대부분의 카센터는 부지를 매수하지 않고 임대 형태로 영업을 시작했으며, 지가가 저렴한 도심 변두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큰 장벽 없이 카센터들이 입점할 수 있었다.

최광일 : 이제 정비도 1급 있고, 2급 있고, 3급 있잖아요. 여기는 주종이 1급들이예요. 주휴가. 여기만 그 전에 한 (대형정비소가) 11개~12개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한 10개는 될 거예요. 지금 비율이 예전의 카센터보다 정비공장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흐름이 그렇게 가니까. 손님들이 다 할 수 있는 토털,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길에 보이던 현대 이런 서비스들이 생기고서부터 손님들이 그쪽으로 많이, 브랜드 쪽으로 가죠. 예전에는 정비공장에서 안 하는 일이 많았어요. 타이어 펑크 이런 것들을 안 했고, 이제 그 시장을 뺏기게 된 거예요. 기술력도 그렇고, 장비도 이제 카센터에서 못 쫓아가는 거죠.

인덕원동 자동차 단지는 소규모 카센터 위주의 초기 정착기를 거쳐 1990년대 후반부터 이 지역 자동차 업종의 전문화·조직화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현상은 업계의 자발적 조직화였다. 안양을 중심으로 ‘카포스(CAPOS)’라는 자동차 정비업체 협의체가 결성되었고, 이어 2000년대 초반에는 ‘카텍(CATEC)’이라는 새로운 협의체도 만들어졌다. 이들 협의체는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월 5만 5,000원의 회비를 기반으로 회원들에게 신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폐기물 처리와 부품 공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계의 전문화를 이끌었다. 특히 이 두 협의체는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광일에 따르면, 만안구 업체들은 주로 카텍에, 동안구 업체들은 카포스에 가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이 지역 자동차 업종이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새 차 구매가 어려워지면서 기존 차량의 정비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자동차가 이미 필수품이 되었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새 차 구매보다 정비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났다. 이는 이 지역 자동차 업종의 불황 저항적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업종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초기 소규모 카센터 중심

인덕원동 웨보레 평촌서비스센터 일대





인덕원동 시민대로 자동차 관련 업종



인덕원동 시민대로 중고차매매단지



인덕원동 시민대로 자동차 관련 업종



인덕원동 흥안대로427번길 자동차 정비업소

에서 점차 전문화·대형화된 정비업체들이 늘어난 것이다. 이 시기 자동차 정비업체는 규모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되었다. 일반 카센터는 약 30평 규모로 운영되었고, 2급 정비공장은 200평 이상, 1급 정비공장은 300~400평 이상의 대규모 시설을 갖추어야 했다. 특히 인덕동은 1급 정비공장이 10여 개 이상 밀집한 것이 특징이었는데, 이는 수도권에서도 드문 사례였다. 이러한 대형 정비업체의 밀집은 이 지역이 단순한 동네 카센터 밀집지가 아니라 전문화된 자동차 정비 단지로 발전했음을 보여주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이 지역의 산업 구조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기존 제조업체들이 공장형 아파트(지식산업센터) 형태로 전환되면서 상주인구의 성격이 크게 달라졌다. 대표적으로 동일테크노타운은 이 지역 최초의 공장형 아파트로 건설되어 약 30년의 역사를 가진다.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 업종의 고정 수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큰 타격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일 면적에 더 많은 직원이 상주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자동차 정비·관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매출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산업 구조의 변화는 인덕원동 자동차 단지의 고객층 구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규모 제조업체가 이전하고 그 자리에 공장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IT 기업, 게임 회사 등 다

인덕원동 자동차 단지 일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입주하였다. 특히 게임 회사와 같은 IT 기업의 입주로 고가 수입차를 포함한 새로운 자동차 수요가 발생하였다.

종합해 보면, 2000년대 인덕원동 자동차 단지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업종 내부의 구조적 재편이다. 1990년대 초반 이 지역을 이끌었던 2~3인 규모의 소규모 카센터는 대부분 사라지고, 그 자리는 대규모 정비업체가 차지하였다. 초기에 10여 개에 달했던 카센터는 한두 개로 줄었으며, 대신 현대차·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 브랜드의 직영 정비센터와 일부 대형 정비업체만이 남게 되었다.

4. 도시 경관 변화와 상업지구로의 전환

2000년대 이후 한국 산업 구조의 변화와 수도권 전반의 지가 상승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인덕원동 일대에 자리 잡았던 대형 공장들은 지방으로 이전하였다. 동일방직은 안양공장 부지를 1996년에 매각하였고, 대한전선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08년에 안양공장 부지를 매각하고, 충남 당진으로 공장을 이전하였다. 1972년에 가동을 시작한 오투기 역시 2009년에 카레·스프·마요네즈·케첩 등의 생산시설을 충북 음성으로 이전하였다.

동일방직 안양공장이 이전한 자리에는 대우건설이 지은 약 2,0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섰다. 대한전선 안양공장 부지는 ‘평촌스마트퀘어’라는 도시첨단산업단지과 1,4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섰다. 지리적 맥락에서 보면, 인덕원동 일대는 평촌신도시 형성 이후 롯데마트, 월마트 등 대형 마트와 농협하나로마트 등이 들어서면서 거주·상업 용도 모두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인덕원동 일대가 제조업 중심의 공업지역으로서 성격을 잃어 가면서, 2010년대 이후 자동차 단지도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특히 이 지역은 공업지역에서 평촌신도시의 소비지로 성격이 전환되면서 도시 경관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지가 상승과 함께 건물의 고층화가 진행되었다. 과거 1층짜리 카센터 건물이 있던 자리에 3~4층 규모의 상업용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건물주들은 카센터나 정비소보다 수익성이 높은 업종으로의 전환을 선호하였고, 그 결과 대형병원·법무사사무소·카페 등 다양한 업종이 입점하였다. 특히 수입차 전시장은 현대적 디자인의 대형 전시장을 갖추면서 이 지역의 경관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한 상업용 건물이 밀집한 인덕원 공업지역

인덕원동 자동차 단지 일대의 지가 상승은 주목할 만하다. 1990년대 초반 평당 200만 원대였던 지가가 2024년 현재는 평당 5,000~7,000만 원대로 상승하였다. 100평 남짓한 부지는 약 70억 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급격한 지가 상승은 이 지역 자동차 업종의 구조 변화를 가속화하였다. 초기에는 대부분의 정비업소가 영업 수익에 초점을 맞추어 임대 형태로 운영하였는데, 이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아쉬운 선택이 되었다. 실제로 이 지역 자동차 관련 업체의 90% 이상이 임차로 운영되고 있다.

높아진 지가로 인해 카센터나 정비소는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건물주들은 수익성이 높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전환하게 되었다. 예컨대 카센터를 임차인으로 두어 월세를 받는 것보다 3~4층 상업시설을 신축해 임대하는 편이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하였다. 이에 대해 최광일은,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카센터를 입점시키겠느냐”며 “지저분하고 시끄러워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다른 업종 임차인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지가 상승과 그에 따른 임대료 상승은 소규모 업체들의 퇴출을 가속화하는 한편, 자본력이 있는 대형 업체나 수입차 매장의 입점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가의 급격한 상승은 결과적으로 이 지역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과거 단순한 자동차 정비 단지에서 자동차 판매와 정비, 의료 서비스, 요식업, 의류 쇼핑, 체육시설 이용이 가



인덕원동 시민대로 자동차 단지(이정범 제공)

능한 복합 상업지구로 전환된 것이다. 특히 벤츠·BMW 등 고급 수입차 매장은 2015년 이후 본격적으로 입점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이 지역이 단순한 정비 단지를 넘어 프리미엄 자동차 관련 서비스의 중심지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관양동 자동차 단지의 중심인 시민대로와 별말로의 풍경을 보면, 2010년대 초반부터 고층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2023년에는 저층 주유소나 정비센터 대신 고층 상업 건물 중심의 경관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수익성 측면에서도 불가피하였다. 70억 원대의 부지에 카센터를 운영할 경우, “최소한 20억 원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이자만 한 달에 1,500~1,6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최광일은 설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센터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건물을 위로 올리고, 아래는 좁아지는” 형태의 개발을 선택하였다. 1층에는 카페나 상업시설이 입점하고, 위층에는 사무실이나 병원 등이 들어서는 구조로 변화한 것이다. 이는 지가 상승에 따라 건물이 고층화되고, 저층 공간은 상업적 활용으로 특화되는 현상으로, 도시 공간의 고밀도화가 불러온 필연적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급격한 성격 변화 속에서도 이곳은 여전히 안양에서 자동차 관련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공업지역으로 기능하고 있다. 과천이나 의왕 등 인근 도시에는 이와 같은 정비 시설이 거의 없어, 이들 지역의 수요까지 인덕원동 자동차 단지로 집중되고 있다.

5. 인덕원동 자동차 단지의 새로운 도전

2010년대 이후 인덕원동 자동차 단지는 여러 구조적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였다. 30년 넘게 이 지역에서 종사해 온 최광일과 정진철의 구술을 종합하면, 이 시기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영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이다. “현재 업종의 60~70%는 인터넷을 통해 고객이 유입된다”는 최광일의 말처럼, 고객들은 인터넷을 통해 가격을 비교하고 업체 정보를 검색한 뒤 방문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정진철은 “여기서 수리하다가 인터넷 보고 금액이 얼마니, 뭐냐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토로하였다. 특히 기존의 단골 고객 중심 영업 방식이 무너지면서, “한 번 들어오면, 각종 차에 들어가는 거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종합 정비의 장점마저 가격 경쟁 속에서 그 의미를 잃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자동차 성능 향상으로 인한 정비 수요의 감소이다. “옛날 자동차하고 지금 자동차들은 수리할 게 없다”는 정진철의 말처럼, 차량의 내구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최광일은 “엔진오일도 옛날에는 3,000~4,000km였는데 지금은 현대·기아에서 1만km 이상 타고 한다”며 정비 주기가 늘어났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돈 못 벌면 바보”라고 할 정도로 수익성이 좋았던 1990년대와는 달리, 정비업계의 수익 기반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과거 명절이나 휴가철이면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 차량 점검을 위해 정비소를 찾는 고객들이 많았으나, 이제는 그러한 계절성 수요마저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셋째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등장이 정비업계에 새로운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는 점이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기계적 부품이 크게 줄어 정비할 부분 자체가 적다. 정진철 정비사는 “전기차가 늘어나면 정비할 게 타이어 교체하고 찌그러진 것 펴는 것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업계에서는 향후 10년 정도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시장의 중심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시기를 전기자동차 시대를 준비하는 과도기로 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정비 기술의 변화만이 아니라, 정비업 자체의 사업 모델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미 일부 대형 정비업체들은 전기차 정비 인력 양성과 장비 도입을 시작하였으나, 개인 운영 정비업체들은 높은 초기 투자 비용으로 인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소규모 정비업체의 감소를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전기차로의 전환으로 내연기관 수리 수요

가 감소하면서 과거 정비업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엔진 관련 정비나 소모품 교체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업계는 ‘카포스(CAPOS)’와 ‘카텍(CATEC)’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최광일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 협의체는 신기술 교육과 폐기물 처리, 부품 공동 구매 등을 지원하며, 특히 전기차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 친구들이 전혀 배우러 오지 않는다”는 정진철의 말처럼, 인력 수급과 세대교체는 여전히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처럼 2010년대 이후 인덕원동 자동차 단지는 인터넷의 확산, 자동차 성능의 향상, 전기차 도입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겪으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의 노력과 지역 업주들의 축적된 경험은 이곳이 여전히 안양을 대표하는 자동차 집적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덕원동 자동차 단지는 단순한 산업 공간을 넘어 공업지역의 역사와 신도시 형성, 그리고 지역 경제와 생활 변화를 함께 증언하는 중요한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註

- 1 「내고장 商工人〈14〉安養 上」, 『매일경제』, 1993년 5월 21일.
- 2 「동일방직 직기 2백대 규모로 특수 직물공장 설립」, 『매일경제』, 1973년 6월 16일.
- 3 「공장 땅값 택지 웃돈다」, 『매일경제』, 1987년 3월 10일.
- 4 「평촌에 10만 인파 북적」, 『동아일보』, 1990년 6월 4일.
- 5 「한국의 자동차 역사 하(下)」, 『KAMA웹지널』 2016/vol.332, 한국자동차산업협회(https://www.kama.or.kr/jsp/webzine/201611/pages/story_02.jsp).

제2장

이웃과 정이 머무는 곳, 관양시장

이승연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전통시장은 주민들의 일상과 생활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간이다. 전통시장에서는 생필품과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서민들의 생생한 삶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의 인기가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쇠퇴해 가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며 사랑받고 있다.

안양은 다른 도시에 비해 전통시장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다. 중앙시장, 남부시장, 관양시장, 호계시장, 박달시장, 석수시장 등이 주민과 더불어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관양시장은 관양동과 인근 지역 주민은 물론 초·중학생, 관악산을 오가는 등산객과 관광객들로 늘 북적이는 곳이다. 관악산 아래 양지바른 곳에 자리하였다 하여 ‘관양(冠陽)’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시장이 생긴 지 올해로 45년째가 된다.

이 시장은 어떻게 자리 잡고 활성화되었으며, 어떤 특징을 지니고 앞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 관양시장을 통해 관양동 주민의 생활과 지역 경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시장의 설립 과정과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변천, 주요 판매 품목, 운영 방식, 지향점 등을 상인회 소장 자료, 시장 홈페이지, 언론 보도 자료 등을 통해 1차로 파악하였다. 또한 현장 조사를 병행하고 상인회장과 시장 매니저, 오랫동안 장사를 이어 온 상인들, 관양동 주민들을 만나 구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였다.

〈표 1〉 관양시장 제보자들의 주요 활동

이름	주요 활동
1 박동성	관양시장상인회 회장 관양시장에서 부동산공인중개업소 운영. 관양시장 상인회장(2007년~2016년, 2019년~2024년), 안양상인연합회장 역임. 고객 유치와 상인들의 매출 확대에 역점을 두고 활동.
2 이상준	관양시장 매니저 이벤트 회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관양시장 매니저로 활동하며, 관양시장 홍보·활성화 등의 실무 담당.
3 김기완	관양시장 상인회 고문 1985년부터 떡볶이, 즉석 김밥, 오뎅, 튀김 등을 판매하는 분식집 삼선당 운영.
4 남상호	관양시장 상인 1999년부터 두부가게 승일두부 운영. 매일 새벽부터 직접 두부를 만들어 판매
5 정광자	관양현대아파트 주민 1985년부터 관양현대아파트 거주. 통장 역임.

1. 주민의 필요에 맞춰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양시장

안양관양시장은 관양초등학교와 관양중학교 옆에 자리 잡고 있다. 관악대로에서 접어드는 관평로328번길 입구에 관양시장 간판이 크게 서 있어 시장의 존재를 알려준다. 관악대로와 관평로를 잇는 관평로328번길이 관양시장의 중심 골목이다. 접어들면 관양현대아파트 입구에서 관양중학교 담장을 따라 동서로 이어지는 약 160여 m 구간에 걸쳐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도로변을 따라 곧게 뻗어 있으며, 하늘이 흰히 트여 있어 늘 햇빛이 잘 비친다. 길을 따라 걸으며 물건을 천천히 구경하기에도 편리하다. 관양시장은 관양동 생활권 중심지에 형성되어 있으며, 인근에는 관양현대아파트·뉴골든아파트·아리랑 1차아파트 등 아파트와 빌라가 모여 있고, 관양초등학교·관양중학교 등이 들어서 있다.

관양시장은 1980년경 관양동 일원의 주거지역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한다.¹ 시장이 자리 잡게 된 계기는 관양현대아파트 입주와 관련이 있다. 관양현대아파트는 관양시장에 인접한 904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1985년 4월 준공되었다. 1985년에 관양시장에 들어와 현재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인회장 박동성에 따르면,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당시 관양동에 거주하던 여성 노인들이 공터에서 채소를 키우거나 산에서 나물을 뜯어 와, 집에서 만든 곶절이 등의 반찬과 함께 바구니에 담아 관양중학교 담장 아래 돛자리를 펴고 판매하였다. 처음에는 길가에 물건을 벌여 놓고 팔던 노점 형태였으나, 아파트와 주택이 들어서면서



관양시장 관평로 입구



2008년 관양시장 골목(인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큰 시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85년에 들어온 관양현대아파트와 현대맨션 등의 거주자들의 구매력은 관양시장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주택 증가로 인구가 늘어나고 수요가 확대되면서 관양시장은 골목형 시장에서 점차 대형 전통시장으로 자리 잡아 갔다.

박동성 : 그때는 이런 시장이라는 형태가 갖춰져 있지도 않구요. 골목시장이었지. 여기가 원래는 옛날에 8년도인가, 여기가 82년도인가, 옛날에 자연 부락들이 여기에 뜬문뜬문

있고, 옛날 동네로 되어 있던 데가 개발된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구획정리 지역으로 있다가, 그때 주택지로 이제 개발을 한 거죠, 여기를. 그러다 보니까 집이 이제 띄엄띄엄 하나씩 옆에 택지로 조성만 해놨지, 그때는 이 근처에 시장이 없었어요. 전혀. 그렇다고 해서 마트들이 그때 많은 것도 아니고, 구멍가게들이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때 동네, 할머니들이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지. 그분들이 텃밭에서 빈 공지에서 야채 기르고, 산에 가서 나물 뜯어 오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돛자리 깔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바구니에 천 원씩 이렇게 팔고 그랬었어요. 생필품을 그렇게 팔았죠. 그렇게 팔고 있다가 이때부터 골목형 시장으로 서서히 자리 잡게 된 거지. (중략) 현대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하면서부터 자리를 같이 잡아간 거죠. 그러니까, 현대아파트와 우리 관양시장이 연령이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요?

1977년 무렵 본격 가동에 들어간 대한전선 안양공장도 관양시장에 영향을 주었다. 대한전선 직원들은 출퇴근길에 관양시장 노점이 늘어선 통로를 지나며 청과물과 생활잡화를 구입하였고, 장거리 통근을 하던 근로자들도 점차 관양동 일대로 이주하면서 주택과 상가가 자연스럽게 증가하였다. 또한 관양동 인근 공터에서 야채 등을 재배하던 주민들은 노점을 운영하여 가게 수입을 보탤다.

이상준 : 대한전선이라는 회사가 이제 길 건너편 학의천 변에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그쪽에 회사가 생기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생겼겠죠. 그리고 그쪽에 제일 가까운 지역이 저희 관양동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주거를 옮긴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서 그 회사를 다니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악대로에서 현대아파트까지 이 시장 통로가 자연스럽게 출퇴근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80년도에 그런 사람들이 유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관양중학교 담벼락을 기준으로 해서 턱이 좀 높잖아요. 거기에 노점들이 생기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현대아파트 뒤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수터 분들이 물건을 가져다가, 그리고 기존의 가게 점포들이 조금씩 시장에 관련된, 일상에 관련된 그런 업종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갔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골목형 시장이에요.



2008년 관양시장 골목(인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평촌신도시 입주 초기 아직 상업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때에는 평촌신도시 입주민들도 학의천을 건너서 관양시장에 장을 보러 오기 시작하였다. 상품의 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며 버스로 오기 편리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과천과 성남에서도 고객들이 찾아왔다.

관양동과 인근에 거주하던 중년층 여성들은 승합차를 대절하여 새벽에 강원도까지 각종 산나물을 뜯어다가 오후에 관양동 노점에서 판매하였다. 관양시장 초창기에 노점을 하며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던 이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대부분 세상을 떠났다.

박동성 : 90년대에 들어오니까 평촌이 개발되면서 평촌의 인구들이, 그 당시에도 이제 평촌에도 대형 마트들이 없었어요. 그때는 안 들어왔을 때니까. 그 인구들이 여기에 장 보러도 오고, 주변에 과천 쪽에서도 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장이 이제 서서히 자리 잡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막 상인들이 여기에 몰려 들어오고, 옛날에는 여기 시장에도 그 당시에는 점포가 하나 있고, 그냥 옆에 가면은 그냥 또 점포, 뭐야, 주택으로 돼 있고, 막 이런 식이 돼 있었어요. 옛날 집으로 이 학교 앞에 지금 노점들 쪽 있을 거예요. 담벼락 밑에 우리 팔고 있는데 거기에 밑에서 장사를 시작한 거지, 다. 그 당시에는 직접 농사를 짓고, 그걸 뜯어 오고. 오전에 산에 가서 봄 같은 경우에 산나물을 뜯어가지고, 썬도 뜯고, 취나물이라든지, 이런 걸 뜯어서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오후 시간에 팔고 이랬죠. 강원도까지 옛날에 봉고 차로 막 12명씩 싣고 이제 가요. 새벽에 가서 뜯어서 싣고 오면, 그분들이 오셔서 또 잘아놓고 팔고,



관양시장의 주요 소비자들이 거주하는 관양현대아파트

관양시장에는 농산물, 청과, 수산물, 건어물, 축산물, 반찬, 식품, 떡, 빵, 방앗간, 건강원, 의류, 뷰티·잡화, 음식점, 마트, 침구, 신발, 금은보석, 안경점, 사진관, 복권방, 부동산, 약국 등이 입점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청과류이다. 관양시장은 싱싱한 채소와 과일, 수산물, 정육 등을 고루 갖추고 있어서 풍성한 식탁을 차리는 데 도움을 준다.

시장은 연중무휴로 운영되지만, 점포에 따라 개별적으로 금요일에 문을 닫거나 명절 연휴에 쉬는 상인들이 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장하므로 주민들은 퇴근 후에도 찾을 수 있으며, 언제나 열려 있어 편리하다.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퇴근길에 간편하게 반찬거리를 살 수 있어 특히 인기가 높다.

1985년부터 현재까지 40년째 관양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정광자는 관양시장이 현대아파트와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고 말한다. 생활 방식의 변화에 따라 판매되는 먹거리에도 변화가 생겼다. 예전에는 싱싱한 생선을 그대로 판매하였으나,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간편한 음식이 선호되면서 손질하거나 구운 생선을 파는 가게가 생겼고, 반찬가게의 메뉴도 한층 다양해졌다.

정광자 : 내가 지금도 눈에 선한 게, 시장이 없었어요. 여기 대웅약국도 논밭이었어요. 대웅약국에서 시장 쪽으로 가면 상당히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주인이 대문을 열어 놓고, 콩나물하고 뭐를 좀 놓고 팔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 한 집이었어요. 그러다가 점차 건물도 들어서고. (중략) 시장에 생선가게가 3개가 있는데, 생활 패턴이 많이 변한 게 옛날에는 생물의 생선, 싱싱한 것만 했는데, (요즘은) 구워서 팔고, 전분 가루를 묻혀서 손질한 생선을 직접 주인이 구워서 내고 해서, 변했어요.

관양시장은 5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구역마다 장을 두고서 시장 운영과 관리에 힘쓰고 있다. 관양시장은 안양의 다른 전통시장과 비교하여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교통이 편리하고 아파트단지와 바로 접해 있다는 특징이 있다.

〈표 2〉 관양시장 기본 현황²

구분	내용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328
점포 수	148개 (2024년 7월 기준)
취급 품목	생활잡화, 채소, 과일, 생선, 건어물, 반찬류 등
개설 인정일	2006년 3월 18일
영업 시간	365일 연중무휴, 09:00 ~ 20:00
특징	매년 9~10월 가을축제 개최, 품바 공연·풍물놀이 등 다양한 이벤트 진행

2. 주민과 함께 살아 숨 쉬는 시장

관양시장은 입지에 있어서 안양의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 특별한 점이 있다. 하나는, 관악산 아래에 위치하여 관악산을 오르내리는 등산객과 둘레길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거쳐 간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관양초등학교와 관양중학교에 인접해 있어 유소년 고객이 많다는 점이다.

관악산 등산 코스 중 하나인 관양능선 코스는 관양시장과 현대아파트를 지나 관양고등학교 옆으로 이어진다. 현대아파트 후문 근처에는 관악산으로 향하는 등산로 입구가 있다. 등산객과 관광객들은 관악산에 오르는 길에 두부·오이·사과 등을 구입하고, 둘레길을 걷고 내려오는 길에는 칼국수·분식·통닭 등을 사 먹으며 간편하게 허기를 달래고 다양한 맛을 즐긴다.



국악
384-8000

뭇발
야채

구룡포
과메기
양성리
곰장

탄
짜개

정육점
2017-2018

두부

옛날그집
그옛날 그 음식

진행시청 고객선(명예선) 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 관양시장(안양시청 제공)



그 집

3204

4억의 안주. 왕대포

5000 원

지켜잡

순창
우북

민족
어묵

민족
어묵

담뱃잎

크로커다일레이더

인기폭망

민족
어묵

민족
어묵



박동성 관양시장상인회 회장

박동성 : 관악산을 등산하는데 여기에 등산객들이 방문해 가지고, 관악산 가기 전에 먹거리를 사가지고 가고, 하산할 때 또 먹거리 사가지고 가고. (중략) 관악산 등반객을 중심으로 한 컨셉을 잡았어요.

관양시장에는 두부나라, 한일두부, 승일두부 등 여러 곳의 두부 가게가 있다. 이 가운데 승일두부는 28년의 역사를 지닌 곳으로, 2014년 경기도 명품점포로 선정되었다. 가게를 운영하는 남상호·남선숙 부부는 고모가 2년간 운영하던 두부 가게를 인수하여 1999년 12월에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예전에는 손님이 많아 새벽 3~4시부터 장사 준비를 하였으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고객이 줄어든 뒤에는 새벽 6시부터 일을 시작하고 있다. 가게 안에는 여러 기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매일 맷돌을 사용해 콩물을 만들고 직접 두부를 쫄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두부는 냉장 유통으로 차갑게 보관되어 바로 먹기 어려운데, 승일두부는 천연 간수를 사용해 당일 만든 두부를 따뜻한 상태로 제공하므로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아침 일찍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다. 고객들은 여름에는 콩물을, 겨울에는 순두부를 많이 찾는다.

남상호·남선숙 부부는 현대아파트 주민이기도 하다. 관양시장 상인이자 현대아파트 주민으로서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을 지니고 있다.

남상호 : 옛날에는 빨리 일어났는데 지금은 늦게 일어나요. 지금 6시에 나와요. 여름에는 콩물이 많이 나가고, 겨울에는 두부가 많이 나가는데요. 고소하다고 해요. 이제 나온 거라. (마트에서 시판되는 두부는) 일단 차갑고. 이거는 매일 만드는 게, 이 뜨거운 두부를 갖다가 손님한테 주는 거니. 따끈따끈하게요.

요즘 전통시장은 젊은 층으로부터 점차 외면당하고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양시장은 학생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관양초등학교와 관양중학교 학생들은 하굣길에 분식집이나 마트에 들러 간식을 사 먹기도 하고, 시장 구경을 자주 한다.

관양시장상인회는 학생들이 전통시장을 친근하게 느끼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



관양시장 승일두부

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다. 관양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나누어 주고 시장에서 직접 장 보는 체험을 하게 한다. 체험 행사 날에는 교사와 학부모들도 함께 나와 학생들의 장보기를 도와준다. 또한 과자집 만들기, 어린이 장기자랑, 학교 동아리 공연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시장을 찾은 주민들도 이를 즐기며 학생들을 응원한다.



승일두부에서 파는 제품들

박동성 : 우리는 초등학생들 위주로 해서 체험 행사를 해요. 이번에 97명을, 관양초등학교 학생들이예요. 1만 원짜리 온누리상품권을 한 장씩 주면 그걸 가지고 여기 와서 돌면서 자기네들이 사고 싶은 거, 시장 가는 체험을 하는 거야. 그럼 교장 선생님 이하 각 선생님들 다 오죠. 또 애정이 있는 분들은 학부모들도 따라 나온다고, 학생들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들 사랑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관양시장의 가게들



관양중학교 바로 앞에는 ‘삼선당’이라는 유명한 분식집이 있다. 1985년부터 운영해 온 곳으로, 4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떡볶이, 즉석 김밥·튀김·순대·어묵 등을 판매하는데, 등산객들은 김밥을 사 가고 학생들은 가게 안에서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예전 토크와 회수권을 사용하던 시절, 학생들은 이를 현금처럼 사용하며 용돈을 대신하기도 했다. 삼선당도 1980~1990년대 회수권과 토크를 받았고, 때로는 외상으로도 판매하였다. 또한 시판 고추장을 쓰지 않고 직접 만들어 숙성시킨 고추장으로 떡볶이를 조리하였다.

이 분식집은 세 자매가 운영하며, 그날그날 준비한 재료만큼만 판매하고 재료가 소진되면 문을 닫는다. 예전에 단골이던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데이트하며 다시 찾기도 하고, 결혼 후에는 자녀와 함께 들르기도 한다. 이들은 오래 전 하룻길에 기쁨을 주던 떡볶이와 분식을 다시 맛보며 추억을 되새기고, 삼선당이 아직 같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표현한다.

김기완 : 저희 가게는 1985년 여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관양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왔었지요. 물론 관양초등학교 학생들도 오구요. 동네 어른 분들도 자주 찾아 주시고. (중략) 그때는 버스 토크를 내고 가는 학생도 있고, 나중에 준다고 가는 학생도 있고. 아무튼 이 시장에 건물들이 하나도 없고, 도로만 커다랗게 나 있을 때이니깐요. 그때 학생들이 커서 부부가 얘기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가 여기 학교 다닐 때 단골집이었다고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음식을 저렴하게 손님에게 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장사가 잘되는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성 들여서 고추장도 담아서 숙성시켜 쓰다 보니까 손님들 입맛에 맞았나 봅니다. 장사를 하다 보니 1990년대 후반부터 상가 건물들이 하나둘씩 들어선 것이 지금의 시장이 된 지도 몇십 년이 되었습니다.

관양시장에는 반찬가게, 두부 가게, 과일 가게, 채소 가게, 건어물 가게, 분식집, 수산물 가게, 떡집, 어묵 가게, 빵집, 칼국수집, 부대찌개집, 족발집 등 다양한 먹거리 판매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전통시장에 비하면 직접 점포 안에 들어가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등산을 마치고 내려온 사람들이 편히 앉아 담소를 나누며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늘어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있다.

관양시장은 집을 오가는 길목에 있어 주민들의 애정이 크다. 또한 시장 입구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다른 동네 거주자들도 관양시장을 선호한다. 특히 청과물은 가격 경쟁력이 있어 단골이 많다. 상인들은 관양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주민들이 시장을 아끼는 마음이 다른 곳보다 특별하다고 말한다.

박동성 : 우리 관양시장 하면, 다른 데 보다 여기가 우리 주민들이 참 좋아해요. 저는 참 주민들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게 그건데. 여자분들, 남자분들, 이렇게 만났을 때 이야기하다 보면 (중략) 레퍼토리가 그냥 관양시장에 대해서도 관양시장이 잘 되고, 관양시장에 대해서 “다른 시장보다 여기가 활성화가 된 것 같고,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이야기할 때, 굉장히, 나는 회장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정이 있고. (중략) 우리 관양시장은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여러 군데가 상당히 많은 게, 우리 관양동, 그다음에 비산3동 운동장 주변이라든지요. 여기 평촌 입구 이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인덕원 쪽으로 과천, 의왕, 백운호수 주변 그쪽에서도 많이 몰려오거든요. 다른 데보다 신선하고, 여기가 싸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관양현대아파트의 경로당은 개방형 경로당으로, 현대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인근 빌라와 주택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경로당을 찾는 노인들은 동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이들은 동네의 가장 큰 장점으로 관악산 자락에 위치해 공기가 맑고 주거지가 조용하며, 시장이 가까워 언제든지 신선한 먹거리와 생필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관양시장은 관양동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고 넉넉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3. 관양시장의 활성화와 차별화 전략

전통시장이 가만히 있어서는 더 이상 고객을 끌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기업형 슈퍼마켓과 편의점이 골목까지 들어오면서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에 상인들은 적극적으로 시장의 차별화를 꾀하며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관양시장은 2006년 3월 18일 인정시장으로 지정되고 상인회가 정식 등록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간판·도로·전기 시설을 정비하고 시장 통로를 정리해 통행이 편리해졌으며, 외관상으로도 더 쾌적해졌다.

여러 전통시장이 아케이드(아치형 지붕)를 설치하는 추세에 따라 관양시장도 상인들의 동의를 얻어 전체 아케이드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케이드는 눈과 비를 막아주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장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하늘을 가려 어둡고 응달이 생기는 단점도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시기에는 하늘이 훤히 보이고 공기 순환이 잘된다는 이유로 오히려 주민들이 대형 마트나 백화점 대신 관양시장을 찾았다. 이에 따



KBS 방송 프로그램 '6시 내 고향'에 소개된 관양시장

라 시장은 답답한 일체형 대신 천장 개방형 아케이드를 설치할 계획이다.

관양시장의 소박하고 정겨운 풍경이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드라마 촬영 등의 섭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24년 3월에는 농어촌 대상 시사 교양 프로그램인 KBS '6시 내 고향'에도 소개되었다.

이상춘 : 골목형 시장에서 점점 발전해 오다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 전통시장에 대한 특별법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안양의 5대 전통시장 중에 중앙시장, 남부시장, 박달시장, 호계시장, 그리고 관양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관양시장은 동안구의 대표적인 시장이지만, 1번가하고, 만안구하고, 밀집되어 있는 시장 쪽에서 많이 떨어져쥬. 그러다 보니 그쪽이 먼저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큰 시장 위주로. 2006년에 저희 시장은 정식으로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아, 인정시장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상인회 정식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서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원도 받으면서 시장에 좀 현대화 시설을.

관양시장은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 대상으로 선정되어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성화 방식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어 2012년에는 '유쾌한 문화학교 관양시장' 프로젝트에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 국책사업인 '문화를 통한



관양시장상인회 매니저 이상준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 못골시장에 이어 관양시장이 두 번째로 선정된 사례였다.

'시장이 학교다'라는 주제 아래 상인·주민·학생이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유쾌한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자, 문화사랑방 조성, 관양시장 둘레길 지도 제작, 문화동아리 활성화, 매출 신장을 위한 솔루션 위원회 운영, 방송과 신문을 통한 소식 나누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³ 또한 관양시장 전체 구역에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고객 편의를 도모하였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07년부터 상

인회장으로 활동해 온 박동성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러한 노력과 공로를 인정받아 2011년 경기도지사상, 2012년 국무총리상과 안양시민대상을 수상하였다.⁴

시장이 발전하는 데에는 상인회 매니저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상인회는 전통시장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매출을 높이고 고객을 유입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



“유쾌한 문화학교 관양시장” 발대식(안양시청 제공)

장 매니저를 두고 있다. 관양시장은 2014년부터 이상준을 매니저로 채용하였다. 그는 이벤트 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안양·안산·성남·서울 등지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 경력을 살려 각종 행사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상준 : 경기도만 해도 약 100여 개 시장 전통시장과 상점이 골목형 시장, 골목형 상점이 이렇게 좀 조금씩 나눠져 있지만. 그런 정식 등록된 게 지금 현재는 100개 정도 돼요. 2010년도 후반 정도에 시장경영진흥원이라는 저기가 생겼고. 그전에 전통시장 육성법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다가, 이게 상인회를 도와주는 건 도와 주지만, 이 상인회 안에서 상인 조직을 위해서 끌어갈, 저같이 행정 업무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를 나라에서 알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 제시가 많아서 처음 생긴 게 2012년도부터 매니저 제도가 생겼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 상인회 조직 역량, 역량 강화라고 그래서 상인회 조직을 짜 주고, 그 조직이 잘될 수 있게끔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회의, 그 다음에 나라에서 지원되는 행사 지원금을 가지고 마케팅 행사 같은 걸 하는데, 그런 행사 기획 이런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커리어가 되는 사람들을 좀 뽑았었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점 거기에 관련된 교육도 좀 받고 있고.

관양시장에서 시장을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하는 것이다. 관양시장은 안양에서 최초로 카카오 채널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고객이 관양시장 카카오톡 채널 친구로 등록하면 시장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와 점포별 특별 세일 정보를 사전에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2024년 9월 4일 기준 관양시장 카카오톡 채널 등록 인원은 5,034명이다.⁵

이상준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많이 한 게, 저희는 회장님이 주력하셨던 거는 온라인 쪽으로 많이 노력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각종 SNS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행사 때, 지금 밖에서 오늘 환급 행사하는 것도 정부 지원 사업이지만, 이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는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합니다”



2024년 관양시장 추석맞이 대축제



2024년 관양시장 추석맞이 대축제 행사를 기다리는 주민들

하고 문자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다 받죠. (중략) 2023년도에 카카오에서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채널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선정이 돼서 저희 관양시장이 안양에서는 최초로 채널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거구요. 이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사 같은 걸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카카오에서 또 지원도 해줬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지원 때까지만 해도 한 천 명까지 넘었어요. 그래서 천 명이 넘었다는 인증패도 카카오에서 받은 게 있어요.

관양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통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24년 8월에는 일주일간 3만 4,000원어치를 구매하면 1만 원을, 6만 7,000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고객들은 신선한 먹거리와 다양한 생활잡화를 구매하면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큰 호응을 보였다.

2024년 9월에는 안양시의 후원을 받아 추석맞이 대축제를 열었다. 키다리 뽀에로, 거리 퍼포먼스, 전자 현악, 팝페라, 트로트 가수, 7080 가수, 색소폰 연주, 마술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다. 또한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장바구니 캐리어를 증정하는 경품 행사도 마련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면서 관양시장은 단순히 장을 보며 물품을 구매하는 공간을 넘어, 머무르며 상인들과 대화하고 이웃과 만나 인사를 나누며 근황을 전하는 친교의 장소로 자리 잡았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느낄 수 없는 소박하고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함께 어울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4. 새로운 세대와 함께 여는 관양시장의 미래

전통시장은 신선한 청과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가격을 흥정하며 인간미와 활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를 이끄는 장소로,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관양시장 문화센터 2층에는 ‘희망장난감도서관’이 있다.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환경과 좋은 장난감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열어 주고자 마련된 공간이다. 전용면적 126㎡(38평) 규모로, 7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장난감 대여와 육아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 놀이공간이다. 상인회는 이 도서관을 통해 젊은 부모와 아이들이 전통시장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고, 미래의 고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모 사업에 지원하였다고 한다.

국내 대기업 신세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희망장난감도서관은 전국에 25개소가 있으며, 전통시장에 자리 잡은 것은 관양시장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기도 했다. 개관 초기에는 인기가 매우 높아 젊은 부모와 아이들이 멀리서도 찾아왔으나, 최근에는 유사한 장난감 대여점과 도서관이 늘어나면서 이용객이 다소 줄었다.

희망장난감도서관

유아어디 다누리UP!서당 UP!

주제: 우강해와를 통한 두뇌발달 / 희망차나 강해발달

구분	구분	프로그램	대상	요일	시간	비용
유아발달	1	우미우미(영재)	7세이하	월	14:00 - 14:40 (50분)	15,000원 (월 1회)
	2	꿈드림	7세이하	월	14:00 - 14:40 (50분)	15,000원 (월 1회)
	3	한글어울림 놀이	7세이하	월	14:00 - 14:40 (50분)	15,000원 (월 1회)
초등발달	1	꼭우우와 밴드	12세이하	월	16:30 - 17:10 (40분)	25,000원 (월 1회)
	2	도전놀이	12세이하	월	16:30 - 17:10 (40분)	25,000원 (월 1회)
	3	무엇이든 하는 놀이발달	12세이하	월	16:30 - 17:10 (40분)	25,000원 (월 1회)
	4	한글발달	12세이하	월	16:30 - 17:10 (40분)	25,000원 (월 1회)



희망장난감도서관 2024년 9월 두뇌 발달 프로그램

관양시장 희망장난감도서관(관양시장 제공)

안양시에 거주하는 7세 이하 아동의 보호자는 도서관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수익 사업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에 장난감 임대 비용은 저렴하다. 연회비는 2만원이며, 이용료는 1일 2시간 기준으로 개인은 2,000원, 단체는 1,000원이다. 방문하면 자유 놀이실 이용은 물론 장난감 대여도 가능하다. 이 사업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하며, 운영 관리는 안양시 비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⁶희망장난감도서관 안양관양점은 놀이감 분류에 따라 영유아의 신체 활동, 조작·탐색, 쌓기, 음울, 역할 놀이 등 다양한 분류의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또한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놀이 프로그램 운영, 부모 교육 및 상담 지원, 다양한 육아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상준 : 2014년에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장난감 도서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알게 됐고 회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마침 저희 상인회가 2층이 비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하하고 2층이 비어 있었는데 2층 빈 부분을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을 유치해서 꼬마, 젊은 부부층을 유입해 보자. 신규 고객으로. 그게 잘 돼서 전통시장 1호점으로, 그러니까 전국의 전통시장 중에 저희 안양 관양시장이 첫 1호점이에요. 그래갖고 저희 때 그게 성공 사례로 벤치마킹이 돼서 지금은 한 몇 개 시장이 하고.



관양시장상인회 사무실과 이승준 매니저

전통시장은 대부분 구도심이나 구시가지에 위치한다. 따라서 도시가 겪고 있는 변화의 물결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관양시장도 마찬가지이다. 시장 주변에 노후화된 주택이 많아 최근 ‘관양고 주변 도시 개발사업’과 ‘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 등 본격적인 개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아파트 재건축이 시작되면 입주민들이 모두 이주하게 되어 관양시장의 핵심 고객이 3~4년간 시장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현대아파트에는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재건축이 완료되어 신규 입주가 시작되면 상당수가 젊은 세대로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앞으로 시장 주변의 환경이 바뀌고 주민 구성이 달라졌을 때 관양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 상인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상인들도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시장 형성 초기부터 장사를 시작한 1세대 상인들이 70~80대에 이르자 자녀에게 가게를 물려주거나 다른 이에게 점포를 넘기고 시장을 떠나고 있다. 그 자리에 20~40대 상인들이 들어오고 있으나, 젊은 세대의 특성상 시장 전체의 분위기와 전통을 살피며 어울리기보다 본인의 가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시장 상인들의 결속력이 예전 같지 않다. 관양시장은 상인들 간의 단합과 결속이 특히 강한 편이었는데, 기존 상인들은 이러한 분위기가 사라질까 염려하고 있다.



남녀노소가 모두 찾는 관양시장(이정범 제공)

이상준 : 관양시장은 다른 상인회 조직보다 단합이 잘 되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던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공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셨거든요. 왜냐하면 상인회 조직이 생기고, 안양시 상인연합회가 생겼어요. 그 최초의 회장님을 하신 게 또 저희 관양시장 회장님이요. 안양시에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은 전통시장 세일 데이, 그다음에 안양시 상인의 날, 시하고 같이 해서 제정도 하시고, 체육대회도 하시고. 상인들한테 금지심을 많이 불러일으켜 드릴 그런 행사들을 회장님이 많이 추천하셨고. (중략) 이제 세대교체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40년 이상의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들이 많이 드셨죠. 힘드시니까 자식들한테 맡기기도 하지만 장사를 이제 접고 가게를 내놓고 또 그만두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또 젊은 새로운 상인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젊은 상인들의 상인회에 참여하는 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40대, 심지어는 20대도 있어요. 20, 30, 40대, 이 정도의 젊은이, 특히 20~30대일 것 같은데 그분들과 좀 상인회 조직에서 그분들과 기존의 상인분들과의 소통 도구를 만들든, 조직화하든, 이렇게 되게 해야지 시장이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중략) 관양시장의 미래는 새로운 젊은 세대들과의 소통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인해서 그 역할이 많이 바뀌어지죠.

상인들이 평소 주변 학생들을 챙겼듯,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는 학생들이 오히려 시장을 응원하기도 하였다. 2022년 코로나19 기간에 관양초등학교 학생들은 “관양시장 상인 여러분, 힘내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학교 앞 관양시장 상인 115명에게 학생들이 직접 쓴 응원 편지와 함께 쿨링 타월·피로 회복제 등을 담은 위문 키트를 전달하며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응원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였다.⁷

“자영업자가 지역 경제의 근간이다”라는 말이 있다. 관양시장 상인들의 상당수는 관양동과 동안구에 거주하는 주민이자 이웃이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와 환경 속에서 관양시장 역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상인도, 고객도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푸근하고 인정 많던 옛 전통시장의 모습은 점차 달라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변에 관심을 갖고, 받은 사랑을 이웃에 환원하려는 마음만큼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주민과 상인, 그리고 안양의 전통시장들이 협력과 상생을 통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이끌어 가기를 기대한다. 관양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주민의 삶과 추억, 이웃 간의 정을 이어 주는 공동체의 장이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관양시장이 지닌 따뜻함과 활력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란다.

註

1 안양시청(<https://www.anyang.go.kr/>).

2 안양시청(<https://www.anyang.go.kr/>).

3 「'유쾌한 문화학교 관양시장' 발대, 『경인일보』, 2012년 3월 19일.

4 「[매력만점, 전통시장을 가다] 40. 안양 관양시장, 『경인일보』, 2019년 4월 17일.

5 안양관양시장 블로그(<https://blog.naver.com/>).

6 안양관양시장 블로그(<https://blog.naver.com/>).

7 「관양초등학교, 관양시장 상인 여러분, 힘 내세요! 관양초 학생들이 응원합니다, 『안양신문』, 2022년 7월 11일.

제3장

교통중심지에서 도심 상권으로 변화하는 인덕원

전은기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원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지역성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에 놓여 있다. 특히 안양과 같은 서울의 위성도시는 인구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계획 아래 신도시가 조성되었고, 1990년대 이후 수도권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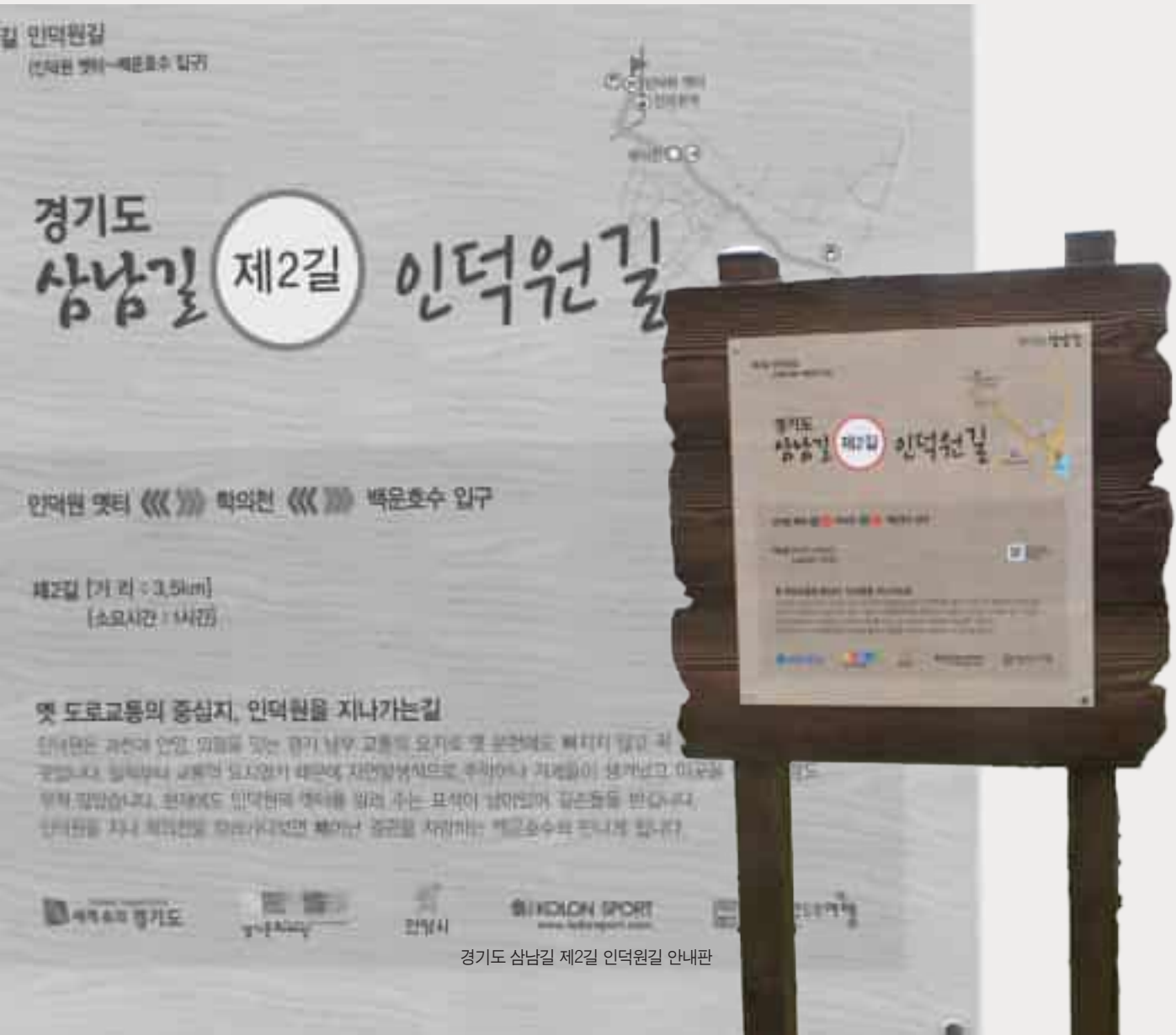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덕원은 안양시 내에서 비교적 독특한 지역적 위상을 지닌다. ‘인덕원’은 2024년 이전까지만 해도 관양2동에 속하는 지명이었으나, 2024년 1월 1일자로 관양2동이 ‘인덕원동’으로 공식 개칭되면서 행정동 이름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 인덕원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과거의 작은 마을 지명으로 머무르지 않고, 오랜 시간 계승되어온 지역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주변 지역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장에서는 인덕원역세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덕원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시간이 흐르며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인덕원의 역사적 배경

‘인덕원(仁德院)’이라는 지명에서 ‘인덕(仁德)’은 ‘어진 덕’이라는 뜻이다. 인덕원 인근 지역은 조선시대 내시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덕을 베풀었다 하여 이러한 이름이 붙은 것으로 전해진다. 내시는 일반적으로 신분이 낮고 신체적 제약이 있는 이들이었으나, 종2품에 해당하는 고위 관직까지 오를 수 있었기에,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같은 마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실천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행적이 지역 사회에 기억되며, ‘인덕원’이라는 지명에 담긴 의미로 이어진 것이다.

번인호 : 저기 저 밑에 가면 동편마을 옆에 가면 '간촌'이라고 있어. 그 간촌이라는 데가 내시촌이야. 내시가 정년퇴직을 하면 와 가지고, 내시 마을이 있었다고. 내시 중에서도 높은 내시가 인덕원데다 이름 지어준 거야. 어진 마을 하나 찾아서 인덕원 마을 형성을 한 거야.

오늘날 '인덕원'은 거대한 상업권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행정 지역을 지칭하는 명칭이 되었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인덕원은 현재 인덕원동에 속하는 동편마을·간촌·부림마을 등과 같은 자연마을의 하나였다. 마을의 물리적 범위는 학의천을 경계로 하여 별말(평촌동)과 구분되었고, 현재는 복개되어 사라진 인덕원천을 기준으로 부림마을과 구분되었다. 또한, 길을 경계로 동편마을·간촌과도 나뉘었다.



경기도 삼남길 제2길 인덕원길 안내판

인덕원은 조선 초기부터 교통의 요충지로 알려진 곳이었다. 과천-안양-의왕을 잇는 삼남길의 길목으로, 충무공 이순신의 『난중일기』에도 백의종군 중 아산으로 향하던 길에 인덕원에서 말에게 먹이를 주고 잠시 쉬어갔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정조가 부친 사도세자의 능인 현릉원(顯隆園)으로 향할 때 지나던 능행길의 일부이기도 하였다. 현재도 수도권 교통의 핵심 요충지로서 그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변인호 : 옛날부터 교통편은 최고였다고 어디서 라도, 성남에서 라도 여기 왔고, 수원서 라도 여기 왔고, 서울서 라도 여기 와서 이게 그러니까 교통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인덕원은 본래 농업을 주로 하는 지역이었으나, 동시에 교통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상업적 기능도 갖춘 지역이었다. 상업적 특성은 단순히 인덕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업 활동을 하였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숙박업과 요식업 등도 꾸준히 인덕원의 중요한 특성으로 자리해 왔다.

인덕원의 지역성을 형성하는 큰 요소는 주막이다. ‘원’이라는 지명에서 알 수 있듯, 인덕원은 조선시대 지방에 파견된 관리나 상인 등이 공무를 위해 여행할 때 숙식을 제공하던 국영 숙소가 있던 곳이다. 교통 사정이 원활하지 못했던 당시, 여행자들은 원에서 도적이냐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고 접대와 숙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원은 이용자가 제한되어 쇠락하였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폐단이 많아 주막 또는 주점으로 변하였다.

김부창 : 내 친구 하나가 이제 그 주막에 동네 사람들이 가서 술 먹고 그런 건 봤지만, 어리니까 주막은 안 가고, 친구 하나가 거기서 그 집이 어머니가 장사를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만 했지.

인덕원은 원이 폐지된 임진왜란 이후에도 일반 여행자를



인덕원 터 표석



사통팔달의 인덕원사거리





1970년대 후반 인덕원 일대(이정범 제공)

위한 주막과 여러 가게가 촘촘히 들어서 기존 원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과천현 상서면(上西面) 관내에서 제일가는 부촌이었으나, 광복 직전에는 30여 가구만 남은 빈촌으로 전락하여 작은 마을로 유지되었다고 한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덕원은 ‘원’이라는 이전의 지역적 특성을 이어 나갔다. 인덕원의 주막은 과거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역세권으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직전까지도 명맥을 이어 왔다.

인덕원은 안양이나 군포 방향으로 물건이 이동하는 교통로일 뿐만 아니라, 물품이 교환되는 상업 공간이기도 하였다. 다만 다른 일반적인 시장들과는 성격이 다소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막이 모여 있는 공간적 특성과 결합된 결과였다.

면담자 : 인덕원 쪽에 나무 장사들도 많았나요? 나무는 어디서 해서 어디다 팔아요?

김부창 : 이제 청계 쪽으로 가서 해놓은 거 받아다도 팔고, 받아서 다시 저거해가지고 (안양 구시장) 가서 팔고, 일부는 가서 하고.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들이 많아.

이처럼 인덕원에서 증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참여한 상인을 상대로 한 유흥업도 발생하였다. 인덕원의 원주민들은 이러한 유흥 산업의 기원을 주막에서 찾는다.

김부창 : 왜냐면 청계 사람들 나무 팔고 하다 그 서울옥에 들러서 거기서 그냥 나무 팔고, 술 먹이고, 저거하고, 다하고 그러는데. 건달들이 많이 살고 그러가지고 노름들을 많이 했어요.

원주민들은 인덕원을 ‘무쇠(돈)가 녹아 나가는 동네’라고 불렀음을 기억한다. 인덕원의 주막은 단순히 숙식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유흥의 공간으로도 기능하던 곳으로 여겨졌다.

변인호 : 술장사나 이런 거는 옛날부터 여기가 철이 녹는 동네라 그런 거야. 쇠가 녹는 동네라고. 왜 그러냐면 과거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 기생들하고 놀다 보면 노자가 떨어져서 못 보고 내려가는 사람이 허다했다는 동네야. 그러니까 여기 오면 거지가 돼서 간다는 거지. 이 동네가 굉장히 터가 센 동네야. 여기 사거리고, 그러다 보면 해마다 척사대회도 하고, 기생들이 장구치고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

김부창 : 인덕원에서 오면 지금도 그런 화투를 치든지, 뭘 하든지, 그러면 얘기를 해. 인덕원은 무쇠도 녹아 나간다고.

2. 인덕원의 성장

1) 인구 증가와 공업단지 배후지

1972년 안양읍 관내 하천 변에 난립해 있던 주택을 정비하였다. 이 정비 사업으로 발생한 철거민들은 학의천 변을 매립하고 조성한 터에 집단으로 이주하였다. 이곳은 새로 형성된 마을이라는 뜻에서 ‘신흥촌’, ‘신흥마을’, ‘새마을’ 등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로써 인덕원의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였다.

변인호 : 80년대 초에 신흥촌이라는 마을이 생긴 거야. (중략) 그 부지가 하천 부지야. 모래 하천 부지를 갖다가 안양시에서 사람들한테 터를 이만큼씩, 이만큼씩 준 거야. 그러니까 “집은 니네가 짓고 살 아라. 땅은 우리가 대겠다.” 그래 갖고 사는 동네가 신흥촌이야. 근데 이제 밀명 신흥촌인데 우리는 거



1975년 새마을(신흥촌) 일대(비그라운드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제작)

기를 새마을이라 그런 거야. 왜냐면 새로 생긴 마을이라 그런 건데 그 신흥촌이 생기면서 인구 밀도가 좀 많아진 거지.

흥미로운 점은 신흥촌이 실제로는 1972년에 형성되었음에도, 이를 1980년대 초에 생겼다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1970년대 초반에 이주해 온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철거민으로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여, 원주민들과의 교류가 처음부터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신흥촌 사람들이 저녁이면 고추를 훔쳐 가서 고추를 아예 심지 못할 정도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를 통해 인덕원 원주민들이 초창기 신흥촌 이주민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신흥촌의 이주민들은 이곳에 정착하지 않고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현재 신흥촌의 거주민들은 1980년대 초반에 새롭게 교체된 사람들이다.

김부창 : 근데 대부분 그때 와서 이제 거기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산 사람들이 별로 없고, 와서 살다가 또 갔다가.

윤경숙 : 그게 80년대 초반에 다 매입하게끔 해서 그래서 물갈이가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70년대 중반 처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분들한테 한 5~6년 후에 이제 토지값을 내고 니네가 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못 산 사람들은 그걸 팔고, 그 집만 해서. 그래서 과천 분들이 많이 산 것 같아요. 과천이랑 이제 인근에 조금 금전적으로 살짝 여유가 있었던 분들이 그걸 사서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80년대 초반에 들어오시고, 다 처음의 원주민이 아니라 80년대 초반에 들어오신 분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원주민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70년대 처음 들어온 입주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때부터 이제 80년대 토지 매입하신 분까지 해서 좀 길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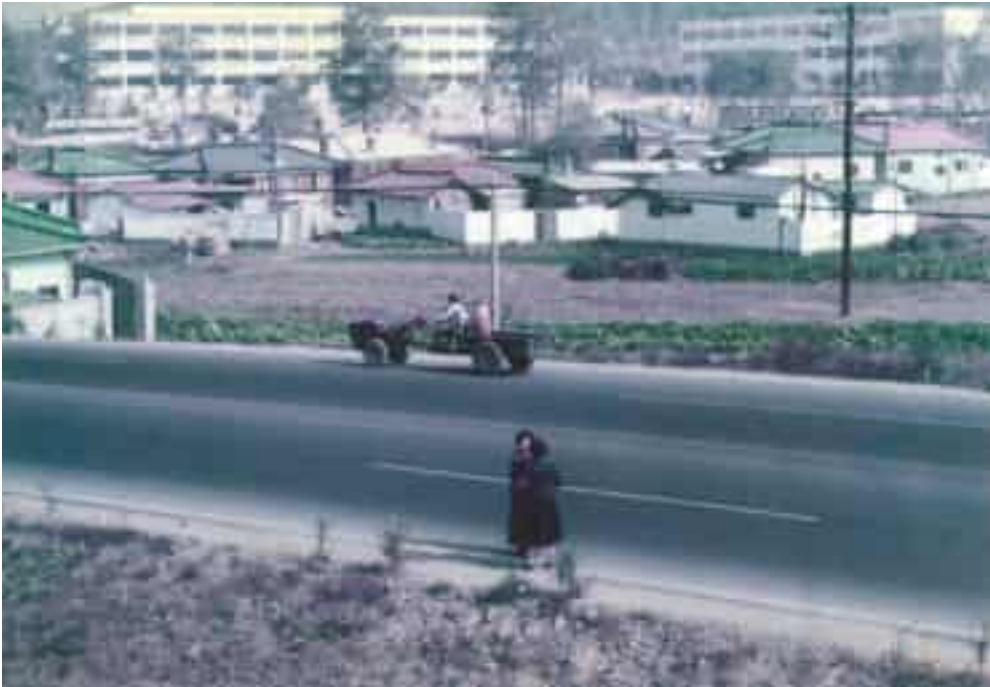
이처럼 인덕원에 본격적으로 터를 잡고 생활을 이어간 주민들이 신흥촌에 정착한 시점은 1980년대 초반으로 볼 수 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30여 호에 불과하던 인덕원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180~200호의 가구가 모여 사는 큰 마을로 성장하였으며, 그 성장세는 계속 이어졌다. 그럼에도 1980년대 초반까지는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유흥가는 들어서지 않았다.

본격적인 유흥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학의천 건너 별말 근방에 공장이 조성되면서부터였다. 교통의 중심지였던 인덕원에는 이미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 개설된 서울-과천-군포-남양을 잇는 도로(현 흥안대로)가 통과하고 있었다. 이 도로 인근의 별말은 산이 없는 평지였는데, 이곳에 1969년 동일방직, 1972년 오투기식품 등 공장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취업을 위해 안양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인덕원은 관양동과 평촌동 일대 공장의 배후지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의 산업 팽창으로 공장들이 안양으로 이전하면서, 흥안로와 경수산업도로의 연결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1976년, 기존 2차로였던 도로가 왕복 4차로로 확장되면서 395번 지방도(호계사거리-인덕원사거리-관문삼거리-사당/양재)로 개통되었다. 이어 1981년에는 47번 국도로 승격되면서 도로가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울의 공장 용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수도권 외곽 지역인 안양과 부천으로 공장들이 속속 이전하였다. 인덕원 인근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을 받으며, 공업단지의 배후지이자 동시에 베드타운으로서 기능을 본격적으로 갖추기 시작하였다.²

많은 사람이 인덕원 지역의 급속한 팽창 시점을 1984년으로 기억한다. 이미 주변 개발과 인구 유입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이 시기에 흥안대로가 확장되면서 땅값이 급등하고 외지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인덕원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



1970년대 후반 인덕원 흥안대로(박영인 제공)

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인덕원이 농촌적 면모를 벗고, 수도권 남부의 핵심 주거·상업지로 전환되는 가시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면담자 : 84년도부터 커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 동네가.

변인호 : 84년도에 도로가 지금 도로로 확장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상승하게 된 거야. 땅값이 몇 푼 안 가던, 예를 들어서 1만 원 정도밖에 안 한 땅값이 10만 원, 20만 원으로 오른 거야.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매입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최고 큰 건물이 2층·3층이었던 게, 5층으로 변하고 이랬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로도 확장하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이 이사를 가야 되잖아. 도로에 있던 사람이 그 옆 부분으로 대출을 받아서 쪽 가게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상가 밀집 지역으로 변화가가 된 거고. 여기는 사실로다가 변화가가 되고 뭐고 간에 조그맣던 거야. (중략) 이제 80년대 중반 막 되면서 조금씩 유흥문화라는 거, 술 문화라는 거, 그리고 이제 외지 사람들이 와서 집 짓고 살고 이러면서 조금 조금 조금 발전이 된 거야.

흥안로가 확장된 1984년부터 인덕원의 중심지는 사거리의 서쪽(현 관악대로 부근)이



1970년대 한적한 인덕원(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라기보다는 사거리의 남쪽인 흥안대로 주변 지역으로 이동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변인호 : 그때만 해도 조그마한 동네였잖아. 조그만 동네에 유흥업소라고 스탠드바 한두 개밖에 없었고, 전부 다 그때만 해도, 지금은 호프집이,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그때는 크라운 비어·오비 비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다고. 그런 거 몇 개 있었고, 조그마한 하꼬방식으로다가 카페 같은 거 이런 것만 있었지.

이처럼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인덕원 지역이 계속해서 성장했지만, 유흥가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는 않았다. 본격적인 유흥지역으로서의 급팽창은 정부청사가 인근 과천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된다.

2) 정부과천청사 배후지와 유흥 상권의 성장

1970년대 국가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서울의 정부종합청사만으로 행정 규모와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 단순히 행정 공간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의 서울



과천신도시 건설 관련 기사(『경향신문』, 1979년 10월 9일)

집중을 방지하고 수도권으로 인구 분산을 위해 1978년 제2종합청사를 과천에 건립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정부 제2청사의 공사는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1979년 4월 1단계 공사를 시작하여 1982년 12월 준공하였으며, 2단계는 1983년 착공하여 1985년 12월에 준공하였고, 3단계는 1990년 12월에 착공하여 1993년 12월에 준공하였다. 정부과천청사 계획과 함께 배후주거지로서 과천시에 신시가지 조성하는 계획도 함께 설계되었다. 1981년부터 1984년까지

1단지에서 12단지까지 12개 단지로 구성된 과천주공아파트에 사람들이 입주하였다.

변인호 : 외지 사람들이 과천에다 러를 잡아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과천에 주공아파트 하나밖에 없었어. 지금 이제 LH지.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그냥 조그마한 아파트. 그 당시에는 큰 거야. 지금은 이제 조그마한 거지 뭐 15평, 17평, 21평 이랬으니까. 지금은 조그마한 거지만 그 당시에는 아파트 들어가는 사람들이 부러웠던 시절이라고. 조그맣든 크든.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종합청사라는 게 생긴 거야.

이로써 과천시에도 상당히 많은 인구가 거주하게 되었다. 정부청사가 위치한 과천시에는 접객원을 고용해 주류를 판매하는 유흥업소 개업 허가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유흥업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과천 거주자 혹은 사업상 접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인근 지역의 유흥업소를 찾게 되었다. 이때 인덕원 상업 지역이 이들의 가시거리에 있었다.

인덕원 상업 지역의 식당이나 유흥업소를 찾는 사람 중에는 과천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민원인들이 많았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당시는 이런 관행이 익숙한 시절이었다. 공무원의 회식 장소로도 과천에는 마땅한 곳이 없었다. 이런 수요가 있어서 인덕원사거리 흥안대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준의 음식점과 유흥업

소들이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한다.

변인호 : 과천이라는 데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동네야. (중략) 그 사람들이 좋은 데로 가려면 사당동으로 가야 돼. 사당동이나 강남이나. 내려오다 보면 군부대 앞에, 양재동 쪽 하고 검문소가 있어. 그러니까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쪽은 크게 된 게 없어. 그때부터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흥싸움을 시작하게 되고 이게 유흥을 많이. 여기 와서 먹으면 과천 넘어갈 때까지는 검문소가 없잖아.

1987년 기사에 따르면, 당시 안양의 교통경찰은 총 17명에 불과하였으며, 철야 근무 등 직업 특성상 실제 근무 인원은 10명 이내였고, 오토바이 4대와 순찰차 2대가 기동력의 전부였다고 한다. 경기도 지역에 행사가 있는 날에는 교통경찰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날도 있었다고 한다.³ 이처럼 행정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한 지역이었기에, 기존 유흥 지역인 사당이나 강남 지역 대신 인덕원사거리가 공무원의 접대 장소로 활용되면서 유흥가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 인덕원 주민들의 인식이다.



인덕원역(2009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인덕원사거리 상가분양 광고(『조선일보』, 1993년 11월 12일)

3) 인덕원역세권의 형성

인덕원이 1980년대 중반부터 유흥가로 급성장하게 된 데는, 경기 남부권에서 서울로 접근하기에 유리한 입지 조건도 한몫하였다. 특히 안양 인근에서 서울 강남으로 가려면 인덕원을 거쳐야 했으며, 분당과 비교해도 서울 서남권 접근성이 더 좋았다.

안양, 과천, 의왕, 성남 등지의 사람들이 오고 갈 때 인덕원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유동 인구가 많았다. 1993년 지하철 인덕원역이 설치되고, 1994년 과천선 전 구간이 개통하면서, 서울 지하철 4호선에 연결된 인덕원역의 교통 편의성은 더욱 증진되었다. 지하철 개통으로 유동 인구는 더욱 증가하였다. 그러나 인덕원역세권은 지하철이 개통되기 이전인 1992년에 이미 그 상권이 거의 완성되어 있었다.

면담자 : 이 도로는 언제 이렇게 더 넓어진 거예요? 원래 사장님이 장사하시던 데에서 이사하게 된 계기가 확장일 거 아니예요?

변인호 : 93년, 94년, 그때 이 도로가 다 확장이 돼서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야. (중략) 옛날 건물들 몇 개 도로 쪽으로다가 3층·5층짜리 건물들이 쪽 있었지. 지금도 아직까지 있는 건물이 많아. 5층짜리는 그때부터 있었던 거야. 5층·2층·3층은 다 그때부터 있었던 거고, 나머지 높이 올라간 거는 서울 사람들이 사가지고 올린 거라고. 실질적으로 다 92년도에 들어선 거라고. 92년도에 올라간 거고, 그 옆에 있는 것도 94년도에 올라간 거고, 일번지나이트클럽이 92년에 준공한 거야.

인덕원역세권의 형태와 상권의 성격은 지하철 이용객보다는 인근 공장 근로자나 정부 과천청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정부과천청사의 배후지로 성장한 인덕원역 역세권의 특성상, 방문객들에게는 지하철보다 자동차가 더 편리한 이동 수단이었다.



4호선 전철 개통 이후 인덕원사거리 일대에 유흥업소가 늘었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조선일보』, 1999년 10월 1일)

면담자 : 지하철 뚫린 거랑, 인덕원이 커지는 거랑 그렇게까지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변인호 : 아니. 지하철이 생기면서 커지기는 커졌지. 당연히.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정상적인 도
 움이 될 수 있는 게 5년이라고. 5년이라는 시간은 그 사람들이 여기서도 생소하니까, 여기서 내리는 사람
 들은 요 근처 사는 사람들 아니야. 내리게 되면 이사 온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평촌은, 평촌 사람들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유흥 인구만 조금 늘은 거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거야.

인덕원역이 생기면서 역세권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인덕원사거리와 흥안대로
 주변을 중심으로 기존 소비자층이 상권을 형성해 두었고, 상권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던
 시점에 지하철 역사가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는 것이다.

인덕원에서 1993~1994년이 중요한 시기가 된 것은 지하철역 개통 때문만이 아니었
 다. 흥안대로가 12차선으로 확장되면서 토지 수용이 이루어졌고, 원주민들이 확장된 도
 로 주변에 새 상가를 건립하였다. 여기에 인덕원 일대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자 서울을
 비롯한 외지인들이 인덕원에 투자하고 장사를 하러 오게 되었다.



1992년에 개업한 인덕원 백운중년나이트(2008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면담자 : 맨 처음 가게를 하셨을 때 정확한 위치는 어디쯤.

변인호 : 지금은 이제 다 길에 들어갔지. 계속 확장돼서, 저거 했으니까 길에 들어가고.

면담자 : 이 건물 이전 건물은.

변인호 : 이전 건물이 2층이었어. 내가 2층에서도 했었고, 요 앞에 보면 지금 센트럴호텔, 그 옆에서도 했었고, 지금 비석 있는 데 있어. 제주돈사돈이라고. 거기 못 미쳐. 여기 횡단보도 바로 지나서 거기에서도 했었고.

면담자 : 가게를, 굉장히 업체를 이사도 많이 다니시고.

변인호 : 왜 이사를 많이 다니냐면 가게에 누가 권리금 많이 준다 그러면 팔아야지.

인덕원역세권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인덕원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웃돈을 주고 기존 상가를 매입하였으며, 기존 상인들은 권리금을 받고 조금 더 외곽으로 이동해 종전의 업종을 이어 갔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덕원 상권이 확대되면서, 상권 이용자의 범위도 처음의 인근 공장과 정부과천청사 종사자에서 평촌신도시를 비롯해 인덕원 주변으로 이주한 사람들까지 확장되었다.

변인호 : 92년도에 백운나이트클럽이 먼저 생긴 거야. 지금 국민관 8층에. 너무 잘돼서 대한민국에서 1등, 2등 갔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국민관이 생긴 거야. 한참 뒤지. 국민관이 생기면서, 국민관은 크니까, 400평이니까. 국민관이 생기고, 한국관이라는 게 옆에다 생긴 거야. 그러니까 세 개가 조그마한 동네에 3개가 있는 거야.

면담자 : 90년 좀 지나서 나이트클럽이 이렇게 성행할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여기 지역 사람이 좀 수도 늘고, 그런 영향이 있겠네요.

변인호 : 그런 것도 있지. 뭐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사람들이 약속을 하게 되면서 서울로 올라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야! 니네가 이제 이번에 인덕원으로 내려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거기 가니까 좋더라’ 그러면 한번 온 사람이 두 번 오게 되고, 두 번 온 사람이 세 번 오게 되는 게 영향은 있지.

3. 유흥의 공간에서 다양성의 공간으로

1) 새로운 인구 유입과 소비 구조 변화

유흥상권이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던 인덕원 상권은 과천시 개통 이후 인덕원역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변화를 맞이하였다. 인근 의왕시 내손동과 청계동이 개발되면서 인덕원역은 일 평균 이용객이 3만 명을 돌파하였고, 의왕 포일동과 동편마을의 입주가 이루어진 2011년 이후에는 하루 4만~5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혼잡도가 높은 역이 되었다.⁴ 인덕원역이라는 대중교통은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윤경숙 : 수촌에 사무실을 했는데 생각보다 직원들 교통이 안 좋더라고요. 여기(수촌)는 이제 지하철이 없으니까. 그래서 회사가 조금 안정적으로 되면서 이제 역세권으로 가자. 근데 제가 이제 범계라든가, 이런 신도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인덕원은 아무튼 약간 옛 동네도 살아있고. 사실 잘 몰랐긴 했어요. 그래도 그냥 저한테는 그래서 인덕원으로 사무실을 알아보게 되면서 지금 자리가 나가서, 좀 되게 좋은 위치여서 거기로 이제 얻게 되면서 그냥 계속 연장, 연장해서 얻게 된 것 같아요. 교통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인덕원역은 단순히 교통의 허브로 기능하며 유동 인구의 이동만이 이루어지는 역이 아니게 되었다. 따라서 인덕원에는 관양동을 비롯하여, 의왕시 포일동·내손동 등의

주거지역에 늘어난 인구를 위한 공간들이 최근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박래훈 : 저의 생각은, 내가 커피나 뭘 먹으러 갈 때 집 앞보다는 집에서 조금 한 20~30분 걸어서 좀 산책하듯이 갔을 때 거리가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집 앞의 거리는 너무 쉽게 소비해 버리고 말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도 그렇고, 주변에 아파트도 그렇고, 충분히 그냥 여기 왔다가 댄 데로 갈 수 있는 교통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면담자 : 제가 저번에 그냥 의도치 않게 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사랑방 같이 주변 분들이.

박래훈 : 맞아요. 저는 데일리 커피를 지향했던 거야. 저는 이제 카페에 왔을 때, “그냥 나 여기 카페 가봤어.” “여기 이런 메뉴가 있대.” 이렇게 한번 소모하고 말기보다는 자주 오는 데일리를, 그래서 최 대한 가격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해서 데일리 손님이 좀 많은데.

유동 인구로서 인덕원을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여겨졌던 사람들도 조금씩 인덕원의 상권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출퇴근을 위해 역을 오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인덕원 상권을 크게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박래훈 :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생각보다 놀랄 만큼 많았는데, 그분들의 소비를 봤을 때 뭔가 좀 엷은 보지 않아요. 타임 어택하듯이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비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샌드위치 하시는 분도 있고, 김밥집도 있었고, 그랬는데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하신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약간 분주한, 지나가는 길로 많이 생각하시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을 위해 인덕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격도 과거와 달라졌다. 공장의 배후지로 기능하던 시기의 인덕원을 지나던 유동 인구는 블루칼라 노동자가 중심이었다. 반면 현재 공장이 있던 학의천 건너편에는 평촌스마트밸리와 대릉테크노타운이 들어서면서 전통적 블루칼라 노동자보다 화이트칼라 노동자가 주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인덕원 인근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연령대와 성별 구성도 변화하였다.

인덕원에서 근무하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유동 인구는 출퇴근 시 인덕원의 상권을 이용하지는 않는 편이다. 그러나 점심시간이나 업무와 관련된 회식 자리에서는 조금씩 인덕원의 상업 지역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인덕원파출소(2003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인덕원파출소 건물을 개조한 카페





면담자 : 인덕원 전체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교체됐다, 이런 느낌일까요?

박래훈 : 저는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교체가, 막 여기가 갑자기 20~30대가 노는 곳이야. 이렇게 변한 건 아니고, 40~50대였으면 한 30~40대 정도로밖에 없다 정도인 것 같아요. 뭔가 경계가 조금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면담자 :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이 지역이 좀 누릴만한 혹은 조금 괜찮은 동네다라는 인식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박래훈 : 조금은 생겼다고 봐요. 제가 여기 왔을 때 한 3년 때까지 “새로 생겼나봐요.”를 들었어요.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여기서 그렇게 막 논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도 없고. 약간 여기 와서 “저기 가봤어. 저기 가봤어.” 이런 느낌이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여기서 좀 늘 만한 지역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윤경숙 : 점심시간에는 확실히 예전에는 밥집이 없던 이유가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밥집에 대한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점점 저분들도 저쪽에서 먹기 지겹잖아요. 그리고 저기 다 프랜차이즈고 하니까. 근데 여기는 조금 다르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건너오기도 하고. 이제 코로나 때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게, 이제 점심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늦게까지 안 하니까 완전 점심장사는 아니지만 좀 일찍 장사하기 시작하시는 거. 어차피 일찍 끝나니까 낮에 봤을 때는 상권이 더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점심시간 빼고는 사실 거의 사람이 없어요.

2) 코로나19 이후 상권 재편

인덕원은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이 유흥가로 인식한다. 유흥가로 성장할 수 있게 한 주요 요인이었던 정부과천청사가 이전을 결정하고 2012년부터 실질적으로 많은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접대 장소로서 이점이 많이 사라졌지만, 유흥가라는 지역정체성을 곧바로 상실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안양1번가와 소위 ‘밭데리골목’이라고 불리는 안양6동의 유흥지역들이 활기를 잃어가면서 유흥을 소비하는 주요 고객층이 오히려 인덕원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변인호 : 그때가 제일 여기가 떴을 때지. 80년도 후반부터 90년도, 2000년도 들어올 때까지 떴지. 그 당시에 여기가 이제 흥싸롱이 될라 할 때 안양1번가가 망한 거야. 1번가가 망하면서 안양6동 밭데리 골목이 뜬 거야. 거기가 가면서 인덕원이 완전히 뜬 거라고. 그리고 나중에 평촌이 뜨고, 범계가 뜨고,

이랬는데. 범계·평촌은 젊은 애들이 너무 많이 끼니까 결국은 다시 인덕원이 부활하게 된 거라고.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덕원의 유흥업소들이 큰 타격을 입고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유흥업의 특성상 심야영업을 해야 하는데, 팬데믹 상황에서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많은 업소가 문을 닫았고, 비어있는 공간에 유흥업종보다는 기존과는 다르게 특색 있는 카페나 음식점 혹은 공방 등이 인덕원의 내부에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변인호 : 주류 문화는 끝났어. 코로나가 80%를 죽였고, 그전에 죽인 건 종합청사가 이사 간 거고. 코로나가 너무 죽여 놓고, 지금은 이자카야라는 게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박래훈 : 코로나가 힘들긴 했지만, 인덕원에 대한 이점이, 보시다시피 앞에 바도 많이 없어지고, 나이트도 많이 없어지고. 그런 이점이 저한테는 있었고, 저는 이점이라 생각해요.

새롭게 인덕원에 정착한 사람들이 이곳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인덕원역세권은 흥안대로를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대로변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대로변에서 한 블록 안으로 들어서면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라는 이미지와는 다른 인덕원이 펼쳐진다. 도로 정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인덕원역세권 내부는 쓰레기 수거 차량의 출입도 원활하지 않다. 쓰레기 배출 문제로 갈등이 잦으며, 인덕원 안쪽 상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과 주민들은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는다. 계속 정비된 대로변과 달리, 구시가지의 작은 골목들은 주차조차 쉽지 않을 만큼 미로처럼 얽혀 있다.

윤경숙 : 사실은 인덕원이라는 곳이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통팔달 다 연결되는 어떤 중심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너무 자동차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실제 로컬에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립돼 있다라는 아이러니가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항상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우린 섬에 갇혀 있는 거야. 흥안대로 건너려면 횡단보도 딱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막 저쪽에 있으면 진짜 엄청 뽕뽕이 돌아요.

박래훈 : 저는 사실 서울에서 하고 싶었어요. 음료만을 소비할 수 있지만, 조금 감정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도시 안에서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었고, 제가 서울에서 하고 싶었던 건, 골목마다 소규모



전시·세미나·소모임·워크숍 등의 장소로 대관하고, 평소에는 공유 서재로 이용할 수 있는 인덕원역세권 골목의 문화공간 '도시공상가'(도시공상가 제공)

의 동네 이런 게 있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인덕원은 잘 몰랐거든요. 사실 저도 그냥 아저씨들의 동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왔을 때 저기 그런 분위기를 빼고는 뭔가 서울과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충분하. 아파트도 조금 멀리 있고, 젊은 친구들이 좀 살 수 있을 법한 동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좀 문화를 형성하고 사람을 만나고, 자기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아파트에서 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서울에서도 조금 그렇게 형성된 곳은 제가 느끼기에는 아파트촌이라기보다는 아파트에서 조금은 벗어났는데 이제 좀 걸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을 법한 동네.

그러나 이러한 인덕원의 공간적 맥락의 다양성은 획일화된 거주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매력으로 다가온다. 새롭게 인덕원에 정착한 사람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유흥가로서 인덕원을 부정하지 않는다.

윤경숙 :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유흥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는 굉장히 조용한 주택가이기도 하고. 획일화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재개발이나 특히나 안양이 다 아파트 단지화됐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주거와 또 상인들이 섞여서 사는, 도시 스케일도 그렇고, 밀도도 그렇고, 또 70년대 지어진 건물부터 현재 지어진 건물까지의 다양성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도시다. (중략) 저는 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이 공존하는 게 더 다양성에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인덕원은 유흥이 된 거고, 제가 이용을 안 할 뿐이지 남들은 이용을 못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거는 그대로 있고.

인덕원은 뛰어난 교통 요충지이자 이주민의 거주지로, 공장의 배후지이자 정부종합청사의 배후지라는 새로운 특성을 더해 가며 성장해 왔다. 현재는 이러한 특성들이 '다양성'이라는 새로운 매력으로 부상하면서, 인덕원은 다양성의 공간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제보자

김부창 : 80대, 남, 인덕원 토박이.
박래훈 : 30대, 남, 인덕원에서 카페 운영.
변인호 : 60대, 남, 인덕원상가번영회장.
윤경숙 : 40대, 여, 인덕원에서 건축사사무소 운영.

註

- 1 안양시지편찬위원회, 『安養市誌』, 安養市誌編纂委員會, 1992, 722쪽.
- 2 「工場(공장)땅값 宅地(택지) 웃돈다」, 『매일경제』, 1987년 3월 10일.
- 3 권문한, 「輪禍(윤화)빈발 安養(안양) "길 건너기 겁난다"」, 『조선일보』, 1987년 3월 14일.
- 4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 수송통계 자료(<https://info.korail.com/info/selectBbsNttList.do?bbsNo=425&key=867>).

04

주민들이 채워가는 관양동의 삶터

제1장 관양동의 주거 명당, 관양현대아파트
제2장 인덕원동의 '올래마을' 만들기
제3장 인덕원동 '새마을'의 시작과 의미
제4장 안양의 명소, 관양동 동편마을 카페거리



제1장

관양동의 주거 명당, 관양현대아파트

이승연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위원



관악산을 등 뒤에 두고 학의천을 바라보는 관양현대아파트는 40년 동안 주민들의 일상과 희로애락을 품어 온 삶의 터전이었다. 아파트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해 왔지만, 그 안에서 쌓여 온 공동체의 정과 기억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재건축을 앞둔 현재의 모습을 통해 공동주택이 지역사회와 주민 생활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녀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는 오랫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 아파트’로 불려온 관양현대아파트가 있다. 대장 아파트로 자리매김하려면 주민들에게 널리 인지되고, 가구 수가 많으며, 지역의 명사들이 거주하는 등 여러 조건이 뒤따른다. 관양현대아파트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며 관양동 주거 문화를 상징해 왔다.

관양현대아파트는 동안구 관평로 333에 자리하며 1985년 4월 준공되어 만 40년을 맞이했다. 지역 주민은 물론 택시 기사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아파트이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904세대 규모의 대단지에 14층 고층 아파트로 지어져, 주택·빌라·저층 아파트가 대부분이던 관양동에서 단연 돋보였다. 단지 앞에는 전통시장인 관양시장이, 뒤편에는 관악산 등산로 입구가 있어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등산객들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아파트의 인지도를 더욱 높였다. 또한 사당·분당·부천 등 여러 방면으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 교통 접근성도 뛰어났다.

1990년대 초반 평촌신도시가 건설되고, 이름이 길고 복잡한 신축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관양현대아파트는 한동안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듯하였다. 그러나 2022년 2월 시공사 선정으로 재건축이 본격화되자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재건축이 시작되면 주민들의 이주가 진행되고, 동네가 지닌 정서와 풍경 또한 크게 변하게 된다. 단지의 물리적 모습뿐 아니라 40년 넘게 이어져 온 관양동의 경관과 이미지, 주민

구성까지 송두리째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앞두고, 오랜 세월 이곳을 지켜온 고즈넉한 분위기와 터줏대감 같은 존재감을 아쉬워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

관양현대아파트의 건립 과정과 변천, 지역사회에서 차지한 의미와 역할, 주민들의 생활문화,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입주민과의 인터뷰, 주민들이 보관해 온 사진과 자료, 재건축조합이 보유한 자료, 언론 보도를 수집·분석하였다.

〈표 1〉 관양현대아파트 제보자들의 주요 활동

번호	이름	출생연도 / 성별	거주 및 활동 내역
1	경로당 회원들	80~90대 / 여	관양현대아파트 경로당에서 활동하는 여성 노인 4명
2	김재봉	1956년생 / 여	사업상 안양으로 이주하여 관양현대아파트 30년째 거주. 현 관양현대아파트 동대표
3	김정엽	1967년생 / 남	서울에서 이주하여 20년째 관양현대아파트 거주. 동대표·조합 대의원 역임.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장
4	남상호	1963년생 / 남	관양시장에서 26년간 두부가게 운영. 관양현대아파트 거주
5	신의철	1960년생 / 남	과천 직장과의 통근 편리성을 이유로 이주하여 12년째 거주. 관양현대아파트 관리이사
6	정광자	1954년생 / 여	1985년 관양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만 40년째 거주. 6년간 관양1동 9통장 역임

1. 관양현대아파트의 탄생과 성장

1984년 신문 기사에 따르면, 관양현대아파트는 분양 당시 평균 9.8: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당시 관양동뿐 아니라 안양시 전역에서 이례적인 수치로, 분양 시장의 높은 열기를 보여준다. 1980년대 중반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수도권 개발이 가속화되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자 열풍이 일던 시기였다.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과 함께 각지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고, 평범한 서민과 중산층에게 아파트는 단독주택보다 더 현대적이고 전망의 주거 형태로 인식되었다.

관양현대아파트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공급되었으며, 청약경쟁률 9.8:1이라는 수치는 당시 관양동 주민들뿐 아니라 외부 수요자들에게도 관양동이 새로운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관양현대아파트 분양 광고(『동아일보』, 1984년 7월 6일)

한국도시개발이 안양시 관양동에 지난 9일 분양한 현대아파트는 4백 64가구 분양에 4천 5백 73명이 청약, 평균 9.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평형별 경쟁률을 보면 32평 B형 2군이 1백 47가구 분양에 2천 2백 28명이 신청, 21.4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32평 A형 2군도 52가구에 8백 58명이 청약, 1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32평 A형 1군은 14.4대 1, 44평 2군은 2.3대 1, 56평 2군은 1.7대 1이었다.(『경향신문』, 1984년 5월 19일)

관양현대아파트 입주민 가운데는 안양에서 오래 거주하던 주민도 있었지만, 서울·과천·수도권 각지와 지방에서 이주해 온 가구도 많았다. 특히 서울과 과천에 직장을 둔 중산층 근로자들이 주요 수요층을 이루었다.

오늘날 안양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도시로 자리 잡았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는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지역이었다. 관양현대아파트 입



관양현대아파트 분양 광고에 표시한 아파트의 입지(『동아일보』, 1984년 7월 6일)

주자들은 주변에 밭과 과수원이 남아 있는 전원적 풍경 속에서 생활을 시작하였다. 입주 초기에는 상점·학교·교통시설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1985년 9월 현대맨션 1차 60세대 입주를 시작으로 인근에 빌라와 단독주택이 점차 들어서며 주거지 규모가 확대되었다. 인구 증가에 따라 관양시장이 형성되고, 상가·편의점·학원 등 생활 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섰다.

당시 관양동은 나홀로 아파트와 소규모 단지가 많았던 시절이었으나, 관양현대아파트는 904세대 규모의 대단지, 14층 고층 아파트, 그리고 유명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시공한 단지라는 점에서 지역 내 상징적 존재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특징은 관양현대아파트가 관양동의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 단지’로 인식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표 2〉 관양현대아파트 건축 현황¹⁾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396-1		
준공일자	1동, 3동, 5동, 7동, 9동, 10동		1985.4.1
	2동, 4동, 6동, 8동, 11동, 12동		1985.5.4
사업 주체	현대산업개발(주)		
동수	12개 동	관리 평수	36,104평
	총세대수	904세대	33평형
44평형			280세대(계단식)
52평형			168세대(계단식)

관양현대아파트는 입주 초기부터 지금까지 30~40년 거주하는 장기 거주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정착률은 단지가 제공하는 안정적 주거 환경과 생활 편의성, 그리고 거주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만족 요인으로 정남향 배치,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입지, 안양 지역의 명사·고위 인사 거주 등을 공통으로 언급한다. 특히 아파트 뒤편으로 경치가 수려한 관악산이 자리하고 있어, 예로부터 명당이라고 불려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1980년대 후반 관양현대아파트와 그 뒤편 임야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동아일보』는 안양시 관양동 산 127-2 임야를 “그린벨트로 묶인 정남향 야산으로 소나무 숲이 울창하고 약수터가 있는 곳”이라 소개하였다. 이 임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가 소유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소문이 돌았다. 신문은 또 “이 임야 앞에 자



1988년 관양동과 비산3동 일대(안양시청 제공)
왼쪽 위편의 아파트가 관양현대아파트이다.

리한 관양현대아파트는 당시 안양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퇴임한 고위 관리들이 노후의 안식처로 구입한 곳”이라고 전했다.² 『한겨레』는 이 일대를 “과천 개발로 값이 치솟은 특수지역”이라 보도하며, 관양현대아파트가 당시 안양에서 상징적인 주거지였음을 강조하였다.³ 이러한 언론 보도는 관양현대아파트가 단순한 주거 단지를 넘어, 풍수지리 명당으로 불린 입지, 지역의 명사들이 거주하는 고급 아파트, 안양을 대표하는 주거 상징이라는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광자는 1985년 입주 이후 40년째 관양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입주 초기부터 6년간 관양1동 9통장을 역임하여 통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그의 남편 또한 옴부즈맨 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에 적극적이었다. 이처럼 장기 거주한 주민들은 관양현대아파트의 형성과 변화를 누구보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아파트가 관양동의 대표 주거지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관양현대아파트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직접 현장을 답사해 입지를 선정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다. 당시 현대건설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비롯하여 흙과 비숫

한 색으로 외벽을 칠하였다. 황토색 외관의 고층 아파트는 관양동 일대에서 단연 눈에 띄었다.

입주 초기부터 이곳에는 정치인·군 장성·체육계 인사 등 사회 각계의 명망가들이 거주해 지역사회에서 ‘대장 아파트’로 불리며 상징성을 높였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인제 전 경기지사는 1988년 국회의원에 출마할 무렵부터 오랫동안 관양현대아파트에 거주하였다.⁴ 또 농구선수 출신 박찬숙도 이곳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해 화제가 되었다.⁵ 주민들은 관양현대아파트를 ‘명당 터’라 부르며, 특히 남성들이 성공하는 자리라는 인식을 공유하기도 했다.

관악산 아래 명당에 자리 잡은 관양현대아파트(2020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정광자 : 정주영 회장이 살아계실 때 직접 보러 다니셨다고. 여기는 어떤 자리냐면, 좀 우습지만, 남자분들이, 남편분들이 사업을 하면 잘 되는 그런 형상의 자리래요! 그래서 좋긴 좋은가 봐요.

신의철 : 안양에 두 군데의 명당이 있었다고 그래요. 평촌의 향촌현대아파트가 최고의 명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못지않은 명당 터가 저 위쪽에 8동, 바로 그쪽이 명당 터라고 해요.



정광자

관양현대아파트는 전 세대가 33, 44, 52평형의 중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입주 초기부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중장년층이나 은퇴자들이 많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아파트는 일찍부터 ‘안양의 부촌’으로 불리며 언론에도 자주 소개되었다.

1980~1990년대 안양에서는 안양진흥아파트, 뉴타운삼호아파트, 관양현대아파트가 나란히 ‘3대장 아파트’로 불렸다. 주민들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택시에 승차해 목적지를 말하면 기사들이 “안양에서 제일 좋은 곳에 사시네요.,” “거기 유명한 곳 아니냐!”며 먼저 알아보곤 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인지도와 상징성은 신도시 개발과 신축 아파트 단지의 등장 이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과거부터 이어져 온 명성과 주민들의 자부심은 초기 입주민들이 장기간 이곳에 거주하며 공동체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2. 자연과 함께한 공동체 생활

도시의 아파트일수록 고층 빌딩과 아스팔트에 둘러싸여 삭막하다. 주거지는 지하철역·버스 정류장 등의 대중교통과 쇼핑몰·대형 병원·학교 등의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한 곳이 인기가 많다. 그러다 보면 산과 숲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소음과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심신의 안정과 건강 등을 고려해 공원과 가깝거나 아파트 단지 내 조경이 잘된 곳을 희망하고 있다. 관악산 아래 위치한 관양현대아파트는 이런 점에서 매우 이상적인 주거지이다.

주민들은 관양현대아파트가 사계절 자연의 변화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자연 친화적



현대아파트 뒤 관악산 등산로(2010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인 아파트라고 표현한다. 관악산은 안양·과천·서울에 걸쳐 있는 산으로, 도심에 자리해 많은 시민이 찾고 있다. 다양한 등산 코스가 있는데, 그중 관양능선 코스는 관양시장과 현대아파트를 지나 관양고등학교 옆 관악산 입구에서 시작할 수 있다. 관양현대아파트 후문 근처에는 관악산으로 향하는 등산로의 계단이 있어서 평소 많은 등산객과 관광객들이 오간다. 관양현대아파트는 관양동에서 관악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요즘은 아파트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곳이 점점 늘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짧은 거리를 두고 멀리 돌아가야 하고, 이로 인해 아파트 단지 간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기적이라는 비난에도 출입을 금지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 외부인에게 개방했다가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잠상인들이 들어와 물건을 팔거나, 아파트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상황 등이 발생하면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불안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양현대아파트 단지 안팎에서는 등산 배낭을 메고 모자를 쓴 이들이 오가거나,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즐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평일에는 하루 300~400명, 주말에는 400~500명이 단지를 지나간다고 한다. 주민들은 다소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이들의 편의를 기꺼이 배려하고 있다.

신의철 : 관악산 등산로의 입구에 있어가지고, 모든 안양 시민들이 관악산을 갈 때 수촌지구를 통과해서 가는 거라면 저희 아파트를 통과해서 가시게 돼요. 그런 환경적인 위치, 환경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300~400명, 400~500명, 그리고 다 여기 아파트를 통과해요. 저희들은 어떤 장애도,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가실 수 있도록 보장해요.

김재봉 : 주말에는 (아파트를 통과하는 등산객 숫자가) 더해요. 굉장해요!

산에서 점심이나 간식을 먹은 뒤 생기는 포장재나 물병 등 쓰레기를 내려오는 길에 아파트 단지에 무심코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청소를 자주 하며, 주민들 또한 자발적으로 단지 내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이곳에 거주해 온 고령의 주민들은 집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이미 생활화된 습관이라고 한다.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면에서, 관악현대아파트가 안양에서 가장 모범적인 단지라고 말한다. 그들은 ‘민도가 높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솔선수범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꾸고, 쓰레기 정리와 정돈을 생활화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신의철 : 저기 평촌지구에서 관악산을 가려면 저쪽 수촌으로 돌아서 가는 통로, 우리 아파트를 가로질러 가는 통로, 두 군데밖에 없는데요. 기왕 산에 가시는 분들이 운동 삼아 저쪽으로 가시면 좋는데 안 그러거든요. 편한 코스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를 통과하면서, 가실 때는 문제가 없어요. 가실 때 쓰레기 버리시는 분은 없으니까.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분이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불편함을 저희가 내색하거나 그것 때문에 문을 닫거나 그러지 않아요. (중략) 저희가 길거리에 버리지 못하도록 내려오시는 통로 중간 중간에 쓰레기통이 이렇게 위치가 돼 있어요. 물론 관리소에서 그 부담을 지죠. (중략) 저희는 아까 민도가 높다는 이유가 분리수거와 쓰레기 방치가 없어요. 분리수거를 너무 잘해주시고, 중간에 그 많은, 주말에는 한 천 명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등산객들이. 그런데 그 쓰레기 방치가 없도록 이제 경비원이라든지, 주민들이 보이는 대로 처리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민도가 높다는 거예요!

관악산을 바라보며 사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외에도, 맑은 공기와 다양한 새소리, 단지 안에 울창하게 우거진 꽃과 나무들은 이 아파트가 지닌 큰 장점이다.



아파트 5층 높이까지 자란 수목

관양현대아파트 노인정 회원들



40년 된 아파트답게 수목의 종류가 다양하고, 나무들은 아파트 4층 높이에 이를 만큼 크게 자랐다. 봄이면 벚꽃이 풍성하게 만개해, 불을 켜지 않아도 밝게 느껴질 정도이다.

정광자 : 공기 좋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 덕분에 이제 창문 열고, 그러면 새 소리가 이렇게 나는 곳은. 그래서 살기는 좋구요. 가을이면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봄에는 백일홍에다가 아주 벚꽃이, 농담 삼아 우리는 밤에 불 안 켜고. 그리고 우리 4층에서 문을 열고 보면 이렇게 손에 닿을 때, 그렇게 키가 그렇게 크지.

김정엽 : 관악산 자락에 있는 아파트로 환경적으로, 기후적으로 혜택이 많아요. 아늑한 느낌이 있어요.

신의철 : 오래된 아파트지만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조경이 풍부해 자연, 환경친화적인 아파트입니다.

단지 곳곳에는 벤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등산객들이 잠시 앉아 쉬거나 간식을 먹더라도 주민들은 눈치 주지 않고 너그럽게 받아들인다. 주민들 또한 벤치에 앉아 자연을 즐기며 여유를 만끽한다. 특히 은퇴한 어르신들은 6동과 7동 사이의 벤치를 ‘은행나무 다방’, 8동과 9동 사이의 벤치를 ‘벤치 다방’이라 부르며 수시로 모여 담소를 나눈다. 벤치에 나와 있는 노인들을 위해 지나던 주민이 냉장고에서 과일을 가져와 대접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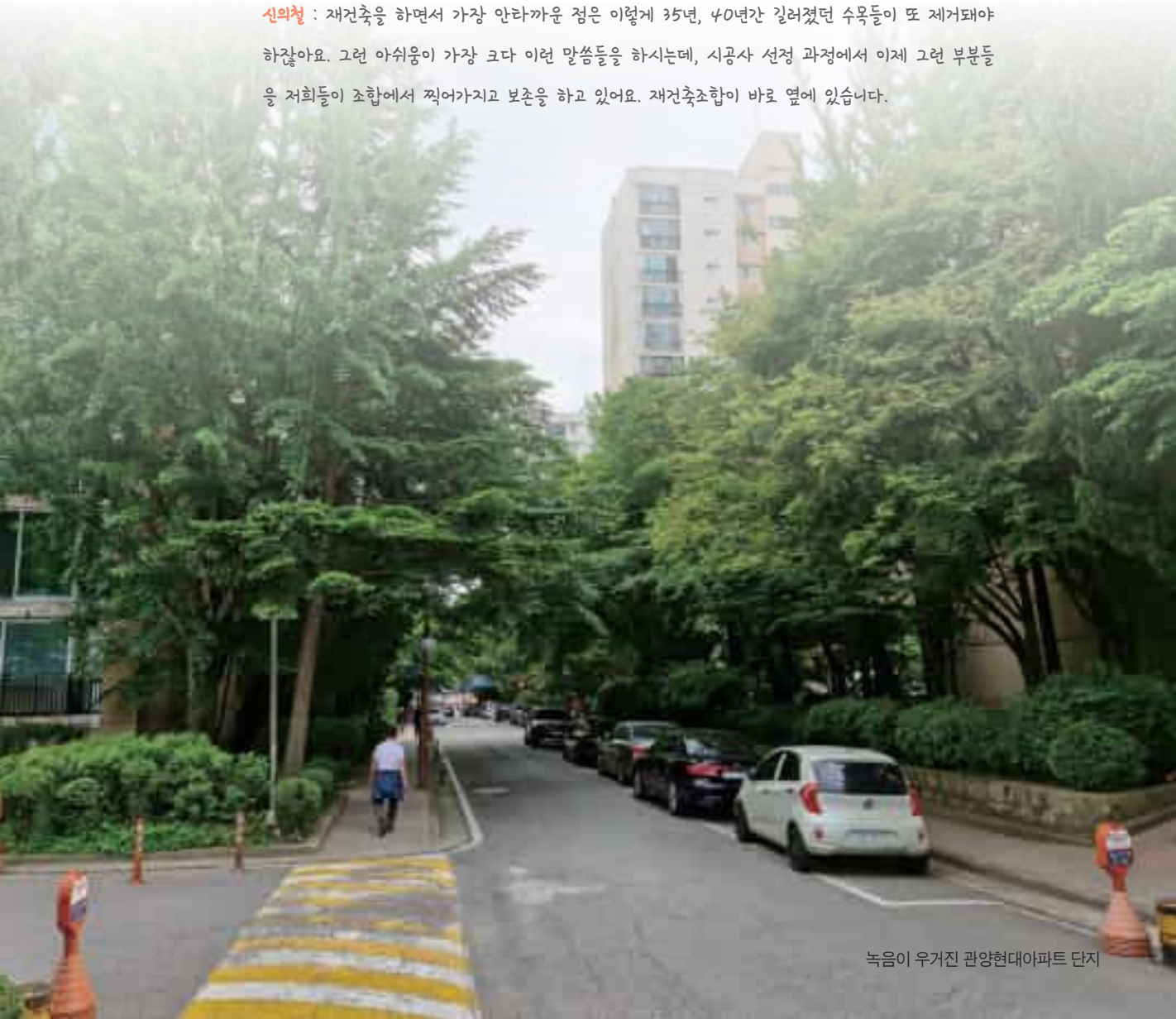
관양현대아파트의 노인정은 개방형으로 운영되어, 아파트 주민은 물론 인근 빌라나 주택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내 이웃들끼리의 교류가 워낙 활발하고 즐거워서인지, 노인정 이용률은 오히려 낮은 편이다.

신의철 : 소그룹 모임은 상당히 많으세요. 우리 6동하고 7동 사이에 ‘은행나무 다방’이라고 큰 은행나무, 벤치에 있고. 또 8동하고 9동 사이에도 ‘벤치 다방’이 있어요. 다른 아파트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 숲속 같은 곳에. 6동은 할머니들이 많이 나오시죠.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이 있으시고. 봄에는 산나물도 뜯으러 가시고, 또 교류하셔서 어디 놀러 가시거나, 문화 행사를 하시는데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관리소나 저희들 동대표들이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생적인 알음알음 모임들이, 일일이 그거를 다 체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세요. (중략) 레니스장 모임도 한 40~50분 가까이 되는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은행나무 다방에 할머니들 모임이 있구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 모임이 활성화되니까, 이분들이 경로당을 안 가세요. 여기(다방)가 더 재밌거든. 그러면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할머니들 많이 보고 계시면 집 안에 있는 냉장고에서 수박이라도 내드려야 되겠다라고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경로 무대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웃 간의 오래된 아파트의 장점인 이웃 간의 교류가 활성화
돼 있다. 이걸 누가 시켜서 되는 일 아니거든요! 자기 주머니를 허는 게 시켜서 됩니까? 또 9동, 8동에
는 이제 남자분들 모이시고. 또 야간에는 이제 저쪽 후문에 벤치가 3개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식사하
고 명망 있는 분들이 모이셔서 뭐 하루 지나간 얘기 소일 얘기하시고, 덕담하시고 하시는 장소들이 있습
니다. 그게 거의 매일 이루어져요.

재건축을 앞두고 주민들이 특히 안타까워하는 것은, 40년 가까이 가꿔 온 울창한 수
목들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에 재건축조합과 주민들은 아파트 곳곳의 경관을 사진으
로 남기며 보존하려 하고 있다.

신의철 : 재건축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35년, 40년간 길러졌던 수목들이 또 제거돼야
하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가장 크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을 저희들이 조합에서 짚어가지고 보존을 하고 있어요. 재건축조합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요즘은 좋은 아파트, 이른바 ‘명품 아파트’의 기준을 단순히 부동산 시세나 규모로만 따지지 않는다. 주민들의 태도와 이웃과의 관계 등 공동체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기적이고 각박한 아파트 문화가 사회적 화제로 떠오르는 요즘, 관양현대아파트 주민들은 단지를 개방하며 스스로 불편을 감수하고,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까지 묵묵히 정리한다. 이는 관양동을 대표하는 오래된 아파트로서 전통과 역사를 지켜가는 모습이기도 하다.

3. 시장과 학교, 일상의 공간들

관양현대아파트 입구에서 관양중학교 담장을 따라 동서로 약 160여m 이어진 곳에 안양관양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 시장은 1980년경 형성되어 관양현대아파트 주민과 대한전선 직원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으며 성장해왔다.

관양시장에는 농산물·청과·수산물·건어물·축산물·반찬·떡·빵·방앗간·음식점·마트·침구·신발·부동산·약국 등 다양한 품목의 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그 수는 2024년 7월 기준 148개에 달한다.⁶ 시장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문을 열고, 신선한 농산물과 반찬, 각종 생필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안양은 물론 과천, 성남 등지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온다.

정광자 : 여기(현대아파트)가 입주해 되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있다 보니까 점점점점 생겼지. 한꺼번에 이렇게 다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참 후에는 관양중학교의 담벼락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어요. 근데 거기를 안양시에서 해서, 지금은 거기에 쪽 가시다 보면, 왼쪽으로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가게들이 유난히 작아요. 이렇게 속으로 길지 않고. 여기는 작지만 골고루 다 내줬어요. 떡볶이집, 김밥집 따로, 한복집, 섞여지지 않게, 야채집, 그렇게 있는데요.

관양동은 세련된 도시라기보다는 아늑하고 전통적인 주택지의 감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관양시장이 있다. 시장 상인들은 오랜 단골들의 짐을 맡아주거나 길가에서 근황을 이야기하며, 주민들과 두터운 정을 쌓아왔다. 주민들끼리도 시장에서 반찬을 사고 과일을 고르며 동네 소식을 공유한다.

관양시장은 매년 9~10월 가을 축제 기간에 품바 공연과 풍물놀이 같은 다채로운 행사를 열어 관양초·중·고 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장기자랑을 하고 응원하며 흥겨



관양현대아파트 입구에 있는 관양시장(2013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운 분위기를 만든다. 이는 마치 수십 년 전 장날을 연상시키는 정겨운 풍경이다. 관양시장은 이렇게 관양동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고 넉넉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 상인들 가운데는 관양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들도 있다. 가게 운영과 통근이 편리하고, 학교가 가까우며 생활 여건이 좋아서 그렇다. 26년째 두부 가게를 운영하는 남상호 역시 그중 한 사람이다. 그는 장사하며 기억에 남는 손님들을 떠올리며, 고마운 손님도 있지만 마음을 상하게 한 손님도 있었다고 회고한다. 특히 관양현대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유세를 부리던 손님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중대형 고층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자신을 일반 서민과 다르다고 생각하게 만든 듯하였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남상호는 그 일을 겪은 지 1년쯤 후 관양현대아파트를 구입해 그 손님과 이웃사촌이 되었다.

남상호 :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손님 중에 “내가 말이야! 현대아파트에 사는데!” (중략) 그러고 나가 지고, 한 1년 있다가 제가 현대(아파트)를 샀어요. .

시장과 주변의 아파트, 빌라, 주택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계층을 나누거나 차별하기보다,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관계이다.





관양초·중·고와 관양시장이 인접해 있어 주거 환경이 우수한 관양현대아파트

요즘 아파트를 설명할 때는 ‘역세권·숲세권·초품아·학세권·병품아’ 등과 같은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그중에서도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는 편리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의 중요한 지표로 여겨진다. 집과 학교가 가까우면 자녀가 도보로 통학할 수 있어 안전하고, 부모들이 통학을 도와주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다. 또한 학교 주변에는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 관련 시설이 들어서고,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의 커뮤니티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관양현대아파트는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있지는 않지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모두 가까운 거리에 있다. 관양초등학교는 아파트 정문에서 268m, 관양중학교는 343m, 관양고등학교는 383m 거리에 있어 도보로 5~10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다.

관양초등학교는 1948년 4월 1일 개교한, 관양현대아파트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진 학교이다. 관양중학교는 1976년에 개교하여 49년의 역사를 지닌 학교이다. 본래는 남자중학교였으나 2008년에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었다. 그 이전에는 관양여자중학교가 있었는데, 이후 교명을 인덕원중학교로 변경하면서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었다. 관양고등학교는 2002년 3월 1일에 개교한 공립 남녀공학이다.

관양현대아파트 주민들 가운데는 자녀를 관양초등학교에 보내며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한 이들이 많다. 이렇게 시작된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은 세월이 흘러 자녀들이 30~40대가 된 지금까지도 이어지며 교류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자녀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혹은 자녀가 원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고 계속 관양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다. 부모들은 베란다에 서서 아이들이 교문까지 걸어가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곤 하였다고 한다.

신의철 : 재래시장 역할을 하는 관양시장이 옆에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부근에 있었으니까, 저희 관양동의 현대아파트는 그런 주변 생활권 자체는 다른 데보다 좀 편리했으니까 여기를 선택했죠. 우스갯소리로 나는 평촌을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평촌을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그때 관양초등학교를 막 입학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빠! 거기 가면 안 되대. 22년 전에. 거기 가면 안 되고, 관양동 현대아파트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관양현대아파트가 위치한 관양동 지역은 서울의 8학군 같은 학군지는 아니지만, 현대아파트 주변에는 학원과 독서실이 밀집해 있어 학습 여건이 좋은 편이다. 또한 소아과, 피부과, 치과 등의 병원과 약국이 가까워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 역시 높다.

4.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의 미래

1980~1990년대에 건축된 아파트가 노후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증가하고 있다. 관양현대아파트 역시 건축 후 40년이 지나 2022년 2월 재건축 시공사가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재건축이 추진되었다.

관양현대아파트는 기반 시설이 비교적 양호하고 여러 장점을 갖추고 있으나, 생활상의 불편함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복도식 구조로 아파트 동 간격이 넓고, 산자락에 위치해 공기가 맑고 여름에는 시원하다. 반면 겨울에는 바람이 거세 추운 편이다. 특히 중앙난방 시스템으로 가정 내 개별 조절이 불가능해, 노약자의 경우 집 안에서도 외투를 입거나 난방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옛날 건축 공법으로 지어져 층간 소음은 심하지 않으나, 시설 노후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일부 세대는 거주 중 부분 공사나 리모델링으로 불편을 해소하였으나,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는 집도 있어 생활환경과 안전 측면에서 점차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정광자 : 난방이 지역난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이걸 조절을 못 해요. 그래서 애 있거나, 노인들, 그래서 약간 불만이 있어요. 추우니까. 근데 오히려 우리는 그게 몸에 배어 버렸잖아요. 약간 선선하게 사는 거, 그것이 건강에 좋은 거. (중략) 우리 집은 살면서 공사를 두 번을 했어요. 우리는 녹물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바꿨으니까. 근데 다른 집은, 오래 그냥 사는 집은 부식이 되겠죠. 아무래도.

구축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주차장만 이용하다 보니 단지 안이 차량으로 뱅뱅하다. 아파트가 건설되던 1980년대까지만 해도 승용차를 보유한 가구가 드물었으나, 현재는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한 집도 많아서 주차 공간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이중주차, 삼중주차가 일상화되면서 주차 스트레스가 심하고, 일부 주민은 아예 외부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기도 한다.

주차 문제는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져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지만, 관양현대아파트는 오랫동안 거주한 주민이 많아 서로 간의 유대감이 깊다. 이 때문에 가능하면 양보하고 이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관리사무소 또한 성실한 업무 처리와 세심한 지원으로 이웃 아파트 주민들에게까지 친절하다는 평판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통근하고 외출하는 주민들에게 주차 문제는 여전히 큰 고충이다. 더욱이 요즘 신축 아파트는 20평형대도 욕실이 2개인 경우가 많지만, 관양현대아



관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바라본 관양현대아파트(이정범 제공)

파트는 가장 작은 32평형조차 욕실이 1개뿐이어서 바쁜 아침마다 불편함이 있다.

신의철 : 우선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중략) 이중주차를 통해서 근근이 해소를 하구요. 그래서 조경 면적도 넓고, 주차장 면적도 꽤 있는데. 요즘은 1가구 2차량 정도의 그 부분이니까, 주차장이 좁아요. 아주 협소한 러, 한 몇 대 정도는 안 되니까, 이 상가 주차장이나 주변에 도로변 주차장들을 이용하고. 근데 00동 현대아파트도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주차 중에 주민들끼리 싸운다는 말이 많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양보하고, 참, 그런 건 잘 돼 있어요! 아파트 구조인데, 사는 방식은 옛날 우리 단독주택 밀집 지역과 같은 그런 유대감이 좀 섞여 있는 거죠.

재건축을 통해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하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되고, 주차를 비롯한 여러 부분에서 생활이 한층 편리해진다. 또한 부동산 가치 측면에서도 상당한 수익이 기대된다. 그러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데만 3~4년이 소요되며, 그동안 주민들은 다른 거주지에서 생활해야 한다. 더불어 재건축 분담금을 마련해야만 다시 입주할 수 있다.

재건축은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길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체로 찬성



관양현대아파트 주차장의 일렬주차선

과 반대로 의견이 갈린다. 주민 다수의 여론에 따라 재건축이 추진되더라도 의견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과정마다 이견이 발생해 난항을 겪기 쉽다. 관양현대아파트 역시 재건축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공존한다.

특히 관양현대아파트 경로당에서 활동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80~90대 여성들로, 낯선 곳으로 옮겨 새로 적응하기보다는 익숙한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한다. 재건축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서류 준비, 분담금 마련, 대출, 이주 등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고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녀들 또한 이미 은퇴하여 60~70대 연령층에 속한다.

노인들은 오랫동안 살아온 아파트와 시장·병원 등의 주변 환경, 그리고 이웃 속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만,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자녀와 함께 살며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자녀 세대도 부모를 모시기 위해 더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차라리 재건축이 지연되어 현재의 집에서 노후를 보내며 여생을 마치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노인들 역시 젊은 세대의 생활 여건, 삶의 질, 재산 가치를 생각하면 재건축의 필요성을 이해하기는 하는 편이다.

경로당 회원1 : 자녀들도 이제 정년퇴직했어요. 자녀들 정년퇴직했으니까, 그거 다 될 때쯤 되면 70이 넘을 텐데, 뭐, 얼마나 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경로당 회원2 : 형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여기서 그냥 죽어서 나갔으면 좋겠어. 이사하는 게 좀 어려운 일이에요? 자식들 힘든데, 노인까지 붙어서, 또 노인을 위해서 또 평수도 넓은 데로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장 김정엽은 처음에는 재건축에 반대하였다고 한다. 10여 년 정도 소요되는 지루한 진행 과정과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것을 생각하면, 당시 누리고 있던 안정된 삶과 생활환경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우거진 나무에 둘러싸인 아늑한 단지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저층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재건축 이후에도 이러한 삶의 조건이 보장된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와 조합원 다수의 여론에 따라 재건축은 결국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그는 이제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1967년생인 그는 중장년층과 노년층 주민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정엽 : 초기에는 어르신들은 반대를 많이 하셔서요. 사실 저도 초기에는 재건축, 리모델링도 반대를 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나무나, 이런 아늑드리 나무도 있고, 저는 저층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도 저층이고 하니까, 그런 제가 원하는 혜택을 다 받고 있는데. 재건축이 되면 10년 이상 소요되는 거, 또 그때는 제가 몇 층에 살지도 모르는 거고. 편리성은 있지만 저는 집은 꼭 굳이 편리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집 식구들도 다 그러고, 안온해야 한다, 평안해야 한다, 그리고 재테크로서의 가치, 이런 거는 꼭 집일 필요는 없다, 이런 주의여서 건축을 반대했었는데. 어르신들은 당연히 많이 반대를 하셨고. 지금은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가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죠. (중략) 제가 조합장 나이로서는 좀 어리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교도부가 되니까, 조사를 수시로 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업무 추진 절차는 ①조합설립인가, ②시공사 선정, ③건축심의, ④사업시행인가, ⑤분양신청 및 감정평가, ⑥관리처분인가, ⑦이주 및 철거, ⑧착공 및 분양의 순서로 진행된다. 관양현대아파트는 현재 2단계인 시공사 선정까지 마친 상태이다.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에는 여러 건설사가 관심을 보였으며, 최종적으로 HDC현대

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시공권을 놓고 경쟁하였다. 그런데 2022년 1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아파트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으로 조합원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일부 주민은 ‘광주 붕괴 사고를 일으킨 회사는 떠나 달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하였다.

그러나 2022년 2월 열린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에 서 투표 결과 HDC현대산업개발이 509표, 롯데건설이 417표를 얻어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었다. 당시 HDC현대산업개발은 부실시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 결합 보증 기간을 30년으로 확대



김정엽 재건축조합장

하고, 매달 공사 진행 현황과 외부 전문가의 안전진단 결과를 조합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내세웠는데, 이러한 제안들이 관양현대아파트 주민들의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설사와 조합원들이 사업 이익을 매개로 ‘동행’하게 된 과정이,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⁷ 조합원들은 시공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재건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김정엽 : 공교롭게 저희가 시공사 입찰 선정을 하는 과정이 과열됐었어요. 아시겠지만 롯데건설하고 현대산업개발 하고. (중략) 현대산업개발이 21년 만에 전라도 광주에 사고가 생겨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현산을 선택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되게 유명한, 웃기는, “좀 비상식적인 주민들이다!”, 이런 것도 있었고 하는 건데. 그때 현산과 7대 약속을 하고, 공약한 내용 중의 하나가 안전을 모니러링할 수 있는 그런. 안전요원 운영을 할 때, 시공사에서 자금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계약서에 들어가 있구요.

5. 주민들의 목소리와 바람

요즘 관양현대아파트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재건축과 관양동 주변 인프라의 변화이다. 관양동 157번지 일원 약 15만㎡ 부지에 복합환승센터, 공동주택, 공공저식산업



재건축을 앞두고 아파트 단지내 걸린 현수막(황도철 제공)

센터,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어우러진 콤팩트시티(기능집약도시)를 조성하는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 주체로서 4,121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으로,⁸ 향후 지역이 어떻게 변화할지, 또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엽 : 첫 번째가 정체성이죠. 아파트의 정체성, 두 번째는 이 주변과의 네트워킹, 뒤에 관악산 자락 밑으로 해서 GH에서 지금 밑에 토목 공사하고 있던데,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섰을 때, 우리 아파트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인덕원이나 저기 종합운동장, 그 주변에 역세권이 새롭게 건설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저희 단지랑 어떻게 역할, 작동을 할 것인지.

재건축 후 기존 904세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 동, 1,305가구 규모로 새롭게 들어설 예정이다. 그렇다면 재건축 이후 돌아와 재정착할 원주민은 얼마나 될까?

서울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시 원주민의 평균 재정착률은 27.7%에 불과하다.⁹ 관양현대아파트 주민들의 70~80%는 재입주를 희망한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 비용이 증가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이 재정착 과정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비용 문제이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돈독하고 정겨운 공동체 분위기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크다.

김정엽 : 경제적인 상황이 지금 워낙 변화무쌍해요. (중략) 공사비 원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분담금이라고, 재건축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얼마나 될 거냐에 따라서 변수가 가장 클 거라고 보고. 정서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를 제외한다면, 거의 70~80% 이상 분들은 그대로 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신의철 :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만나서 이렇게 느껴보면, 재건축을 환영하는 분위기는 틀림없고요. 재건축을 환영하면서 현재와 같은 이웃 관계가 좀 더 돈독하게 유지되는 아파트, 예전에 가졌던 이 관양동 현대아파트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보다 더 훌륭한 아파트로 재탄생돼서 좋은 이웃과 함께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코시더라구요.

관양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의 거주지에 자긍심을 갖고 '민도가 높다'라고 표현

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세가 높거나 재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등산객들에게 단지를 개방하고, 스스로 쓰레기를 정리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를 오랫동안 지켜왔기 때문이다.

재건축은 상전벽해(桑田碧海)라 할 만큼 아파트뿐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크게 변화시킨다. 그러나 주민들의 바람처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새롭게 거듭나더라도, 이웃 간의 정겹고 돈독한 정서는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바란다. 더불어 관양현대아파트가 지역 공동체의 상징으로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기대한다.



재건축을 준비하는 관양현대아파트

제보자

김재봉 : 1956년생, 여, 관양현대아파트 등대표, 2024년 5월 20일 면담.

김정엽 : 1967년생, 남,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 2024년 6월 21일 면담.

남상호 : 1963년생, 남, 관양현대아파트 거주, 2024년 8월 17일 면담.

신의철 : 1960년생, 남,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 관리이사, 2024년 8월 17일 면담.

정광자 : 1954년생, 여, 관양현대아파트 거주, 2024년 5월 20일 면담.

경로당 회원들 : 80~90대, 여, 관양현대아파트 거주, 2024년 5월 20일 면담.

註

1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공.

2 「주거지 옆 풍치수려한 그린벨트 정남향 야산 … 예부터 “명당 자리”」, 『동아일보』, 1989년 2월 16일.

3 「과천 개발 때 값 치솟은 소문난 ‘특수지역’」, 『한겨레』, 1989년 2월 17일.

4 「후보 엿보기 ㉞ 집」, 『조선일보』, 1997년 12월 12일.

5 「오늘 사업가와 혼례」, 『조선일보』, 1985년 6월 23일.

6 2024년 7월 기준.

7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한 달도 안됐는데 … 현대산업 개발, 안양 관양현대 재건축 따냈다」, 『한겨레』, 2022년 2월 6일.

8 「GH,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서울신문』, 2024년 4월 30일.

9 「원주민 재정착률 높아져 … 용적률 특례 등 적용 추진」, 『한국주택경제』, 2024년 6월 21일.

제2장

인덕원동의 '올래마을' 만들기

최미경 자유기고가



1. 좋은마을 자치대학에서 싹 트 인덕원동의 마을만들기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생활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진행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2000년대 들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도시 지역에서는 주로 오래된 골목과 노후 주택이 많은 마을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안양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마을만들기가 진행되었는데, 그중 한 곳이 인덕원동이다.

안양에서 마을만들기가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인덕원동(당시 관양2동) 지역의 활동은 2008년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 2008년 10월 안양YMCA ‘마을이루기 위원회’는 ‘좋은마을 자치대학’을 제안하며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었다. 자치대학은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함께 공부하고 조사하고 생각하는 과정이었는데, 첫 활동임에도 제법 많은 사람이 참여하였다.

2008년 10월 16일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좋은마을 자치대학 입학식이 열렸다. 입학식에는 마을주민 25명과 안양YMCA 관계자, 국토연구원, 안양대학교, 늘푸른안양21 등 안양 지역 민·관 조직과 관계자들도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이어진 강의에서 지방자치의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배우고 스스로 자치대학 규칙을 만들었다.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강좌에서는,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을 낯선 관찰자의 입장으로 돌아보면서 마을의 특징·문제점·개선 방안 등을 찾아보았다.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 등 다양한 마을의 주체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마을의 다양한 모습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배운 후 적용하였다. 주차 문제가 가장 컸고, 많은 통행 차량과 이로 인한 복잡하고 위험한 골목길, 공터에 쌓여있는 쓰레기, 불결한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등의 문제가 보였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개선할 점들이 깨끗이 청소된 골목길, 예쁘게 꾸며진 집 앞 화단, 아름다운 학의

천, 물고기와 새들을 재발견하는 계기도 되었다.

‘우리 마을 이렇게 바꾸자’라는 강좌에서는 직접 발굴한 문제점들을 분류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였다. 자치대학 수강자들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선할 방법을 논의하였다.

자치대학의 강좌를 통하여 주차 문제, 깨끗한 골목 만들기, 화단 만들기,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만들기 등이 마을의 변화과제로 정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를 행정기관이나 다른 곳에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수료식에는 자치대학의 주인이 마을의 주민이라는 주민자치의 정신을 살려서 참가자들이 서로에게 수료증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명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좋은 가정이 좋은 골목을 만들고
좋은 골목이 좋은 동네를 만든다고 믿는다.
우리는 좋은 동네가 좋은 지역을 만들고
좋은 지역이 좋은 사회를 만든다고 믿는다.

관양2동(인덕원동) 자치대학 참가자 일동

수료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이후 활동을 위하여 동창회를 만들고 자치대학을 통해서 발굴된 마을 개선과제에 대하여 현장조사, 학습, 연구 등의 과제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2009년 1월 20일부터 자치대학 대학원 과정으로서 심화과정을 시작하여 3회차의 심화과정을 진행하였다. 심화과정을 통하여 4가지 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구체적인 과제 내용은 학의천 변의 주민휴식 및 문화환경 조성, 삼성아파트 지역의 옹벽과 방치된 땅을 활용하는 마을환경변화, 인덕원 송유관도로의 환경개선, 어린이 놀이터와 마을 소공원의 변화 등이다.

위의 4가지 마을 과제를 다양한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찾아보았다. 마을에 있는 시설자원·인적자원·문화 생태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무엇보다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서 마을만들기의 핵심은, 상급행정기관에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 스스로 실행하는 힘과 의지임을 확인하였다. 마을환경 꾸미기가 아니라 마을공



관양2동(인덕원동)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 마을 관계자 회의(2009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동체를 이루는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많은 주민이 마을만들기에 참여하여 자원·생각·힘 등을 모으는 일이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2. 인덕원동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주민들은 2009년 1월 국토해양부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사업에 ‘사람들 사이로 흐르는 관양동 마을길’이라는 주제로 응모하였다. 마을 문제의 해결방안을 눈에 보이는 것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으로 나아가, 인덕원초등학교 등굣길, 공단의 출퇴근길, 학의천을 건너드는 다리, 학교 담장 등 동네 주민들이 오가는 마을길을 변화시킴으로써 마을이 새롭게 바뀔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업에 지원하였다. 활동을 시작한 지 네 달밖에 안 된 주민조직이었지만, 주민의 눈으로 확인하고 주민들이 만들어낸 합의된 비전으로 국토해양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최우수 시범 마을로 선정되었다. 상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받았고, 안양시에서도 2억 5,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총 5억 원의 사업지원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국토해양부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 사업은 ‘좋은마을만들기 관양협의회’(이하 관양협의회)를 출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자치대학 동창회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조직체계를 가진 협의회로 전환된 것이다. 관양협의회는 취지문에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마을공동체를 추구하고, 마을의 자산을 보전하고 가꾸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지혜로운 주인이 되고자 하며, 서로 소통하는 관양마을을 이루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자치와 더불어 협동하는 원리를 마을에 실현하기 위하여 마을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며,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 구현을 목표로 하였다.

2009년 관양협의회(회장 이정옥)는 마을장터 행사를 진행하고, 민족건축인협의회(이하 민건축) 건축캠프를 계기로 인덕원 소공원 개선 작업을 실행하였다. 이후에도 다양한 사례 견학과 자체학습을 지속하였다. 2010년 관양협의회(회장 윤재옥)는 환경개선 사업을 수행하면서 팀장의 역할을 강화하여 팀 단위의 책임성을 높이고 인덕원교와 삼성아파트 옹벽의 벽화사업을 진행하였다.

1) 버려진 자투리 공간을 사람들이 모이는 소공원으로

동안새마을금고 인덕원지점 앞에 ‘새마을 놀이터’라고 불리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는데, 놀이터 옆의 자투리 공간이 마을의 흉물로 바뀌고 있었다. 인덕원동 주민들은 이 자투리 공간을 잘 단장해서 주민들의 쉼터와 만남의 장으로 만들고, 놀이터의 울타리도 철거해서 자투리 공간과 놀이터를 연계시키고자 하였다.

이 소공원 프로젝트는 민건축의 2009년 여름 프로젝트로 결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젊은 건축학도들이 여름방학 때 인

인덕원동 새마을공원에 세운 시계탑





인덕원동 새마을공원에 만든 타일 벤치

덕원중학교에 모여 3박 4일의 캠프를 열었다. 안양시와 행정절차를 협의하고 범신조경의 도움으로 낡은 보도블록과 놀이터 울타리를 철거하였다. 자투리 공간에는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발라서 타일 벤치를 만들었다. 안양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타일 조각을 모았고, 동네 주민들과 지나가던 아이들이 함께 타일을 붙였다. 애써 붙인 타일이 건드리면 떨어지고 깨져서 어쩔 수 없이 전문업체가 작업을 다시 하게 되었지만, 이 소공원은 주민들이 겪은 다양한 경험과 과정들이 쌓인, 인덕원동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주민들이 하나하나 배우면서 우여곡절 끝에 소공원을 완성하고, 공원에서 주민을 위한 음악회가 열렸다. 인덕원동 주민들은 그동안 산책 장소가 마땅치 않았는데 이런 공간이 생겼다고 반겼고, 근처 어린이집의 원아들 역시 놀이터에 자주 나들이를 오게 되었다. 현재 '새마을공원'으로 알려진 이 소공원은 지역주민과 아이들의 큰 활력소가 되고 많은 이들의 만남의 장소로 되었다.'

당시 소공원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 주민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화합과 사랑을 느꼈다고 기억하였다.

“이제 우리는 생각과 행동이 바뀌었고 좋은 동네가 좋은 지역, 좋은 사회로 바뀐다는 것을 알았다. (중략) 헌신적인 사랑과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 마을은 변하지 않았으리라. (중략)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공간으로 덕망을 쌓으며 미덕을 베풀고 지혜를 모아 간다면 원하는 모든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다고 나는 굳게 믿는다. 관양2동 파이팅!”

(윤재욱, 「관양2동 좋은마을만들기 1차 사업을 마치며」, 『관양2동 이야기』, 2011년)

2) 인덕원교 교각 아래 환경 개선

인덕원동에서 가장 큰 다리는 학의천 위에 놓여있는 왕복 10차선 도로 규모의 인덕원교이다. 이 다리는 인덕원동이 다른 지역과 소통하는 공간이다.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중요한 다리이지만, 다리 아래는 컴컴했으며 콘크리트 벽은 관리되지 않았다. 인덕원교 아래 사정이 이러한데도 학생들은 다리 아래 길을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었다.

인덕원교 개선 사업은 다리의 안전 문제가 있어서 1년 동안 보류되었다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당시 이 사업을 담당하였던 이재곤 팀장은 자율방범대장 활동을 하면서 인덕원교 환경개선에 사명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안양시의 관련 부서 책임자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인덕원초등학교와도 논의를 진행하였다. 인덕원초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더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² 인덕원초등학교 학생들과 다리 아래에 들어갈 벽화 그림 대회를 열었고, 여기서 얻은 그림들이 인덕원교 벽화의 중요한 구성물이 되었다.

당시 공사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바람에 공사업체를 공개입찰로 선정하게 되었는데, 선정된 공사업체는 기존의 관행대로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다. 주민들이 아는 업체나 관내 업체가 진행하던 이전 사업은 양쪽이 의논을 해가면서 할 수 있었지만, 공개입찰로 공사를 맡은 업체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불편하게 받아들여 의견충돌이 계속 발생하였다. 인덕원교 개선 사업이 마무리되긴 하였지만,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제한되면서 이러한 공사방식이 마을만들기에 적합한 방식인가에 대하여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덕원교 아래는 황량하고 너무 어두운 공간이라서 간혹 소나기를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곳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마치 방금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간 듯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생태 하천의 모습이 한쪽 벽면에 표현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학의천을 둘러로 펼쳐진 역동적이고 세련된 도시 풍경을 색색의 타일로 표현한 벽화들



인덕원교 아래에 타일로 표현한 벽화

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어둡고 으스스했던 분위기가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벽화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을을 떠올릴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좋았다. (중략) 앞으로도 학의천 산책로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꾸준한 개선을 통해 더욱더 많은 사람이 이곳을 밟고 찾아오으로써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다리로서의 진정한 역할을 바로 우리 '인덕원교'가 해주길 기대해 본다.

(김윤자, 『인덕원교 뒷이야기』, 『관양2동 이야기』, 2011년)

3) 아파트 용벽에 벽화 만들기

인덕원동은 언덕이 거의 없는 평평한 마을이다. 인덕원동에서 유일한 언덕길은 인덕원 마을삼성아파트 보행자 출입구의 경사로이다. 아파트 건축 당시에는 깔끔하게 단장되었던 경사로의 용벽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는 삭막한 구조물이 되었다.

인덕원마을삼성아파트 출입구 옹벽에는 단순히 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그림이 아니라, 이 골목을 오가는 모든 마을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벽화를 그리기로 하였다. 주민들은 벽화를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마을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공공의 공간으로 보고, 직접 참여해 함께 만들어 가기로 하였다.

관양협의회는 삼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벽화 만들기를 제안하였다. 1년간의 논의 끝에, 삼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벽화 만들기가 승인되었다. 2010년 여름에 타일을 하나씩 붙이고 페인트로 칠을 하여 벽화가 완성되었다.

인덕원마을삼성아파트에는 인덕원동에서 가장 높은 언덕길이 있는데 옹벽의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나 분위기가 삭막하였다. 아파트 주변이 상업지역이라서 낮과 밤의 분위기가 다르고, 고층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통합되기 어려운 아쉬움이 있었다. 아름다운 삼성아파트 언덕 만들기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벽화 디자인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여 아파트와 단독주택,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조화롭게 어울려서 걷고 싶은 언덕길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³사업 진행에 앞서 이전 사례를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들은 안산시의 경기도미술관과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주변에 만들어진 옹벽 작품을 보러 견학도 다녀왔다.

입주민 참여 스티커 작업에는 많은 입주민이 참여했으며, 이후에도 서로 손잡고 다독여주고 밀고 끌어주는 하나됨을 느끼게 되었다. 8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피약벌 아래서 젊은 디자이너들이 웅크리고 앉아 더위와 싸워가며 작업에 열중하는 동안, 하루하루 달라져 가는 옹벽을 보며 서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어깨도 두들겨 주고, 잠시 쉬며 흐르는 땀방울을 닦으라고 시원한 음료수를 건네주는 입주민들도 있었다. 입주민들과 좋은마을만들기 추진협의회, 자치부녀회, 관리사무소 등 많은 이들의 협력과 도움으로 사업은 완성되었다.⁴ 벽화 만들기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벽화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희망을 언급하였다.

옹벽에 페인트 작업을 같이 하면서 더욱 옹벽 사업에 애착을 갖게 되었다. (중략) 옹벽길을 지나가는 젊은 주부들이 아이들에게 작품 속에 들어 있는 동물들을 설명해 주기도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후문을 거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뿌듯해진다. 늘 우중충했던 아파트 옹벽을 보다가 산뜻하고 생동감 있게 변한 골목을 지날 때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감을 느끼며 동네를 아름답게 꾸며주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박미자, 「삼성아파트 옹벽꾸미기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관양2동 이야기』, 2011년)



인덕원마을삼성아파트 옹벽의 벽화

벽화가 이젠 주민들과 일상을 함께하는 정다운 마을 표지판이 되었다. 명소가 되었다고 카메라에 담아가는 분들도 있다. 타일과 스테인드글라스로 제작되었으니만큼 20~30년은 거뜰히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곳의 주민들이 벽화 속의 이야기들처럼 힘차게 하루를 열어가고, 열심히 낮시간을 보내며 그윽하고 행복한 밤을 맞기를 염원해 본다.

(김철웅, 「칙칙했던 담벽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다」, 『관양2동 이야기』, 2011년)

3. 인덕원동 마을공동체 올래협동조합

안양시는 2013년 8월 경기도의 맞춤형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2014년 4월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만들기 계획 및 주민공동체를 구축하고 같은 해 10월까지 6개월간 총 5차례의 워크숍과 3차례의 주민협의회를 개최하며 주민들과 함께 최종 사업 계획을 잡았다. 이에 따라 인덕원동 일대에 교통 편리성 향상, 활력 거점 창출, 생활환경 확충 등의 목적별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2015년 올래마을 개소식(동안구청 제공)

교통 편리성 향상 사업은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 주차 타워 건설이며, 활력 거점 창출 사업은 송유관부지 테마 거리 및 소공원 조성과 주민복지시설 확충이다. 생활환경 확충사업은 CCTV(보안 벨, 방범등) 설치, 쓰레기 공동 집하장 설치, 맨홀 정비 등이다.⁵

한편, 안양시 도시재생대학은 2015년 5월 28일~8월 3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도시재생 특강, 팀별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및 발전구상(안) 검토,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주민역량 강화와 도시재생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한 팀이 되어 지역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자율적인 토론을 통해 해결 방법과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석수동팀, 박달동팀, 안양천팀, 관양2동팀(인덕원동) 등 지역별 4개 팀의 도시재생대학 최종발표회에서 '살기좋은 올래마을 이야기'의 관양2동팀(인덕원동)이 대상을 차지하였다.⁶

이후 안양 최초의 주민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관양2동(인덕원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⁷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결정되었는데 주차타워 설치가 그중 하나였다. 2018년 완공되어 문을 연 주차타워는 주차난 해결뿐만 아니라 1층에 주민을 위한 공간도 만들었다.

이 과정에 함께한 주민들은 2018년에 올래마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지역주민과

어우러져 건강한 먹거리와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마을공동체 올래협동조합은 2019년 7월 22일 ‘줍마뺌 반찬가게’를 개점하였다. 지역 조합원들이 주축이 되어 주차타워 1층에 마련한 이 가게는 아침마다 싱싱한 재료로 반찬을 만들기로 유명하였다. 미니족발부터 무침류·조림류·볶음류는 물론 다양한 메뉴에 정성이 듬뿍 담긴 이 가게는, 지역의 협동조합원 19명이 주축을 이루어 운영하였다. 이 가게는 엄마의 손맛을 담아 만든 반찬, 신선하고 정성이 가득한 반찬, 매일 다른 메뉴의 새로운 반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반찬이라는 네 가지를 철칙으로 삼아 운영하였고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에 사용하였다.

올래협동조합은 반찬가게와 함께 북카페, 주민커뮤니티 공간도 운영하며 마을만들기 활동을 하였다.⁸ 2024년 현재 인덕원동에 50여 년 거주하며 통장도 하고, 반찬가게에서 무보수 봉사활동을 한 윤경애는, 당시 동네에 반찬가게도 없었고 문화공간이나 문화 활동이 부족했다고 기억하였다. 민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주차 타워는 주민들이 모이고 생활을 나누는 문화 공간도 되었다고 평가하였다.⁹



2018년에 준공한 인덕원동 주차타워

4. 인덕원 마을학교와 ‘터’ 사회적협동조합

인양 YMCA에서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여 인덕원 마을학교가 운영되었다. 인덕원 마을학교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다. 마을학교 운영에는 인덕원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센터의 도움이 컸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간을 무상으로 5년 동안 내어주었고, 주민센터에서도 5년 정도 공간을 마련해주는 등 많은 지원과 협력 덕분에 마을학교 활동이 이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들이 씨앗이 되어서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다.”¹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인덕원동 주민들은 마을협동조합을 만들기로 하며 2020년부터 모이기 시작하였다. 1998년부터 활동한 안양 Y등대생협 녹색가게, 2010년부터 활동한 여성일공동체 ‘바늘귀에 걸린 실’, 2014년부터 활동한 인덕원 마을학교, 2018년부터 활동한 핸드메이드 협동조합 ‘꿈꾸는 부엉이’ 등이 함께 모였다.

삶터·일터·배움터의 의미를 담아 ‘인덕원마을 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명칭과 조직 형태를 정하고 2021년 1월 27일 76명의 회원으로 창립총회를 열었다. 그동안 마을을 위해 일해온 관양2동(인덕원동) 주민자치위원회, 안양 YMCA 등대생활협동조합,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덕원마을학교, 꿈꾸는 부엉이 등에서 활동해 온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인덕원마을 터 사회적 협동조합은 창립선언문에 다음과 같은 목적과 활동을 밝혔다.

조합원 한 명 한 명은 스스로 녹색운동의 고리가 되고 지혜로운 삶의 등대가 되어,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자연과 사람에게 끊이지 되새김 될 수 있도록 실천할 것이다. (중략) 녹색 삶을 위한 시민들의 안내자이자 동반자로서, 내 마을을 지키는 환경지킴이로서 일할 것이며, 마을공동체 확산을 위한 협력자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할 것이다. (중략) 생명과 평화, 다양성과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타자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 등 참 지구인의 덕목을 키우는 지구 시민 평화 교육에 매진하며 생명, 평화, 공동체 가치에 기초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지역 연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¹¹

인덕원마을 터 사회적 협동조합은 2022년에 환경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삶터 역할로서 주요 사업은 녹색가게, 교복은행, 생활실천 운동, 자원순환 캠페인 등이 있다. 일터의 역할로서는 꿈꾸는 부엉이, 청바지 업사이클링, 친환경제품 만들기, 수제 음식, 전통 장, 터 카페 대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그리고 마을학교, 서로배움, 환경교실, 이룸학교 등의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다.

녹색가게는 재사용·재활용 활동으로 자원순환과 기부·나눔을 위하여 물건들을 기부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나눈다. 상설매장과 이동 녹색가게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교복은행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는, 안양·과천 관내 중·고등학교 교복 물림(재사용) 활동으로, 수익금의 많은 부분을 장학금으로 전달한다.

꿈꾸는 부엉이는, 지구와 인간에게 해로운 석유제품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천

연섬유로 만든 친환경 수공예 제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한다. 터 카페는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친환경 먹거리와 공정무역 제품을 팔고, 주민들의 모임과 각종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대여도 한다.

마을학교는 마을구성원들이 원하는 다양한 취미·직업·환경·공동체 교육 등을 마을 안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개발 활용하여 주민과 단체가 이어지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평생학습 마을공동체를 목표로 한다. 토탈공예 자격증 과정, 생태안내자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재활센터 등의 단체에 비누·양초·화장품 만들기 교육 등을 한다. 서로배움에서는 뜨개질·바느질(미싱) 교실, 막걸리·두부·전통장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환경교실 활동으로는 어린이와 학생 대상 환경 수업, 학부모 동아리 대상 친환경 만들기 수업을 한다. 이룸학교는 학생을 대상으로 생태감수성 개발 및 기후 위기 이해 수업을 진행한다.

인덕원마을 터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양시 공유냉장고 2호점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5월 24일 조합 사무실 앞에 놓인 공유냉장고 2호점은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인덕원마을 터 사회적 협동조합이 협력하여 운영하며 연중무휴 24시간 사용할 수 있다. 조합이 관리 책임을 맡고 비상근 관리자들이 공유냉장고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로 ‘안양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에서 후원 물품 조달과 홍보를 지원한다.¹²

15년 이상 인덕원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을 해온 인덕원마을 터 사회적 협동조합의 우



인덕원 터 마을협동조합 우경희 사무국장



05:09



주차타워 1층의 '타' 카페 내부



'터' 카페에서 전시 판매하는 공정무역 제품과 마을 작가의 도자기 작품



주차타워 1층의 인덕원마을터 사회적 협동조합



인덕원마을터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는 친환경



'터' 카페에서 전시 판매하는 공정무역 제품과 마을 작가의 도자기 작품



환경제품



인덕원마을 터 사회적 협동조합의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복은행



경기 이룸학교 사업 중 생태감수성 자연오락실 화분 만들기(우경희 제공)

경희 사무국장은 마을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마을에 은근히 예술가들이 많아 예술가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청년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고 한다.

우경희 : 누군가가 “뭐가 필요해.” 하면 그냥 프로그램 열어드리고 그런 거 연결해 주고, 저는 보람 있었던 게 그런 거였죠. (중략) 민관 협력이 되게 잘 되었어요. (중략) 사람 냄새가 나는 마을, 그런 게 원도 심이잖아요. 여기가 원도심이라서 거의 다 원주민들이 이제 많으니까 되게 좀 인간적인 마을 하여튼 뭐라 말할까 따뜻함, 여기 가도 이렇게 다 아는 사람, 길 가다가 사람 만나면 인사하고 좀 한참 오래 이야기도 하고. 여기는 그냥 시골 동네 마을, 저는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아파트나 이런 데는 사실 인사를 잘 못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마을 분들 지나가다가 다 인사하고 저는 이런 게 자랑하고 싶어요.

우경희는 마을만들기에서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함을 느꼈으며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네트워크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자

윤경애 : 여, 1975년에 부모님과 인덕원동으로 이주, 8년간 통장 역임, 올래협동조합 활동, 2023년 9월 12일 면담.

우경희 : 여, 인덕원마을 터 사회적협동조합 상무이사, 좋은마을만들기 관양협의회 간사, 2024년 8월 16일 면담.

참고자료

『관양2동 이야기』, 좋은마을만들기 관양협의회, 2011년 4월.

안양지역도시기록연구소(<https://anyangbank.tistory.com/>).

윤경숙, 차주협, 「인터뷰-윤경애, 정두실」, 『도시공상 Vol.1-안양역.인덕원역』, 비그라운드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2020.

이승원, 「안양시, '도시재생대학'으로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사업 박차」, 『머니투데이』, 2015년 10월 30일 (<https://www.mt.co.kr/>).

인덕원마을 터 사회적협동조합, 「인덕원마을 터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선언문」, 『인덕원마을 터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자료집』, 2021년 1월 27일.

인덕원마을 터 사회적협동조합, 『인덕원마을 터 사회적협동조합 제2차 총회 자료집』, 2022년 2월 14일.

인덕원마을 터 사회적협동조합, 『인덕원마을 터 사회적협동조합 제3차 총회 자료집』, 2024년 2월 19일.

註

- 1 박경숙, 「소공원이 탄생하기까지」, 『관양2동 이야기』, 좋은마을만들기 관양협의회, 2011년 4월.
- 2 이재근, 「주민과 함께 우리 마을 만들기」, 『관양2동 이야기』, 좋은마을만들기 관양협의회, 2011년 4월.
- 3 정난주, 「“아름다운 삼성아파트 언덕 만들기” 그 시작과 눈부신 마무리...」, 『관양2동 이야기』, 좋은마을만들기 관양협의회, 2011년 4월.
- 4 정난주, 「“아름다운 삼성아파트 언덕 만들기” 그 시작과 눈부신 마무리...」, 『관양2동 이야기』, 좋은마을만들기 관양협의회, 2011년 4월.
- 5 이석철·김종찬, 「관양2동 주민센터주변(안양 최초 맞춤형 정비사업) 본격추진 '관심」, 『경인일보』, 2015년 1월 8일(<http://www.kyeongin.com/>).
- 6 이승원, 「안양시, '도시재생대학'으로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사업 박차」, 『머니투데이』, 2015년 10월 30일(<https://www.mt.co.kr/>).
- 7 이석철·김종찬, 「관양2동 주민센터주변(안양 최초 맞춤형 정비사업) 본격추진 '관심」, 『경인일보』, 2015년 1월 8일(<http://www.kyeongin.com/>).
- 8 이진아, 「퇴근길에 저녁 반찬 하나 어떠세요, 관양2동 올래협동조합 '줍맛 반찬가게」, 『안양신문』, 2019년 8월 20일(<https://www.anyangnews.co.kr/>).
- 9 윤경애, 2023년 9월 12일 면담.
- 10 우경희, 2024년 8월 16일 면담.
- 11 「인덕원마을 터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선언문」, 『인덕원마을 터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자료집』, 2021년.
- 12 「안양 공유냉장고 2호점 인덕원동에 개소」, 안양지역도시기록연구소, 2024년 5월 25일(<https://anyangbank.tistory.com/>), 2024년 8월 31일 확인.

제3장

인덕원동 '새마을'의 시작과 의미

윤경숙 비그라운드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소장



1. 인덕원을 특별하게 만드는 ‘새마을’의 시작

과천에서 안양으로 진입할 때 관문이 되는 인덕원사거리 일대는 행정구역상으로 관양2동이였다가 2024년 1월 1일부터 인덕원동으로 동명이 변경되었다. 인덕원사거리의 남쪽에서 시작해서 학의천 남단의 옛 공업지역을 포함하는 인덕원동은 재건축과 같이 물리적으로 확연히 보이는 변화와 더불어, 상권과 주민의 변화와 같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안양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도 인덕원은 여전히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흥시설이 주를 이루는 유흥가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인덕원동은 생태하천인 학의천을 중심으로 스마트벨리와 일부 공장의 젊은이들을 품고 주거와 상업 공간이, 그리고 옛것과 새로운 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흥미로운 마을이다.

관양동에서 성장했고, 최근 5년간 인덕원에서 건축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경험한 인덕원은 단순히 유흥가로 규정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한 독특한 마을이다. 흥안대로와 관악대로에 접한 고층 상업건물 안쪽으로 몇 블록만 걸어가도 작은 골목길과 저층 주거지가 있다. 그중에서 학의천 인근에 있는, 1층엔 상가가 듬성듬성 있고 상층부에는 다세대 주택이 있는 저층 주거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을 ‘새마을(신흥촌, 新興村)’이라 부른다.

인덕원의 유래를 조사하다 보면 마을의 시작을 조선시대부터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현재 인덕원 도시구조의 토대는 1970년대 초 조성된 새마을에서 출발한다. 안양시 도시계획에 의해, 1973~1975년에 학의천변을 매립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안양천 변에 난립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철거민들을 집단 이주시키면서 새마을이 조성되었다. 당시 약 400세대, 2,000명가량이 정착하여 살면서 매년 하천부지 사



1967년 인덕원 일대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제작 : 비그라운드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용료를 냈다. 이주민 대다수는 무일푼으로 이주하여 천막을 치고 살다가, 1~2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손수 벽돌집을 지어 살았다고 한다.¹

1970년에 발행된 지도를 보면, 학의천과 현재 인덕원사거리의 남서쪽 지역은 아직 마을이 조성되지 않았다. 또한, 1967년 항공사진을 보면 학의천과 농경지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았고, 특히 학의천 주변에는 하천 범람을 우려하여 건물이 거의 없었다. 과천에서 수원으로 가는 길 동쪽의 신성중·고등학교(당시 성림고등공민학교) 주변으로 밀집된 주거지가 있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에 남북으로 생긴 유선형의 길을 따라 집들이 촘촘하게 들어서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1975년 항공사진을 보면, 마을 중앙길을 따라 약 100채의 집이 보인다. 1980년대부터 새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원에 따르면, 마을이 형성된 초기에는 오염된 학의천이 범람할 것을 우려하여 천 가까이 집을 짓는 것을 기피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학의천 바로 옆이 가장 저렴했다고 한다. 현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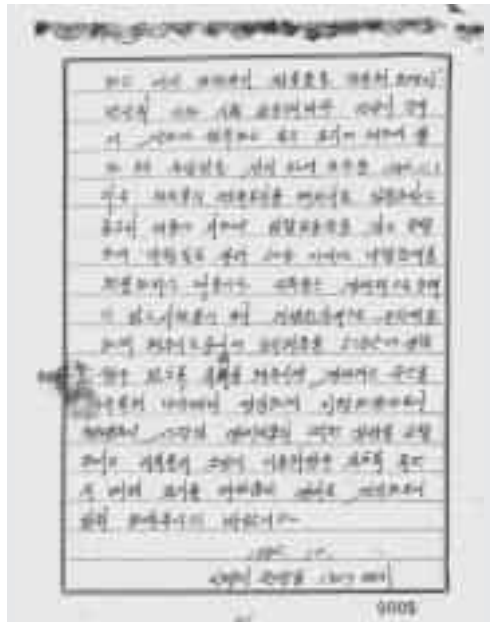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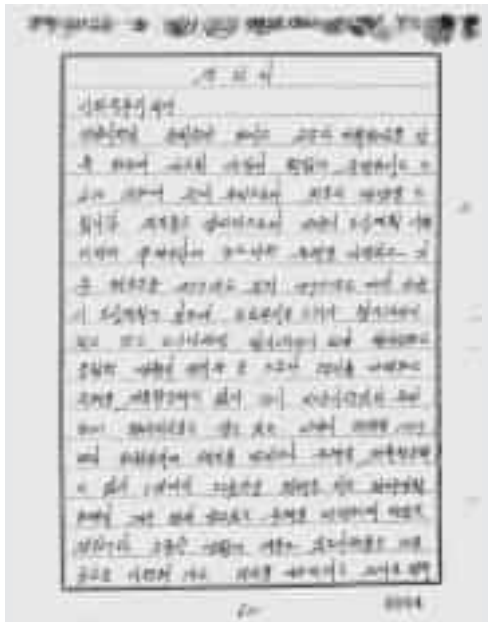


1975년 인덕원 일대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제작 : 비그라운드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고 하천 둔치가 잘 가꾸어져 있어서, 학의천과 인접한 부지의 부동산 가치가 높이 상승하였다.

새마을에서 대구청과슈퍼를 운영하는 김진성에 따르면, 마을 중앙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김진성(1953년생)이 이주한 1980년대 초반에는, 마을 중앙로에 슈퍼·구둣가게·양장점·신발가게·방앗간·정육점·철물점 등이 줄지어 있었다고 한다. 김진성은 이주해서 오자마자 남부시장에서 채소를 떼어다가 리어카에 싣고 다니며 장사를 했다고 한다. 처음엔 외지인이라고 텃세가 심했지만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일하자 주민들의 마음을 열고 인심을 얻었다.

새마을의 첫 번째 주민들은 토지가 안양시 소유여서 7~8년간 하천부지 점용료만 내고 살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토지를 불하받기를 원해서 반사회나 기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내용을 건의하였다. 그러다가 1979년부터 진행된 안양시 제7차 토



새마을 주민의 건의서(안양시 도시개발과, 「관양동새마을가옥체비지(진정서)」, 1980, 안양시청 제공)

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새마을이 사업지구에 포함되면서 이 토지를 체비지로 입찰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통지서의 내용은, 체비지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걸고서 응찰하여 낙찰받은 후 낙찰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낙찰금액을 완불하라는 것이었다.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하거나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² 그러나 당시 새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노동자 약 70%, 상업종사자 약 20%, 공장노동자 약 10%로 소득이 높지 않아 체비지로 매입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토지가격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³

새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지가를 정부에서 정하는 표준지가로 정하고 이를 5년 분할로 상환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민들의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양시는 토지가격은 대통령이 정하는 공인 평가기관에서 진행하며 토지가격은 조정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5년 분할 상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3년 이내 상환을 통보받았다. 토지 비용을 감당할 경제 능력이 없는 주민들이 새마을을 떠나면서, 체비지를 매입한 외지인들로 교체되었다.

현재 부동산을 운영하는 이재원은 고등학교생이던 1980년대 초반에 부모님이 새마을



새마을의 유리 가게(1980년대, 이재원 제공) 현재 엔탐부동산(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517번길 46) 자리이다.

에 토지를 매입하여 과천에서 인덕원으로 이주하였다. 설비 기술자였던 부친은 새마을에서 철물점을 운영하였다. 당시는 지하수를 사용하였으므로, 펌프가 고장 나면 수리해주는 중요한 사람이었다. 새마을에 2층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943년생 장인옥도 1980년대 초반에 단층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그 위에 2층을 증축했다고 한다. 김진성의 경우는, 누나가 먼저 인덕원으로 이주하고 이후 7형제 모두 새마을로 이주하였다. 새마을 조성 당시 정착했던 사람들이 일부 이탈하고 새로운 주민들이 이사를 오면서 마을 구성원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1980년대 초반 새마을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재도 새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2. 인덕원의 도시 확장과 변화

1970년대 들어서 본격화한 안양의 공업화로 학의천 변에도 공장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1981년 항공사진을 보면, 학의천 남단에 상진산업(현 세방산업)·동양섬유·동일방직 등 규모 있는 공장들이 학의천 남단에 들어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는 인덕원도 새마을을 중심으로 점점 확장하여 마을 북쪽으로 관양여자중학교(현 인덕원중학교)가 1981년 개교하였다. 인덕원 최초 아파트인 목련아파트도 1979년에 준공되었다.

1973년 안양이 시로 승격하면서 안양의 동쪽 관문인 인덕원사거리에서 안양시청 방향의 도로(현 관악대로)가 확장되고 수원으로 가는 도로(현 흥안대로)도 점차 확장되었다.

1989년 발표된 수도권 1기 신도시 건설 대상지 가운데 한 곳으로 안양시 평촌 일대가 선정되면서, 인덕원을 포함한 평촌 인근 지역도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가 정비되고 현재와 유사한 형태의 도시구조로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1991년 항공사진을 보면, 흥안대로의 확장과 수도권 지하철 4호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로변으로 격자 형태의 대형 블록들이 조성되고, 그 사이를 사선으로 관통하는 송유관 길이 있다. 미군은 1970년에 경북 포항에서 경기도 의정부까지 미군기지로 기름을 보내기 위해 지면 아래 1.5m 깊이로 송유관을 매설하였다. 송유관은 우리나라 국방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정유회사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경인매일』 기사에 따르면, 현재 과천을 거쳐 서울 시내를 관통해 의정부 미군기지로 가던 구간을 폐쇄하고, 성남에서 인덕원을 거쳐 오산과 평택으로 가는 구간만 남아있다.⁴

대로에서 접근했을 때 격자 블록으로 단순해 보이는 인덕원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송유관길을 비롯해 먼저 조성된 새마을의 도시조직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길을 잃기 쉽다. 그만큼 길을 걷는 재미가 있다. 송유관길을 보행자 전용도로로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구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밀려 성공하지 못했다. 송유관길을 따라 생기는 삼각형의 자투리 공간은 주차 공간으로만 남기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특히, 새마을공원과 유명한 통닭 맛집과 곱창 식당 등이 이 길에 있어, 향후 보행자 전용도로가 된다면 복잡한 인덕원에 좋은 공간이 될 것이다.

1990년대까지도 학의천 남단의 공업지역에는 크라운제과, 뉴욕제과, 오성판지 등 규모 있는 공장들이 가동되고 있었다. 새마을 주민 김진성에 따르면, 마을주민 중 남성들은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였고, 젊은 여성들은 인근의 공장에 다녔다고 한다. 그래서 자가를 소유한 주민들은 방을 임대하기 위해 기존의 주택 공간을 개조하였고, 임대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한다.

평촌신도시 건설 이후 안양이 도시 주거지로 급부상하면서 학의천 변에 자리 잡은 공장들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하천 주변 공장에서 방류하는 폐수로 인해 안양 지역 하천의 오염도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1994년 발표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공장총량제도’는, 수도권 성장관리를 목적으로 지역별·기간 별로 특정한 시설물의 허용 상한량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시설물의 입지를 허용하는 제도로, 수도권에서 공장의 입지를



1981년(좌)과 1991년(우) 인덕원 일대 항공사진(비그라운드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제공)

축소하는 정책이었다. 결과적으로 2000년대 후반부터 일부 공장 매각이 진행된다. 동일방직의 경우 2006년에 공장부지를 대림산업에 매각하였다. 비슷한 시기 대한전선 안양공장도 부지를 매각하고 충남 당진으로 이전하였다.

새마을을 시작으로 성장한 인덕원은 현재 관악대로, 흥안대로, 인덕원천 복개 공영주차장, 그리고 학의천에 둘러싸여 마치 섬처럼 존재한다. 여러 차례 재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발 계획 없이 고층의 상업건물과 저층 주택이 공존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변화는 인덕원 밖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신성중·고등학교는 만안구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삼성아파트가 들어섰다. 학의천 변 공업지역은 생산공장들이 나가고 다수의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이 들어섰다. 동일방직이 있던 곳에는 대우아파트가 준공되었다. 관악산 아래 한적한 농촌이었던 동편마을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하였다. 앞으로 인덕원역은 GTX-C노선, 월곶-판교선, 동탄인덕원선 등이 정차



2021년 인덕원동 새마을 일대(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자연 발생적으로 구성된 길의 구조와 도시계획이 적용된 격자형 구조가 혼합된 인덕원의 도로
(비그라운드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제작, 2021년 항공사진 활용)

하는 소위 ‘퀴드러플 역세권’이 될 예정이고, 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 계획으로 인덕원의 미래 또한 큰 변화의 파도 앞에 있다.

3. 오래된 가게와 젊은 가게가 공존하는 새마을

1970년대 초반 인위적으로 새마을을 조성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인덕원은, 자연 발생적으로 확장하면서 만들어진 도시구조와 1980년대 후반부터 도시계획에 의해 조성된 대규모 격자형 블록 구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독특한 도시구조를 가졌다. 대로변에 인접해서는 프랜차이즈와 대형 가게들로 채워져 있지만,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4층 이하의 저층 건물이 밀집한 조용한 주거지역이다.

최근 들어 새마을의 중심이었던 인덕원로11번길과 인덕원로12번길 주변으로 작은 가게들이 들어서면서 지역에 활기를 넣고 있다. 4년 전에 카페를 시작한 30대 중반의 박래훈과 포세린 아트 공방을 운영하는 김길은이 인덕원에 들어온 이유는, 작은 골목길이 살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터프팅 공방·야키도리 주점·전시 문화공간 등이 이 골목에 들어서면서, 예전에 시장이 활성화되었던 시절처럼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인덕원로11번길과 인덕원로12번길은, 1970년대에 조성된 단층 단독주택부터 1980~1990년대 지어진 2~4층 규모의 다세대·다가구주택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조성된 필로티 주차장을 설치한 주거용 건물 등 여러 시기의 건물들이 골목길을 따라 촘촘하게 서 있다.

중앙길에서 뻗어나간 작은 골목길은 막다른 길인 경우도 종종 있다. 인덕원의 길이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이다. 작은 골목길은 주민들이 가꾸는 화분과 텃밭으로 잘 정돈되어 있다. 1980년대 시장길에 있던 가게들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새마을방앗간’은 여전히 운영 중이다. 이재원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철물점 자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상권이 새마을 중심에서 인덕원역 가까운 대로변으로 이동하면서, 일부 집주인들은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를 놓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골목에 작은 가게들이 들어오면서 활기가 돌아오고 있다. 새마을에서 야키도리 주점을 운영하는 20대의 이희명은 인덕원이 젊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20대부터 60대 이상의 다양한 손



인덕원동 새마을 일대



님들이 거리낌 없이 섞여서 음식을 즐기는 모습이 인덕원의 독특한 풍경이라고 한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어우러진 인덕원은 세대가 융합된 풍경이 자연스러운 곳이다.

대구청과슈퍼는 마을 어르신들의 사랑방이다. 과천에서 직접 농사짓는 채소와 과일을 싼값에 팔기 때문에, 인근 음식점이나 주민들이 자주 찾는다. 또한, 1980년대부터 새마을 주민으로 살아온 슈퍼 사장 김진성 부부는 하루 중 대부분을 슈퍼 앞 필로티 공간에서 보내며 지나가는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식사를 함께한다. 슈퍼의 강아지인 사랑이도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다.

레이커피바 또한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는데, 대구청과슈퍼가 어르신들의 사랑방이라면, 레이커피바는 인덕원 젊은 사장들의 사랑방이다. 새마을 주변에서 음식점·술집·공방 등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젊은 사장들이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면서 동네 소식을 접하는 휴식 공간이다.

전국 대부분의 구도심이 재개발되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는 필요하지만, 이전의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개발하는 경우는 과거를 기억하기도 어렵고, 다음 세대와 추억을 공유하기 힘들다. 이런 관점에서 인덕원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매우 궁금하다. 개인적으로는 인덕원의 시작이었던 새마을의 도시조직을 존중하면서 소규모 단위의 개발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새마을방앗간처럼 4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게들과 골목길이 좋아 새마을로 모여드는 젊은 상인들이 더 오래 그 자리를 지켜주길 바란다.

새마을의 시장 골목을 표현한 벽화





인덕원동 새마을의 새로 생긴 작은 가게들(비그라운드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제공)



대구청과슈퍼(비그라운드 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제공)



레이바커피(비그라운드 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제공)

인덕원이 이제는 유흥가로만 인식되지 않고, 새마을의 역사 위에 학의천의 좋은 자연 환경과 그 안에 있는 다양한 도시조직 속 이웃들 그리고 개성 있는 작은 상점들로 채워진 여러 세대의 이야기가 축적된, 특별한 마을로 기억되길 바란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인덕원의 숨겨진 모습을 보기 위해 인덕원과 새마을을 방문하길 바란다.

註

- 1 안양시 도시개발과, 「관양동새마을가옥체비지(진정서)」, 1980.
- 2 다음백과(<https://100.daum.net/>).
- 3 안양시 도시개발과, 「관양동새마을가옥체비지(진정서)」, 1980.

- 4 「인덕원 기름 냄새, 50년 넘은 미군 송유관 인덕원 뱀박스에서 난다」, 『경인매일』, 2021년 7월 14일. (<https://www.kmaeil.com/>).

제4장

안양의 명소, 관양동 동편마을 카페거리

정수빈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박사수료



1. 도시 속 카페거리의 탄생

안양 동편마을 카페거리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자리한 상업지구로, 특색 있는 카페와 음식점 등이 모여 있는 공간이다. 본래 논밭이 펼쳐진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던 동편마을은 2012년 ‘관양택지지구’ 개발이 마무리되면서 관악산과 어우러진 아파트와 깔끔하고 세련된 상업지구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주거지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상업 기능이 활성화되며 카페거리가 조성되었다.

처음에는 동편로183번길 일대에 카페거리가 조성되었다. 그런데 상권이 확장되면서 공영주차장이 있는 건너편 상업지구에도 카페와 식당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이곳은 카페와 음식점은 물론 미용 업소, 부동산 등이 모여 있으며, ‘뷰티거리’로 불리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는 동편마을 주민과 방문객들이 두 지역을 하나의 통합된 카페거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관양119안전센터 앞에서 좌우로 갈라지는 동편로를 기준으로 도로 위쪽이 카페거리라고 보면 된다.

동편마을 카페거리는 수변공원이 가까워 카페거리에서 식사와 음료를 즐긴 뒤 산책을 하는 방문객들이 많다. 동편마을 사거리에는 ‘동편마을 카페거리’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 이곳이 카페거리의 시작점임을 알린다. 표지석과 조형물, 안내판이 차례로 이어져 있어 방문객들에게 마을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동편마을 카페거리는 교통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8번 출구에서 안양종합운동장 방면으로 700~800m 떨어져 있으며, 도보로 약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2. '도깨비가' 선물한 관광 명소

동편마을 카페거리는 본래 시골 마을이던 곳이 주택 단지로 개발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상권이다. 그런데 왜 하필 이곳에서 '카페'가 중심이 되었을까. 그 답은 이곳에 가장 먼저 카페를 열고, 건물주와 지역 인사들에게 '카페거리' 조성을 직접 제안한 '카페마타리'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경례 : 일단은 제가 이 근처 동네에 몇 십 년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한 1987년~1988년 때에 안양에 오게 됐죠. 여기서 쪽 애들 키우면서 살다 보니까, 이 동네가 아늑하고 좋았어요. 근데 신도시가 예쁘게 생기고 그러니까 눈여겨보다가 가게를 좀 해볼까 이렇게. 여기 참 예뻐 보여서, 만만한 아는 동네니까. 여기가 처음에 들어설 때 건물이 없었어요. 제가 올 때는 처음에는 다 땅 파고 있고, 아파트만 하나 들어서고, 집 몇 개. 와서 보니까 집들이 짝 예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들어서는 거니까

동편마을 카페거리 안내판 조형물





동편마을 카페거리의 시작 카페 마타리

건물주들이 저희 집에서 회의를 하고 그랬죠. 모일 자리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무슨 가게를 줄까요?”, “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도 카페를 주면 집도 깨끗하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1층에 딱 하면은. 그래서 카페거리로 하면 괜찮지 않냐고. 나도 초보니까 그런 경쟁은 생각지도 안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모여 있어야 또 찾아오기도 하고.

면담자 :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이경례 : 2012년 4월.

카페 마타리를 운영하는 이경례(여, 1961년생) 대표는 2012년 동편마을이 개발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예스럽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지닌 마을의 특성을 살려 카페를 열었다. 동편마을이 조성된 초기부터 그는 마을의 특성을 살린 카페거리를 조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카페가 주를 이루지 않았고, 식당과 술집 등 다양한 업종이 함께 상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면담자 : 이 라인이 사장님도 제일 먼저 시작하고 먼저 만들어지고요?



동편마을 카페거리

이경례 : 그렇지. 내가 맨 먼저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아홀’ 자리가 두 번째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 맨 밑에 첫 번째 된 게 ‘드로잉’ 저 자리가 세 번째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세 집이서 같이 막 밤에 끝나면 뭐도 먹고 그랬었어. 여기에 막 ‘홀랄라 치킨집’도 있고, 요 밑에 ‘호프집 치어스’도 있고 그래서. 여기 또 처음 입주하니까 사람들이 처음 치킨 먹으러 많이 나오잖아. 그때만 해도 손님도 많고 그랬었는데.

동편마을은 아파트 단지가 많고, 다세대주택 형태의 건물은 1층을 상가로 사용하되 그 외 층은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비교적 소음이 큰 술집이나 식당은 점차 자취를 감추었고, 그 자리를 카페가 채우기 시작하였다.

이경례는 카페거리 조성이 처음부터 순탄한 과정은 아니었으나, 건물주와 상인들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 오늘날과 같은 카페거리가 형성되었다고 회고한다. 이후에도 그는 건물주와 상인들과 함께 회의를 거듭하며 동편마을 카페거리만의 특색을 살릴 방안을



동편마을 카페거리에서 촬영한 드라마 '도깨비'의 한 장면

모색하였다. 그 과정에서 상인들은 유럽풍의 통일된 분위기를 자아내는 동시에, 각자의 고유한 개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거리를 꾸려 나갔다. 이러한 노력들이 축적되어 오늘날 동편마을 카페거리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활력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¹

동편마을은 2012년 택지 개발 당시 주거지와 상업지구가 함께 조성되었다. 카페거리는 주변이 모두 주거지라는 특성상 고정적인 이용 인구가 형성되어 있으며, 관악대로가 가깝고 지하철역에서 멀지 않아, 지역 상권 활성화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동편마을은 관악산 자락에 위치하여 관광지로서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 카페거리 입구에서 이어지는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관악산의 풍경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다. 이곳에서는 산을 배경으로 한 경관을 감상하며 야외 테이블에 앉아 시원한 바람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동편마을 카페거리는 2016년 방영된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로 알려지며 국제적인 관광지로 성장하였다. 이곳에서 여주인공이 정류장에서 서 있는 남자 주인공에게 목도리를 돌려 주고, 이후 수능을 보러 가는 여주인공을 남자 주인공이 배웅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드라마의 인기는 동편마을 카페거리를 단숨에 명소로 만들었으며, 그 결과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온 외국 관광객들로 크게 붐비게 되었다. 이경례는 '도깨비' 촬영 당시의 동편마을은 조용하고 외부 방문객이 거의 없어 촬영지로 적합했다고 회고한다. 그



카페 안에서 바라본 동편마을 카페거리

러나 방송 이후에는 큰 관심을 끌며 3년 정도 관광객이 급증하였다. 특히 중국 단체 관광객까지 찾아오는 국제적 명소로 부상하였다. 이후 다른 드라마의 촬영도 이어졌으나, ‘도깨비’만큼의 효과는 없었다.

이경례 : 여기가 조용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도깨비 촬영할 때만 해도 별로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외부에서 많이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동네, 비산동이나 이런 데서만 왔지. 그러니까 동네 촬영하기엔 딱이죠. 사람들도 없지. 조용하니 예쁘지. 촬영하고 난 뒤에 사람이 엄청나게 알려졌고, 여기 와서 막 아주머니들 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후로 한 3년 바짝 올랐어요. 3년. 그 효과가 크더라고. 중국에서도 여행객들이 단체로 가이드가 팻말 들고 오더라니까. 여기 다 알아가지고 밖에서 막 자기네 여기 뭐 했고,



동편마을 카페 내부(안양시청 제공)

누가 어떻게 했고, 이러면서. 그 뒤에 다른 드라마도 좀 하긴 했었는데. 큰 거는 아니고.

안양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한 동편마을 카페거리는 안양시의 지원 속에 성장하고 있다. 안양시는 이곳을 중요한 관광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카페거리 활성화가 안양시 전체의 관광 수익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카페거리를 지원하여 관광객들이 찾고 싶은 목적지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인들과 주민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형성된 이 상업지구는 이미 지역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특히 매년 가을 열리는 ‘동편마을 카페거리 축제’는 프리마켓, 소규모 공연,

체험 행사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 예술가와 연예인의 참여를 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축제는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 지역 사회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는 문화적 이벤트로 자리 잡아, 안양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3. 카페거리에 펼쳐지는 축제 마당

안양시와 상인들은 동편마을 카페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가을 동편마을 카페거리 축제를 열고 있다. 축제는 플라마켓, 소규모 공연, 체험 행사 등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음악 공연이 열리기도 한다.

전숙자 : 2015년에 여기 이사 와 보니까는 저쪽 아프리카(갤러리 카페)² 그 라인에 공방들이 짝 있어. 많았어. 여기를 인사동 거리를 만들고 싶었던 거지. 근데 그때 아프리카 커피숍이 아프리카 그림들을 매장에다 걸어놨더라고. 인사동처럼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니까, 그거는 좀 역부족이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공방 앞에서 일단 시작을 했어. 가죽 공방도 있었고, 목공방도 있었고, 그런 게 여러 군데. 나중에 집세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하나씩 다 떠나간 거야. 처음에 시작은, 한 몇 달은 자체적으로 전시를 하다가 유아무야 없어졌어. 그때 주간으로 했나? 어느 날로 정했었을 거야. 2015년에 1회 시작했지. (중략) 그때 공방들만 했던 거지 여기 길에서. 그러다가 그게 없어져서 아프리카 건물, 아니 카페 사장하고, 그러면 우리가 플라마켓을 하자.



동편마을 카페거리 축제를 제안한 전숙자

전숙자에 따르면, 동편마을 카페거리 축제는 2015년경 ‘갤러리카페 아프리카’ 인근에 공방이 밀집해 있던 시기에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공방에서 제작한 작품을 가게 앞 매대에 전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임대료 상승 등으로 공방이 점차 줄어들면서 초기의 운영 방식을 이어가기 어려워졌고, 이에 축제는 ‘플라마켓’ 형태로 전환되었다.

전숙자 : 그때는 예산이 아무것도 없었잖아. 이 동네에서 ‘신바람축제’라는 걸 하더라고. 마을 축제를 하는데 거기서 일



2017년 관양 신바람 동편마을 카페거리 축제(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단은 1,500만 원인가 예산이 되는 거 갖다가, 500만 원을 떼어준 거야. 근데 그거 갖고 하려니까
 택도 없잖아. 그래갖고서는 이 동네 식당들 몇 군데서, 이런 축제를 하는데 후원을 해 달라 그랬더니
 너무 해준 거야. 그회 때는 또 상황이 똑같았어. 그때는 구청에서 나와서 관여를 하더라고. 그래도 스텝들
 저녁 식사나 그런 게 제공이 안 되잖아. 식당마다 식권을 후원을 받았어. 2017년 3회 때 해오
 음초등학교에서 그림을 그리게 해서, 전교생이 그린 그림을 길에 전시해서 행사를 한 거야. 1회, 2회는
 여기서 했으니까지는 3회는 저기에서 하자. 거기는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애들 그린 거를 저기다 다 걸어
 놓고.

면담자 : 4회는 2018년, 전시회·소공연·커피 시음 및 판매·플리마켓·전통 놀이·페이스 페인팅·공방
 체험·추억의 봉숭아 물들이기였어요.

전속자 : 이거는 축제위원회에서 기획을 한 거야. 건물주들만 발전위원회야. 발전위원회 사람들이 희비
 견는 거가 있어갖고, 모자른 거 조금 후원도 해주고 그랬거든.

축제는 안양시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운영위원과 관계자들의 식사를 카페거리 내 일부 식당에서 후원하기도 하였다. 2017년 제3회 동편마을 카페거리 축제에서는

200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한 ‘도깨비 그림 그리기 대회’가 함께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처음 동편마을 카페거리 축제가 시작될 때 같은 시기 진행된 ‘관양신바람축제’는 관양1·2동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행사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와 유명 연예인 공연 등이 마련된 지역 축제였다. 당시 관양동 수변공원과 해오름공원에서 열린 이 축제에는 4,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 관양인바람축제는 안양시의 대표적인 주민축제로 자리 잡았다.³

면담자 : 전시하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나요?

전속자 : 그거는 작가 선정을 한 거지. 지역 예술인들, 부스를 와서 하게끔 한 거야. 그래서 파는 거, 플리마켓이지. 빨간 파라솔로 된 부스를 하나씩 레이블 두 개를 줘서. 먹거리가 없었어. 그러니까 22년 하고 23년에는 푸드 트럭을 하나 붙였어. 진흥원에서 도와준 거야. 우리 예산은 500만 원밖에 없었어.

면담자 : 22년하고, 23년엔 음악이 결합이 됐더라고요. ‘살롱 드 안양’, 그다음에 작년에 ‘동편 포레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전속자 : 이거는 진흥원에서 자기네 예산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카페거리 축제하고는 무관한 것들이에요. 진흥원에서 같이 한 거. 진흥원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콜라보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한 거고.

2015년부터 시작된 동편마을 카페거리 축제는 2019년까지 다섯 차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에는 열리지 못하였다. 이후 2022년에 제6회, 2023년에 제7회 축제가 다시 열렸다. 상인들은 동편마을 카페거리 축제가 카페거리를 알리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이경례 : 축제는 10월달 말경에 주로 하고. 그러면 바깥에 썬씨 자람 해가지고 팔려 나오는 분들. 시에서 텐트 짝 이렇게 해가지고 플리마켓도 하고. 외부에서 들어와서도 하고, 여기 계신 분이 나가서 팔기도 하고. 백적지근하고. 예전에는 엄청 크게 가수도 오고. 2~3천만 원인가 보조가 나오나 봐. 시 보조로 여기 사랑하고, 저쪽에 사랑하고, 힘을 합쳐서 한 걸로 알아. 관광지로 지정해 주고, 저 기간, 앞에 카페거리라는 그런 거 세우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면담자 : 축제하면 카페에 더 많이 옵니까?

이경례 : 많이 오죠. 사람들이. 그냥 동네 장터도 열리면 사람들 “뭐 있나?” 싶어 나오듯이. 나오면 플리마켓에서 파는 것들이 살 것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사려도 나오고, 아기 데리고 나와서, 그림

대회도 있고 이러니까. 축제를 계속하는 게 더 좋겠어.

카페거리 축제 기간에는 근처 주민들뿐 아니라 각지에서 모여든 많은 관광객이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고, 잠시 휴식을 위해 카페를 찾는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살롱 드 안양’과 ‘동편 포레스트’라는 음악 공연이 동편마을 카페거리 축제와 결합하여 많은 사람이 방문하였다. 전속자에 따르면, 이 두 음악 공연은 기존 카페거리 축제와는 별개로 진행된 것으로, 2022년의 ‘살롱 드 안양’은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의 ‘동편 포레스트’는 안양산업진흥원의 지역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다. 이러한 축제의 확산을 통해 동편마을 카페거리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속자 : 인연이 돼갖고, 그럼 자기 회사(YPC)를 가 보재. 가 봤더니 진짜 그 흥이 크게 있잖아. 거기서 제안하기를 그럼 자기네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그랬지. “공연은 하고 싶는데 우리 예산이 없습니다. 그럼 동편마을 행사니까는 기업들이 조금 얼마씩 이렇게 해주면 공연, 윈드오케스트라 뭐해서 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뭐 해보죠!” 그래갖고 6개 회사를 다 다닌 거야. 6개 회사가 그래서 2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을 해주는 거야.

면담자 : 그럼 살롱 드 안양과 동편 포레스트 22년, 23년 이 행사는 원래 카페 거리 축제 행사에는 없는 건데, 카페거리 축제가 활성화되면서 좀 확장이 된 거네요. 축제준비위원회에서 이거를 준비한 건 아닌 거죠?

전속자 : 다 같이 한 거야. 같이 한 거야. 어차피 같이 공유해서 한 거야. 같이. 근데 이제 여기서 지네들이 이제는 뭐 어떻게 무대는 예산을 받으니까.

한국계측기기연구센터가 자리한 KRCEMI 건물(안양시 동안구 동편로13번길 79)에는 ‘YPC’라는 프로덕션이 입주해 있는데, 이 프로덕션은 가수 조용필의 소속사로 알려져 있다. 건물 5층에는 ‘그레이스홀’이라는 콘서트홀이 있다. 이 건물주를 비롯한 주변 6개 회사가 동편마을 카페거리 축제에 후원한다. 이처럼 동편마을 카페거리는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기업과 상인, 주민들이 함께 모여 발전을 도모하는 공동체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인정되어 2022년에는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역사·문화·체험·맛



2023년 동편마을 카페거리 축제 길놀이 공연



2023년 동편마을 카페거리 축제 홍보 부스



2023년 동편마을 카페거리 축제 플리마켓 판매부스





2023년 동편마을 카페거리 축제 플리마켓

집·생태·레저 등에서 잠재력이 높은 골목을 발굴하여 생활 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도내 10개 지역 골목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와 발표 내용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안양시 관양동 동편마을 카페거리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공원과 녹지가 어우러져 쾌적한 환경을 이루고 있는 점,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행사를 이끌어온 경험이 풍부한 점, 인덕원역 인접성, 드라마 촬영지로 주목받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혔다.

그 결과 동편마을 카페거리는 이 사업을 통해 최대 8,000만 원의 사업비와 함께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을 받았다. 이를 통해 카페거리 환경을 정비하고 외국어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카페거리 브랜드화 등의 활동이 추진되었다.⁴ 안양 주민들은 동편마을 카페거리를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지역 문화를 체험하고 여가를 즐기는 장소로 여기고 있다. 주민들은 이곳을 ‘안양의 숨겨진 보석’이라 부르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⁵

이처럼 동편마을 카페거리는 안양시와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문화 자원이자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하며, 안양시의 도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4년에는 예산 등 여러 복합적인 사정으로 축제가 열리지 못하였으나, 2025년에는 제8회 동편마을 카페거리 축제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4. 안양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동편마을 카페거리

동편마을 카페거리는 매력적인 공간이지만,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는 대로로 인한 상권 분절 문제이다. 카페거리 앞에는 대로와 넓은 인도, 산책로가 자리하고 있으며, 대로를 중심으로 카페거리가 양쪽에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상권이 두 구역으로 나뉘면서 방문객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행자 전용 육교나 지하도 설치, 또는 횡단보도 추가 설치 등 보행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횡단보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카페거리 곳곳에 고르게 배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객들이 길을 건너려면 도보로 횡단보도까지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불편은 심리적 거리감을 형성해 카페거리를 분리된 공간처럼 느끼게 한다.

이경예 : 저기 식당이고 카페도 많이 있거든요. 저쪽이 규모는 더 커. 도로가 넓으니까. 횡단보도는 좀 너무 그럽고, 예쁘게 장식한 육교 이런 거 하나 딱 만들어 갖고, 철마다 예쁜 거 꽃 달아놓으니까, 동네가 예뻐 보이더라. 이쪽, 저쪽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도로가 넓어요. 4차선이잖아. 그러니까 양쪽 합치



아외 테이블을 갖춘 동편마을의 카페들

면 너무 너무 넓어.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심리적으로 멀다니까. 내가 본죽집 가도 차 끌고 가.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식당도 안 들어오죠. 식당에 들어오면 다 차 갖고 오는데 밥 먹는 시간이 있잖아. 타산이 안 맞지.

이경례 : 밥집이 없다 보니까, 다 판 데서 밥 먹고 여기 차만 마시러 오는 거야. 판 데서 밥 못 먹은 사람들이, 브런치 가게가 그래서 되는 거야. 밥하고 다 해결 한거번에. 건물 주인이 자기 집 밑에 치킨 하는 것보다는 카페를 주는 걸 선호하지. 장사 되든지 말든지 간에. 그러니까 점점 다 카페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 오면 밥집이 없는 거야. 길 건너는 다양하게 그래도 밥집, 회사원들도 저기로 밥 먹으러 많이 가요. 여기는 식당은 별로 없고,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함께하는 것도 분절된 상권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대로를 기점으로 가장 먼저 카페거리로 조성된 카페 마타리가 위치한 구역은 카



동편로13번길 양쪽으로 구역이 확장된 동편마을 카페거리





동편마을 카페거리의 주차장(이정범 제공)

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로 반대편에는 음식점과 미용 업소가 다수 자리하고 있다. 현재 동편마을 카페거리에는 약 150개의 상점이 운영되고 있다.⁶

상인들은 카페거리 축제를 함께 도모하며 동편마을 카페거리만의 고유한 특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로를 중심으로 나뉜 두 상권의 성격이 조금 달라 상인들 또한 분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경례에 따르면, 상인회도 실질적으로 두 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분절은 방문객들에게도 전해질 수밖에 없다.

이경례는 공간적 분절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교 설치를 강조하였다. 지하도나 추가적인 횡단보도 설치가 아닌 육교를 제안한 이유는, 육교에 꽃과 식물을 활용해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면 방문객들이 육교를 건너며 즐거움을 느끼고, 사진 촬영 장소로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과제로는 주차 문제가 있다. 카페거리 앞 대로는 특성상 주차장이 매우 어렵고, 내부 골목은 대부분 협소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건물 내 주차장 또한 주상복합 건물의 특성상 거주자와 건물주, 카페거리 방문객 사이에 이용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경례 : 주차장이 안 돼. 그나마 있는데 누가 한 대 대버리면 끝이고. 저녁때 되면 차 막 얼른얼른 비켜주기 바쁘고. 퇴근해 오는 사람들. 나가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사갖고 운전하면서 가고 싶은데. 이쪽에도 댈 수 없고, 저쪽에도 댈 수 없고, 그냥 가야 되는 거야. 커피 한 잔 사다가 막 죽겠는데 뺑 돌아가. 여기 대고서는 또 들어오면 차 댈 때 있냐 하면 없는 집도 있거든. (중략) 서울처럼 자기 집 앞에 낮에는 사람들 와서 주차할 수 있고. 몇 시 이후에 주인이 되는 이런 것도 지정이 돼서 좀 융통성 있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힘들죠. 공용주차장도 없는데 어디다 대냐고, 다. 2차선에 양쪽에 댈 수 있는 데도 없고.

동편마을 카페거리 인근에는 공영주차장이 몇 곳 마련되어 있으나, 대부분 도보로 20~30분가량 소요되는 거리에 있다. 가장 가까운 '동편마을 지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해도, 카페 마타리가 있는 곳에서는 대로를 건너야 하므로 이동하려면 10분 이상 소요된다. 이로 인해 많은 방문객이 주차 불편을 겪고 있다. 이경례는 보다 가까운 거리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거나, 보도와 산책로가 이중 구조로 넓게 조성된 거리 일부를 주정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동편마을 카페거리는 안양시의 대표적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주민들에게 이곳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 문화를 체험하고 여가를 즐기는 장소이다. 주민들은 카페거리를 산책하며 이웃과 교류하고,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낀다. 동편마을 카페거리는 지역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사랑받는 공간이다. 앞으로도 카페거리는 안양시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더 매력적이고 활기찬 공간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소통하고 문화를 즐기며 여유를 만끽할 수 있으며, 동편마을 카페거리는 안양시의 문화를 상징하는 장소로 남을 것이다.

제보자

이경례 : 1961년생, 여, '카페 마타리' 운영, 2024년 10월 10일 면담.

전숙자 : 1949년생, 여, 동편마을카페거리축제위원회, 2024년 12월 10일 면담.

참고자료

고성애, 「지역특성을 반영한 커피숍 콘셉트 이미지 구축 방안」,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9.

「경기도 대표관광지, 안양 관양동 '동편마을 카페거리' 선정」, 『대한경제』, 2022년 3월 23일.

「경기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2. 각양각색 음식골목 셋, 『기호일보』, 2024년 8월 22일.

「다양한 맛집과 문화체험을 한 번에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경기도뉴스포털』, 2023년 11월 15일.

「'도깨비' 촬영지 동편마을 카페거리, 안양 새 명소로」, 『CBS노컷뉴스』, 2017년 1월 11일.

「변두리 시골마을길의 반전...카페 뷰티거리에 앉으면 '유럽」, 『한국일보』, 2021년 4월 30일.

「수려한 관악산 자락의 안양 동편마을 카페거리 축제 열린다」, 『서울Pn』, 2017년 5월 31일.

안양문화원, 『안양 근대사 산책』, 흥익문화인쇄사, 2017.

안양문화원, 『안양문화원 향토사료 제1집: 안양의 역사와 문화』, 학연문화사, 1998.

안양산업진흥원, 『동편마을』, 안양산업진흥원, 2013.

「안양산업진흥원, '동편, 포레스트 For Rest With Jazz!' 축제 개최」, 『헤럴드경제』, 2023년 10월 27일.

안양시, 『우리 안양 소식지』, 2021년 12월호.

「안양시 동편마을 신바람·카페거리 축제 '성황」, 『브레이크뉴스』, 2017년 6월 7일.

「여행톡톡, 커피 한 잔에 담긴 예술! 당신의 감수성을 채워줄 경기 안양 감성 카페 6선」, 『여행톡톡』, 2024년 8월 9일.

「성재성 안양 동편마을발전위원회장 핫플 '도깨비 카페거리', 이 남자 손길 있었다」, 『인천일보』, 2024년 8월 25일.

「지금 가장 핫한 거리 어디? 동편마을 카페거리」, 『내일신문』, 2017년 3월 30일.

註

- 1 「지금 가장 핫한 거리 어디? 동편마을 카페거리」, 『내일신문』, 2017년 3월 30일.
- 2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39 1층에 위치한 카페.
- 3 「안양시 동편마을 신바람 카페거리 축제 '성황」, 『브레이크뉴스』, 2017년 6월 7일.
- 4 「경기도 대표관광지, 안양 관양동 '동편마을 카페거리' 선정」, 『대한경제』, 2022년 3월 23일; 「다양한 맛집과 문화체험을 한 번에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경기도뉴스포털』, 2023년 11월 15일.
- 5 「커피 한 잔에 담긴 예술!」 당신의 감수성을 채워줄 경기 안양 감성 카페 6선, 『여행톡톡』, 2024.
- 6 「[성재성 안양 동편마을발전위원회장] 핫플 '도깨비 카페거리', 이 남자 손길 있었다」, 『인천일보』, 2024년 8월 25일.

05

관양동에서 이어지는 삶의 기억과 공동체의 미래

제1장 대한전선 안양공장 사택촌의 기억

제2장 안양의 정서와 풍경을 빚어낸 포도 이야기

제3장 아이들의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여는 관양동 해밀지역아동센터



제1장

대한전선 안양공장 사택촌의 기억

권희정 미혼모 아카이빙과 권익옹호연구소 소장



1. 금산에서 관양동까지 : 대한전선 사원 가족이 되다

김숙자는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4년 충청남도 금산에서 4남 4녀 중 맏딸로 태어났다. 논이 많고 인삼 농사를 짓는 집이어서 대부분이 배고픈 시기였지만 먹을 것이 귀하지 않았다. 더구나 외아들이었던 아버지의 첫아기로 태어나 과잉보호를 받으며 귀하게 자랐다.

김숙자 : 시골에서 농사를 조금 크다면 크게 지었지. 시골 일부자. 논이 좀 많았고 인삼 농사를 지었어요. 배고픈 거 몰랐어요. 보리밥은 안 먹어봤고, 일은 많이 안 했어요. (전쟁 끝나고) 시골에서 밥 못 먹는 집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제 입이 좀 얇다고(짹다고) 하얀 쌀밥만 해주셨어요.

게다가 귀한 첫아기라서 딸이라는 차별도 없었고 남동생이 있어도 제일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다. 특히 함께 살던 조부모님은 김숙자를 끔찍하게 사랑해 주셨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가 있는 금산읍으로 나가 자취 생활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너무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란 김숙자에게 자취 생활은 고역이었다. 게다가 혼자 있는 것도 너무 무서워 중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부모님이 계신 시골로 왔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어머니가 중학교라도 마치라며 당시 서울 광장동에 살고 있던 이모 집으로 보냈다.

하지만 16살이란 나이에 다시 시작한 중학교 생활은 크게 흥미가 가지 않았다. 이후 시골에서 줄줄이 동생들이 서울로 올라오자 부모님은 방을 따로 얻어주어 김숙자는 학교를 그만두고 동생들 뒷바라지를 해주며 지냈다. 집 가까이 있던 옷 만드는 공장에도



대한전선 안양공장 설립 초기 모습(1970년대, 이정범 제공)

잠시 나갔지만 귀하게 크다 보니 남이 함부로 하는 것을 참지 못해 오래 다니지 못하였다. 대신 연애를 일찍 시작하였다.

김숙자 : 남편은 같은 고향 사람인데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왜 고등학교 입학시험 보고 좀 공간(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설에 만난 것 같아. 고향 내려가서. 나도 17살. 남편도 17살. 한 동네니까.

1971년 시작한 연애는 1975년 첫딸의 출산과 결혼으로 이어졌다. 21살에 결혼했지만,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던 남편은 결혼 후 입대하였다. 남편을 군대에 보낸 후 김숙자는 딸을 데리고 시택으로 들어가 남편이 제대할 때까지 금산에서 지냈다. 3년 뒤 제대한 남편은 대한전선 안양공장 생산직으로 취업을 하게 된다. 1979년 26살의 김숙자와 동갑내기 남편과 다섯 된 딸은 고향 금산을 떠나 안양시 관양동 대한전선 사택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1981년 관양동 대한전선 사택촌 일대(국토지리정보원 제공)

2. 관양동 대한전선 사택촌에서 보낸 신희 시절

대한전선은 대한민국 최초의 전선회사로 1941년 주식회사 조선전선으로 시작한다. 1955년 주식회사 대한전선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날에 이른다.¹ 김숙자는 1975년 대한전선 안양공장이 준공되던 해 첫 딸을 낳았고, 1979년 대한전선 안양공장에 입사한 남편이 2002년 명예퇴직할 때까지 30년을 넘게 대한전선 사원 가족으로 지냈다.

대한전선과 대한전선 사택은 학의천을 사이에 두고 위치하였다. 대한전선은 학의천 남쪽으로 현재 수도권 지하철 4호선 평촌역 근처이며,² 사택은 학의천 북쪽으로 현재 관양시장 자리에 있었다. 사택에서 공장까지는 족히 1km가 넘는 거리였지만, 김숙자의 남편은 학의천을 건너 걸어서 출퇴근하였다. 1979년 관양동 사택에 막 도착했을 때는 대한전선만 덩그러니 있었고 주위는 거의 다 논이었다. 대한전선 사택이 있던 동네는, 농사짓는 토박이 몇 집을 빼고 대부분이 대한전선 직원 가정이었다.

1) 회색 벽돌에 빨간 기와지붕 사택들, 멀리서 보면 서울 같아 보이던 곳

김숙자가 기억하기에, 대한전선 사택촌은 골목이 두 개가 있었고 골목을 따라 18~20채 정도의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김숙자 : 이렇게 집이 낱알이(나란히) 있었어요. 골목이 두 개 있고, 이쪽에는 하나, 둘 하여튼 두 개, 두 개씩 여덟 개인지. 하여튼 열여덟 개인지 스무 개인지 그렇게 있었어요.

몇 채인지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모두 단층 기와집이었다. 주인집은 방 두 칸에 마루와 부엌이 있고, 문간방은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구조였다. 수도 시설은 부엌에도 있었고, 마당에도 있었다.

사택은 대한전선을 몇 년 다닌 근속자들에게 싸게 분양한 것이었다. 안양공장은 지어진 지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시흥공장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으므로 몇 년을 근속해야 분양 자격이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당시 사택 분양가가 500만 원대였고, 처음 사택 문간방 전세를 1년 계약으로 100만 원에 얻은 것은 기억하고 있다. 몇 평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사택은 크지 않았고 한 24평쯤 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논만 있던 곳에 빨간 기와집들이 수십 채가 있으니 ‘대한전선 사택촌’이라는 간판이 따로 없어도 누가 봐도 대한전선 사택임은 쉽게 알 수 있었다. 더구나 말끔한 빨간 기와집이 모여 있어 멀리서 지나다 보면 사택이 있던 동네는 서울처럼 보였다.

김숙자 :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그쪽(사택 쪽)이 좀 서울처럼 보이는 거야. (웃음)

어렸을 때 유일하게 빨간 기와집으로 개량한 집에 살아 김숙자는 시골 동네에서 ‘빨간 기와집 딸’이라고 불렸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빨간 기와집 새댁이 되었다. 그런데 정작 깨끗하고 서울 같아 보이는 사택에 살게 된 것보다 더 기뻐던 것은, 군대 간 남편 없이 시댁 식구들과 살았던 3년 생활을 청산하고 단출하게 남편과 딸과 신혼살림을 시작한 것이었다.



대한전선 사택촌 골목에서 찍은 김숙자의 딸 유치원 시절 사진(1981년, 김숙자 제공)



대한전선 사택촌 주택 인미당에서 자전거를 타는 김숙자와 아들 (1983년, 김숙자 제공)

김숙자 : 제가 기분이 좋은 건, 시집에 살 때 열네 식구가 살았어요. 남편 군대가 있을 동안에. 근데 거기서 이제 살림을 나오니까 해방된 거 같잖아. (웃음)

2) 소꿉장난하는 것 같던 사택 문간방 생활

김숙자가 사택에서 생활한 것은 불과 4년 정도이다. 주인집은 주로 안채에서 살았고, 문간방은 모두 남에게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였다. 그곳에서 김숙자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다.

김숙자 : 소꿉장난하는 것 같았어요. 살림 나왔을 때. 딸 하나 그냥 달랑 안고 세 명이 왔는데, 여기 오니까 뭐 할 일도 없고, 세상에 내 마음대로 그냥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문간방 새댁’으로 불리던 김숙자는 동네에 일할 곳이 아무 데도 없어 부업 같은 것도 할 기회가 없었다.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이 많아 남의 밭 풀을 뽑아주면 그분들은 고맙다고 채소를 나눠주었다. 주인집도 친절해서 전세 설움 같은 건 몰랐다.

김숙자 : 너무 좋았어요. 주인집하고도 너무 좋았어요! 처음 와서 보니까 남들은 막 김장한다고 그러고, 저는 그냥 그야말로 국그릇 밥그릇 그냥 두 개씩 갖고 와서 아무것도 준비 안 되었는데. 주인이 사 놓



김숙자 자녀의 어린 시절(1982년, 김숙자 제공)



관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대한전선 사택촌 아이들(1982년, 김숙자 제공)

연탄을 우리 방 있는 쪽으로 옮겨주더라고요. 백 장을, 월급 타서 주라고. 그래서 그게 평생 안 잊혀요.

그래서 이제 월급 타서 갚았어요.

그런데 1년이 조금 지나자 주인이 집을 팔았다. 다시 사택으로 옮기려 문간방을 찾았으나 나온 방이 없었다.

김숙자 : 여기(사택)는 거의 대한전선 사람들이라 잘 안 옮겨요. 그냥 쪽 사니까. 특별히 방세를 막 올리거나 하지 않으면.

1980년 당시 마침 주변에 이층집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었고, 김숙자는 사택 바로 근처 이층집 1층에 전세를 얻었다. 똑같이 방 하나에 부엌 하나 있는 문간방이었지만, 그 사이 전세보증금이 올라 130만 원을 주고 계약하였다. 이사한 해 아들이 태어났다. 네 명의 식구가 한 방에서 2년을 살았다. 그리고 1982년 딸이 7살, 아들이 2살 무렵 다시 사택 문간방을 얻었다. 이때도 전세보증금이 올라 150만 원에 계약하였다. 김숙자가 이렇게 오래전의 전세보증금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어렵게 살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새로 이사한 곳도 역시 방 하나에 부엌 하나였지만, 이번 방은 지난번 살던 곳보다 조금 컸다. 여기서 딸이 10살, 아들이 5살이 될 때까지 3년을 살았다.

1985년에는 방 두 개, 부엌에 마루까지 쓸 수 있는 사택 근처의 단독주택 안채를 전세로 얻었다. 이곳도 사택 주변이라 김숙자에게는 거기가 거기였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관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어린 아들과 놀아주는 김숙자(1982년, 김숙자 제공)



관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어린 아들과 놀아주는 김숙자(1982년, 김숙자 제공)

김숙자의 사택 생활은 1979년부터 1985년 사이 4년간이었다. 이 시기는 김숙자에게 제대한 남편과 올망졸망한 자식을 낳고 키우던 거의 신혼 같은 생활로 기억된다. 더구나 방 하나에 네 식구가 살던 때라 시골에 계신 친정 부모님이나 시댁 어른도 방문하지 못했고, 서울에서 공부나 취업하려는 동생이나 일가친척들을 돌봐 주지 않아도 되었다. 대한전선 사택에서 살았던 그 시기가 김숙자의 인생에서 소꿉장난처럼 재미있고 몸이 편해서 좋았던 시절이었다.

김숙자 : 내 몸은 사택 살 때가 편했죠. 아무도 안 오니까. (웃음) 낮잠 실컷 자고, 오후에 저녁거리 좀 준비해놓고 살랑살랑 아빠 올 시간 되면 마중 나가서 같이 들어오고 딸 데리고 나가서.

3) 남편은 출근하고, 아내는 집안일 하고 아이들과 이웃과 산으로 들로

당시 대한전선 사택은 관양 1동에 있었다. 김숙자 기억에 의하면, 주택 한 채에 여덟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다.

김숙자 : 지금은 관양동이 통·반이 굉장히 많지만, 그때는 1동·2동밖에 없었어요. (중략) 주인집에 네 식구, 문간방에 많아야 서너 식구, 모두 여덟 명 정도가 살았던 거 같아요.

골목 두 개를 따라 지어진 약 스무 채의 사택에 여덟 식구가 산다면 숫자로는 모두 160명이다. 그렇다면 꽤 동네가 복잡했을 법도 한데 김숙자는 그렇게 복잡거리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김숙자 : 애들이 울망졸망해가지고 갓난아기거나, 큰 애들은 밥 먹으면 학교 가고. 남편은 출근하고. 애들이 학교에서 오면 오후에 좀 시끌시끌했지. 옛날에는 차도 별로 안 다녔잖아요.

술주정하거나 싸움질하는 시끄러운 소리도 못 들었다. 김숙자 기억에 사택에 살던 기간 동안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던 집은 없었다. 사택을 나와 근처 단독주택 안채로 전세로 들어가던 1980년대 중반 무렵에 텔레비전을 처음 구매한 것으로 기억한다. 전화는 주로 주인집에만 있었고 전화를 걸 때는 동네 공중전화를 이용하고, 걸려 오는 전화는 주인이 바꿔 주어 통화를 할 수 있었다.

김숙자 : 사택 살 때는 레레비를 안 봤어요. 거기서 이사를 하면서 레레비를 샀네. 그러니까 81년에 사택으로 다시 전세로 가서 한 3년을 살고 나올 때 84년도인가 85년도인가 그때쯤 레레비를 산 것 같아.

출근 시간이 되면, 주인집과 문간방 남편들이 대한전선 회사 마크가 찍힌 회색 점퍼를 입고 대문을 나와 골목을 따라 걷다가 학의친을 건너 출근하였다. 퇴근 시간이 되면, 같은 모습으로 출근했던 길을 따라 퇴근하였다. 똑같은 점퍼를 입고 있어 멀리서 보아도 대한전선 직원임을 알 수 있었다.

남편들이 출근하면 아내들은 집안을 치우고 함께 개울가에 빨래하러 가거나 산으로 들로 나물을 캐러 다녔다. 주인집은 대개 나이가 있는 분들이라 주로 같은 또래의 아기들을 키우는 문간방 엄마들과 어울렸다.

김숙자 : 주변에 공장도 없고 그러니까 부업 할 것도 없지. 봄 되면 애들 데리고 막 들로 나물도 캐러 다니고, 애들은 땅을 파헤치고 그냥 재밌었어요. 거기 지금 현대아파트³ 자리. 거기로 많이 갔어요. 나물 캐러. 그땐 집도 많지 않으니 사택에서 보면 횡하니 그쪽에 사람이 있는 게 다 보여요. 누구 집에 가서 없으면 거기 보면 있죠. 하여간 거기 가서 맨날 놀았죠. 고만고만한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하고 개울에 가서 빨래도 하고.

사택에 살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다. 물이 넘쳐 수해가 나거나 화재가 발생한 적도 없었다. 집은 신축주택이어서 수리할 일도 별로 없었고, 도둑이 들어 물건을 훔쳐 가는 일도 없었다. 다만, 부모가 조금만 뒷받침을 해주면 바깥에 안 살고 안채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조금 있었다. 부잣집이라도 '시골 부자'는 땅 부자지 현금 부자는 아니었기에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다.

주인집은 대부분 회사의 상사였지만, 요즘 말하는 갑질도 없었다. 하지만 가까운 사택 문간방에 딸의 학교 담임 선생님이 살고 있어서 조금 신경이 쓰였던 기억이 있다.

김숙자 : 딸 학교 담임이,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담임이 사택 골목 윗집 문간방에 사는 거야. 사택이라도 세는 아무한테나 줄 수 있으니까. 근데 딸 선생님이니까 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한 골목에 있는 집 대문에서 이렇게 나와서 학교 가니까 마주치게 되죠.

그래도 딸을 좀 잘 봐달라고 김치 담그면 선생님에게 조금씩 갖다주었다. 주면서도 사람 입맛이 달라 신경이 많이 쓰였다. 다행히 딸은 성격도 좋고 공부를 잘해 선생님께 이쁨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하였다.

1980년대 초반 대한전선 안양공장 일대(이정범 제공)





대한전선 사택촌 근처 마분의 주택가에서 김숙자와 아들(1984년, 김숙자 제공)

4) 아프면 영양제를 놔주던 이웃사촌 쌍둥이 엄마

사택에 와서 처음 만난 이웃이 김숙자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이웃이다. 김숙자보다 두 살 많았지만, 친구처럼 지냈고 지금도 서로 연락하며 지낸다. 간호사 출신이어서, 허약한 김숙자가 아플 때는 약국에서 영양제를 사다가 주사를 놓아주었다.

김숙자 : 제일 기억에 남는 이웃은 나보다 두 살 더 먹었는데, 여기(사택) 와서 처음 만난 사람이예요. 간호사 출신이었는데 제가 좀 몸이 약했어요. 지금 이렇게 좀 뚱뚱하게 살도 찼고 하지만. 몸이 약하다 보니, 또 혈압이 저혈압이니까 제가 잘 까부러져서 이렇게 있으면, 영양제를 사 갖고 와서 찔러 줬어요.

쌍둥이 엄마는 김숙자에게 영양제를 놔주고, 김숙자는 친정엄마가 시골에서 넉넉하게 보내주는 깨나 고춧가루 같은 것을 나눠주었다. 이웃 중에서 함께 식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도 쌍둥이 엄마이다. 같은 직장에 다니던 남편들도 서로 친하게 지냈다. 하지만 사는 형편은 김숙자보다 좋은 상황이 아니라 전세를 얻지 못하고 문간방 월세를 살았다. 게다가 아기를 출산했는데 쌍둥이여서 두 아이를 한꺼번에 키우느라 더 힘들게 생활하였다.

김숙자 : 그분은 저보다 더 힘들게 살았어요. 전세를 못 오고 시골서 월세로 왔어. 월세로 왔는데 딸을 쌍둥이로 낳았어.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지. 그때 당시에는 이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월급은 다 비슷비슷했는데.

쌍둥이 엄마는 사택에서 살지는 않았지만, 사택과 일반 집을 구별 짓는 경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어서 거기가 거기 같은 한 동네 느낌이였다.

김숙자 : 그분(쌍둥이 엄마)은 사택에 안 살고. 사택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았는데, 그냥 우리가 대한전선 가족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동네에서 빙빙빙 돌았어요. 이사를 다녀도 멀리 못 가고. 멀리 가면 자전거나 차를 타야 되잖아. 그냥 사택, 일반 집 구별 없이 사정에 맞으면 가서 살았지.

3. 사택과 일반 주택 경계 없이 어우러진 관양동 생활

김숙자는 쌍둥이 엄마 외에도 사택 주변에서 문방구를 하던 할머니와도 친하게 지냈다. 쌍둥이 엄마도 할머니와 친하게 지내다 할머니를 수양 엄마로 삼았다.

김숙자 : 며느리는 밀 시키고 애기(손자) 데리고 나와서 노시는 거지. 그러면 우리 아드하고 그 애기하고 동갑이다 보니까 우리 아기도 이빠하고, 저도 그 할머니를 좋아했어요. (중략) 쌍둥이 엄마는 할머니를 수양 엄마 삼았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는 엄마, 엄마 하며 친하게 지냈어.

특별한 도움을 받고 준 것은 없었지만, 할머니와 쌍둥이 엄마 그리고 김숙자는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뭐 하다 부족하면 “없는데 좀 갖고 올라와.” 이러면서 가깝게 지냈다. 그러다 연로하신 할머니는 사택 주변 문방구 집에서 돌보던 손자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세상을 떠나셨다.

1) 안채 생활과 함께 시작된 일가친척 뒷바라지

1985년 무렵부터 김숙자는 비록 전세이지만 원하던 안채 생활을 시작하였다. 일반주택이었지만 여전히 사택 주변이었다. 딸은 10살, 아들은 5살이 되었을 때이다. 방도 두 개가 되고 마루도 있어 공간은 넓어졌지만, 이곳에서 4년을 거주하는 동안, 식구 수가 늘어나고 덩달아서 김숙자의 일도 늘었다.

김숙자 : 저희가 시댁도 8남매, 친정도 8남매. 근데 제가 친정에서 많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제 손을 거쳐 가는 거예요. 시댁에서는 제가 셋째 며느리인데 말이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동생 하나 올려보내면 데리고 있다가 취직시켜서 내보내고. 이때부러는 우리 네 식구끼리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도 와서 계시고, 동생도 와서 학교를 여기서 내가 데리고 있으며 보내고. 또 남동생 하나도 데리고 있으면서 대한전선 취직시키고. 하여튼 우리끼리 산 적이 없어요. 이제 그 이후로는.

소꿉놀이하듯 살림하며 산으로 들로 나물 캐러 다니면서 여유롭게 지내던 시절이 막을 내렸다. 식구들이 많아져 방이 부족할 땐 마루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그마저도 공간이 부족하면, 주변의 쪽방을 얻어 잠만 자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대식구 밥을 해 먹이고 빨래를 하면서 몸은 힘들었지만, 사람 좋아하는 김숙자는 만말로서, 며느리로서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큰 불만은 없었다고 한다.



관양동 수촌마을에서 아이들과 노는 김숙자의 자녀 (1987년, 김숙자 제공)

김숙자 : 내 동생 왔다 가면 또 시동생이 왔다 가고. 근데 몸은 고단해도 그냥 식구들이 싫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함께 지내는 식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김장은 김숙자가 제일 많이 하였다. 서로 품앗이하며 김장을 했기 때문에

함께 하는 이웃에게는 좀 미안하였다. 한 번은 김숙자 집에서 김장하는 날 비가 내린 적이 있다. 그 많은 배추를 빗속에서 함께 다듬고 속을 넣어서 김장독에 담았다. 김장이 끝나고 친정엄마가 “아휴. 경숙⁴이네 김장하고 나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라고 했던 말은 수십 년이 흘렀어도 생생하다.

김숙자 : 친정이나 시댁 쪽에서 저희 집에 많이 오니까. 솔직히 돈은 많이 없었으니까 막 쓸 형편은 안 되고. 돼지고기 한 근 끊어서 김치찌개 딱딱 끊이면 잘 먹었으니까. 시동생이 취직해서 기숙사로 들여보낼 때는 김치 한 통 쥐서 보내야 하고 그러니까. 김장해 본 결과로는 내가 제일 많이 담는 것 같더라고요.

2) 회사가 어려웠던 시절, 월급은 안 나오고 테레비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대식구를 건사하던 삶이지만, 함께 살던 여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성반도체에 취업해서 ‘때가 되면’ 조카들을 살피고 먹을 것도 사다가 냉장고를 채워주기도 하면서 김숙자를 많이 도왔다. 부업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만 살았던 김숙자는 대한전선 생산직으로 근무한 남편의 월급으로 쪼들리며 살지는 않았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알뜰하게 살려고 노력하였다.

김숙자 : (돈 쓰고 노는 그런 유원지는) 안 가보고, 그냥 놀러 간다고 하면 가족들하고 가까운 청계사 뒷산이나, 집에서 음식을 해 갖고 가서 해 먹거나 그렇게, 하여튼 알뜰하게 살았어요. 2년에 한 번 이사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그렇게 가고.

딸이 공부를 잘해서 학원을 보내거나 과외를 하지도 않았다. 혼자 공부해도 1등만 하던 딸이 남동생 공부도 봐주어서 사교육비도 크게 들지 않았다. 그런데 한 번, 대한전선 경영이 어려워져서 월급이 잘 나오지 않고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팔아야 했던 적이 있었다.



대한전선이 1980년대에 생산한 선풍기
(<https://www.soriaudio.com>)

김숙자 : 옛날에 이제 회사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월급이 제때 안 나와가지고, 선풍기를 두 대씩 팔아라. 선풍기를 월급 대신 주고, 월급은 또 미우고,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다음에는 또 냉장고들, 텔레비전인지, 냉장고인지를 팔으라고 그랬어요.

월급은 50%만 나오고, 어쨌든 먹고 살만큼은 조금씩은 주고 대신 물건을 팔라고 한 것이 3~4년 지속되었다. 김숙자는 친구한테 선풍기를 강매하기도 했지만, 물건을 못 파는 바람에 결국 집에 14인치 텔레비전을 들이기도 하였다. 설립 이후 성장 가도를 달리던 대한전선이 1983년 삼성전자와 경쟁에서 밀리며 가전제품과 방산 부문을 대우전자로 넘기던 무렵의 일이었다.

김숙자는 대한전선 직원들의 데모에 함께 참여하기도 함께 하였다.

김숙자 : 하여튼 대한전선 가족들이 막 저기 큰길 차도 못 다니게 차단하고 데모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차 도로가 이렇게 넓지는 않았으니까.

직원 가족들은 데모에 앞장서지는 않고 대열에 앉아 있었다.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의 신문 지면에는, 대한전선 노동자들의 임금과 상여금 인상을 요구하는 철야농성과,⁵ 파업⁶ 등이 다수 보도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의 일로 짐작된다.

그러다 어느 해가 되자 매년 하던 대한전선 가족체육대회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김숙자 기억에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는 하지 않았던 것 같다. 딸이 고등학생 때였다면 1990년 이후이다.

김숙자 : 그전에는 안양종합운동장 빌려서 5월달에 가족들 운동회 했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굉장했어요. 가면은 도시락·음료수·물 막 이런 거 챙겨주고. 가족들 다 오라고. 그래서 가면 대한전선 안양팀, 시흥팀, 아 많더라고요. 대한철강팀 해가지고. 막 군데군데 깃발 꽂고. 제가 우리 애들 데리고 거기를 몇 년을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대한전선은 성장 과정에서 굴곡과 부침이 많았다. 2001년 부채비율 254%에 달했으며, 2002년 10여 개의 기업에 투자하며 몸집을 키웠지만, 금융시장 경색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⁷ 결국 2002년에 회사는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이때 김숙자의 남편은 명예퇴직을 하였다.

4. 사람들은 떠나고 사택은 관양시장으로 변하고

1985년 처음으로 안채 살림을 하며 대식구를 건사하던 김숙자는 4년 후인 1989년 아리랑아파트⁸로 이사하였다. 집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대한전선 사택 근처라서 생활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남편이 퇴직하기 전인 2001년까지 12년을 살았다. 당시 아파트라고는 과거 김숙자가 나물을 캐러 다녔던 자리에 1985년에 준공된 현대아파트뿐이었다. 아리랑아파트는 20평형이었는데, 방이 두 개였고 거실이 컸다. 5층 아파트에 5층이라 옥상까지 쓸 수 있어 좋았다. 엘리베이터는 없었지만, 김숙자는 걷는 것을 좋아해서 5층까지 오르내리기도 힘들지 않았다.

사택은 그대로 있었지만 1980년대 사택 주변으로 집들이 많아졌고, 점차 미니 빌라나 다가구 주택이 늘었다. 도로변에 있던 사택들은 1층은 상가가 되고 2층은 살림집으로 개조되다가 그 자리에 관양시장이 들어섰다.

김숙자 : 사택 수는 더 늘지도 줄지도 않고 있는데, 도로가에 있는 집들은 변형되더라고요. 상가 건물로. 1층은 가게하고 2층은 살림 사는 식으로 바뀐 집도 있고, 새로 지은 집도 있고. 그 관양중학교 담벼락에 딱 붙여 상가를 내기도 하고 그러더니 시장이 되더라고요.

사택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씩 사택을 떠났다. 함께 어울리던 이웃들도 다 흩어졌다.

지방으로 이전한 대한전선 안양공장 터(2021년, 이정범 제공)





관양시장으로 변한 사택촌 골목(이정범 제공)

김숙자 : 한 2000년도 되니까 누구네는 죽었네, 누구네는 이사 갔네. 그러면서 다 떠나고 없더라고. 이제 사택 살던 사람 다 없어진 거 같아요. 죽었든지, 멀리 이사 갔든지.

1970년대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들었던 대한전선에 취업한 김숙자의 남편은 2002년 명예퇴직을 한다. 23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출근 시간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던 남편이었다. 다른 문제로 아내인 김숙자의 속을 썩인 적도 없었다. 대한전선 가족으로 지낸 지난 세월을 회상하면 김숙자는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김숙자 : 큰돈은 못 벌었는데 자식들 키운 거. 그냥 그래도 남 부럽지 않게 키워봤으니까. 그래도 잘 된 거죠.

2002년 퇴직 후 김숙자와 남편은 건강원을 차렸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던 김숙자와 월급생활자로 살던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건강원 사업을 하며 아리랑아파트 5층 집은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다. 할 수 없이 12년을 살던 아리랑아파트를 떠나 바로 근처에 있는 3층짜리 빌라 1층으로 집을 옮긴다. 새로 이사한 집은 지하 창고까지 쓸 수 있어 물건 관리하기가 좋다는 이점도 있었다. 10년 정도 건강원을 하고 2년 전에 사업을 접었다. 이제는 온전히 쉬며 남편과 함께 관양동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이제 학의천 너머에는 대한전선 안양 사옥(대한스마트타워)이 있고, 골목을 내려가면 사택이 있던 자리에 들어선 관양시장이 있으며, 나물 캐러 다니던 자리에 들어선 현대아

파트가 있다. 예전에 살던 사택은 현재 썸밥집으로 바뀌었다.⁹ 1979년 26살에 관양동으로 온 들어온 김숙자는 대한전선을 마주 보고 난 두 개의 골목에 나란히 지어진 빨간 기와지붕의 사택이 있던 동네에서 반경 1km를 벗어나지 않고 지난 4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동네를 떠날 계획은 없다. 김숙자의 두 자녀 역시 부모님이 이곳을 떠나지 않는 한, 자신들이 성장했던 동네를 계속 찾을 것이다.

김숙자 : 다른 데 가서 못 살 것 같아. 시장도 가깝고, 관양시장. 학교도 가깝고, 버스 라는 길도 가깝고, 공기도 좋고 그냥 여기가 좋아요.

김숙자의 삶은 단순히 한 개인의 기억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형성되었다가 사라진 기업 사택 공동체의 역사이자, 한 세대가 살아낸 생활사이다. 대한전선 사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곳에서 함께 웃고 울던 사람들의 기억과 정서는 여전히 이웃과 마을의 이야기에 남아 있다. 그에게 관양동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가족을 일구고, 이웃과 함께하며, 시대의 변화를 온몸으로 겪어 낸 삶의 무대였다.

오늘날 사택의 흔적은 시장과 상가,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 있다. 김숙자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이 곧 지역의 역사이며, 생활의 기억이 공동체의 문화유산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참고자료

대한전선(<https://www.taihan.com/>).

안양시청(<https://www.anyang.go.kr/>).

註

- 1 이하 대한전선 역사는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
- 2 현재 지번은 관양동 1746-2번지인데, 과거 기사에는 당시 지번이 관양동 785번지로 기록되어 있다.
- 3 관양동 1396-1.
- 4 김숙자의 딸 이름.
- 5 「경인지역 노사분규 확산」, 『경향신문』 1987년 8월 15일.
- 6 「대한전선 3일째 파업」, 『한겨레』, 1989년 5월 31일.
- 7 「대한전선, 세계 1위업체 손잡고 시장판도 바꾼다」, 『한국경제』, 2009년 2월 13일.
- 8 1987년 준공. 관양동 1414-2.
- 9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328번길 15-1.

제2장

안양의 정서와 풍경을 빚어낸 포도 이야기

정수빈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박사수료



1. 전국에서 알아주던 ‘안양포도’

안양에서 생산되는 포도가 ‘안양포도’라 하여 전국적인 명성을 얻던 시기가 있었다. 안양포도는 씨알이 굵고 당도가 높아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많아서 그 수확 시기가 신문 에 기사로 실릴 정도였다.¹ 안양의 포도 산출량이 1967년 7월 14일 『매일경제』 기사²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1960~1970년대 안양유원 지 주변과 안양 지역 곳곳에 포도밭이 분포하였다. 안양에서 자란 사람들은 “시골에 가면 쉽게 논밭을 볼 수 있듯이, 당시 안양에서는 동네마다 포도밭을 볼 수 있었다”라고 기억하고 있다. 포도 서리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안양 사람들에게 포도는 지역의 특산물이자 추억 속 한 부분을 차지하는 소중한 작물이다.

안양에서 포도 농사가 시작된 것은 일제강점기였다. 1930년대 중반, 안양 지역의 토양과 기후가 포도 재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일본인 정착민들이 일본에서 포도 묘목을 들여오면서 포도 재배가 시작되었다.³ 당시 일본인들은 참외·수박·배·복숭아 등 다양한 과일 농사를 지었는데, 오키이(沖井)·후지다(藤田)·야스에(安江) 등이 안양에서 처음으로 포도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키이는 일본에서 가져온 묘목을 안양2동 일대에 심었고, 후지다는 안양역과 안양천 사이에 과수원을 조성하였고, 야스에의 농장은 지금의 안양중앙시장 일대에 있었다고 전한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정착민들이 시작하였던 포도 농사는 해방 후 안양 사람들에 의해 유지되었다. 안양 주민들은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근교 농업을 발전시켰으며, 당시 쌀농사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포도를 많이 재배하였다. 대도시 근교 지역인 안양에서는 포도와 같은 고부가가치 작물이 쌀농사보다 유리한 면이 많았다. 근교에서 생

산된 포도는 시장까지의 운송 거리가 짧아 신선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었던 반면, 쌀은 대량 유통이 필요하고 운송비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지 않아 근교 농업의 경제적 장점에서 다소 불리하였다.

안양의 포도는 특유의 높은 당도로 유명한데, 이는 안양의 생태지리적 조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안양은 분지로서 관악산·수리산·삼성산·청계산 등의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데, 산이 거친 바람을 막아 주고 일교차를 크게 하여 과실이 달아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안양에 있었던 대기업에서 배출되는 인분(人糞)으로 농사를 지었던 점도 당도 높은 포도의 비결로 꼽았다. 여기에 더해 토양 조건 또한 포도 재배에 최적인 사질토였으므로, 얇은 껍질과 높은 당도를 지닌 안양포도가 생산될 수 있었다. 안양의 포도는 부친의 복숭아, 수원의 딸기와 함께 1970년대 ‘경기삼미(京機三味)’로 꼽히며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명성을 자랑하였다.⁴

안양의 포도가 명물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안양유원지(현 안양예술공원)⁵와의 관계도 주목할 만하다. 안양시는 2000년대 들어 안양유원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였으며, 2005년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유원지를 야외 박물관으로 조성하고 명칭을 ‘안양예술공원’으로 변경하였다. 안양유원지는 1960~1970년대에 많은 방문객이 찾던 인기 나들이 장소였다. 수영장이 드물었던 당시, 관악산과 삼성산에서 흘러내리는 삼성천의 맑은 물을 이용해 수영장이 조성되었고, 이곳을 찾는 인파로 인해 임시 열차가 편성될 정도였다고 한다.⁶





동네 포도밭에서 찍은 사진(유춘식 제공)

당시 포도밭은 안양의 아름다운 경관을 완성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많은 이들이 포도 수확 시기에 맞추어 안양을 방문하곤 했다. 유원지 주변에는 포도밭과 포도를 판매하는 노점이 줄지어 있었고, 방문객들은 신선한 포도를 즉석에서 맛보고 구매할 수 있었다. 포도는 안양유원지를 찾는 이들에게 주요한 매력 요소로 자리 잡았다. 안양유원지를 다녀간 서울 사람들이 “안양 포도가 맛있다”라는 입소문을 퍼뜨리면서, 1960~1970년대 안양에서 생산되는 포도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어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60년대 안양 지역의 포도밭 규모는 약 27만 평에 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시작된 안양 지역의 도시화로 인해 포도밭이 주택지와 공장 부지로 개발되면서 재배 면적이 감소하기 시



안양의 주요 포도밭 분포
(『조선일보』 1997년 3월 9일)

〈표 1〉 안양시 포도밭 면적 및 포도 생산량 재배 면적 현황

연도	면적(ha)	kg/10a당	생산량(t)	연도	면적(ha)	kg/10a당	생산량(t)
1973	20.7	1,150	22.01	2002	11.4	2,030	125.0
1982	7.3	846	61.4	2003	11.4	2,000	129.0
1983	6.5	839	55.0	2004	11.4	1,750	149.0
1984	4.2	840	35.0	2005	11.4	2,100	172.0
1985	3.4	890	30	2006	11.4	2,100	172.0
1986	1.8	880	15.8	2007	11.4	2,100	172.0
1987	2.3	791	18.2	2008	6.9	2,100	144.0
1988	3	800	24	2009	6.9	1,885	125.0
1989	1.3	910	12	2010	5.2	1,333	92.0
1990	1	910	9	2011	4.2	1,643	69.0
1991	1.2	890	10.7	2012	4.0	1,620	61.0
1992	1.2	850	10	2013	4.0	1,700	68.0
1993	0.8	865	6.9	2014	4.0	1,650	66.0
1994	0.8	940	7.3	2015	4.0	1,650	66.0
1995	0.5	925	4.6	2016	3.8	1,500	57.0
1996	4.3	900	3.0	2017	3.8	1,552	59.0
1997	4.0	70	27.9	2018	3.8	1,552	59.0
1998	4.0	1,400	60.0	2019	2.8	1,428	40.0
1999	3.8	1,550	77.0	2020	2.8	1,428	40.0
2000	8.1	1,700	98.5	2021	2.8	1,428	40.0
2001	10.1	1,800	110.0	2022	2.4	1,417	34.0

출처 : 안양시 통계자료(<https://www.anyang.go.kr/>)

작하였다. 1973년의 안양시 승격과 1976년의 경수산업도로가 개통은 안양 지역의 공업화를 빠르게 진행시켰다. 서울에서 밀려나는 각종 제조업 공장들이 안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였고 농경지는 빠르게 사라져 갔다.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1973년에는 20.7ha이던 포도 재배 면적이 1983년에는 7.3ha로 줄어들었다. 불과 10년 만에 진행된 이런 변화는 안양의 포도 산업에 큰 타격을 입혔다.

안양에서 ‘푸른 포도원’을 운영한 김은석(남, 1969년생)에 따르면, 안양에서 포도 농업이 쇠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도시 개발로 인한 땅의 수용과 농민들의 이주였다. 안양은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며 구도심은 만안구로, 평촌을 포함한 신도시 지역은 동안



안양유원지 입구의 포도 노점(1969년, 국가기록원 제공)

구로 1992년에 분구되었다.⁷ 이 과정에서 포도 농사를 많이 짓던 호계동, 평촌동, 비산동, 관양동 등의 농경지가 평촌신도시로 개발되면서 많은 포도 농가가 해체되었고, 안양에서는 대규모 포도 재배가 어려워졌다. 결국, 땅을 잃은 포도 농가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포도 재배를 그만두어야 했는데, 당시 일부 농민은 광명·군포·의왕 등 인근 지역으로 이주해 포도 농업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안양의 도시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농업·농촌은 외곽으로 밀려나고, 그 자리에 주택단지와 각종 산업단지가 대신 들어서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 1970년대부터 급속도로 성장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안양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산업단지의 조성 and 주거 환경의 개선은 사회적 변화와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포도와 같은 전통 농업은 점차 사라졌다. 이는 단순히 농업 경제의 쇠퇴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변화는 안양 지역의 농업 기반을 약화시켜 결국 안양포도의 명성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안양포도의 부흥을 위한 다양한 노력

평촌신도시 건설 이후,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 안양포도를 부흥시키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당시 안양시장들은 안양에 포도 재배를 다시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안양시는 1995년 동안구 관양동 동편마을과 만안구 석수동 석산 지구 일대 약 3만 평을 포도농원으로 조성하기로 하는 등 포도 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다.⁸ 김은석 가족이 운영한 ‘푸른 포도원’은 관양동에 있었다.

김은석 : 지방자치제가 시작이 되면서 신중대라는 안양시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공약 사항에 “옛날에 안양의 포도가 되게 유명했는데 그것을 다시 되살리겠다. 안양 명물 포도를 만들겠다.” 이런 선거 공약을 내세워서 그 분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서 후속 작업으로 1995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신청자들을 받았죠.

면답자 : 그러면 95년도 직전에는 포도밭이 하나도 없었나요?

김은석 : 유원지 쪽에. 유원지가 관광 이런 거니까. 그쪽에 조금. (중략)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안양에는 포도가 이 명맥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호계동 쪽에 가면 지역 이름이 ‘포도원’이라고 있어요. 버스 정거장에 ‘포도원’ 이렇게 찍혀 있을 정도로 호계동에는 포도밭이 엄청 많았고, 안양 시내에도 많았죠. 근데 시내가 가장 먼저 개발되니까 바깥쪽으로 빠져나간 거죠. (중략) 7·4 남북 공동성명 때 북한 대표가 와서 회의를 하기 직전에 “안양의 포도는 아직도 맛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안양포도가 아주 유명해졌죠. 계기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분이 70년대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60년대·50년대도 포도밭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중략) 1995년도가 이제 내가 대학 졸업할 때야. 우리 아버님이 포도를 신청을 했는데, 보조금을 주겠다. 2,500만 원 보조금이 나왔어요. “이 밭을 포도밭으로 만들어라!” 근데 언제까지? 12월 말까지!

김은석은 1995년부터 해당 정책의 지원자 모집이 시작되었으며, 아버지가 보조금을 받아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이 시기를 회상하며 안양포도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고, 수확량도 점차 늘어났다고 설명하였다. 김은석은 안양시의 여러 지원이 농가에 큰 힘이 되었으며, 안양포도가 다시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안양시의 지원으로 포도 재배 농가 수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까지 포도 경작지는 계속 줄어들다가 1996년에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안양의 마스코트 '포동이'

1997년에는 생산량이 전년 대비 9배나 늘었으며, 2000년에는 98.5톤에 달하는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안양시의 포도 부흥을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이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96년에는 안양시의 공식 마스코트로 포도를 형상화한 '포동이'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안양 지역 농민들도 시와 협력하여 안양포도의 부흥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우선 안산 대부도, 화성 송산 등지에서 묘목을 들여왔다. 두 지역의 묘목은 본래 안양포도의 묘목이 전해진 것이어서 안양포도의 명맥을 되살리는 데 적합하였다.

김은석 : 안양에서 포도가 유명해져가지고, 대부도나 송산으로 우리 묘목이 나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양시에서 우리는 이제 포도밭이 다 없어졌는데. 시장님이 저걸 하면서 품종을 가져오는데, “어디서 가져오냐?” 그랬더니 “안양 계 대부도로 갔으니, 대부도 거를 다시 가져오자 그래야 우리 본류지 않느냐?” 그랬가지고 모종을 거기서 사 온 거죠. 그리고 포도 농사짓는 게 내륙식이 있고, 내륙식은 뭐냐면, 안성포도처럼 나의 키보다 약간 높게 포도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가지는 여기 있지만, 요 가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내 키 정도. 그래서 걸어 다닐 수 있고. 송산이나 대부도는 바람이 세요. 나무가 키가 높으면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낮게 키워요. 그래서 송산포도는 가 보면 나무가 낮아요. 키가 이 정도밖에 안 돼,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포도 처음 시작할 때, 안성 스타일로 할 거냐 아니면 저거 스타일로 할 거냐. 근데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각자 하자.” 그래서 가보면, 이제 서로 포도나무 수형이 달라요. 내륙은 바람이 별로 없으니까 높게 키워서 공기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거고, 해안가는 바람이 너무 세니까 낮춰가지고 키우는 거고. 겨울에 얼어 죽으니까. 이 가지 끝부터 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낮아야 바람에 덜 타니까.

안양 지역 농민들은 포도 작목반을 만들었다. 작목반은 매달 중요한 사항을 의논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포도 농업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기술 견학 일정 등을 논의하는 모임을 하기도 했다. 또한 포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재배 방식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도 재배지의 방식을 참고하여 안양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으며, 포도주 개발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연구도 이어졌다.

국가 공인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을 인증받고, 토양·수질·잔류농약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고품질의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안양포도의 명성을 되살리는 데 큰 힘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포도가 주로 생식으로 소비되지만, 포도는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어 소비된다. 포도주·주스·건포도·젤리·식초 등 여러 가공품으로 활용되면서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각각의 제품은 소비 시장에서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김은석에 따르면, 많은 포도 농가에서 포도를 생식용으로 판매하였으나, 포도주·포도즙·포도잼 등 농장 고유의 특성을 담은 제품 개발에도 힘썼다고 한다.

김은석 : 보통 포도의 본격적인 일은 이제 4월 하순부터 시작한다라고 보면 돼요. 4월

중하순부터는 이제 잎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4

월 초부터는 여러 가지 일을 준비를 하죠. 밑

작업을. 4월이 이제 농사의 가장 시작이

거든요. (중략) 기본적으로 이제 나무껍

질 벗겨주고 뭐 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

제 2~3월부터 계속 시작하는 거예

요. (중략) 봉지는 이제 좀 빨리 씌우

면 6월 중순, 근데 이제 늦게 하시는

분들은 늦게까지 알 수 없게 하고. 포

도가 이제 착색되기 직전, 그래서 8

월 초까지도 저 시골에서는 그렇게 해

요. 근데 안양시에서는 자원봉사자들

을 이제 직접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농협하고, 안양시 자원봉사단체, 이런



푸른 포도원에서 생산한 포도주와 포드즙 상품(김은석 제공)



김은석 가족이 운영했던 관양동 푸른 포도원 전경(김은석 제공)

쪽으로 해가지고 와서 한 번에 왕창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해주죠. (중략) 집안마다 다 다른데, 평수가 작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다 수확을 하죠. 근데 우리도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포도를 팔고, 나는 안에서 따는 사람이니까. 포도 딸 때는 동네 주민들 중에 인맥이, 우리는 여기서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알바생을 구하죠. 그분들 중에 젊고, 눈썹미 있고, 이런 분들 한 2~3명을 제가 해가지고 포도 따는 법을 계속 저걸 하고. 그다음에 “되면은 올라올에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그분들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래 하신 분은 10년 넘게 가을에 우리 밭에서 알바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김은석은 포도가 재배 과정에서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라고 설명하였다. 포도송이를 예쁘게 만들고 당도를 유지하기 위해 알을 솥아 주어야 하며, 가지치기, 일조량 조절 등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포도는 봉지를 씌우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여러 이유가 있다. 과일은 햇볕을 먼저 받는 쪽이 빨리 익기 때문에 봉지를 씌워 고르게 착색되도록 한다. 또한 봉지를 씌우면 농약이 과실 표면에 직접 닿지 않게 되고, 병충해나 비로 인한 낙과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다.

안양시는 자원봉사자들과 포도 농가를 연결하여 농번기에 일손을 돕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김은석은 이들이 봉지 씌우기와 같은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맡았었다고 설명하였다. 반대로 포도 수확은 매우 중요하고 기술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매년 수확기가 되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같은 마을 주민이었으며, 10년 넘게 한 농장에서 수확 때마다 포도를 따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안양시는 사라져 가는 안양포도를 보존하기 위해 2017년 「안양포도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포도 재배 농가를 지원하고, 포도공원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같은 해 9월에는 1970년대 나들이 명소였던 안양 지역 포도원의 향수를 되살리고 어린이들의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힐링포도 텃밭터널’을 조성하였다. 평촌대로 부림중학교 옆 보도에 80m 길이로 조성된 이 터널은 안양시 마스크트 ‘포동이’의 이름을 따 ‘포동이길’로 명명되었으며, 시민들의 새로운 쉼터로 자리 잡았다. 포동이길은 포도덩굴이 우거져 그늘을 제공하고, 방문객들이 포도의 역사를 체험하며 포도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⁹

안양포도는 주로 산지 직거래 형태로 유통되지만, 대중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과거에는 안양유원지 주변과 중앙시장에서 포도를 구매하는 관광객이 많았으나 현재는 이러한 유통 경로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양시는 포도 농가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포도 봉지·상자 지원, 자원봉사 인력을 통한 농



안양농협 직원의 포도 봉지 씌우기 지원(안양시청 제공)



숙련도가 필요한 포도 수확(이정범 제공)



제5회 포도미술제 개막식
(1996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포동이길'로 이름 지은 힐링포도농쿨터널



2016 안양시민축제 안양명물 포도 부스
(김은석 제공)

가 돕기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확대하여 소비자들이 신선한 안양포도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안양시청 고용경제과 도시농업팀에서는 포도 재배 농가의 위치와 구입 안내를 직접 연결해 주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이 밖에도 포도 묘목 사업을 비롯해, ‘안양시민축제’·‘포도미술제’와 같은 문화 행사에서 안양포도를 소개하고 지역 문화를 연결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포도미술제는 포도 수확철에 맞춰 열리며, 포도를 주제로 한 예술 작품 전시, 포도 시음회, 포도 수확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행사는 안양포도를 홍보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포도의 가치를 재인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안양포도의 당도가 높은 이유

김은석은 안양에서 포도를 재배하기 위해 여러 품종을 시험 재배하였고, 그중 안양의 기후와 가장 잘 맞는 ‘캠벨 얼리(Campbell Early)’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흔히 ‘캠벨’이라 불리는 이 품종은 추위에 강하고, 일반 포도의 당도가 15~16브릭스(Brix)인데 비해 19~20브릭스(Brix)의 높은 당도를 자랑한다. 안양은 여름철 비교적 높은 기온과 충분한 일조량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는 캠벨 얼리가 최상의 당도와 맛을 내는 데 적합한 조건이었다. 캠벨 얼리는 병충해에도 강하여 특별한 방제 조치 없이도 잘 자랄 수 있었기 때문에, 농업 기술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당시에도 안정적인 수확을 기대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청포도, 히르로드 시들리스(Himrod Seedless), 델라웨어(Delaware) 등의 품종이 안양에서 널리 재배되었다.

김은석 : 안양은 장점이 인구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출하를 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직접 소매를 했어요.

면담자 : 직접 포도원에서 소매를 하면 그게 거의 전량 소진이 되는?

김은석 : 전량 소진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포도가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당시에 시장님이 라디오·TV 이런 매체를 동원해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 여행’인가? KBS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우리 포도밭이 나오기도 했고. 또는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포도에 대한, 95년도부터니까, 한 97년도부터는 본격적인 홍보를 했죠. 그래서 당시에 시장님 모시고 포도 품평회도 했고, 그래서 지역 신문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홍보가 됐었죠. 안양만 해도 내수 시장이 가능하지만, 또 그 옆에 여러



캠벨 얼리(김은석 제공)



청포도(김은석 제공)

시군이 있고, 그래서 그들도 많이 오고 그랬었어요. 그런 것들은 홍보에 도움이 많이 됐죠.

면담자 : 안양포도가 다른 지역 포도와 뭔가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김은석 : 이게 산지에서 파는 거의 장점이 뭐냐면. 지방에서 포도 농사를 짓게 되면 가락동 농산물시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경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하루라도 빨리 따서 보내야 가격이 좋으니까, 완성도가 좀 떨어져요. 완전히 무르익어서 보내지 않아요. 완전히 무르익어서 보내 버리면 송이의 알도 빨리 떨어질뿐더러 보관 기간이 짧아져요. 그러다 보니 한 3일 후에 따면 제일 맛있을 것 같으면 먼저 따요. 그래가지고 출하를 해버리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익은 걸 저거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당도 면에서. 캠벨 포도가 전국 평균이 당도를 브릭스(Brix)라고 하는데 14~15브릭스가 나와요. 안양은 평균 17브릭스가 나왔어요. 엄청 단 거죠. 최고 제가 19브릭스까지 찍어 봤어요.

김은석은 안양포도가 다른 지역 포도보다 높은 당도를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기후와 품종의 특성 외에 한 가지를 더 꼽았다. 그는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덕분에 안양포도는 멀리 운송할 필요 없이 근교 지역에서 신선하게 소비될 수 있었으며, 이것이 다른 지역 포도와 차별화를 이루었다고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안양포도는 완전히 익은 상태에서 수확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 포도보다 당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다른



안양포도 산지 직판장(2007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지역에서는 유통을 위해 덜 익은 포도를 수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안양포도는 근교 소비를 목적으로 완숙된 상태에서 수확되어 당도가 높고 맛이 뛰어났다.

4. 다시 쇠퇴 위기에 놓인 안양포도

부단한 노력 끝에 되살아난 안양의 포도는 다시금 도시 개발의 물결에 밀려났다. 특히 2010년 관양지구 택지 조성과 2011년 비산체육공원 조성으로 포도 농가가 줄어들었다. 안양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 11.4ha이던 포도 재배 면적은 2008년부터 6.9ha로 급감하였는데, 이때부터 개발 계획이 본격화되며 토지 수용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포도 재배 면적은 계속 줄어들어 2022년 기준으로는 2.4ha만 남아 있을 뿐이다. 포도 생산량 또한 1990년대 포도 부흥정책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김은석 : 동편마을이 없어졌을 때 작목반이나 이런 게 제일 충격이 컸죠. 절반 이상이 빠져나가서. 인덕원 쪽에 세 팀이 있었고, 그리고 석수동 쪽에 두 팀이 있었어요. 그리고 관양동 관양지구 안에 두 팀이

있었고, 그 외에는 다 동편에 있었죠. 동편이 핵심이죠. 따지고 보면. 근데 거기가 없어지면서 면적도 가장 큰 데가 없어졌고. 회원도 가장 많은 데가 없어졌고. 그게 아마 2천년대 초반인가? 2005년도 지나서였을 거니까, 한참 활성화되다가 그렇게. 다들 개발은 반대를 하죠. 근데 개인 힘으로 저거 되는 건 아니잖아. 거기서도 당연히들 반발들이 많았죠. (중략) 평촌이 개발되고, 막 이래가지고, 안양의 농토가 이제 동편이 남아 있을, 동편만 제일 큰 단지였거든요. 그러다가 동편도 그렇게 됐지만. 평촌 다음엔 동편이죠. 한참 번성할 때는 작목반 포도 농사짓는 분이 한 1/10 이렇게 됐었어요. 포도 작목반이 따로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다섯 분이 하고는 있어도 그래도 안양의 명맥을 이어간다 해서 아직은 작목반 형태가 있어서 안양 농협이나 이런 데서 포도 봉지 같은 거 저렴하게, 박스 이런 거 지원 사업. 안양시에서도 지금 박스 지원해줘요. 저렴하게 그런 거 해주고 있고. 그런데 동편이 없어지면서 포도 농가가 확 줄어들었죠. 그리고 여기가 수용되면서 또 멈추어버렸죠.¹⁰ 그래서 지금은 명목만 있다시피 한데 그래도 그 전에 한 2만 몇천 평이 됐었어요. 3만 평 가까이 됐었어요, 안양시에서 포도 농사가. 근데 지금 다 합쳐도 만 평이 안 될 거예요. 다섯 분 남아 계신데 (중략) 작목반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알 수 없어.

안양에서 1990년대 포도 부흥정책과 맞물려 가장 성장세를 보였던 동편마을이 개발되면서 많은 포도 농가가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도 연이어 개발이 이어졌고, 김은석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남아 있는 포도 농가는 관양동과 석수동의 다섯 곳뿐이다. 도시 개발의 압력은 계속해서 포도를 비롯한 농업 지역을 축소시키고 있으며, 포도 재배를 지원하는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포도 농사를 지을 만한 토지와 경제적 조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남아 있는 포도 재배 농가 대부분이 고령화된 점도 명맥을 이어 가는 데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안양 사람들에게 포도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상징적 존재로 남아 있다. 안양포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도시와 농업이 공존하던 과거 안양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다. 이러한 안양포도의 역사는 도시화와 산업화 속에서 지역 특산물을 지켜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의 과정을 보여준다. 안양포도는 안양의 특산물이자 지역 경제와 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농산물이었다.

안양시는 포도의 역사를 보존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 가고 있다. 포도 재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술 지원과 보조금을 확대하고,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여 농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지원 사업, 유통 구조 개선, 문화적 연계 활동 등을 통해 안양포도를 부활시키고 이를 지역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2023년 인덕원 포도원에서의 포도 수확

다시 자리매김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안양시는 포도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대중화를 위해 김중업건축박물관 주변 등에 포도 재배를 활성화하고, 새로 조성하는 공원에 포도와 관련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¹¹

이는 안양포도의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안양시는 또한 포도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농업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포도밭 체험, 포도 수확, 포도주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은 안양포도의 전통과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

안양포도의 부흥과 쇠퇴를 직접 경험한 김은석의 설명은 안양포도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자산임을 잘 보여준다. 그는 안양포도의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하기 위해 안양시와 농민들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안양포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지역의 농업사를 넘어, 도시화와 산업화 속에서 지역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과 그 속에서 피어난 문화적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안양포도는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문화의 중요한 일부였다. 포도 농가는 대체로 가족 단위로 운영되었으며,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포도 수확기가 되면 마을 전체가 활기를 띠었고, 포도 수확 축제와 같은 행사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중요한 문화 행사였다. 안양포도는 안양의 역사이자 지역 문화의 일부로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참고자료

- 김학렬, 『부자의 지도: 다시 쓰는 택리지』, 베리북, 2016.
- 안양문화원, 『안양 근대사 산책』, 흥익문화인쇄사, 2017.
- 안양문화원, 『안양문화 제 15호』, 안양문화원, 2016.
- 안양문화원, 『안양문화원 향토사료 제 1집: 안양의 역사와 문화』, 학연문화사, 1998.
- 안양학연구소, 『이야기로 듣는 안양 근대사 I』,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 2016.
- 장석주, 『장소의 기억을 꺼내다』, 경기문화재단, 2007.
- 「석산지구 3만여 평 포도농원 조성키로 안양시」, 『동아일보』, 1995년 5월 30일.
- 「안양 관양1동, 명물 포도 묘목사업 추진」, 『중부일보』, 2014년 4월 13일.
- 「안양 명물포도 이대로 사라지는가?」, 『중부일보』, 2017년 3월 6일.
- 「안양 비산동에 대규모 근린공원 조성 안양의 상징 포도 형상화」, 『경기일보』, 2024년 4월 15일.
- 「안양 유원지 60년대 가족나들이객 - 미팅족 북적」, 『조선일보』, 1997년 11월 18일.
- 「安養(안양)포도」, 『조선일보』, 1997년 3월 9일.
- 「안양명물 '안양포도' 옛 명성 되살린다」, 『서울Pn』, 2017년 7월 10일.
- 「안양시, 도심에 안양명물 포도 넝쿨 터널 80m 조성」, 『서울Pn』, 2017년 9월 26일.
- 「안양시, 옛 안양포도 명성 알리기 위해 포도넝쿨 터널 조성」, 『아시아투데이』, 2017년 9월 26일.
- 「안양시, 포도단지 대폭 확대키로」, 『연합뉴스』, 1999년 10월 19일.
- 「안양의 명물, 안양포도에 대하여 ...」, 『안양광역신문』, 2015년 9월 18일.
- 「안양포도 과거 명성 되찾는다」, 『오마이뉴스』, 2004년 8월 12일.
- 「안양포도 옛 명성 회복 나섰다」, 『연합뉴스』, 2006년 8월 21일.
- 「안양포도' 옛명성 되살린다」, 『한겨레』, 2004년 8월 11일.
- 「천 년의 역사 위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안양예술공원」, 『오마이뉴스』, 2024년 10월 14일.
- 「최고 당도 자랑하는안양포도 본격 출시」, 『연합뉴스』, 2004년 8월 11일.
- 「한국미술협회 안양지부, 포도미술제개최」, 『뉴시스』, 2006년 10월 8일.
- 안양시청(<https://www.anyang.go.kr/>).

註

- 1 「안양포도 수확...서울 최저 18.8」, 『동아일보』, 1977년 8월 12일.
- 2 「貴當(관당) 130원 예상」, 『매일경제』, 1967년 7월 14일.
- 3 안양시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
- 4 「安養(안양)포도」, 『조선일보』, 1997년 3월 9일; 안양학연구소, 『이야기로 듣는 안양 근대사 I』,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 2016; 장석주, 『장소의 기억을 꺼내다』, 경기문화재단, 2007; 「안양의 명물, 안양포도에 대하여 ...」, 『안양광역신문』, 2015년 9월 18일; 「안양 명물포도 이대로 사라지는가?」, 『중부일보』, 2017년 3월 6일.
- 5 안양시는 2000년대에 들어서 안양유원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는데, 2005년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안양유원지를 야외 박물관으로 만들면서 '안양예술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6 「안양 유원지 60년대 가족나들이객 - 미팅족 북적」, 『조선일보』, 1997년 11월 18일.
- 7 김학렬, 『부자의 지도: 다시 쓰는 택리지』, 베리북, 2016.
- 8 「석산지구 3萬(만)여평 포도농원 조성키로 안양시」, 『동아일보』, 1995년 5월 30일.
- 9 「안양시, 옛 안양포도 명성 알리기 위해 포도넝쿨 터널 조성」, 『아시아투데이』, 2017년 9월 26일.
- 10 김은석이 운영하던 푸른 포도원은 관양고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문을 닫았다.
- 11 「안양 비산동에 대규모 근린공원 조성 안양의 상징 포도 형상화」, 『경기일보』, 2024년 4월 15일.

제3장

아이들의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여는 해밀지역아동센터

정한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석사



1. 수촌마을 아이들의 쉼터, 해밀지역아동센터

해밀지역아동센터는 관양동 수촌마을 덕원아파트 옆에 자리하여 지역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 시설이다. 수촌마을 대로변 근처에는 안양의 명물인 떡자골목이 있어 많은 사람이 찾는 변화가를 이룬다. 그러나 한 블록만 지나면 좁은 일방통행로 양옆으로 작은 빌라들이 뻗뻗하게 늘어선 빌라촌이 펼쳐진다. 이 지역은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높아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저녁 시간 전에는 부모가 아동을 직접 돌보기 어려운 가정이 많은 편이다.

이윤주 센터장은 22년째 해밀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03년 동안지역아동센터로 시작하였으며, 돌봄 아동 인원이 늘어나면서 2009년에는 해밀지역아동센터를 추가로 열게 되었다. 층간소음 걱정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찾던 중, 사설 노인정으로 운영되던 건물이 임대로 나오면서 되면서 지금의 위치에 해밀지역아동센터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 결과 실내에서 자유롭게 노는 공간이 확보되었고, 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워 아이들이 센터를 다니기에도 한결 좋아졌다.

이후 2016년에는 아동 수가 줄어 두 센터를 하나로 통합하여 해밀지역아동센터만 운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2024년 8월부터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함께 운영하면서 우선돌봄 아동과 일반 아동을 분리하고, 우선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해밀지역아동센터 건물 1층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다락방, 자치회의와 식사 공간으로도 활용되는 집단 프로그램실, 그리고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다. 2층에는 뮤지컬 프로그램실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들이



관양동 수촌마을에 위치한 해밀지역아동센터

마련되어 있다. 건물 밖 마당은 아이들이 줄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종종 활용된다.

해밀지역아동센터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 해밀지역아동센터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듣기 위해 이윤주 센터장과 최민호 사회 복지사를 만나 보았다.

2. 아이들의 하루, 배움과 돌봄의 일상

학기 중 평일, 해밀지역아동센터는 오전 10시에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한다. 오전에는 시설을 청소하고 행정 업무를 처리하며, 점심 이후 아이들이 센터에 등원하는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동 돌봄 업무가 이어진다. 조사자가 해밀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한 날에도 인터뷰 도중 초등학교 하교 시간이 되어 아이들이 센터로 들어왔다. 해밀지역아동센터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아이들은 오자마자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넣어 두고 곧장 까르르 웃으며 1층 공용 공간을 뛰어다니기 시작하였다. 차분했던 공간



해밀지역아동센터

은 아이들의 목소리와 몸짓으로 가득 채워지며 금세 활기가 넘쳤다.

아이들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가 밝은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에 맺어진 끈끈한 관계를 짐작하게 했다. 한 아이는 센터장을 찾아와 점심 이후 배가 아팠다고 털어놓았다. 센터장은 아이의 상태를 차분히 살피며 약을 챙겨 주었고, 덕분에 아이는 곧 심각한 표정을 풀고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어울렸다. 또 다른 아이는 학교 체험학습에서 시장에 다녀왔다고 자신이 산 복숭아를 수줍게 꺼내어 센터장과 조사자에게 건네기도 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센터 곳곳을 뛰어다니며 논다면, 고학년 아이들은 1층 다락방에 모여 앉아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다.

이처럼 선생님께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어느새 오후 3시,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시간이 된다. 조사자가 방문한 날은 초등학교 3학년 대상 수학 수업과 음악 수업이 진행되었다. 수학 수업은 세 명이 참여한 소규모 수업으로, 아이들이 문제집을 풀면 선생님이 채점 후 부족한 부분을 보충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1층에서 정신없이 뛰어놀던 아이들은 책상 앞에 앉아 골똘



해밀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활동(해밀지역아동센터 제공)

히 문제를 풀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들은 각자의 속도에 맞추어 학습하고, 선생님은 아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설명하며 보강해 주었다. 수학 선생님에 따르면, 학교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던 아이들도 이렇게 기본기를 다지면 학년이 올라가도 잘 따라간다고 한다.

이어진 음악 수업은 선생님이 피아노 반주를 하며 일곱 명의 아이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선생님이 이동식 건반을 바닥에 두고 앉자 아이들은 건반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노래 부를 준비를 하였다. 음악 수업은 특성상 아이들이 발언할 기회가 많아 수학 수업보다 더 활기가 넘쳤다. 한 아이가 발표하면 나머지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해 수업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 수업은 동요의 일부 가사를 자신의 꿈에 맞게 고쳐 불러 보는 활동이었다. 처음에는 외부인을 의식해 머뭇거리던 아이들도 곧 신나게 노래하고, 때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무까지 곁들이며 무대를 즐겼다.

해밀지역아동센터에서는 영어, 뮤지컬, 한문,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한국어, 심리치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단순히 학업에 도움이 되는 수업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이윤주의 생각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된 뮤지컬 수업은 아이들이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고, 자신을 표현하는 연습의 장이 되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이윤주의 이야기 속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뮤지컬 수업이야말로 아이들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찾아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윤주 : 학기 초에 뮤지컬 선생님이 학교에 가서 ‘나를 소개하기’ 활동을 했는데, 아이들이 그걸 잘 못 해서 선생님이 며칠간 속상해하더라고요. 학생회장으로 출마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친구들 앞에서 ‘나는 누구고 무얼 좋아하고 무얼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략) 학교에 가면 (자신보다) 공부 잘하고 예쁘고 똑똑한 애들이 있으니까, 기가 죽는 거죠.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으로 학교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던 시기,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심해졌다. 이윤주는 당시 전자기기로 수업을 듣는 아이를 지켜보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고 회상한다.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며 질문해도 대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악기 연주가 필요한 음악 수업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이었다. 같은

비대면 수업임에도 어떤 아이는 또렷하게 대답하는 반면, 해밀지역아동센터에서 돌보는 아동들은 수업을 따라가기조차 힘겨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개설된 것이 바로 뮤지컬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아이들이 적극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대본 외우기를 싫어하며 수업을 거부하는 아이도 있었다. 그러나 전환점은 지난해 어린이날에 찾아왔다. 안양시청 강당에서 안중근을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을 공연한 것이다. 비록 10분 남짓한 짧은 무대였지만, 아이들은 배우로서 사람들 앞에 서서 공연하고 박수를 받는 경험을 하였다. 그 강렬한 기억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 주었고, 그날 이후 아이들은 뮤지컬 배우를 꿈꾸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지금의 뮤지컬 수업은 놀이와 다름없다. 아이들은 즉흥 연기를 즐기며 자신을 마음껏 표현한다. 이를테면 선생님이 나무젓가락 하나를 건네주면, 그것을 이용해 즉석에서 상황을 꾸며 서로에게 선보인다. 재미와 몰입 속에서 뮤지컬 수업은 이제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다.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해밀지역아동센터는 자치 회의를 통해 아이들이 토의하고 의견을 모으는 경험을 제공한다. 자치 회의는 1년에 네 차례 열리며, 주말이나 방학에 가고 싶은 곳과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묻는다. 회의라는 형식이 자칫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해밀지역아동센터 공동체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밝힌다. 참여하는 아이들의 연령대는 다양하지만, 나이에 주눅 들지 않고 각자의 언어로 생각을 표현한다.

논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개입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선거로 뽑힌 회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수십 명이 내는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때로는 결정된 안전에 대해 자기 생각과 다르다며 고집을 부리는 아이도 있다. 이럴 때 단호하게 제지하면서도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선생님의 몫이다. 분명 품이 많이 드는 과정이지만, 이윤주는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말한다. 과거에는 공지하면 대체로 따르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대부분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되묻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활동이라도 강제로 참여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해밀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자치 회의는 아이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창구로서 역할을 한다.

자치 회의뿐만 아니라, 해밀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은 크고 작은 결정에서도 아이들의 의견을 묻고 존중하며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식구’라는 말이 ‘같이 밥을 먹는



해밀지역아동센터 뮤지컬 연습(해밀지역아동센터 제공)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듯, 이윤주는 해밀지역아동센터 구성원들이 함께 밥을 먹으며 끈 끈해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주방 조리사를 상주시켜 식비를 아끼지 않을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먹고 싶은 메뉴를 묻고 원하는 음식을 직접 해 준다.

주말 야외활동 프로그램 기획에서도 아이들의 선호가 중요하게 반영된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근처 안양종합운동장으로 소풍을 가기도 하고, 놀이공원이나 영화관을 찾기도 한다. 이렇게 야외에서 함께 어울리는 경험은 아이들이 해밀지역아동센터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처럼 보인다. 평소에는 나이 차이로 인해 교류가 적은 편이지만, 방학마다 열리는 캠프에서는 자연스럽게 중학생이 초등 저학년의 보호자가 되어 챙기고 돌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해밀지역아동센터에서의 끈끈한 경험 덕분에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센터를 떠난 이후에도 인연을 이어 가곤 한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인사를 오거나, 대학에 진학한 뒤 해밀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하며 돌봄 교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현재 해밀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 중인 최민호 사회복지사 역시 초등학교 4학년 때 동안지역아동센터에서 이윤주 센터장을 처음 만나 지금까지 17년간 인연을 이어 오고



독도와 울릉도를 방문한 여름방학 캠프(해밀지역아동센터 제공)

있다. 그는 대학에 진학한 뒤 돌봄 교사와 야간 보호 교사로 3년간 해밀지역아동센터에서 일했고, 이후 사회복지사가 되어 4년째 근무 중이다.

최민호는 해밀지역아동센터에서 받은 지원과 감사의 경험이 자신도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그 결과 대학 진학 시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하게 되었고, 지금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그는 “해밀지역아동센터에서 맺은 인연은 센터를 떠나도 끝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성인이 된 해밀지역아동센터 출신 남학생들은 지금도 그를 ‘형’이라 부르며 따른다. 그는 이들을 위해 은행 업무를 도와주거나, 군 제대 후 취업과 대학 진학을 함께 고민하며 끈끈한 관계를 이어 가고 있다.

3. 공공성 속의 도전과 과제

이윤주는 센터장은 해밀지역아동센터는 공공의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지역아동센터가 공공성을 지닌다는 사실에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입장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해밀지역아동센터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시기에 자체적으로 돌봄 아동 가정에 매일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을 진행했으며, 명절에는 명절 음식과 과일을 가정에 전달해 왔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이를 국가에서 당연히 제공해야 할 서비스로 여기기도 하였다. 이윤주는 “무언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고마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며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하였다. 오히려 도시락 반찬이 빠졌다거나 집에 사람이 없을 때 배달을 왔으며 항의 전화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배달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아동 돌봄과 관련해서도 일부 부모는 해밀지역아동센터와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윤주가 말한 ‘공공성’은 바로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도 지켜내야 할 해밀지역아동센터의 중요한 가치였다.

최민호 : 부모님들이 주는 민원들도 굉장히 많죠. “너희는 국가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데, 니네들이 왜 참 견질이야?” 이런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되지. 니네 어차피 국가에서 돈 받잖아”라고 얘기하시면서, (중략) 저희 사업이 모두 세금으로 운영되는 줄 아세요. 그런 민원 받을 때 가끔은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목머어야 하는 직업인가.’ 그럴 때는 저도 조금 현타가 오죠. 뭐 아이들이 다쳤거나 이런 부분을 놓쳤다는 민원은 저희가 언제든지 수용해야 하고 바뀌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낸 세금으로 일하면서 감히 니네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민원이 제일 힘들어요.

최민호 사회복지사의 이야기는 부모들이 해밀지역아동센터를 아이 양육의 조력자로 여기기보다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일부 부모의 생각과 달리 해밀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은 다양한 재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역아동센터는 국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하지만, 민간에 위탁해 운영되는 민간 기관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소한의 인건비와 냉난방비, 전기·수도 요금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해밀지역아동센터가 꾸준히 사업 공모전에 참여해 확보하고 있다. 그 덕분에 건물을 수업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하고, 예체능 수업도 안



해밀지역아동센터 이윤주 센터장

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공모전 지원비가 해밀지역아동센터의 자율적 운영비가 아니라 지정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임에도 기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지속에 한계를 겪는 경우가 있다. 그 밖의 건물 임대료와 시설 유지비는 고스란히 센터장이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 대신 학원에 보내는 것을 고려하는 부모들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 큰 빚을 지거나 수입이 끊긴 가정에서도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있으며, 초등 저학년 아이가 서너 곳의 학원에 다니는 사례도 있다. 외부인의 눈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학원들이어서 이해하기 쉽지 않다. 조사 과정에서 돌봄 아동의 부모와 직접 대화할 기회는 없었지만, 오랜 시간 아이들과 함께해 온 해밀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들의 말에 따르면 여기에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른바 ‘학원 열풍’은 단순히 부모의 교육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해밀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이미 느린 학습자를 위한 수업, 대학생 멘토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부모가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데



해밀지역아동센터 영어 수업(해밀지역아동센터 제공)



구강검진(해밀지역아동센터 제공)

는, 학습 자체보다 자녀의 교우관계를 고려한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최민호 : 요즘은 안 다니면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끼리 너희 집은 에어컨이 몇 대냐, 네 방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냐 이런 걸로 따지고 비교하니까. 학원 몇 개 다니냐도 너희 집에 돈이 있네 없네를 말하는 거죠. (중략) 요즘 부모님은 돈을 써야 아이가 교우관계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치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가 다니는 학원의 수가 곧 가정의 경제 수준을 보여 주는 지표라는 설명은 주목할 만하다. 학교 내 빈부격차가 큰 상황에서,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가정은 자녀를 평촌의 유명 학원에 보낸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부모들은 자녀가 소외되는 것을 염려하여 학원비 지출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이목에 신경 쓰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아동센터는 학원과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다. 현재 법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50% 이내로 일반 아동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시선 때문에 해밀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사춘기 아이들 가운데 일부는 센터에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거부감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부모들이 지역아동센터 대신 학원에 아동 돌봄을 맡기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태권도 학원이다. 빌라촌 골목은 폭이 좁고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아이들에게 사고 위험이 크다. 그러나 태권도 학원은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끝나면 학원 차량이 정문 앞에서 아이들을 태우고, 수업이 끝난 뒤에는 집 앞까지 데려다준다. 부모로서는 어린 자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아이를 위해 보낸 학원이 오히려 아이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사의 눈으로 보기에 아이들이 학원 일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다. 센터에 다니는 한 아이의 여섯 살 막냇동생은, 오후 두 시에 어린이집이 끝나면 태권도 학원에 가서 밤 아홉 시까지 학원에서 시간을 보낸다. 저녁 다섯 시에 잠시 해밀지역아동센터에 와서 저녁을 먹고 돌아가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대부분을 태권도 학원에서 지내는 셈이다. 집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지만, 아이는 이러한 일정을 체력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이 해밀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들의 설명이다. 때로는 아이들이 먼저 해밀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에게 학원이 너무 힘들다거나 재미없다고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지역아동센터의 가치와 역할은 사설 학원과 비교되는 과정에서 그 공공



매월 열리는 생일파티(해밀지역아동센터 제공)



해밀지역아동센터의 저녁 식사(해밀지역아동센터 제공)

성이 축소될 위험에 놓여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해밀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함께 밥을 먹고 어울리며 시민됨을 경험하는 과정을 고려할 때, 해밀지역아동센터의 가치를 학원과 단순히 대비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윤주는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서비스가 저소득층 가정뿐만 아니라 같은 동네 아파트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서울로 출퇴근하는 부모의 현실적인 퇴근 시간을 고려하면 야간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올해 8월부터 시작한 ‘다같이 동행’ 프로그램에서는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야간 보호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밀지역아동센터의 왕성한 활동이 지역 사회의 인식을 바꾸어, 지역아동센터가 아동 돌봄의 중요한 공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4. 돌봄의 확장과 미래를 향한 동행

돌봄 아동 대상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해밀지역아동센터는 가족과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해밀지역아동센터의 일은 아이와 가족,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함께하는 일이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경로를 통해 아이 가정의 내밀한 사정을 알게 된다. 그러나 가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해밀지역아동센터가 심리상담 등으로 돕겠다고 개입하면, 많은 경우 부모들은 이를 불신하고 현금 지원을 원한다. 이는 신뢰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다.

이윤주는 “부모가 편안해야 가정이 편안하고, 그래야 아이들도 안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부모를 향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실제로 해밀지역아동센터는 시범 사업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를 3개월간 진행하였다. 상담 초기에는, 내담자인 부모들이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집안 사정을 들키는 것 같아 치료를 중단할까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행히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상담을 이어 간 덕분에 지금은 해밀지역아동센터를 신뢰하며 아이의 문제를 상의하는 관계로 발전하였다.

한편, 해밀지역아동센터는 3년 전부터 하루 동안 카페를 대관해 일일 찻집을 열고 있다. 이 행사의 수익금으로는 해밀지역아동센터에서 마을 노인들에게 김장 나눔을 진행하였다. 일일 찻집은 동네에 해밀지역아동센터의 존재를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어떤 주민은 다음번 행사가 열리면 자신도 꼭 불러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처럼



'나답게 크는 아이' 수료식(해밀지역아동센터 제공)

럼 지역 사회와 다양한 교류가 생겨나면서, 이제 이윤주는 마을 사람들에게 '동네 원장님'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 길을 걷다 보면 동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곤 한다.

시간이 필요한 일이지만, 이러한 활동들이 쌓이면서 지역 사회는 점차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있다. 해밀지역아동센터는 아동과 가정, 이웃이 함께 어울리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공동체를 꿈꾼다. 앞으로의 바람을 묻자, 이윤주 센터장은 해밀지역아동센터가 공공의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나의 부재 이후에도 다른 이들이 해밀지역아동센터를 이어받아 계속 성장시켜 주었으면 한다"고 대답하였다. 그의 바람처럼 해밀지역아동센터는 많은 이들과 함께 그려 갈 미래가 기대된다.

해밀지역아동센터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관의 운영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관양동 수촌마을에서 이어져 온 돌봄과 배움, 공동체와 공공성,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끈끈한 관계는 마을 전체를 성장시키는 힘이 되고 있다. 해밀지역아동센터가 걸어온 발자취는 오늘의 아이들뿐 아니라 내일의 어른들에게도 이어질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관양동에서 시작된 해밀지역아동센터의 여정은 앞으로도 마을과 함께 성장하며 지역 사회의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 줄 것이다.

집필(가나다순)

권희정	미혼모 아카이빙과 권익옹호연구소 소장
김용환	수원도시재단 차장
김정환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손승호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
송지영	광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강사
윤경숙	비그라운드 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소장
이동아	그려보다 대표
이승연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전은기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원
정미경	시인, 안양문인협회 이사
정수빈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박사수료
정한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석사
최미경	자유기고가

기획총괄

김현미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자료정리

설혜영, 김정서

편집·교정

이승연

어반스케치

서은주, 서향숙, 이강은, 하미경(안양어반스케치회)

안양시사 15 **관양동**

발행일 | 2025년 12월 15일

발행처 | 안양시사편찬위원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TEL. 031-8045-2064

디자인&인쇄 | 흥익기획
TEL. 02-2274-8110

발간등록번호

ISBN 979-11-94861-24-9

ISBN 979-11-94861-09-6 (세트)



THE HISTORY OF ANYANG CITY

9 773111 948614 >
ISBN 973-11-94861-4-9
ISBN 973-11-94861-4-9 (平装)
048610

中国书店/序